

재를 생산하는

KOREAN ARCHITECT

# 建築士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ugust 1991

# 사이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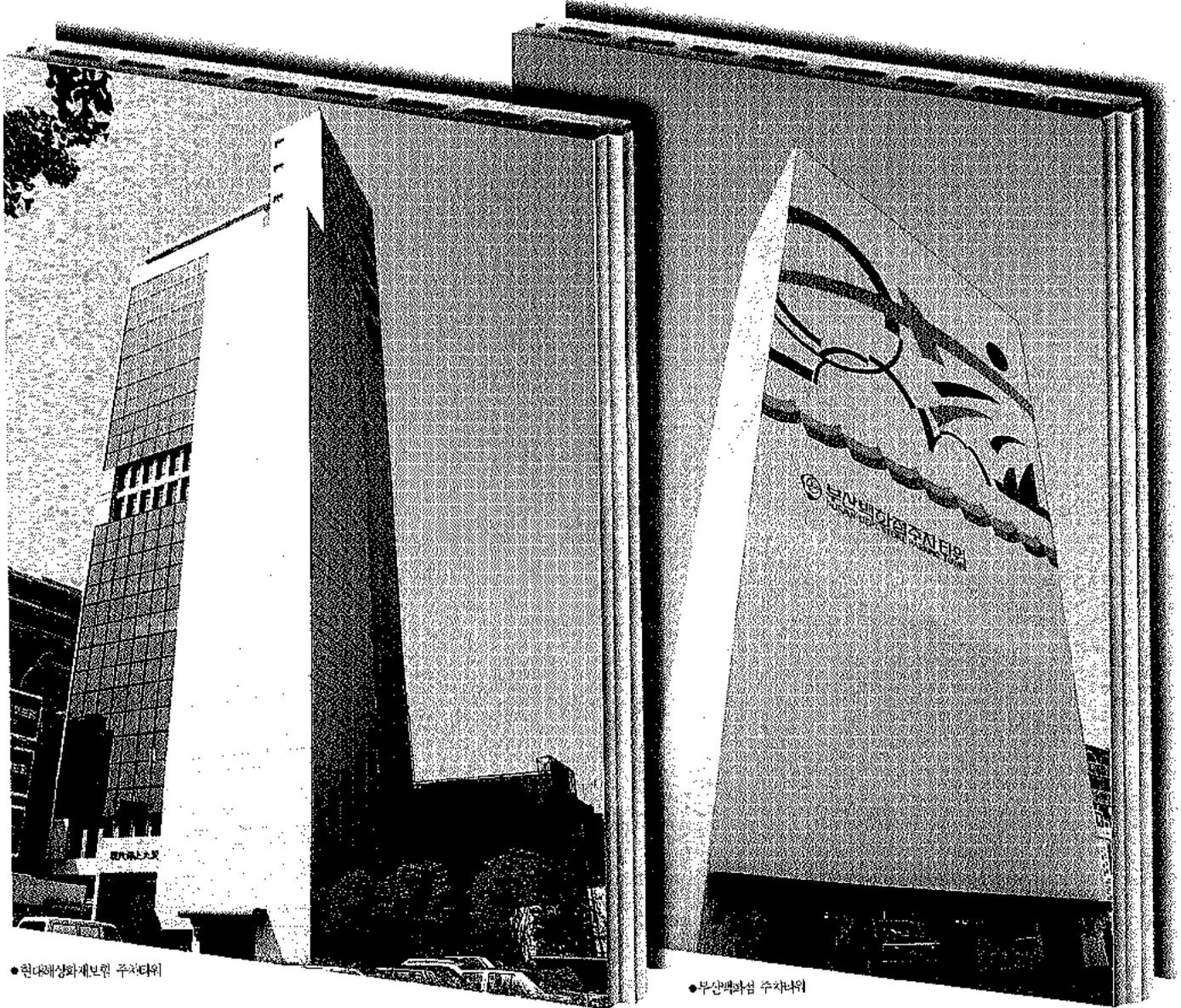
가는  
족시키는  
력이 뛰어나며  
은  
연출합니다.

카.

—  
토니®

#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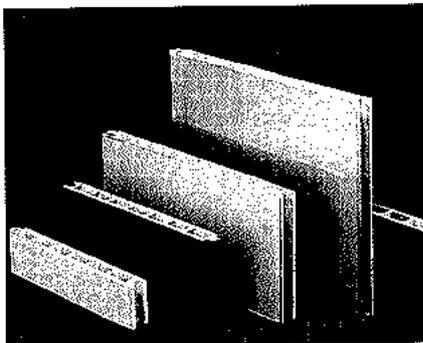
AUGUST



●현대세상화계보원 주차타워

●부산백화점 주차타워

# 가장 이상적인 외장재 베이스판넬 - 주차타워에도 잘 어울립니다.



베이스란 시멘트를 주원료로 진공 압출성형하여 생산되는 경량의 조립식판넬로서 제품 내부에 이상적인 공간이 형성되어 있어 강도가 높고, 차음, 내화, 단열성이 우수한 내구성 자재입니다.

- 경량성** / M<sup>2</sup> 당 무게가 50kg으로 건물의 구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내구성** / 내동결 융해성이 우수하고 강도가 높아 영구적입니다.
- 안정성** / 고압 증기 양생하므로 시공후 수축, 팽창, 뒤틀림이 전혀 없습니다.
- 의장성** / 건물의 외관에 따라 판넬의 표면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마감성** / 타일, 본타일, 페인트등 자유롭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 내진성** / 이상적인 조립방법에 의해 시공되므로 지진에 의한 충격을 흡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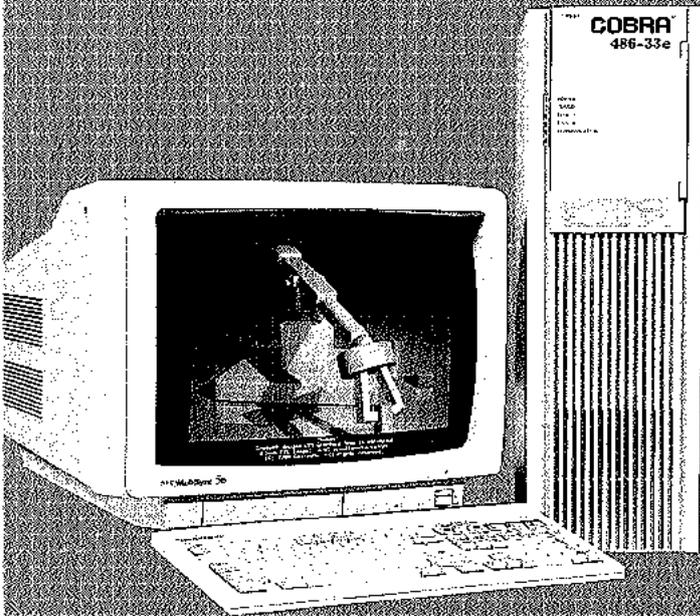
응도 / 건축물의 외벽·칸막이·계단·도로변의 차음벽

치밀한 고강도 압출판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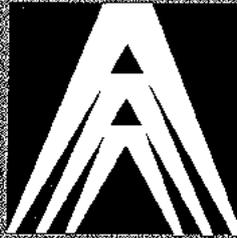
**벽산 베이스**

# 올여름! CAD/CAM!

## SUMMER '91



### "SUMMER '91 AutoCAD Turn-Key 특별 기획 상품"



당사에서는 AutoCAD의 국내공인 Dealer  
특권을 기념하는 의미로서 금번 "SUMMER '91"  
특별 기획을 통해 AutoCAD Turn-Key  
SYSTEM을 최저의 가격으로 최고의 성능과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귀사의 AutoCAD  
SYSTEM 구축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좋은 동반자가 되고자 합니다.

#### 특전1

AutoCAD System의 1년간 무상 A/S

#### 특전2

서통의 Hardware System을 최대 4개월간(무이자)  
분할 판매 합니다.

#### 특전3

귀사에서 원하는 시간만큼, 원하는 인원만큼 무상으로  
교육지원 합니다.

#### AutoCAD Turn-Key System

386 SYSTEM	Summer '91특별가
CPU: i80386-20 L M: 29MHz Co-processor 80387/20 NEC 2A Color Monitor	475만원
CPU: i80386-25 L M: 43.5MHz Co-processor 80387/25 NEC 3D Color Monitor	545만원
CPU: i80386-33 L M: 58.7MHz Co-processor 80387/33 NEC 4D Color Monitor	595만원
486 SYSTEM	Summer '91특별가
CPU: i80486-25 L M: 114.1MHz NEC XL Color Monitor TYPE: ISA	745.5만원
CPU: i80486-33 L M: 150.2MHz NEC 5D Color Monitor TYPE: ISA	795.5만원
CPU: i80486-33 L M: 150.2MHz NEC 5D Color Monitor TYPE: EISA	895.5만원

#### 공통 사양

DREAMY 2048  
Graphic Board  
2048×2048  
×256  
MEM: 4MB  
HDD: 100MB  
FDD: 5.25inch×1,  
3.5inch×1  
S/W: AutoCAD  
Rel. 11

#### 무상 제공장비

TB-8830 (테이블)  
보안기

\*CPU에 따라 그래픽카드의 모델  
S/W가 별도의 가격입니다.

# 시스템을 갖는다.

## 특별·기획·상품

“ARRIS·CAD·Turn-Key·판매·2주년·기념”



### SUMMER'91·특별·기획·상품·소개

당사에서는 ARRIS CAD Turn-Key SYSTEM을 국내에 소개하여 판매하기 시작한지 만 2년이 됨을 기념하고, 건축설계 사무소의 설계업무 자동화 추세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뜻에서 금번 설계사무소의 건축설계 CAD化의 기본이 되고, 또 최적의 건축설계 전문 S/W인 ARRIS CAD의

BD & D(Building Design and Drafting)를 소개합니다. 본 BD&D를 사용시 짧은 기간내(3일) 사용방법 습득은 물론이고, 최단시간내 업무에 적용됨으로 “조기 투자 효과”를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특전1

ARRIS CAD의 기본인 BD & D와 XENIX O/S를 1년간 무상으로 대여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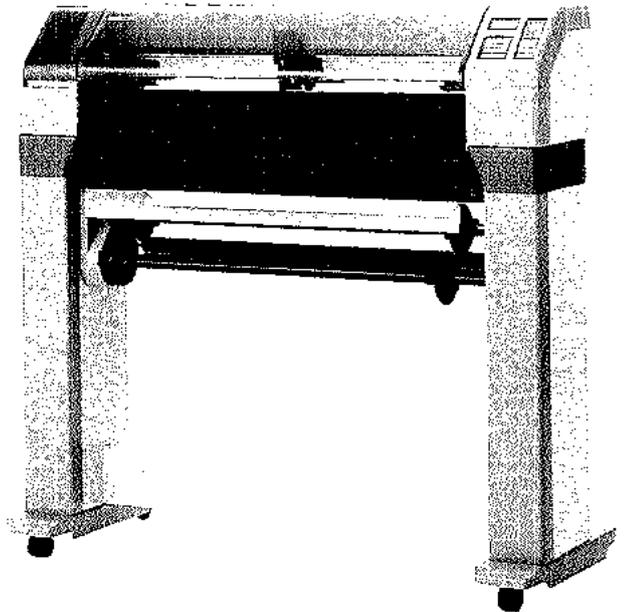
(귀사에서는 Field Test 후 12개월내에 선택하여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특전2

서통의 Hardware System을 최대 4개월간(무이자) 분할 판매 합니다.

### 특전3

귀사에서 원하는 시간만큼, 원하는 인원만큼 무상으로 교육지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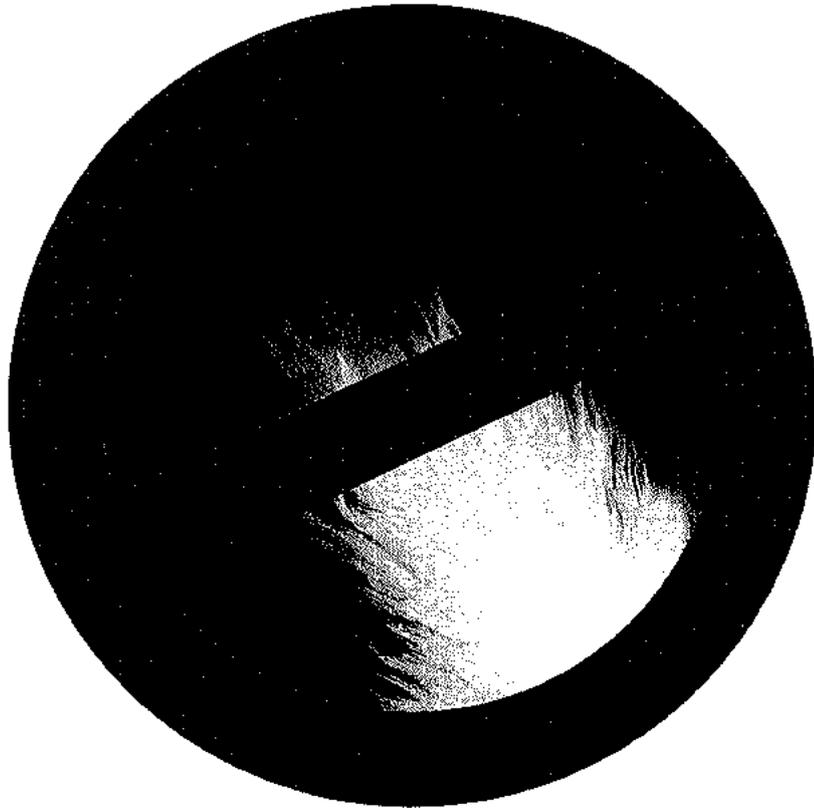
386 SYSTEM	Summer '91특별가
CPU: i80386-25 L M: 43.5MHz Co-processor 80387/25	795만원
CPU: i80386-33 L M: 58.7MHz Co-processor 80387/33	855만원
486 SYSTEM	Summer '91특별가
CPU: i80486-25 L M: 114.1MHz TYPE: ISA	905만원
CPU: i80486-33 L M: 150.2MHz TYPE: ISA	965만원
CPU: i80486-33 L M: 150.2MHz TYPE: EISA	1,100만원

공 통 사 양	
NEC	XL 20Inch Color Monitor
VMI	Graphic Card 1024×768×256
MEM	: 4 MB
FDD	: 5.25Inch×1 3.5 Inch×1
HDD	: 100 MB
64K	Cache Memory
한글	Video Card (행망)
	14Inch Mono Monitor
1년간무상 대여품목	
美 Sigma Design 社 제품	
ARRIS CAD	
BD&D	
XENIX O/S	
※공히 VAT별도의 가격 입니다.	

품 명	Mutoh Plotter Specification.	소비자가
iP-210	A3~A4, 707mm/sec, 8Pen, 24KB Buffer	118만원
iP-530K	A1~A4, 705mm/sec, 8Pen/Pencil, 1MB Buffer	465만원
iP-530KL	A0~A4, 705mm/sec, 8Pen/Pencil, 1MB Buffer	625만원
F-920E	A0~A4, 1,131mm/sec, 8Pen/260Pencil, 1MB Buffer	895만원
F-920ER	A0~A4, 1,131mm/sec, 8Pen/260Pencil, 1MB Buffer	1,195만원

※S/W의 불법 COPY는 BSA에 규제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화 / 재 / S / T / O / P

# INSU GLASS WOOL PANEL

**인슈그라스울패널 —  
 더욱 우수한 1급불연패널입니다!**

**■ 인슈그라스울패널이란?**

INSU GLASS WOOL PANEL은 내부단열재를 1급 불연재인 유리섬유를 사용함으로써 단열효과가 우수함은 물론 화재시 불에 타지않는 불연성이고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화재의 위험을 극소화하며, 특히 유리섬유의 입자들이 음의 진동을 완충시켜주므로, 차음 및 방음, 흡음성능이 더욱 우수한 획기적인 소재입니다.

**■ 인슈그라스울패널의 3대 우수성**

**1. 우수한 불연성**

인슈그라스울패널은 내부단열재가 KSF2271, BS476 Part4의 관련 규격에 의하여 1급 불연재로 인정받은 무기질 단열재인 유리섬유를 사용하므로써 화재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불연패널이며 내화 구조체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우수한 견고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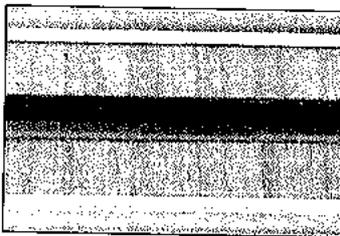
인슈그라스울패널은 내부단열재인 유리섬유의 겹을 수직으로 세워 성형한 제품이므로 기존의 섬유 겹을 수평으로 성형한 제품보다 압축강도가 10배나 뛰어나 매우 견고하고 균일한 두께유지가 가능하며バリ현상을 완전방지합니다.

**3. 우수한 단열성**

인슈그라스울패널은 내부단열재가 1급 불연재인 유리섬유로 되어 섬유질이 가늘고 균일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다 안전한 물론 열전도율이 낮아 단열효과가 우수하여 건물의 유지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재료명	최고사용온도
스치로폴	85℃
P.U.R	110℃
P.I.R	180℃
페놀폼	200℃
그라스울	350℃

(단열재의 화재인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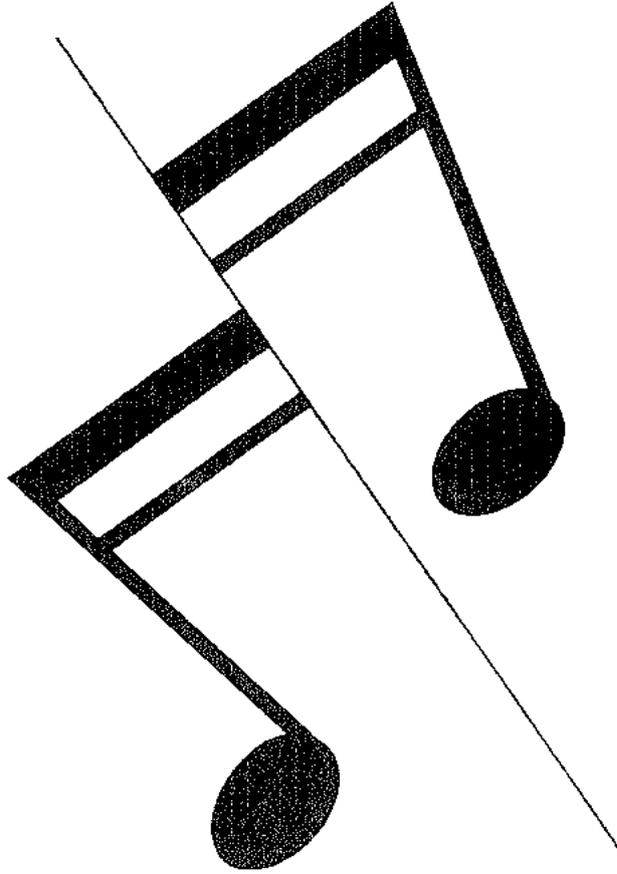
(인슈그라스울패널의 단면구성)

단열재명	열전도율
그라스울	0.029
스치로폴	0.0285
암면	0.053
발포 CONC.	0.15

(단열재의 열전도율 비교표)



본사및공장: 경기도 이천군 백서면 도림리 39-2  
 TEL: (02)745-0687, (0336)34-8880 FAX: (0336)32-4243  
 서울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3-6 연합인슈빌딩  
 TEL: (02)555-6891, FAX: (02)553-1651



완·벽·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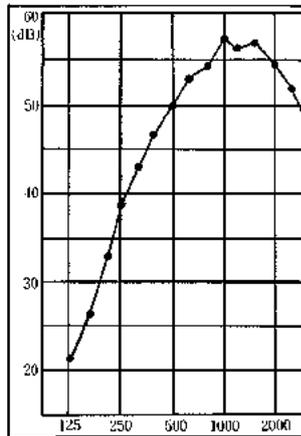
최고급 파티션

# INSU PARTITION

## ■ 인슈파티션이란?

**보다 쾌적하고, 보다 안전한  
실내공간을 연출합니다.**

방화 불연재로 사용되는 GYPSUM BOARD 및 GLASSWOOL이 주원료로 구성되어 있어 방화 및 방음성능이 뛰어난 내화구조체로서 사용할 수 있는 자재입니다. 특히 인슈파티션은 P.V.C 라미네이팅 뿐만 아니라 FABRIC 마감도 가능하므로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하여 오피스빌딩, 주택, 호텔, 아파트 등의 내부 파티션용으로 가장 적합한 소재입니다.



## ■ 인슈파티션의 특징점

- 인슈파티션은 완전 불연재로 구성되어 있어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내화 칸막이벽으로 좋습니다.
- 외부표면재인 GYPSUM BOARD 및 내부 소재인 GLASSWOOL이 음의 진동을 완충하므로 차음, 방음, 흡음이 우수합니다.
- 마감재를 P.V.C 라미네이팅 뿐만 아니라, FABRIC 마감처리도 가능하여 이용자의 취향에 따라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 표준화된 규격으로 생산된 조립식 구조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조립·해체 이동 설치할 수 있으며, 전등 필터 유닛 등 연관설비와의 조합기능이 매우 뛰어납니다.



주식회사 **인합인슈**



본사빌딩: 경기도 이천군 백사면 도림리 39-2  
TEL.: (02) 745-0687, (0336) 32-4635-6 FAX: (0336) 32-4243  
서울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3-6 인합인슈빌딩  
TEL.: (02) 555-6891, FAX: (02) 553-1651  
부산사무소: TEL.: (051) 462-9554, 465-7038  
대구사무소: TEL.: (053) 53-4543, 556-9860  
광주사무소: TEL.: (062) 524-9779, 527-7144

서가는 기술, 앞서가는 품질



숨은 역사 20년 —

# No.1을 추구하는 무대기계 전문회사입니다.



1969년 국내 최초로  
무대기계에 첫발을  
내디딘 대아공전  
주식회사는 선진기술의  
도입과 독자적 연구  
개발을 통하여 국내 주요  
대형 무대를 독점하여

실제·시공해 왔으며, 그 실적과 경험을 인정받아 명실공히  
무대 메카니즘의 최정상의 위치를 꾸준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 주요 공사실적

- 세종문화회관
- 국립극장
- 웨라톤워커힐
- 롯데호텔
- 부산문화예술회관
- 이화여대강당
- 유관순기념관
- 흥현교회본당
- 문화예술진흥원(문예회관)
- 리틀엔젤스 전용 공연장
- 서울·제주 신라호텔
- 수안보 와이키키리조트호텔
- 안양문화예술회관
- 중앙대예술대학강당
- 계동신타 예술극장
- 육군박물관
- 대전시민회관
- 부곡하이웨이 등

### 주요 생산품목

- STAGE & STUDIO
- BASIC EQUIPMENT SYSTEMS
- THEATRE STAGE
- TELEVISION STUDIO
- OPERA HOUSE
- CONFERENCE ROOM
- SCHOOL STAGE
- DESIGN & ENGINEERING
- MANUFACTURE
- TURN-KEY PROJECTS



大雅互電株式會社

DAE AH ENGINEERING & ELECTRONIC CO., LTD.

本社 : 서울特別市 麻浦區 城山洞 108-1  
TEL. (02) 332-4500(代表), (02) 335-4642(代表)  
FAX. (02) 392-2751

工場 : 京鐵道 金浦郡 金浦邑 大甲面 山209-1 松麻里 山209-1  
TEL. (0341) 987-4184, (02) 632-0216



# 91 아파트실계 & 계획

Apartment Architectural Design & Plan

건축·설계·주택사업분야 관계자들의 필수도서 (지금 신청하십시오.)

**\*처음에...**

주택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의 하나이다. 개인과 가족이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터전으로 새로운 내일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무한한 에너지를 재충전 해주는 곳이기도 하다.

이 책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은 서울근교 신도시, 지방도시 및 그 일원에 걸쳐 '90~'91년도에 준공했거나 건설중인 고급빌라, 저층아파트, 고층아파트, 초고층아파트를 중심으로 그 설계자료 및 팸프렛을 수집하여 편집한 것이다. 특히, 경사진 곳이나 특이한 대지의 형에 따라 배치되는 건물형태로 기본설계 재확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현직에 계시는 건축사사무소 및 주택사업자 여러분께 미흡하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끝으로, 자료수집에 협조하여 주신 건축사사무소 및 투시도기획실, 광고회사에 깊은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1991. 7. 편집자



**이 한권의 책이 백권의 건축전문도서를 대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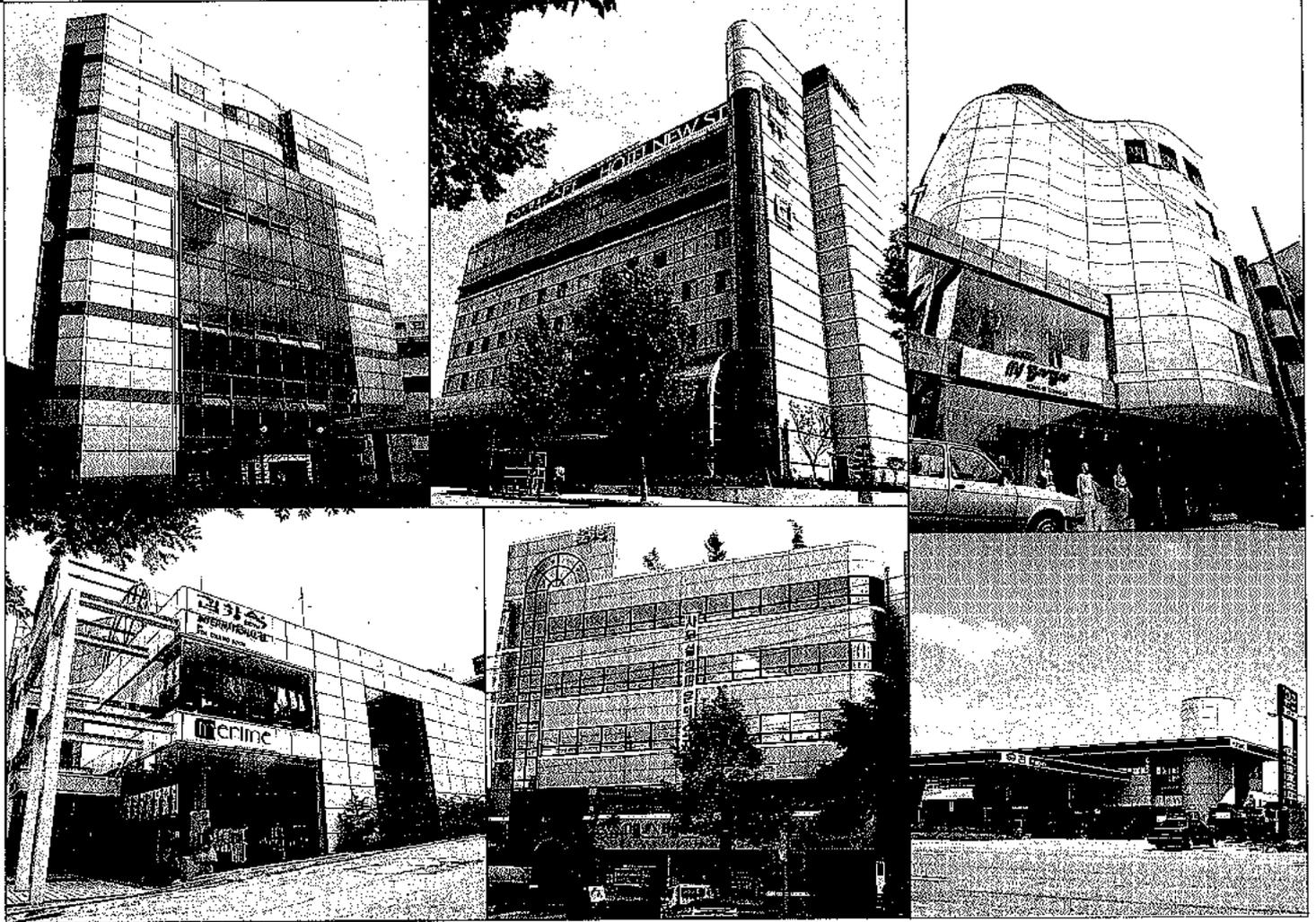


작 품 수 : 국내유수업체 150컷  
 규 격 : 25.5cm x 38cm  
 면 수 : 350면  
 색 도 : 풀 컬러  
 용 지 : 고급아트지, 150파운드  
 제 본 : 최고급양장, 고급양장케이스  
 공급가격 : 230,000원

- 내용 :
- 고급빌라
  - 저층아파트
  - 고층아파트
  - 초고층아파트
  - 모델하우스
  - 조감도·투시도
  - 입체평면투시도
  - 평형별 면적
  - 설계상 특장점
  - 단지배치도

**空間藝術社**

서울시西大門區 忠正路2街 69-6  
 嶺南營業處 : TEL. (051) 464-1997



## 아름다운 도시환경의 창조

우리 기술로, 우리가 만든 건축 내·외장재의 혁신

# 아키렉스

— ARCHITECKS(아키텍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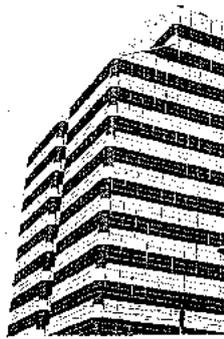
### 아키텍스란?

알루미늄, 이연도철판, 동황판 등 각종 금속판(0.1mm~0.5mm)을 양면으로 하고 코어부의 일정 두께를 강력한 접착력과 보강력이 있는 가열경화성 합성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혼합물로 형성하여 줄으로써 금속합판 전체의 보강은 물론 단열, 방진, 방음 및 자음의 효과를 낼 수 있고 변질이 되지 않는 특수 금속합판의 건축재입니다.



**홍성판공주식회사**

- 서울사무소: 서울·강남구 대치동 1007-3 총화회관 1층 TEL. (02) 562-1264, 568-3474~6, FAX. (02) 566-0856
- 본사 및 공장: 경기도 이천군 대월면 사동리 산78-2 TEL. (0336) 34-5119, 32-1903~4, FAX. (0336) 34-9316



ARRIS

ARRIS

# 가장 막강한 건축전용 CAD시스템입니다.

아키텍트 건축설계에 적합한 CAD를 찾지못해 고민하셨습니까?  
ARRIS는 미국 SIGMA DESIGN사에서 개발한 막강한 건축전용 CAD 서비스입니다.

## 세코아티비전코리아는 ARRIS 전문가입니다.

### ■ 별다른 능률을 얻지않습니까?

컴퓨터사태를 사서면서 아직도 제도를 표현하십니까?  
이 제품 이용관계로 많은 디자이너들께서 제도를 더 쉽고 ARRIS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일대이상능률과 정확하고 생동감 표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원목작업에 지루하십니까?

만곡되는 크립은 자동으로 크리됩니다. 새칼, 지동차, 나무 등 디자인에  
필요한 실물을 자동으로 크리합니다. 화면상임한하면 자동으로 인입도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수정기능이 있어 도면변경 및 피한설계가  
용이합니다. 완벽한 입체표현능력(3D)과 1670만가지의 컬러표현능력을  
투시도나 조감도의 작성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각 시간대별로  
크립자를 표시해 자동으로 일주권 점표가 용이합니다.

### ■ 완벽한 AVS를 원하십니까?

세코아티비전코리아의 기술수준은 ARRIS개발사인 미국의 SIGMA  
DESIGN사가 모진만큼 있습니다. ARRIS 사용자의 문제점을 뛰어난  
저의 엔지니어들이 신속하게 해결하여 드립니다. ARRIS를 사용하지는  
분들을 위해 전속설계, 기계설계설계, 전기설계설계, 투시도 등의 용역도  
제공하여 실제설계사의 제반문제에 대하여 폭넓은 조언도 해드립니다.

### ■ 더 높은 수준의 ARRIS기술을 원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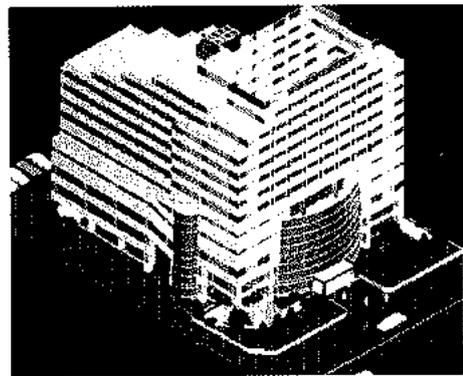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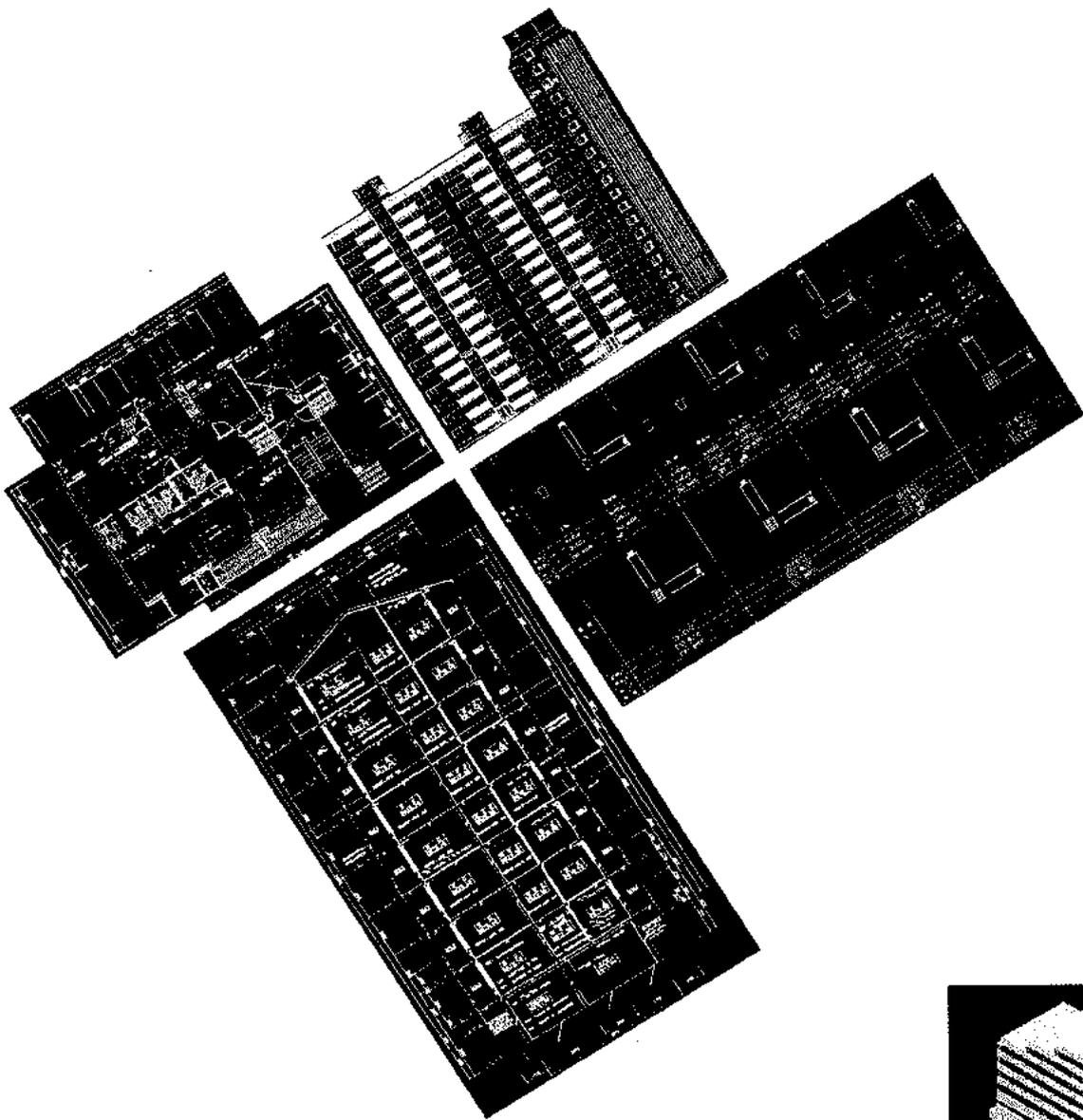
세코아티비전코리아는 연중 무료로 ARRIS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 높은 수준의 ARRIS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수시로 특강을 실시하며 미국 SIGMA DESIGN사로부터 수시로 강사를  
초빙하여 SEMINAR를 개최합니다. 미국 SIGMA DESIGN사에게  
교육을 받고 싶은 분에게 교육기회를 만들어 드립니다.

### ■ 가격을 원합니다.

가격의 편위를 먼저 생각합니다. ARRIS사용시 필요한 하드웨어는  
가격의 취향에 맞게 구성하여 드립니다. 자를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하여  
데스크 렌탈로 ARRIS를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 ARRIS

ARRIS는 미국 Sigma Design사에서 개발한 "디자인 전용" CAD (Computer Aided Design) 시스템으로서, 그 적용분야는 건축, 인테리어, 가구, 산업미술 등이며, Drafting 뿐만 아니라 Design 자체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진 CAD 시스템으로 특히 광범위한 3-D (입체적 표현) 및 무제한 COLOR와 빛의 Simulation이 가능한, 디자이너를 위한 가장 강력한 최신 CAD 시스템입니다.



- ARRIS에 관한 무료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ARRIS 전문 엔지니어가 필요하실때 유능한 인재를 추천해 드립니다.
- 시그마 디자인 코리아가 새로개발한 한글단 선체, 한글복 선체, 디테일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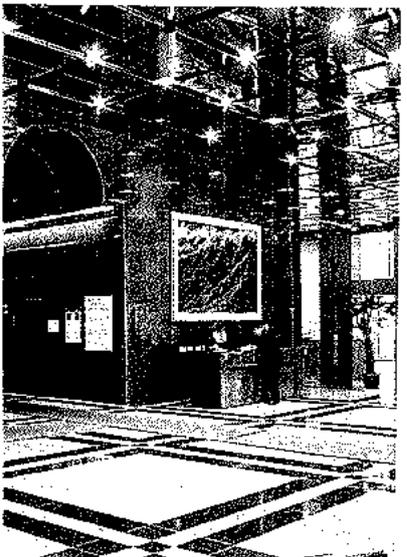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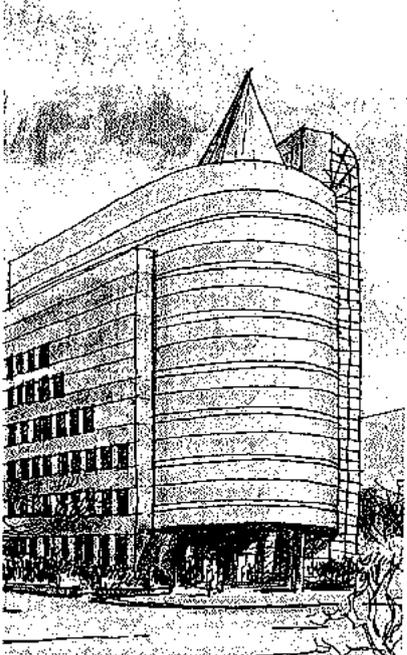
**SIGMA DESIGN**

**(株) 시그마디자인코리아**

서울·서초구 방배동 795-25 (방배빌딩5F)  
TEL: (02) 536-4057 ~9  
FAX: (02) 599-4030

## 차례 / 1991년 8월호 통권 제268호

論 壇	建築行政 遺憾 / 李義求	16
誌上座談	건축규제조치와 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좌담회	18
會 員 作 品	벽산125 / 故 金壽根	28
	카타르시스 / 金仁喆	31
	큐닉스 청담사옥 / 朴容秀+郭成文	34
	홍익대학교 조치원 캠퍼스 / 吳基守	37
	한신증권사옥 / 權棹雄	40
	범우사옥 / 宋光燮	42
	일우빌딩 / 姜聲益	44
	춘천 최교수택 / 孫基贊	46
나의 스케치	잠실교회 / 禹時庸	48
일하며 생각하며	건축규제! 그리고 우리는... / 孫科浩	50
研 究	1945~1975년 캠퍼스 배치계획의 특성에 관한 연구 / 李榮漢	52
	코베, 코토, 오사카, 도쿄 그리고 안도 다다오 / 金文德	61
	광장설계방법론 / 閔相忠	72
	인텔리전트빌딩의 電氣設備 / 設備分科委員會	84
新入會員		91
資 料	1991년 6월분 도서신고현황	92
協會消息		94



표지: 故 金壽根作「벽산125」

發行人: 吳雲東

編輯企劃: 編纂委員會

委員長: 李義求

委員: 徐千植, 姜哲求, 金煥起, 崔英集, 吳元根

編輯: 出版事業部

發行處: 大韓建築士協會

住所: 서울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603-55

郵便番號: 137-170

電話: 代表 (02)581-5711, 581-5712~14

팩시밀리: (02)586-8823

登錄番號: 서울 라-26(月刊)

登錄: 1967年 3月 23日

U. D. C.: 69/72(054-2): 0612(519)

印刷人: 李鳳秀 / 正文社

Publisher: Oh Woon-Dong

Editor: Editorial Committee

Chairman: Lee, Eui-Koo

Member: Suh Chun-Ski/Kang, Chul-Koo/  
Kim, Hwan-Keel/Choi, Young-Jeep/Oh Won-Keun

Assistant Editor: Publishing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 581-5712~4

FAX: (02)586-8823

Registered Number: Seoul Ra-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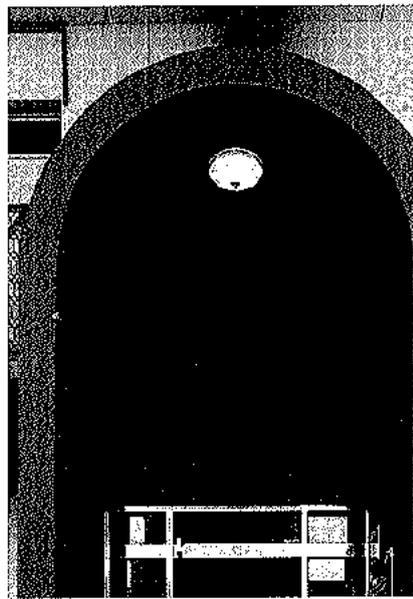
Registered Date: March 1967

U. D. C.: 69172(054-2): 0612(519)

Printer: Lee, Bong-Soo (Cheong Moon Printing Co.)

# CONTENTS Vol. 268, AUGUST 1991

FOCUS	Regrettableness of the Administrative Building / Lee, Eui-Koo	16
SPECIAL ISSUE	Restraint Measures of Architectural Permission and Supervision System	18
WORKS	Byucksan 125 / Late, Kim, Soo-Keun	28
	Catharsis / Kim, In-Choul	31
	Qnix Office in Choungdam-dong / Park, Yong-Soo & Kwak, Sung-Moon	34
	Hongik Univ. Chochiwon Campus / Oh, Ki-Soo	37
	Hanshin Securities / Kwon, Do-Woong	40
	Bumwoo Building / Song, Kwang-Sub	42
SKETCH	Yilwoo Building / Kang, Sung-Ik	44
	Professor Choi's Residence / Son, Ki-Chan	46
	Chamshil Church / Woo, See-Yong	48
ESSAY	A Protest Against the Restraint Measures of Architectural Permission / Son, Doo-Ho	50
REPORT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ite Planning of Korean Campus in Seoul from 1945 to 1975 / Lee, Young-Han	52
	Kobe, Kyoto, Osaka, Tokyo & Tadao Ando / Kim, Moon-Duck	61
	Plaza Design Methodology / Min, Sang-Choong	72
	Electical Arrangement of Intelligent Building	84
NEWLY ADMITTED MEMBER		91
MATERIALS		92
KIRA NEWS		94



##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603-55, 581-5715~8 · 서대문분회 / 서대문구연희동169-25, 333-6411 · 관악분회 / 관악구신림동1422-17, 882-6744 · 도봉분회 / 도봉구수유동191-13, 903-9425 · 영등포분회 / 영등포구당산3가81, 634-2143 · 강동분회 / 강동구상내동317-4, 484-6840 · 강서분회 / 강서구화곡동1105-05, 604-7168 · 상동분회 / 상동구구하동252-16, 446-5244 · 동대문분회 / 동대문구신상동101-7, 923-6313 · 용마분회 / 용마구정진동201-1, 735-0906 · 마포분회 / 마포구성안동275-1, 336-5057 · 송파분회 / 송파구송파50-12, 423-9158 · 중구분회 / 중구로2가49-11, 279-1415 · 용산분회 / 용산구원효로1가129-22, 712-7647 · 서초분회 / 서초구서초1동1623-1, 586-7707 · 유성분회 / 은평구북면동79-32, 352-6720 · 동작분회 / 동작구사당동206-6, 815-3026 · 강남분회 / 강남구논현동242-30, 511-8515 · 노원분회 / 노원구상계1동1049-79, 992-8076 · 양천분회 / 양천구신정동1027-9, 646-7172 · 동평분회 / 동평구면목동166-46, 923-6123 · 성북분회 / 성북구삼선5가410, 923-4401 · 구로분회 / 구로구구로동86-4, 853-4094 ■ 부산직할시건축사회 / 부산직할시중구동광동17(부산대파라다이스)(051)246-6284~7 ■ 대구직할시건축사회 / 대구직할시수성구범어동3711-8, (053)753-8980~5 ■ 인천직할시건축사회 / 인천직할시남동구간석1동558-1, (032)437-3381~4(FAX)437-3386(한국종합빌딩204호) ■ 광주직할시건축사회 / 광주직할시북구중흥동694-10, (062)521-0025~6(FAX)528-0026 ■ 대전직할시건축사회 / 대전시중구대흥동487-1, (042)256-9350~4 ■ 경기도건축사회 / 경기도수원시매신로37124-5, (0331)47-6129~30 · 직할분회 / 경기도수원시매신로37124-5, (0331)43-8662, 7072 · 안양분회 / 안양시안양동523-5, 10343)49-2698 · 부천분회 / 부천시중구현미동88-1, (032)654-1554 · 성남분회 / 성남시수정구대평동3407, (0342)755-5445 · 의정부분회 / 의정부서서면경부동182, (0351)2-1083 · 송탄분회 / 송탄시서경동343-22, (0333)4-6153 · 고양분회 / 고양시관왕동유교387관16로6도, (0344)63-8902 · 구리분회 / 구리시수택동409-2, (0346)163-2337 · 아현분회 / 이천군이천읍송리192-1, (0336)635-6545 · 광명분회 / 광명시철산동464-7, 682-2875 · 안산분회 / 안산시고연동536-1, (0345)80-9130 ■ 강원도건축사회 / 강원도춘천시목천동39-5, (0361)54-2442 · 원주분회 / 원주시중앙동60-51, (0371)43-4287 · 강릉분회 / 강릉시성내동6-14(0339)12-2262 · 속초분회 / 속초시동명동466-63, (0392)133-5081 · 삼척분회 / 삼척시남양동55-43, (0397)12-3106 · 영월분회 / 영월군영월읍영동리960-12, (03372)43-2655 ■ 충청북도건축사회 / 충청북도청주시북문로37187-3, (0431)56-2752, 53-7242 · 충주분회 / 충주시백전동673-1, (0411)817-3082 · 제천분회 / 제천시지림동8-8, (0443)43-6253 · 옥천분회 / 옥천군옥천읍상암리222-206, (0175)33-3502 ■ 충청남도건축사회 / 충청남도대전시중구대흥동487-1, (042)256-4088 · 천안분회 / 천안시부화동160-1, (0417)551-4551 · 홍성분회 / 홍성군홍성읍오관리239-1, (0451)32-2755 · 부여분회 / 부여군부여읍농남리703-1, (0463)2-2217 · 내천분회 / 예산시내전동197-10, (04152)134-3367 ■ 전라북도건축사회 / 전라북도전주시서노송동635-5(대북 빌딩 508), (0652)87-6007~8 · 이리분회 / 이리시남동동)가77-22, (0653)52-3304 · 군산분회 / 군산시신항동35-4, (0654)445-4050 · 남원분회 / 남원시화정동106-2, (0671)31-1000 ■ 전라남도건축사회 / 전라남도광주시서구화정동783-23(추신회관)(062)364-7567, 33-9944 · 목포분회 / 목포시대안동1, (0631)43-3318 · 순천분회 / 순천시장천동51-11(0661)13-2457 · 여수분회 / 여수시백문동441번지, (0662)164-7023 ■ 경상북도건축사회 / 대구직할시중구동인동17285번지, (053)425-4904 · 포항분회 / 포항시북동43-8, (0562)44-6429, 46-1664 · 김주분회 / 경주시동현동771-4(0561)3-3638 · 구미분회 / 구미시원평동964-264, (0540)52-6361, 52-7547 · 안동분회 / 안동시시부동157-4, (0571)54-5703 · 김천분회 / 김천시명화동280-1, (0547)2-2541 · 영주분회 / 영주시유천2동642-52, (0572)33-7504 · 김천분회 / 김천시중앙동280-3, (0581)2-2706, 52-2286 · 상주분회 / 상주시남성동36-23, (0582)2-4306 32-3232 ■ 경상남도건축사회 / 경상남도마산시중앙동37가7, (0551)46-4530~1 · 울산분회 / 울산시남구신정동614-7, (0552)174-6155 · 진주분회 / 진주시동성동13-14, (0561)745-4022 · 충무분회 / 충무시서호동163-18, (0557)41-3232 · 김해분회 / 김해시부림동24B-10L, (0525)131-6114 · 밀양분회 / 밀양시삼분동181 108, (0527)253-3646 · 거창분회 / 거창군거창읍중앙리483-9, (0598)12-3777 · 양산분회 / 양산군양산읍남말리522-4, (0523)4-6693 · 기재분회 / 기재군선현읍고현리139-2, (0558)1635-3432 · 삼천포분회 / 삼천포시남동91-6(0593)133-3591 ■ 제주도건축사회 / 제주도제주시2도1동1289-6, (064)22-3248, 52-3248 · 서귀포분회 / 서귀포시서귀동299-6, (064)62-2233

## 建築行政 遺憾

李義求 / 本協會 理事, 弘報 · 編輯委員長

정부의 경제정책중 특히 대건축관계 정책이 일관성없이 표류하고 있는 느낌이다.

인력과 자재 및 공사환경을 제대로 점검치 못한 상태에서 무리한 200만호 주택건설의 시행착오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한 신도시의 부실시공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자 당황한 당국은 주택이외의 대부분의 건축허가 자체를 몽땅 묶어버리는 조치로까지 발전되었다. 이 조치는 당국의 상황판단 및 정책능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되며, 더우기 악화된 여론에 몰려 급조된 대응처방적 발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심하기 그지없다.

물론 당국의 이같은 조치는 통화관리의 건축운영과 겹쳐 과열된 건축경기를 진정시킨다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소지도 없지 않지만 부정적인 측면 또한 강하게 나타날수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일관성없는 빈번한 주택공급규칙의 개정으로 밤낮으로 내집마련의 꿈과 계획을 세우고 있는 주택수요자들에게 기회 축소 및 가격상승등의 불안으로 정책에 대한 불신풍조가 더해가고 있는데, 한술 더떠 일반건축에 대한 전면적인 허가규제조치는 국민 재산권 행사와 억제등 많은 부작용이 유발됨은 물론, 특히 건축사업무활동에 치명적인 타격이 아닐수 없다.

또 하나의 문제는 내년 상반기중에 허가제한조치가 해제될 경우 일반건축의 신축이 일시에 풀려 또다시 자재난, 인력난의 파동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로인하여 피해를 보는 당사자중의 하나가 또한 우리 건축사이다. 제한대상이 된 건축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하기까지는 적어도 3개월이상 1년이상까지 소요되는데 경과조치도 없이 일시에 중단 조치를 한다면 그동안 준비해오던 건축사는 물론 건축주들에 대한 작으마한 배려라도 감안했어야 할 것이다.

부득이하게 조치를 해야 한다면 허가는 해주고 자재 · 인력의 수급능력을 감안한 착공지연을 설득력있게 유도한다면 한두달의 발미라도 주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도 있지 않았던가. 전혀 고민한 흔적이 없다.

현행법에는 엄연히 건축사협회 및 건설협회 등 전문단체에 부분적으로 그 분야의 업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있고 우리 건축사 또한 많은 약조건하에서도 정부시책에 충실하면서 이만큼 발전된 국가건설에 이바지 하여왔다고 나름대로 자부하고 싶다.

이와같이 중대한 조치를 취하면서도 전문단체들과 일언반구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풀어주고 한다는 것은 힘의 논리에 의한 비민주적 전횡이라 아니할 수 없다.

민주화! 민주화! 귀가 아프게 들리는 이말은 적어도 우리 건설행정분야에서만은 요원한 단어인듯 하다.

이렇게 된 상황은 건축사 입장은 물론 일선건축행정 및 건축사회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어떻게하면 이들을 좀더 행정적이나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느냐하는 사고방식에 젖어있어서 창의성을 살리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행정자세가 부재한 관료주의 행정발상에 기인한다는 일부 회원들의 지적에 동감이 간다.

현행법 만으로도 확실하게 법대로  
시행 된다면은 그이상 무서운 법은 없으며 아무리  
강력하고 새로운 법을 수없이 만든다 해도 서로가 지키고 감독할 의지가  
없으면 아무소용이 없다. 오히려 처벌과 규제위주의 경직된  
현행법을 개선완화하여 건축의 창작성을 보호하여  
주는 방향으로 나아갈 시점이라 하겠다.

“감리는 설계의 연속된 작업이다”라는 말은 극히 기본적인 논리이다. 감리는 설계도를 작성한 건축사가 자기가 설계한 의도대로, 또 도면대로 시공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검토하고 지도하는 과정을 말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설계한 건축물의 시공 현장에 나가 설계자의 의도를 무시하고(무시하게끔 될 수밖에 없는) 자기주장대로 감리권을 행사하는 비건축적인 행위를 흔히 볼 수 있고 제도화 되어가는 오늘의 상황이 심히 우려되며 안타까운 심정이다.

현재 건축관계법은 제도적으로는 너무도 완벽하고 엄격하게 제정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건축사법만 보아도 법적으로는 똑같은 자격과, 권리와, 업무능력을 주었으면서도 이를 차등제한 하는 모순된 법으로써 단독과 종합사무소로 구분 되어있고 공동주택 및 대형건물은 종합사무소만이 설계하고 감리도 할 수 있게 제한되어 있다.

또한 설계 및 감리에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는 민·형사상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게 장치되어 있다.

건설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도 시공분야별로 일정이상의 자격증과 면허증을 갖춘 기술자로 하여금 시공감독하도록 되어있고 각종 주자재의 실험의무조항도 있으며 이를 위반할 때는 고발되고 처벌받겠끔 하는 조항도 엄연히 살아있다. 이렇듯 설계에서 시공에 이르기까지에는 이중, 삼중으로 장치되어 있는 현행법을 찾아 바로잡아

운영할 생각은 않고 특하면 새로운 법을 만들고 또 개정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지난날 독립기념관 화재사건 후 건설기술관리법이라는 사생아법을 탄생시켜놓더니 이제 신도시 부실공사로 세상이 시끄러우니까 느닷없이 설계·감리 분리법이라는 괴상한 법을 추진한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현행법 만으로도 확실하게 법대로 시행 된다면은 그이상 무서운 법은 없으며 아무리 강력하고 새로운 법을 수없이 만든다 해도 서로가 지키고 감독할 의지가 없으면 아무소용이 없다.

오히려 처벌과 규제위주의 경직된 현행법을 개선완화하여 건축의 창작성을 보호하여 주는 방향으로 나아갈 시점이라 하겠다.

세상에는 일상적인 상식이 존재하고, 법이며 행정도 상식에 근간을 두고 국민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바로 이것이 언필칭 “민주사회”가 아닌가?

당국은 하루빨리 허가제한 조치를 완화하고 일시적인 대중요법이 아닌 근본적인 치유책을 세워주기 바라며 아울러 법의 개선이 아닌 개악이 될수도 있는 또 다른 시행착오의 “愚”를 범하지 않도록 건축법 및 건축사법개정에 임하여 건축인의 의견이 존중된 보다 차원높은 건축창작환경을 조성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 建築規制 措置와 監理制度 改善을 위한 座談會

사회(이의구) :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 건축사업무 활동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 건축규제조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논의해 보고, 또 신도시 부실공사문제로 인한 감리단 구성 문제와 결부하여서 우리들의 중요한 업무중 하나인 감리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건축규제조치에 대해서 우리로서 도저히 이해 못하는 점도 있고, 한편으로 우리 스스로가 반성해야 할 점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장·단기적인 대처방안의 모색등 여러가지 좋은 의견을 허심탄화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좌담회의 진행은 건축규제조치의 문제점 및 대책, 현행 감리제도의 개선방향, 여기에 요즘 크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신도시의, 대단위 아파트 감리제도의 문제점 및 대책의 순으로 이야기를 해나가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회원들의 최대 관심 사항인 건축규제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신도시 부실공사 사태로 정부가 건설경기 진정대책으로 발표한 건축규제 조치와 특별감리단 구성은 건축문화 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건축사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한편, 불합리한 현 감리제도하에서는 많은 부작용이 예견되고 있는 실정으로, 회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本誌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범건축인의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모색코자 건축규제 조치와 감리제도 개선에 관한 誌上座談會를 개최하였다.

◎일시 : 1991년 7월 30일 (화) 15 : 00

◎장소 : 본 협회 회의실

◎참석자

▷사회

李義求 : 본 협회 홍보·편찬위원장

▷朴商浩 : 식립건축사사무소

韓鍾彦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금성

李文雨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장

安吉元 :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金仁喆 : 종합건축사사무소 아카반·인제

李範奎 :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한중언 : 제가 문제 제기 차원에서 먼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규제조치의 배경이, 현재 우리나라의 처해져 있는 제반 상황으로 보았을 때 어쩔 수 없는 조치가 아니었겠는가 생각됩니다. 주요 건축자재의 수급문제라든지 기능인력부족 문제등이 건축사업무 문제와는 별도로 생각할때 엄청난 문제가 아니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첫째 당초에 200만호 건설 계획 자체가 무리였다고 생각이 되며 두번째로는 요즘 이야기되고 있는 공한지세라든지 토지초과이득세 제도와 관련되어 자연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공한지세나 토지초과이득세를 안내야 되니까 짐을 짓는 문제까지 200만호 건설 문제와 결부하여서 대두가 되니까 주요 자재의 고갈은 물론이고 인력문제도 심각한 지경이 되고, 여기에 더욱 우리 사회의 인성까지 버려지게 된 사태까지 오게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봤을때 우선 조치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느냐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건축사사무소 업무상, 또는 운영상의 어려움은 뒤로 미루더라도 행정의 공동화현상이라든지 해제후 일사에 몰려들 건축행정의 마비 등, 이런 것들도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제한조치에 보면 건물종류별로 나누어 3월말, 6월말에 허가를 해준다고 하는데, 그때 허가가 난다면 대형건축물들의 경우 지하 3,4층 이상을 팔 경우에, 우기에 지하공사를 해야한다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일단 건축행정절차는 다 마치고 허가를 유보한 상태에서 착공시기를 조정하는, 이런 완화조치가 취해져야만이 일시에 몰려들 행정의 마비라든지 합리적인 현장관리의 문제, 건축사사무소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문우 :** 200만호 건설계획과 민간건설로 인한 수요와 함께 토초세와 공한지세에 의한 과도적인 물량증가로 인한 자재 및 인력난과 더불어 인성 및 건축질서가 파괴됨에 따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는데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이해한다고 할 때,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서 국민들이 정부를 불신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책이 하루아침에 무엇이든 변하고, 필요할 경우 그에 따라 모든 것을 두드려 맞출 때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에 순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죠.

각종 규제조치들이 중산층 사람들의 건설계획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데, 건물을 지으려고 자재준비며 자금준비등을 다해 놓았는데 별안간 이러한 규제조치가 취해지면 모르는 사람들은 앉아서 당해버리게 되고 그에 따른 심적, 물질적,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대정부 불신을 초래하고 사회안정의 저해 요인이 되며, 민심을 동요케하고 경제 유통질서까지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규제조치로 인해 건축을 하지 못하거나 증권에 가야되겠다고 하는 등, 이러한 심적인 동요로 인해서 건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전반적인 경제정책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또한 실질적인 건축문제에 들어가서는 우리의 건축문화가 일시적이거나 단절될 수도 있고, 설계 수준 발전에도 저해가 될 수 있으며 우리 전체 회원들의 업무 운영상에도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데, 우리 서울지역 회원들의 업무가 35% 이상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90년도 통계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업무시설이 약 14.8%를 차지하는데 이것이 완전히 사장되어 있는 상태고, 27.5%를 차지하는 근린생활시설도 200평이상을 절반만 잡아도 두분야를 합치면 30% 이상이 됩니다. 여기에 숙박시설등 기타시설을 합치면 서울지역 전체 인허가면적 2천5백만㎡ 중에 약 35%에 해당하는 업무가 전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더우기 서울 회원이 지방에 건축하는 2백만㎡의 물량까지 더하면 이것이 56%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0%이상의 업무가 타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심리적인 갈등 해소를 아울러 도모하기 위해서도 건축허가조치의 일부 완화가 필요합니다. 즉, 근린생활시설이나 지상 5층 규모까지는 허가를 내주는 방향이라든가,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착공시기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도 여론화 되고 있습니다만 토초세나 공한지세등에 대해서도 발전적으로 검토해서 이러한 것들로 인한 물량의 증가를 억제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수요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모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경제의 적절한 운영상 제약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허가는 내주되 착공시기를 조정하는 등 좀더 과학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든 정책이 수립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박상호 :** 국가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 유지해 나가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우 전반적인, 균형있는 정책 수립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며, 그에 따라 불균형이 초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주택만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부작용이 생기게 된 것이죠. 제 생각으로는 정책적으로 균형을 잡아서, 물량을 줄이더라도, 조금더 늦게 발전하더라도 바람스 있는 행정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대단위 주거단지를 건설한다고 했을 때, 학교도 있어야 되고 기타 각종 위락시설도 필요하듯 어떤 용도는 무조건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간접시설도 균형있게 유도해야지, 그걸 무시하고 주택만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국가 장기발전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으로, 그러한 측면에서 건설책서가



이억구

우리 건축시험회나 건설협회가 실제 건설현장에서 건설행정의 정책을 실현시키는 단체로서 법적으로도 그 권한과 책임이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는 과정에서 서로 상의하는 민주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하는데도 타성을 가지고 건축계의 의견을 무시한채 정책을 일관, 집행하고 있습니다.

발간되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경우 그러한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발간되어서 일반 공무원등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한 점이 우리에게도 상당히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또한가지 현재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능공들은 대부분 책임자가 돼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관리만 하고 현장에는 기초자식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질적으로 조잡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장기적인 안목에 의한 기능공의 교육과 기술수준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기본적인 기능교육이 안되어 있어 현장에서 그들과 설계자, 감리자들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공사현장에서 벽돌을 쌓는 것도, 그냥 갖다 놓고 콘크리트를 붓기만 하거나, 애초에 잘못된 시멘트를 사용한데다가 모르타르마감까지도 제대로 물량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나중에 어떤 안전사고가 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조금만 확대한다면 이번 신도시

아파트와 같은 사고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일반인들이 보통 일정한 성장과정을 거쳐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해서 어떤 시기에 가서 집을 장만하는 단계가 있게 마련인데, 요즘은 2,3년만에 자동차며 집을 다 가져야하겠다는 조급함이 만연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들에게 뭔가 잘못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큰 것을 자꾸 가지겠다는 될 수 없는 것을 욕심부리다 보니 그것이 정치적인 욕구불만으로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면에서의 정책적인 고려가 되어 균형있는 시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건설정책도 역시 마찬가지로 균형있는 발전을 이루어야지 주택만을 짓겠다는 것은 문제가 큼니다. 그것이 단기적인 조정이라면 이해가 갑니다만 그 기간이 길어지면, 물길을 한쪽만 막으면 엉뚱한 쪽으로 빠져서 나오듯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박상호

현장에는 기초지식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질적으로 조잡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장기적인 안목에 의한 기능공의 교육과 기술수준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사회 : 정부에서 취하고 있는 건축제한조치가 재작년부터 6차례에 걸쳐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나 정책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조치를 전가의 보도마냥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나 실제 내년적으로는 건설부문 종사자들, 우리 건축인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으며, 또 수요가 일시에 묶였다 풀림에 따라 생길 여러 부작용들을 감안하여 시정안을 국회와 건설부등 관계요로와 협의하고 있으나 경제장관회의에서 협의, 결정되었던 사항이라 별 대안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리를 빌어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법재 : 앞서 말씀하신 분들과 비슷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정책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이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정책이 없다는 것이죠. 또한 건축물을 설계하고 건설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단순히 무엇을 짓는다고 생각함으로써, 전체적인 사회적인 욕구에 의해서 다양한 용도의 시설이 필요한데도 그 규제방법이, 크기에 의해서 또는 무조건 용도별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안되는 것입니다.

최초에 500만호에서 200만호가 되었지만 이것을 인구로 따져서 800만을 수용하겠다는 것인데 우리나라 인구의 1/5을 근시일내에 해결하려는 착상이 과잉의욕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더우기 짓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시점에 가서 동시에 슬럼화되거나 재건축을 해야하므로써 그 시점에 가서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즉 이 정책이 사회기반시설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물량확보에 의의를 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미 지적했다시피 토초세나 공한지세등 가수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정부에서 스스로 제공함에 따라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장기수급계획상 여러가지 장애요인을 초래하게 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당장 생존권의 문제도 시급하겠습니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러한 규제조치가 사실 적법한 것인가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가지 문제점과 장기적인 비전제시를 하지 않은 채, 민주적인 사회의 통념상 어느 한편의 이익을 무조건 규제를 하는 것이 올바른 법의 집행이었던가 하는 것을 문제로써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제쳐두고 어떤 대책을 세워서는 한계성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길원 :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긴급조치라는 것이 국가의 위기관리 방편으로서 방위라던가 경제의 파탄을 막기 위해서 취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몇차례의 규제조치를 하면서 긴급사태라 하여 일방적으로 200만호 주택건설만을 위해서 부분별 계획없이 여타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장기적으로 규제를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가 해제된 후에 일시에 건축수요가 불려 되풀이 될 자재의 품귀나 인력난등의 악순환 같은 커다란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이러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택을 건설하면 새로운 주거군이 형성되고 그에 따른 각종 생활편의시설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이 병행되지 않을 때 거주자들이 도시나 상권이 형성된 쪽으로 이동하면서 생기는 교통문제라던가, 장기적인 규제조치로 인해 기존의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등이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는 비현실적인 현상, 규제가 되지않는 연구소로 인허가를 내서 업무시설로 대역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용도변경을 한다거나 안마시술소로 지어서 후에 숙박시설로 쓰기 위해 계획하는 등의 편법에 의한 건축물들이 성행하는 여러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으며, 현업에 종사하는 건축사들이 이러한 건축주들의 요구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아까 한종언 회원도 말씀하셨지만, 무조건 허가반려를 할 것이 아니라 법적인 허가절차는 계속하되 착공시기를 조정하는 방법을 써서 건축사들도 현업에서 신속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주들도 희망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울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규제를 함에 있어서도 주택과 여타 건축물들이 균형 있게 조정되어야하며 중장기적인 정책수립에 의하여 주택도 공급되고 일반 건축물들도 보급되어야만 균형있는 지역사회나 도시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김인철** : 앞에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증언부인이 되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정책의 즉흥성과 오류라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즉흥적이라는 말은 반대로 말해서 장기적인 안목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아까 이교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건축에 대해서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토목적인 건설이라는 개념으로 뚝뚝 그려져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 우선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어떤 분이 농담중에 200만호라는 것이 단군 이래 지금까지 지어진 집의 숫자보다도 많다고 하던데 그런 엄청난 물량을 어떤 개인의 임기동안에 짓고자 한다는 발상 자체가 년센스입니다. 그 년센스가 집행이 되다보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지요.

두번째로 정책이 즉흥적이다 보니까 당연히 오류가 있기 마련인데, 5공시절부터 논의된 토지공개념이라는 것이 부동산의 정책적 문제로 대두되어 토초세를 비롯한 누구라도 자세히 알기 어려운 복잡한 각종 세제를 만들게 되었는데, 부동산 투기 방지의 대상이 왜 토지만인지? 건물은 수 십, 수 백채를 가져도 상관이 없고 땅을 가지고 있으면 안되는 것으로 해서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투기억제정책을 펴다보니까 아무 목적없이 우선 세금이나 면하고 보자는 가수요가 자꾸 증가 되고 있는데, 정책적인 면에서 부동산이라는 것의 개념 접근부터 잘못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책으로서 우선 긴급조치나 규제조치에 대해서 행정적인 처리에 적법성의 문제가 협회차원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협회차원에서의 좀더 적극적인 발언이 있었어야 하겠습니까.

전문집단인 본 협회가 이런 전문성 있는 정책의 입안과정에서 과연 어떤 발언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건설부의 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직 공무원이 국장인가 과장이 가장 높고, 또 우리 협회차원에서의 대화 창구도 일개 과나 국장도에 머무르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진 확실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부 쪽에도 문제가 있으며 우리 협회쪽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니까 대응을 한다는 것을 반복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 회** :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대부분의 회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사협회나 건설협회가 실제 건설현장에서 건설행정의 정책을 실현시키는 단체로서 법적으로도 그 권한과 책임이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는 과정에서 사전에 일언반구의 통보조차 없이, 조치를 취하기 전에 서로 상의하는 민주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하는데도 너무 관료행정적이라고 할까 타성을 가지고 건축계의 의견을 무시한채 정책을 입안, 집행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러한 정책이 나오니까 뒤늦게나마 조치를 취해보고자 협회 임원들이 동분서주해 보았으나 별 커다란 성과가 없기 때문에 집행부의 한사람으로서 회원들에게 면목이 없습니다만, 정부측에서도 평소 건설관계자나 건축사들이 정부정책에 적극 호응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의견수렴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 스스로의 목소리가 작았더라는 점도 반성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종언** :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들이 정책의 불균형이라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중 200만호 건설 문제는 현 상황에서 일부수정이 되어야 하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제 개인적 입장에서는 전체 숫자를 줄이고 임대아파트로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해야 바람직하리라 봅니다. 아까 이교수께서 지적하신대로 20년, 30년 후에 또다시 200만호를 지어야한다는 문제점을 생각해 볼 때 좀더 융통성있게 정부당국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한종언

주택정책중 200만호 건설 문제는 현 상황에서 일부수정이 되어야 하며, 전체 숫자를 줄이고 임대아파트로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해야 바람직하리라 봅니다. 20년, 30년 후에 또다시 200만호를 지어야한다는 문제점을 생각해 볼 때 좀더 융통성있게 정부당국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한지세나 토초세로 인해서 필요에 의하지 않고 세금을 안내기 위해 임시방편적으로 건축을 하는 것이 큰 문제인데 이러한 임시 건물을 짓는데 아까운 건축자재를 허비하게 된다는 문제를 고려할 때 이런 세제 문제도 유보를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장려되고 있는 다가구, 다세대주택 또한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10년만 지나도 재건축을 해야할 정도로 부실공사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큰 정책문제를 가지고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커다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 회** : 토지초과이득세나 공한지세등은 토지공개념 문제로 인해 만들어진 세제로서 부동산 투기 방지나 땅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것으로 법 자체의 의도는 좋은데 이것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제를 하고 반성하여야 할 것이며 정부에서도 정책운영상에 개선점을 모색하여 경제정의 실현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일전에 정부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발표를 하자 오히려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고, 없애자고 한다면 아마 당장 반민주적 인사로 매도되지 않겠습니까? (일동 웃음)

**김인철** : 제 생각으로는 협회가 이런 행정적인 규제 등에 대한 대응이 너무 쉽게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문집단으로서 정책에 대한 의견을 대안과 함께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학연구소에라도 용역을 주어서 레포트를 제출한다거나,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등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신문, 방송등 매스컴을 이용해 여론화를 시켜야할 것입니다. 협회라는 전문적인 단체라는 차원에서 정책에 대한 레포트를 제출한다거나 정책자체를 토론하고 평가하는 움직임을 활발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법재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 200만호가 아니라 500만호를 짓겠다는 것도 당연하고 좋은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대에 시작해서 당대에 끝내겠다는 것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정책자체의 문제보다는 시행과정에서의 문제로서 전문집단이 그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사 회** : 세미나나 토론회등에 대해서도 의논을 하는 중이고, 여기 서울건축사회 회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일부 서울 회원들의 경우 물리적인 힘으로라도 우리의 의견을 관철 시키자는 의견도 강력히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이런 조치가 있을 때마다 일과성이겠지하고 치부하고, 또 끝난 후에 다시 백서를 만든다거나 심도있는 연구를 하겠다는 것이 당장 산적한 문제들로 인해서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었는데 차제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이고 이론적인 무장을 협회차원에서 해둘 필요가 있지요.

**이법재** :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 200만호가 아니라 500만호를 짓겠다는 것도 당연하고 좋은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대에 시작해서 당대에 끝내겠다는 것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정책자체의 문제보다는 시행과정에서의 문제로서 전문집단이 그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론화 되지 않으면 시간적으로 때를 놓치게 될 수 있으므로 김소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매스컴을 이용해서 자주 여론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문우** : 아까 사회자가 일부 회원들의,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라도 우리의 의견을 반영시키자는 목소리가 높았다는 데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그것은 단순히 우리 회원들만의 권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시급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었고, 또한 건설분야의 각 직능인들이 모여서 국가적인 정책이라든가 기술적인 사항들까지도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안길원** : 오늘 아침에도 후배 건축사 한 분이 폐업계를 내야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우리 회원들이 협회를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나온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정책부제로 생기는 당장의 문제는 치유될 수도 있지만 향후 5년, 10년, 20년후에 이러한 것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있게 연구하고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빠른 시간 내에 시행이 되도록 조속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사 회** : 여기 저와 같이 협회의 집행부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깐 같이 건의해서 여러 고견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규제조치에 대한 토론은 마무리 짓도록하고, 현행 감리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의견들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각에서 현재 설계와 감리의 분리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편법적으로나마 신도시 아파트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리단을 구성하고자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질적인 대안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길원** : 제가 근래 계속적으로 건설부측과 접촉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법을 개정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국무회의의 의결로서 가능한 선에서 제도개선을 취하기로 하고 건설부 장관이 신도시 불량레미콘 사건 이후 감리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를 함에 따라 본 협회와 건설부 사이에 수차례의 감리제도개선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법이나 제도상 1차적인 책임은 시공업자가 지도록 되어 있고 건설업법상에도 해당 공정의 기술인 자격증 소지자가 현장에 상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업자들이 비대해지자 그들의 입김이 작용, 모든 책임이 건설업자가 아닌, 설계, 감리를 하는 건축사가 잘못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데 우선 본논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재 건설부에서는 특정의, 한시적인 기구를 만들어 감리를 강화하겠다는 차상을 가지고 있고, 지자체를 대비해서 각 지자체의 건축과나 주택과에 감리과를 두어 건축사의 감리외무를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집중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려는 생각보다는 감리자인 건축사의 외무를 강화하고 책임만을 확대하려는 이러한 의도에 대해 본 협회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신도시 아파트 건설문제에 있어서도 근래 보조사 뿐만 아니라 전기, 설비, 토목직등도 상주하지 않는다고 건축사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이런 각분야 기술직들을 감리비의 고하를 막론하고 제대로 구할 수 없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탁상에 앉아서 이러저러케

해야한다고 하는 정부당국의 태도가 못마땅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협회가 어떠한 경로로든 문제의 해결점을 찾지 않으면 우리 건축사들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초래되리라 봅니다.

**사회 :** 감리제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개선 방향을 수립하고 정부와 협의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즉, 감리라는 것이 설계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죠. 설계자의 연장에서의 유일한 권리가 감리권인데, 이것이 건설경기가 과열되고 각종 위반이나 위법, 부조리가 발생되다 보니까 별도 감리를 하는 그릇된 제도가 생겨서 차차 확대돼 나가고 있는데, 설계자가 곧 감리자라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김인철 :** 지금 감리제도상 가장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별도감리제도입니다. 비록 작은 문제이지만 이 제도가 만들어진 원인이, 구청이나 시청의 해당 건축직공무원들이 많은 업무량으로 모든 건축현장을 관리, 감독할 수 없으니까 건축사에게 준공무원의 자격권한을 주어 행정적인 관리, 감독까지 하도록 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즉 근본적으로 행정의 편의로 만들어진 것으로 결국은 건축을 설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옥상옥이 하나더 늘어난다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일전에 종로구청에서의 건축사교육시 건의사항으로 한중언 회원께서 “왜 쓸데없이 별도감리제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괴롭게 하는가, 그 제도를 없애달라”고 하자 담당과장은 오히려 “건축사들이 원하는 것인데 왜



김인철

지금 정부나 건설업체등 각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감리의 문제점들을 추스려 보면 결국은 감리의 파워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감리자는 시공자에게 어떤 일정 이상 質의 건축을 하도록 지도해야 하므로서 그들과 싸움을 해야 하기도 하는데 제도적으로 감리자에게 어떠한 권한을 주지도 않고 의무만 강요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없애려고 하느냐”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또한 상주감리제도에 있어서도 건설현장에는 기술면허자가 다 상주하도록 제도적으로 배 있는데 꼭 건축사가 상주하여야 하는 것인지는? 제 경우에 사무실 직원이 10명정도이고 1년에 10건 정도의 설계를 하는데, 10개의 현장마다 모두 상주감리를 보내면 저는 20명의 직원을 데리고 있어야 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정부나 건설업체등 각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감리의 문제점들을 추스려 보면 결국은 감리의 파워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감리자는 시공자에게 어떤 일정 이상 質의 건축을 하도록 지도해야 하므로서 그들과 싸움을 해야 하기도 하는데 제도적으로 감리자에게 어떠한 권한을 주지도 않고 의무만 강요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불법건축보고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규정이 되고 있으며, SOM이 럭티트윈타워를 건설할 때 럭티금성에서 자사의 제품을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스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쓸 수 없으며, 정 쓰겠다면 철수해 버리겠다고 강력히 거부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은 실질적이 파워가 주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리 일부 제도를 고치고 특별감리단을 구성 해보았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박상호 :** 우리나라의 현실로 봐서 법규나 이러한 것들은 논리적으로 잘되어 있으나 법규대로 제대로 감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감리비가 문제로, 감리비는 턱없이 적으면서도 책임규정은 한없이 넓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요즘 소위 말하는 동태감리의 경우, 저희 종로구청의 경우 3, 4명만이 남았을 정도로 조금만 구청쪽의 바위를 거스려도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축사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방어막을 협회가 강구 하여야 하며, 제 생각으로는 현 여건에 맞는 새로운 계약서안, 업무기준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현행 건축사 업무보수규정을 보면 지난 88년 1월에 손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광범위하게 건축사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제적인 상황으로 볼 때 모든 책임을 전부 설계자가 진다고 되어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 설계자의 잘못이 있을시 설계도의 복구를 하며 ‘갑’과 ‘을’이 협의를 해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제적인 관례의 경우도 하자 발생시 시공자가 95%정도, 건축사가 5%정도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설계에서 약간의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라도 설계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며 감리자의 책임은 명문규정이 없어 오히려 모든 책임을 무한으로 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협회가 새로운 계약서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리이러한 것 정도만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구체적인 것을 제시하여야겠습니다.

**사회 :** 우리 건축사가 감리업무만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해야할 조사검사업무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규제가 많이 있고, 규정상에 감리자의 권리나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시공자나 건축주들에 의한 불법건축물에 의해 우리 건축사들이 지구 행정조치를 당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전 김인철 회원이 말씀하신대로 상주감리가 곤란하다, 파워가 없다는 것도 결국은 올바른 감리비를

받지 못하는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대로 보수가 주어진다던 직원을 새로 채용해서라도 상주를 시킬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찾는 데 우리 건축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전체가 단합되지 않으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건축을 하는 건축주들이 법을 위반하려고 하는 풍토도 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건축주의 요구에 응함으로써 스스로 교환감리다 제3자 감리라는 문제를 자초하게 된 것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한중언** : 먼저 감리의 개념부터 정립해야 되겠습니다.

감리란 기본적으로 설계의 연장으로서 건축의 질의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이지 도둑놈 잡자는 식의 것이 감리가 아닌 것이죠. 설계도의 시방서에서 불확실한 부분을 정하고 설계의도가 이러한 것이니 이렇게 해결하라는 것을 지도하는 것인데, 50mm 단열재를 쓰라고 했는데 확인시에는 50mm를 쓰다가, 자리를 비운 사이 30mm짜리를 썼으니 감리자가 책임을 지라는 식은 도둑놈 잡으라는 것이지 감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속담에 열사람이 한 도둑 잡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50mm짜리를 쓰라고 승인하고 그것을 확인하면 되지 계속지키고 있으라고 한다면 감리자가 몇 백명이 있어도 모자랍니다.

감리제도가 문제가 되고 있는 신도시지역 문제도 정부나 우리 회원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간담회에서도 이야기 나왔듯 설계비가 만원에 감리비가 6천원이다, 정부에서도 평당 감리비를 일, 이천원씩 받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도저히 상주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측에서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한 우리 회원들도 이러한 낮은 보수 속에서는 업무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최소한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상담을 진행시켜줄 수 있는 수준은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도, 너무 많이 받는 것과 같이 공정거래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대부분 사업자나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가 사실상 모두 한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양이한테 생선시키라는 격이지, 이것 자체부터가 분리가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사업주나 시공자와 설계자가 분리가 되어 그 설계자가 감리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비용이 주어져야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상주하는 사람은 건축사와 보조자이며 모든 책임은 사무실의 건축사들이 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상주비용과 아울러 사무실에서 업무를 컨트롤 하는데 필요한 제경비까지도 상주감리비 책정에 고려되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이문우** : 경제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국민소득 5천불선 이상이 되면 사회가 기술인 위주로 변하게 된다고 하며 우리 사회도 이러한 시점에서 여러 과도기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건축사현장에 보면 건축은 조형창작예술품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러한 정신에 아울러 사회적인 욕구가 기술적인 품질의 관리까지 요구하게 되고 법에서도 그러한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우라도 어느정도 거기에 발맞춰야 할 것 입니다. 독립기념관 사태가 나니까 건기법이라는 것이 생기고 신도시 사건으로 감리제도 강화책이 구상되고, 대연각 사태로 소방법이 바뀌는 등 1년에도 수차례씩 이것저것이 바뀌지만, 건기법도 그러한 일환으로 생긴 것이지요. 그러나 건기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설계자의 참여가 배제되는 것으로, 건축이 조형창작예술품이요 어느 누구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세계적인 추세가 어느정도 그러한 것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야 하겠지만 기본정신은 설계자가 감리에 참여해서 건축을 완성시켜야 되리라 봅니다.



이문우

현행 감리제도문제는 법적으로는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건축주가 너무 권여를 한다거나 시공자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거나 불법을 주장하는 것이 문제가 되며, 법적 제도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는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현행 감리제도문제는 법적으로는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건축주가 너무 권여를 한다거나 시공자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거나 불법을 주장하는 것이 문제가 되며, 법적 제도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는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 되어야 하겠습니까. 감리자의 의무는 위반사항 발견시 보고조치만 하면 되지만 실제 보고를 하면 접수도 안하고 당신이 알아서 책임지라고 하는 실정으로, 즉각적인 조치와 더불어 행위자에 대한 처벌위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사법 등에 우리의 업무범위가 너무 개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세부적으로 정리하여 해석상에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우리 스스로도 위상을 정립하여 존경받는 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아파트의 감리문제에 있어서는 일정규모 이상은 모두 분양가상한선의 규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분양을 목적으로 한 원가계산과 관련되어 쉽사리 해결책을 찾기가 힘들리라 봅니다. 법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스스로의 이익추구를 위해서 감리비를 제대로 주지 않고, 조그만 까다롭게 감리를 해도 건설업체에서 아우성이기 때문에 적정수준의 품질관리를 위한 감리도 어렵고 감리비 인상도 어느 한두 사람의 힘만으로 조정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일정기간동안이라도 어느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협회 차원에서 단체의 힘으로써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하겠습니까.

**이범재** : 상주감리의 경우 여러 문제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반적인 경우 건축주와 감리자가 상의해서 감리비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문우** : 우리 보수요율에 30%가 감리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건축사보가 상주할 경우 그에 따른 직접비 및 간접비 등 기타 경비를 별도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철** : 그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문우** : 이것이 잘안되는 이유가 정부나 관공서등에서 정부예산회계규정의 범위에서 배정된 예산으로, 정해진 액수에서 여러 비용이 지출되니까 주고 싶어도 줄 상주비가 없다고 알아서 하라 하고, 일반 건축주들도 인식부족 때문에 적당히 법적절차나 밝아주면 되지 무슨 상주냐는 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범재** : 그래서 말씀드리려는 것인데 전체 설계비에서 감리비를 30% 또는 25%로 정해 놓았는데 사실 감리비가 훨씬 더 지불되어야 할 상황도 있는데 설계계약시 일괄적으로 계약하셔서 딱 묶여 있으니까 융통성을 발휘하기 힘들며, 설계 및 감리 계약이 분리되어 체결되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감리의 개념에 있어서도 감독의 무리든가 너무 기술적인 세부사항까지도 책임지워져 있기 때문에 어려움 크며, 몇가지 아이টে에 있어서는 감리자의 싸인이 꼭 필요한 것을 규정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 감리를 하다 보면 집은 시공자가 다 알아서 해줄텐데 필요없는 돈을 지불한다고 하는 그릇된 생각이나 약간의 감리비를 주고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감리라는 것이 도면에 있는대로 되었느냐는 것만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자의 의도에 의해 완벽한 것을 이루어 가는 것인데도, 그저 도면대로 되었는가 감독만하고 위법사항이나 보고하는 기능 밖에 안가지고 있으며 너무 세부적인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모든 것을 책임있게 수행해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이 정리되고 뒷받침될 수 있도록 협회차원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박상호** : 감리계약체결시 사용할 수 있는 몇가지 계약서 양식을 작성해서 그 업무한계를 구체적으로 규정, 체크리스트를 만든다거나 그 범위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인철** : 설계와 감리비가 일괄계약하면 전체가 100인데, 분리계약하면 몇대 몇이라는 것을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다가 관공서 등에서는 아무 규정에도 없이 일괄적으로 75 : 25로 편의상 만들어져 있는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감리라는 것이 설계의 25%다라고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감리가 설계보다도 더 기간이 오래 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나 인력이 더

많이 소요되기도 하는데도 말입니다. 그런 인식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안길원** : 건축사법을 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상주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감리의 범위는 건축물이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시공지도, 시공도서의 검토, 자재의 선정 및 공사의 지속화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엄청난 양인 것입니다. 관계법령이라면 시멘트, 벽돌등의 품질시험까지도 포함해서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인데 건축사가 그런 것까지 할 수 있습니까? 감리가 설계현장에서 설계자가 구상한 것을 건축물에 반영하고, 올바른 기능과 미적 요소 등을 추구하고 그것이 안될 때 지도하는 것이 되어야지, 현행 법등에서 시행해야 할 것은 감리도 감독도 아닌 것으로 이번 기회에 이러한 것을 재정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한가지, 1차적인 책임은 시공자가 지도록 되어 있고 상당한 기술 수준을 가진 현장소장이나 기사가 현장에 상주하게 되어 있는 데도 꼭 건축사가 상주감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건축사는 왔다갔다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할 때마다 그들에게서 보고를 받고 따라올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지 되며, 건축사는 책임을 지고 준공시점에 가서 준공조서를 돌려줄 때 제대로 되었는가 확인하고 그렇지 못할 때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져야지 올바른 건축물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안길원

건축시법을 보면 감리의 범위는 건축물이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시공지도, 시공도서의 검토, 자재의 선정 및 공사의 지속화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관계법령이라면 시멘트, 벽돌등의 품질시험까지도 포함해서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인데 건축사가 그런 것까지 할 수 있습니까?

**사 회** : 좋은 말씀이십니다. 감리제도 개선의 원칙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으니 이번 신도시 아파트 특별감리단 운영 문제에 대한 좋은 대책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연** : 신도시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데 협회차원에서 협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쪽의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어떤 사태가 되었든간에 감리문제를 이번엔 바로 잡지

못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감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감리비가 지급되어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지 그 사람들은 그대로 놔두고 다시 감리단을 구성한다는 것은 옥상옥을 만드는 것이고, 당초 협회가 의도한 설계자가 감리를 한다는 것까지 대치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이 도장만 찍어주는 감리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하지만 역시 이 사람들이 제 조직체에서 제 감리비를 받고 감리를 하는, 설계자가 감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하고 있는 저이지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협회에서 적정 감리비가 평당 3만원이다, 4만원이다 하다가 건설부와 협의과정에서 이제 6천원 선까지 내려가서 결정될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지나다 보면 5천원이 될 것이지요, 기존의 2천원과 5천원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상주인원을 최소화하고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와 회사가 지원하는 데 필요한 비용등을 산출하여 그것이 만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제대로 주어야 할 것이지요.

사회: 애초의 안은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감리단을 구성한다는 것이었으나 이것이 문제가 되자 신규 발주물량에 대해서만 한다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들도 건설부에서 우리와 상의 없이, 건축사협회로 하여금 감리단을 구성, 완전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대외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서 일방적으로 이것에 대한 방안을 세우라고 지시되어진 것이나, 감리비 문제 때문에 벽에 부딪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상호: 이러한 문제들의 원인이 제대로 보수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데도 있고, 협회차원에서 감리단 구성이 임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차체에 제대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으나 대폭적인 성과를 끌어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규정된 모든 책임을 모두 떠맡을 수 없으므로 감리포인트를 조정, 책임한계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문우: 현행법상 아파트는 설계자가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신도시에 한해서 특별감리단을 구성해서 협회가 운영하도록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정리되고 있느냐 하면, 설계자가 감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일정 규모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가 정해져 있는 관계로 설계감리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3,4천세대등의 일정한 세대수를 묶어서 각 설계자들에게 플러스 알파의 건축사로 감리단을 구성해서 각개 감리가 아닌 공동으로 돌아가며 상주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리를 하자고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3천내지 4천세대를 단위로 범성요율을 따져보니까 6천원정도가 되고, 상주를 하는 기본 정산에 의해 최소한의 상주요원의 경비를 더하니까 2만원 가까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니까 다시 금액문제가 설왕설래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결정되든 우리의 기본입장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조금전 박상호 회원께서 예산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업무범위를 조정하자는 것 같은데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기본적인 틀을 정해놓고 우리 협회나 회원들이 일치단결하여서 의견을 집약해야지 되며, 돈이 없다면 예산을 새로 반영해서라도 주어야지 예산이 없으니까 이 범위 안에서 일어서 해달라는 것이나 예산이 없으니까 거기에 맞추어 업무를 조정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안길원: 어떻게 보면 감리제도의 개선이나 감리비 현실화 문제에 불량레미콘 사건이 모멘트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차체에 협회가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되리라 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에 감리과를 설치해서 감리를 강화한다는 것이 공동주택 뿐이 아니라 모든 건축물에 상주감리제도를 강화,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감리비 문제가 아파트에서 비롯되었지만 아파트 뿐만 아니라 모든 감리에 적용되도록 올바른 방향을 협회가 발벗고 나서서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도 신도시 아파트를 설계하고 감리를 하고 있지만 돈을 얼마를 주든 감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건축직은 어떻게 구해볼 수 있지만 부대시설직을 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공정별 작업중에 일체 다른 업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돈 이전에 거기에 시달림 받을 바에는 하지 않겠다는 생각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 건축사가 꼭 상주를 하지 않고 주요 공정에만 참여하는 등으로 건설부측에서 제도개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건설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감리단의 운영에 있어서도 한사람 정도는 꼭 상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꼭 건축사가 고유의 업무는 안하고 상주를 한다, 1개월은 김건축사가 1개월은 박건축사, 또 안전건축사가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이문우: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라는 건축사가 들어가서 융통성을 발휘하도록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회: 현실적으로 모든 건축사가 사명감을 가지고 제도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정도 의견이 집약되어진 것 같은데, 좋은 말씀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개진해 주신 의견을 정리해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협회 집행부의 정책수립과 관계당국과의 활발한 접촉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건축은 사회성과 역사성을 포함한 다층차원의 관점에서 인식되어야 합니다. 일회적 호구지책이 아닌 지속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대적 산물로서, 현시대를 사는 우리는 물론 건축의 결과치가 소멸되기까지 사용자와 주변인구의 존재도 재인식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현실적인 규제와 제약으로 인한 일부 건축주의 무절제한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단순한 건축행위로 전락하는 행위도 단호히 배격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사 스스로 그동안 담아온 본질적인 건축에의 의미 구현을 위한 필요만큼의 보상도 정당화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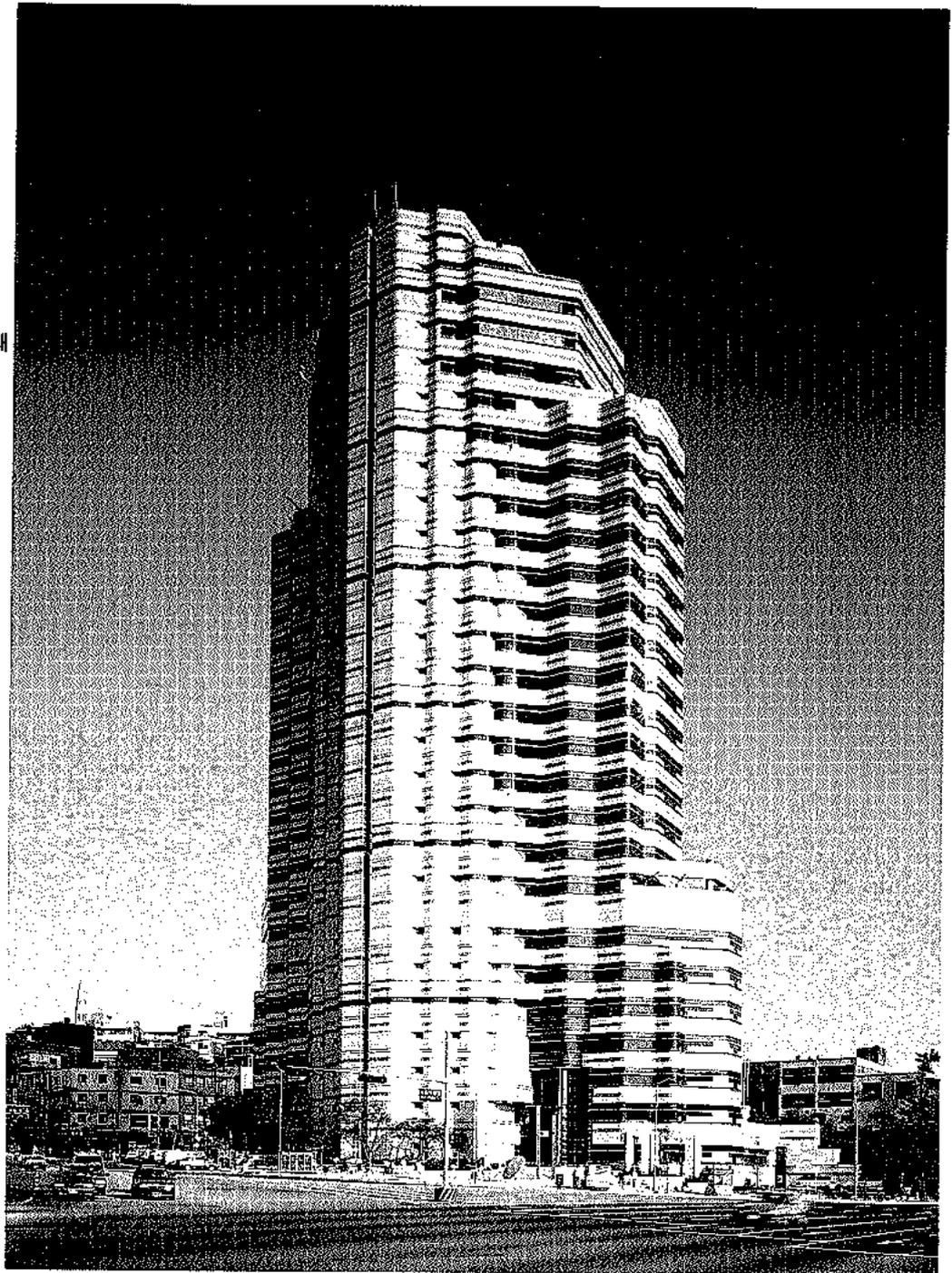
바쁘신 중에도 오늘의 좌담회를 위해 긴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진지한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벽산125/故 金壽根	28
카타르시스/金仁喆	31
큐닉스 청담사옥/朴容秀+郭成文	34
홍익대학교 조치원 캠퍼스/吳基守	37
한신증권사옥/權棹雄	40
범우사옥/宋光燮	42
일우빌딩/姜聲益	44
춘천 최고수댁/孫基贊	46
잠실교회/禹時庸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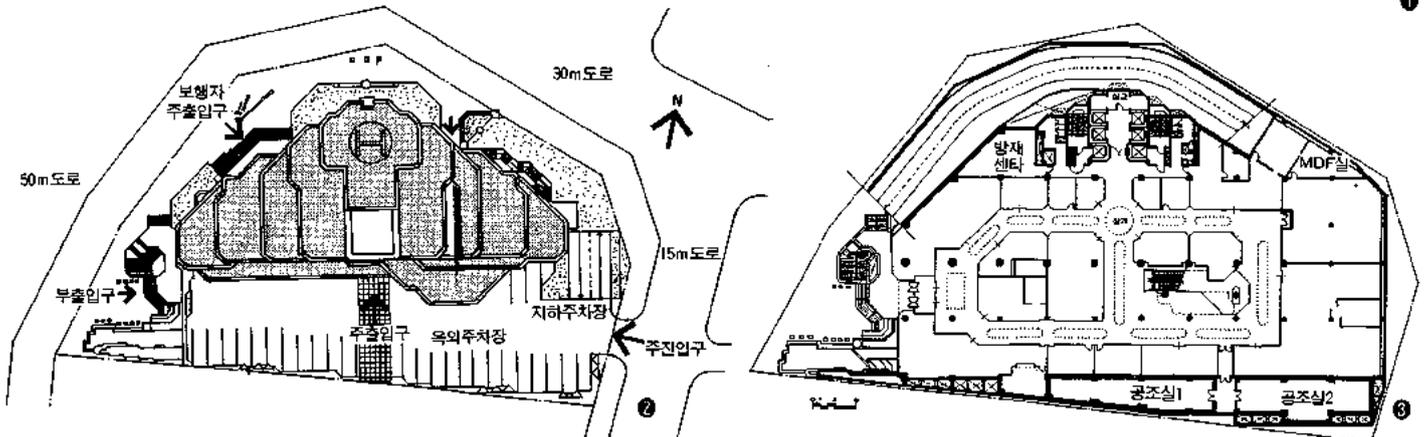
# 벽산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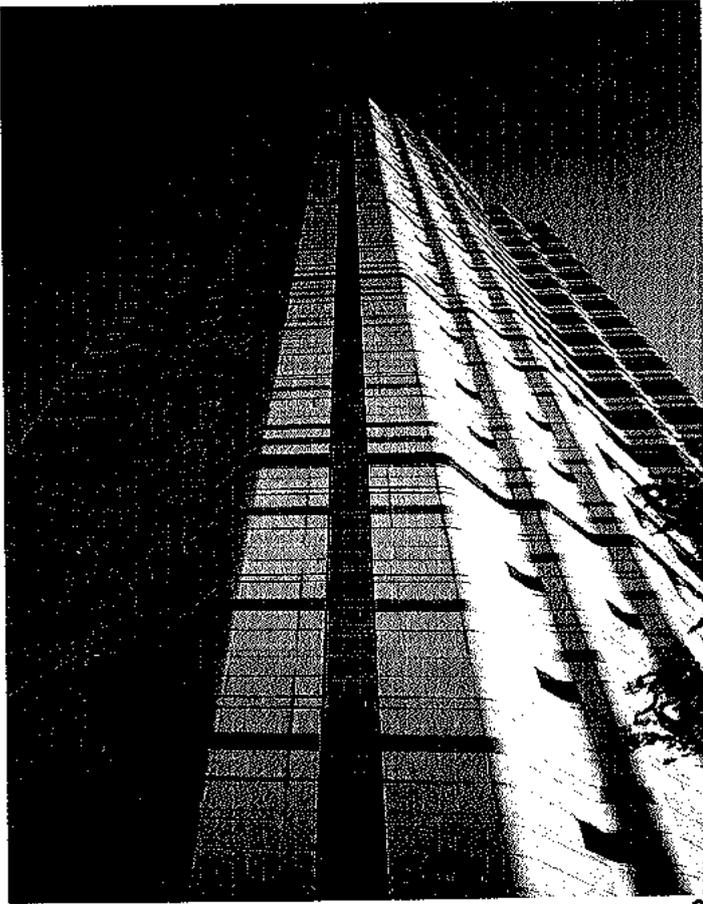
Byucksan 125

대지위치/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12-5 일대  
 대지면적 : 3,629.4m<sup>2</sup>  
 건축면적 : 1,650.92m<sup>2</sup>  
 연면적 / 40,599.69m<sup>2</sup>  
 규모 / 지하 6층, 지상 24층, 옥탑 3층  
 구조 /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 백색계 AL 복합단열판,  
 THK24 페어글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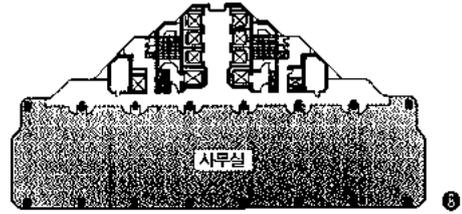


故 金壽根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Soo-Keun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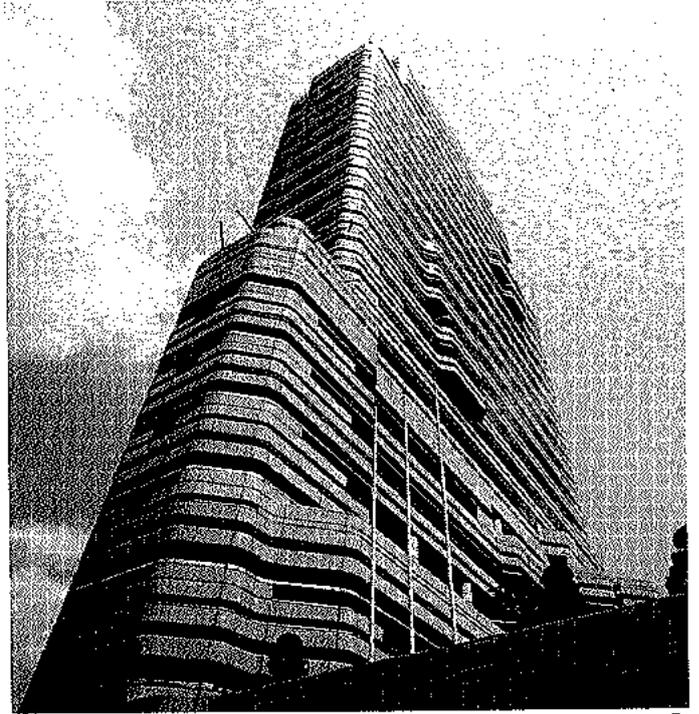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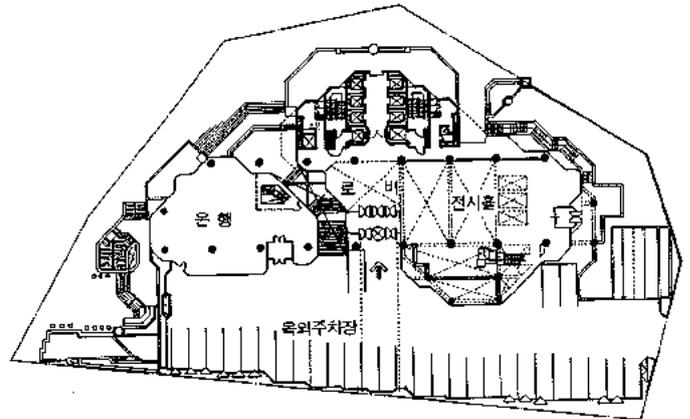
- 1 전경
- 4 외벽상세
- 7 3층평면도
- 2 배치도
- 5 내부통로
- 8 기준층평면도
- 3 1층평면도
- 6 양각전경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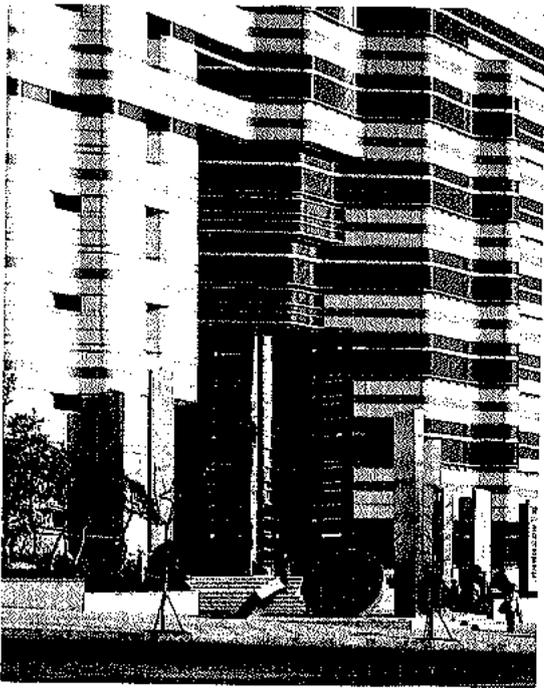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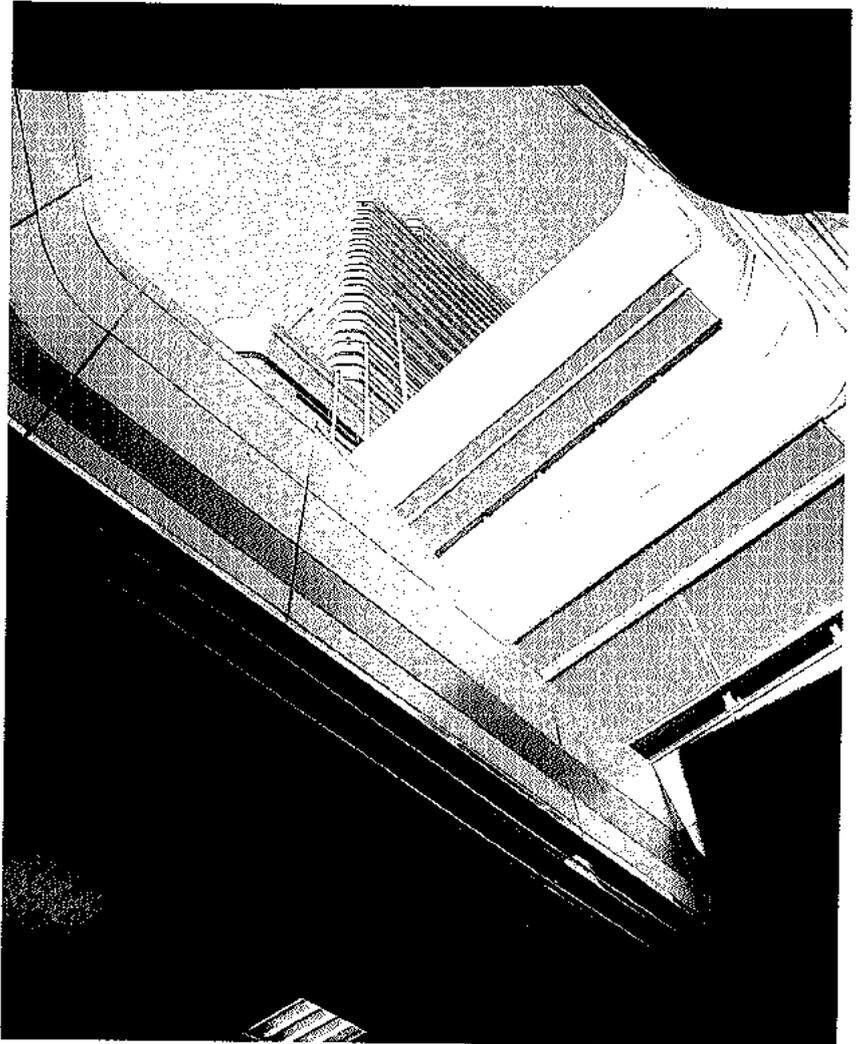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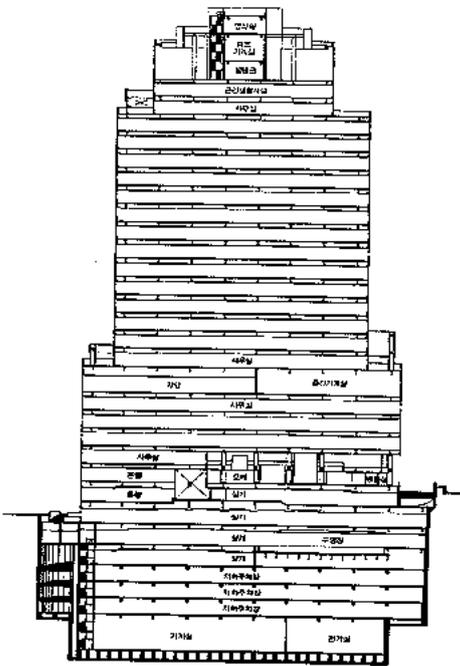
- ⑨ 보령자 주출입구      ⑪ 동서단면도
- ⑩ 올려다 본 전경      ⑫ 로비



⑨



⑩



단면도

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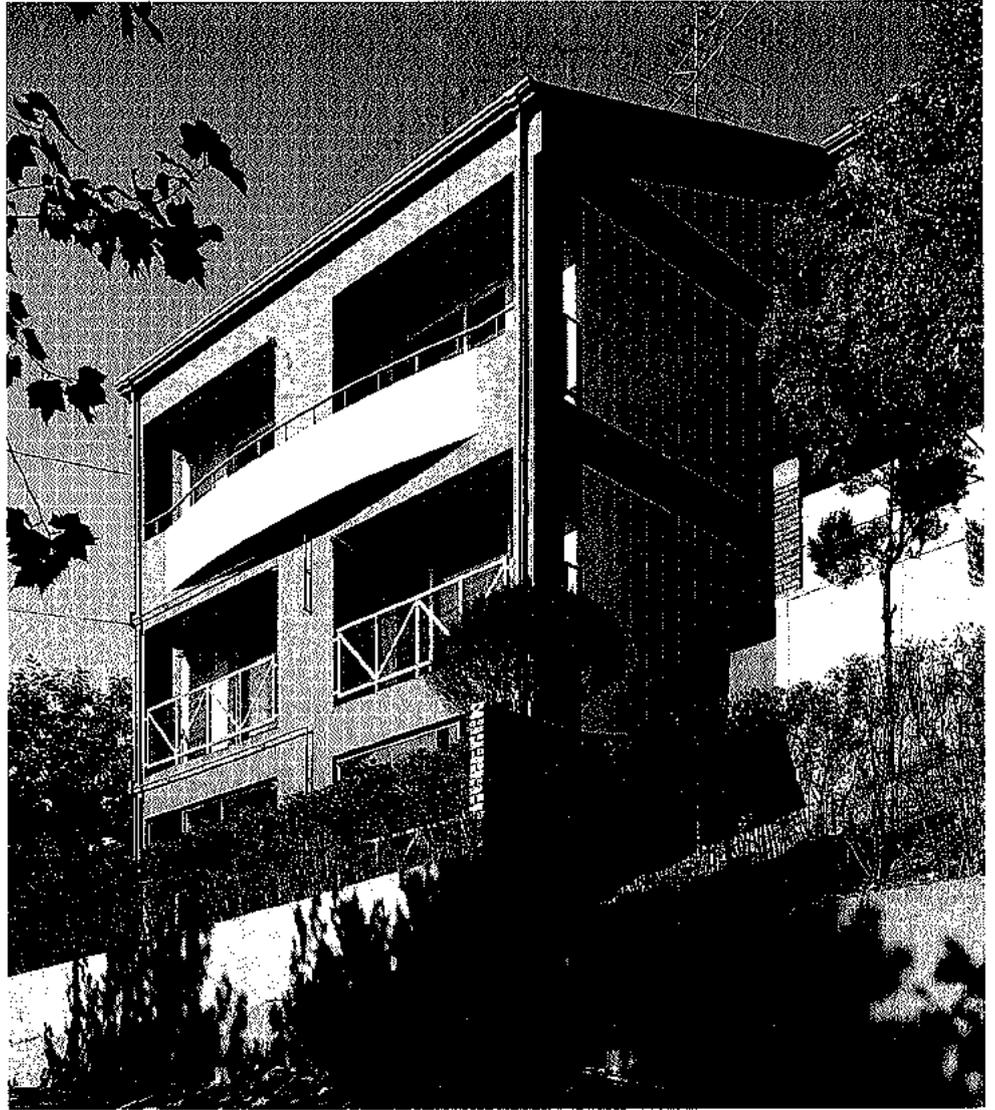


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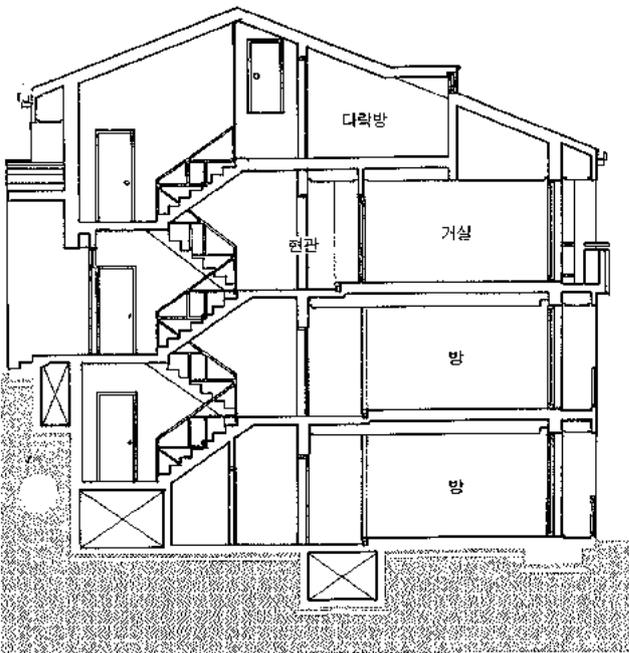
# 카타르시스

Catharsis

대지위치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413-135, 158  
 지역 · 지구 / 주거전용지역 · 4종미관자구  
 건축면적 / 111.65㎡  
 연면적 / 329.93㎡  
 건폐율 / 36.49%  
 용적률 / 71.96%  
 구조 / 조적조  
 외장재료 / 벽 - 수성도료 도장창, PVC새시,  
 목층유리  
 지붕 - 컬러 아스팔트 워킹



金仁喆 / 중앙건축사사무소 설계  
 Designed by Kim, In-Cho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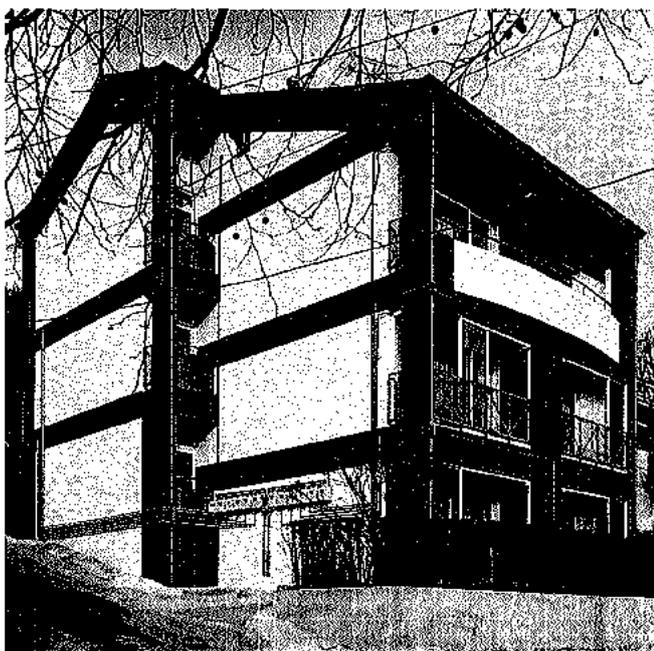
## ■ 설계소요

요즘엔 연필잡기가 두렵다. 그림을 그리는 것이나 글을 쓰는 것 모두가 쉽지가 않다. 머릿속에서 맴돌기만 하는 정리되지 않은 생각과 아물거리는 어렴풋한 형상이 제대로 잡혀지 않는다. 친구라고 찾아온 건축주를 마냥 기다리세 할 수도 없이 진퇴양난이 된다. 솔직해지기로 마음먹는 쪽이 편하다. 복잡한 생각들은 나중으로 젓혀두고 주어진 조건과 요구에만 충실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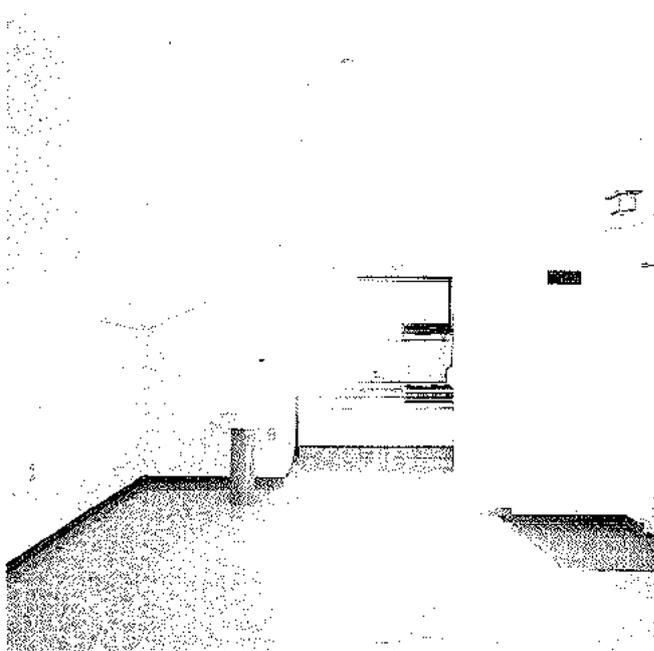
성산대로에 면한 남향의 언덕밭이에 경사진 대지가 있고 친구가 10여년을 살았던 주택이 열집과 비슷비슷하게 어울려 있던 곳이다. 일찍 주택임자들에 의해 개발된 듯한 주택들이 제수명을 다한듯 몇채는 헐리어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아파트로 옮겨간 건축주는 여기에 다가구 주택을 농기를 원하고 있었는데 뒷블럭의 주택이 그런 변신을 이미 했기 때문이다.

외국어학당의 연수생이나 지방출신학생과 독신셀러라멘들이 입주대상이 되는 깔끔한 공동주거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조건과 가장 경제적인 투자로 최대의 이윤을 보장해야 되는 요구에 충실해 바닥과 벽과 지붕이 있는 단순한 형태, 최소한의 공유면적과 집약된 생활공간의 기능해결만으로 설계를 마감한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 쉽게 설계하고, 쉽게 짓고, 쉽게 살수있는 점으로만 생각하면 된다. 조적조의 단열체를 포함한 벽두께 30cm와 난간, 흙통, 가스파이프가 이집의 전부이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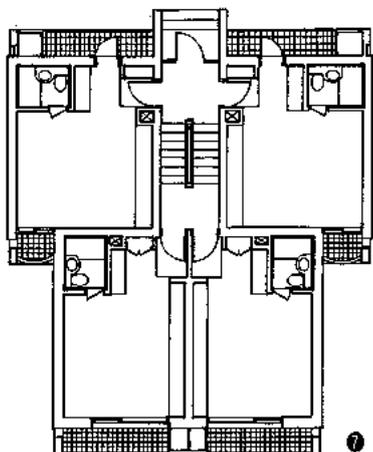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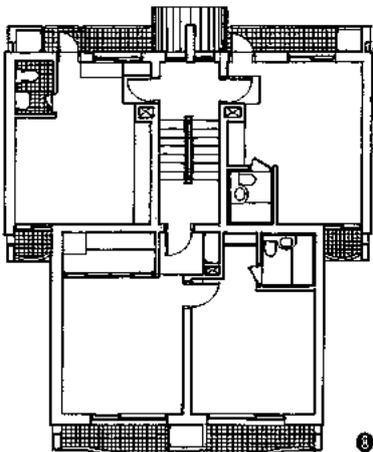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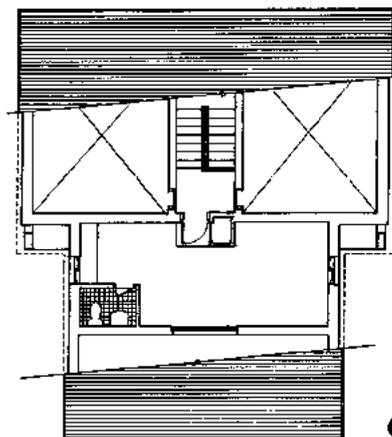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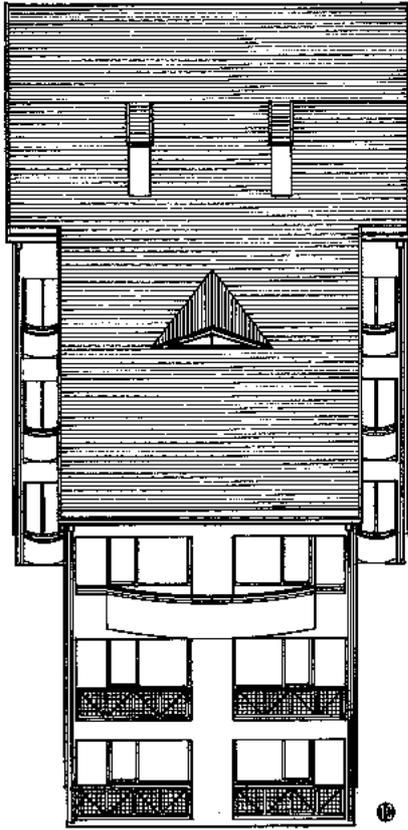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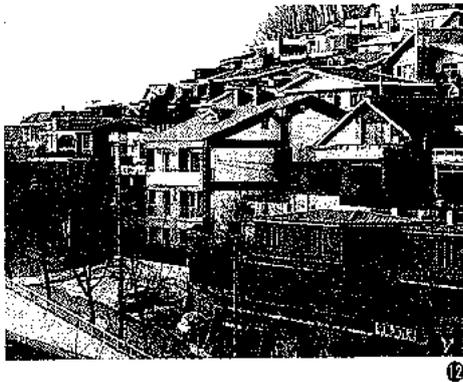
8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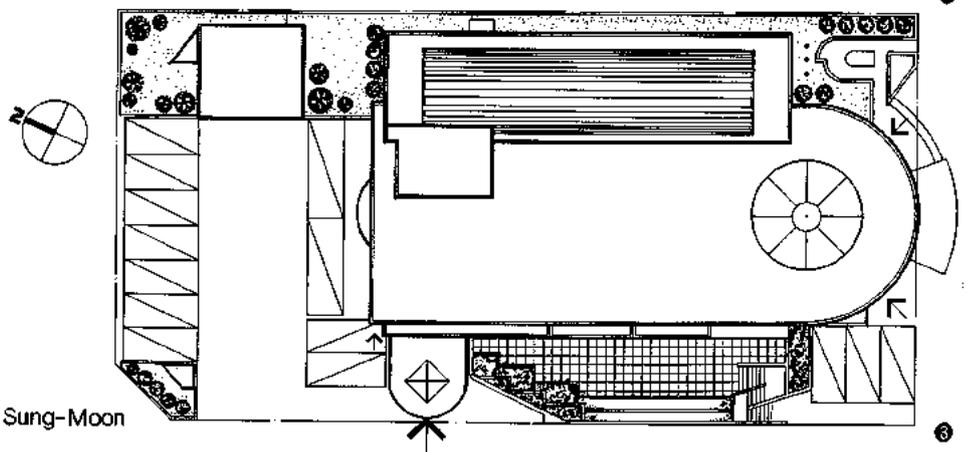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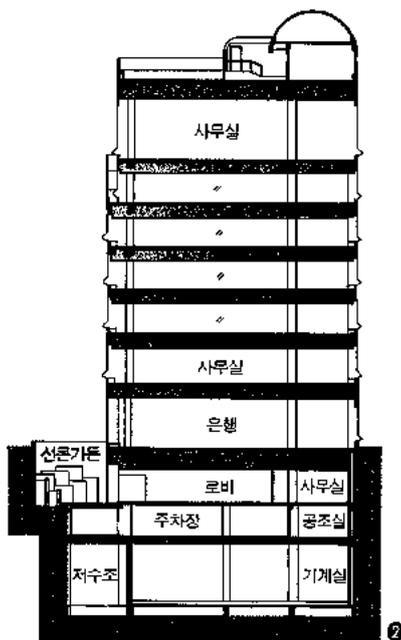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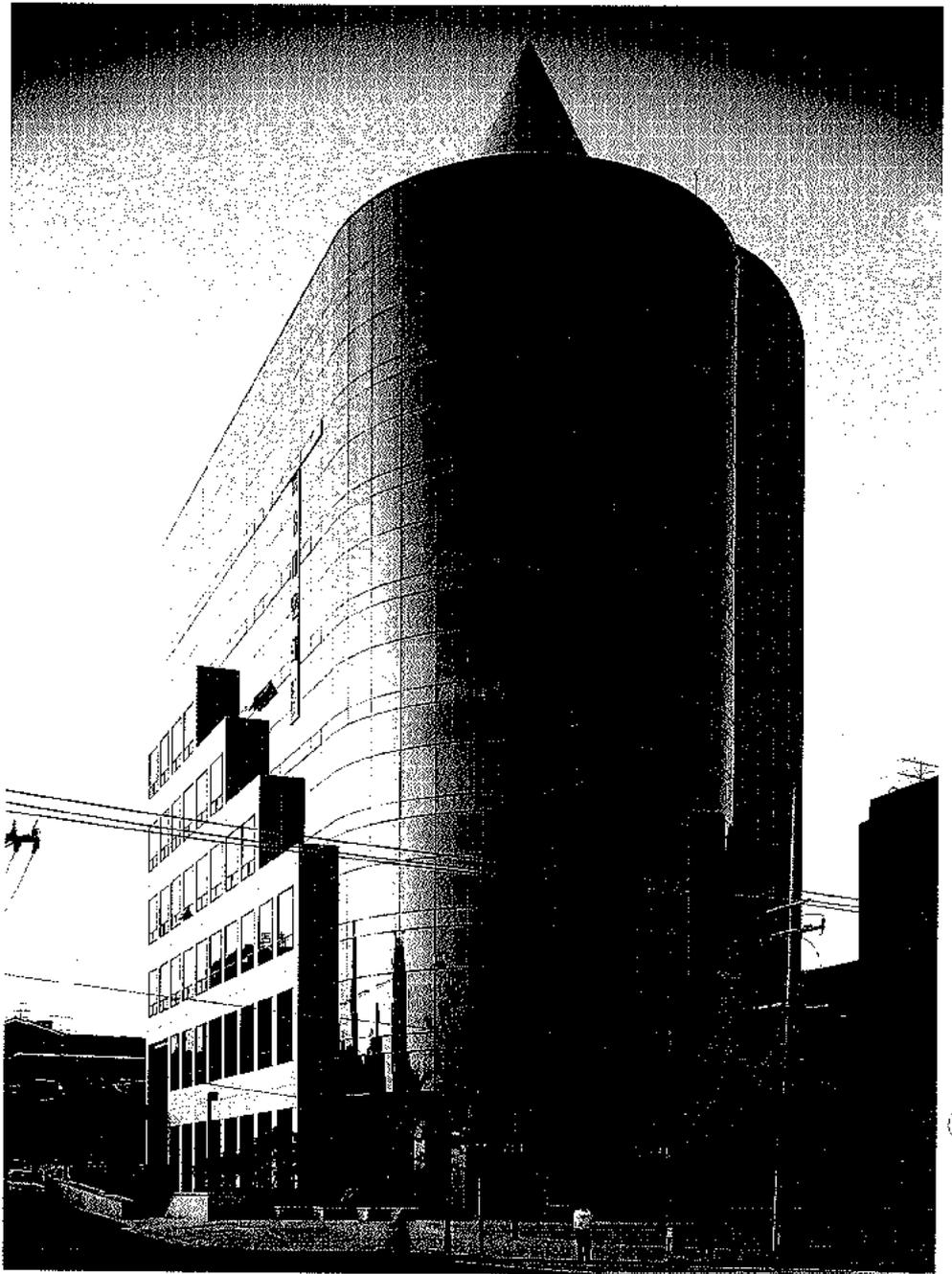
- |           |               |           |
|-----------|---------------|-----------|
| ① 전경      | ⑥ 배면 주출입구측 전경 | ⑪ 배면전경    |
| ② 단면도     | ⑦ 1층평면도       | ⑫ 원경      |
| ③ 좌측전경    | ⑧ 2층평면도       | ⑬ 외벽상세    |
| ④ 내부전경 I  | ⑨ 지붕층 평면도     | ⑭ 주출입구 상세 |
| ⑤ 내부전경 II | ⑩ 엑스노메트릭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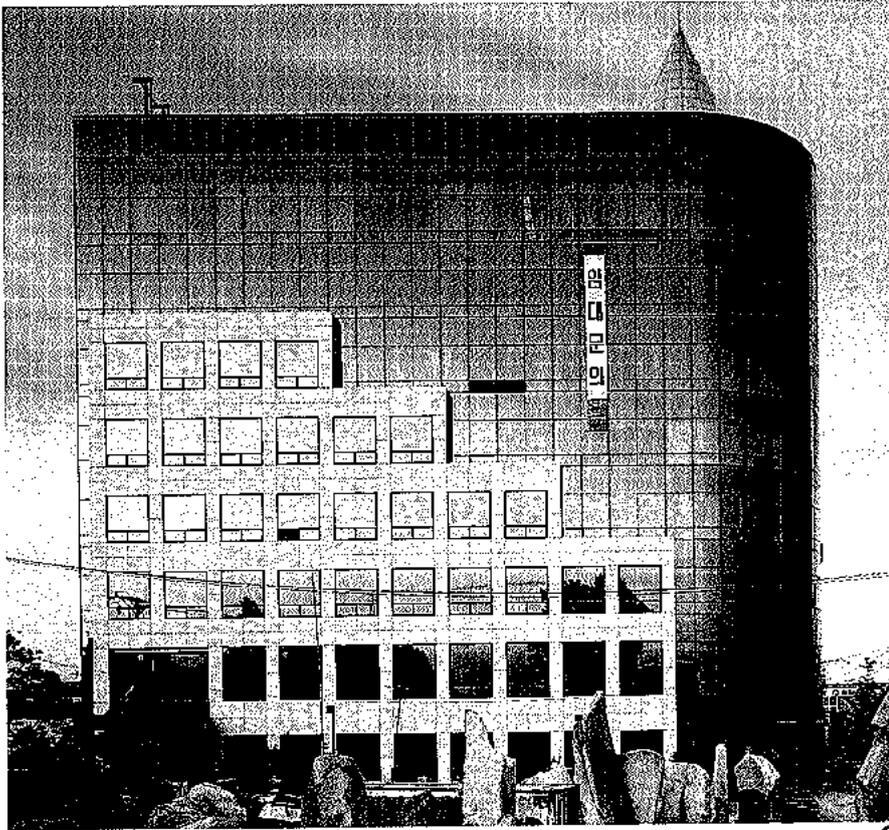
# 큐닉스 청담사옥

Qnix Office in  
Choungdam-d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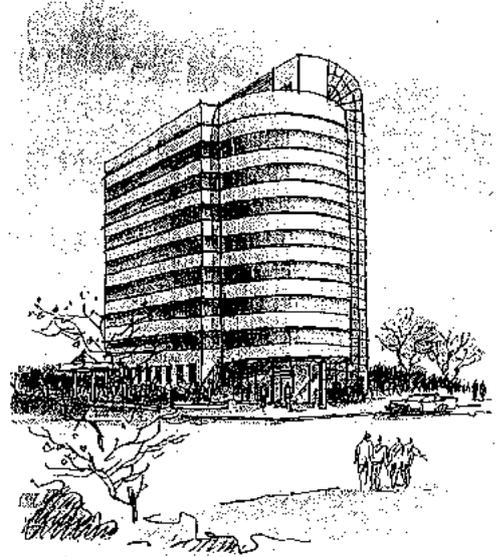
대지위치/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97외  
 대지면적/1,767.00㎡  
 지역·지구/일반주거지역, 일부 상업지역  
 주차장정비지구, 2종미관지구  
 건축면적/808.35㎡  
 연면적/9,032.195㎡  
 건폐율/45.73%  
 용적률/297.5%  
 구조/철근콘크리트 라멘조  
 규모/지하 3층, 지상 8층  
 외부미감/화강석+알루미늄 커튼월



朴容秀+敎成文/종합건축사사무소 두우  
 Designed by Park, Yong-Soo & Kwak, Sung-Moon



- ① 전경
- ② 종단면도
- ③ 배치도
- ④ 정면파사드
- ⑤ 초기안 스케치 I
- ⑥ 측면전경



■ 설계소요

개성있는 건물이어야 한다. 전체로서의 가로환경에 부정적인 역할을 해선 안된다.

주택들과 중규모 오피스 사이에 비집고 들어서야 할 8층 규모의 건물이 과연 어떤 형태로 놓여짐으로써 이 요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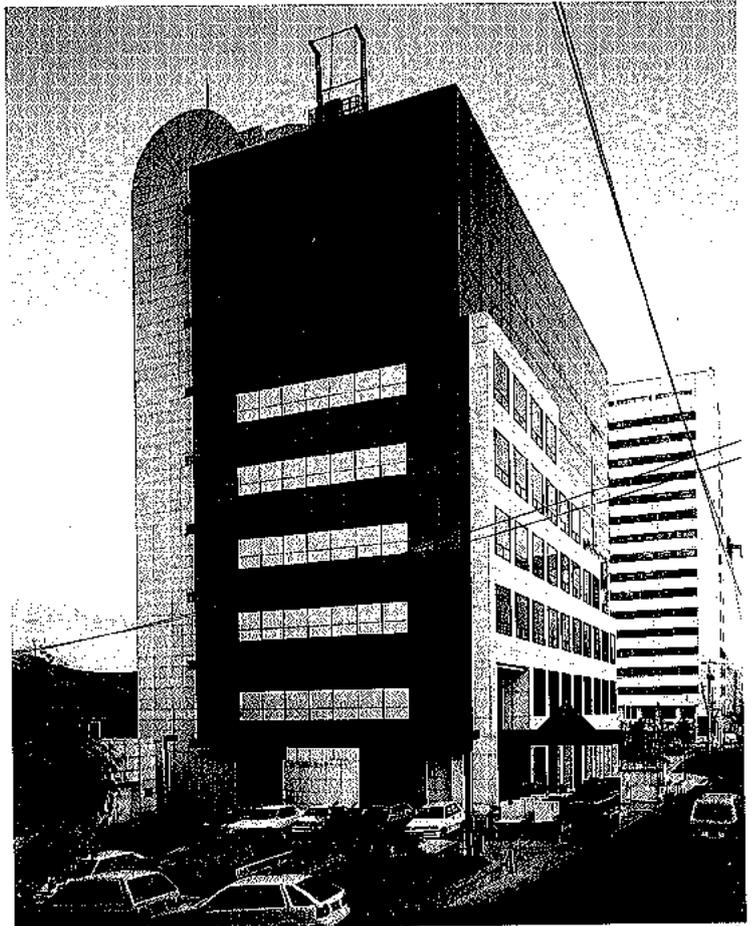
대지는 대로변과 짧게 면해 있는 긴 직사각형 형태를 하고 있으며, 3면이 도로로 둘러싸여 있다. 그런 이유로 진입부는 건물을 끼고 돌아 좌측도로 깊이 두어 가로와 직교하는 짧은 축을 형성하고 전체적인 배치상태는 전면쪽으로 보다 절하도록 한 직방매스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불리한 대지조건에서 보행자 및 차량동선을 원활하게 해결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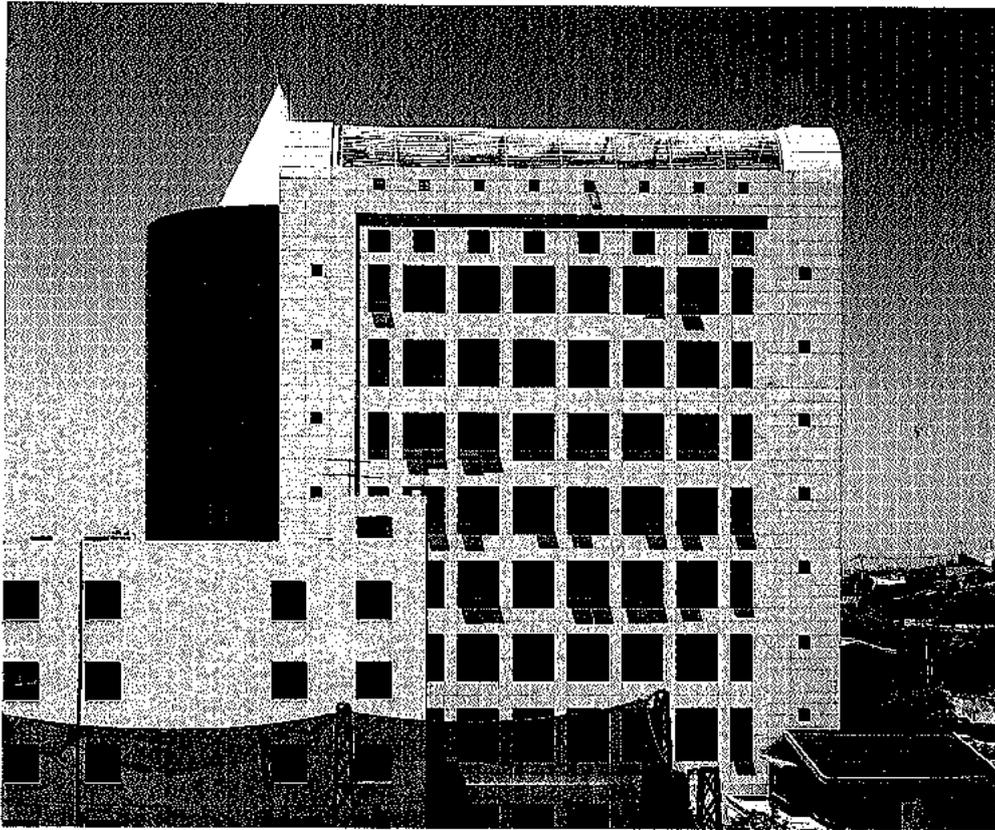
약 220여 평의 기준층 평면구성에 있어서는 후면부 End Core를 선택하여 북쪽으로 편중시키고 전면 남향쪽으로의 사무기능 극대화를 꾀하였다.

1층 은행의 입구는 대로변에서 진입되고 폭이 좁고 층수는 높기 때문에 자칫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으나, 전면 라운드 내부로 파고 들어 있는 출입구는 입구로서의 흡인력을 갖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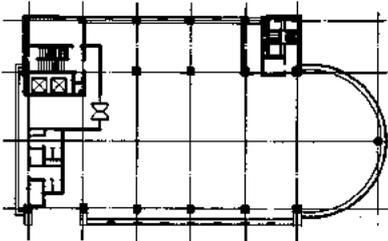
지하1층 전산실과 교육실로부터 6층 강당, 8층 연구실에 이르기까지는 오피스의 성격상 층별로 기능배분이 이루어졌으므로 내부 기능의 수직적 연계는 별도로 계획하지 않았다.

입면계획에 있어서는 원거리에서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건물주인 「큐너스」가 첨단 컴퓨터 생산업체라는 점을 표현해야 한다는 의식의 매스와 입면, 재료를 결정하는 주된 생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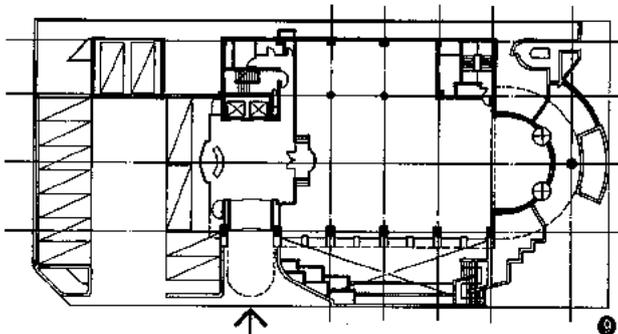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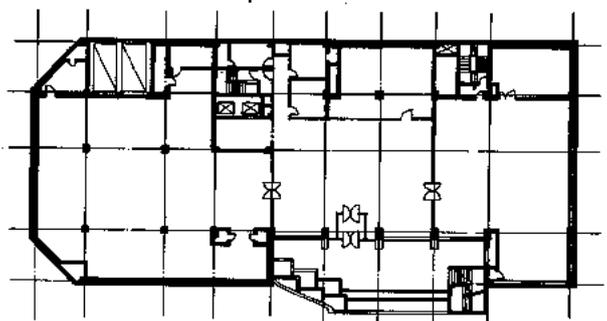
- ① 배면전경
- ② 기준층 평면도
- ③ 1층 평면도
- ④ 지하1층 평면도
- ⑤ 초기안 스케치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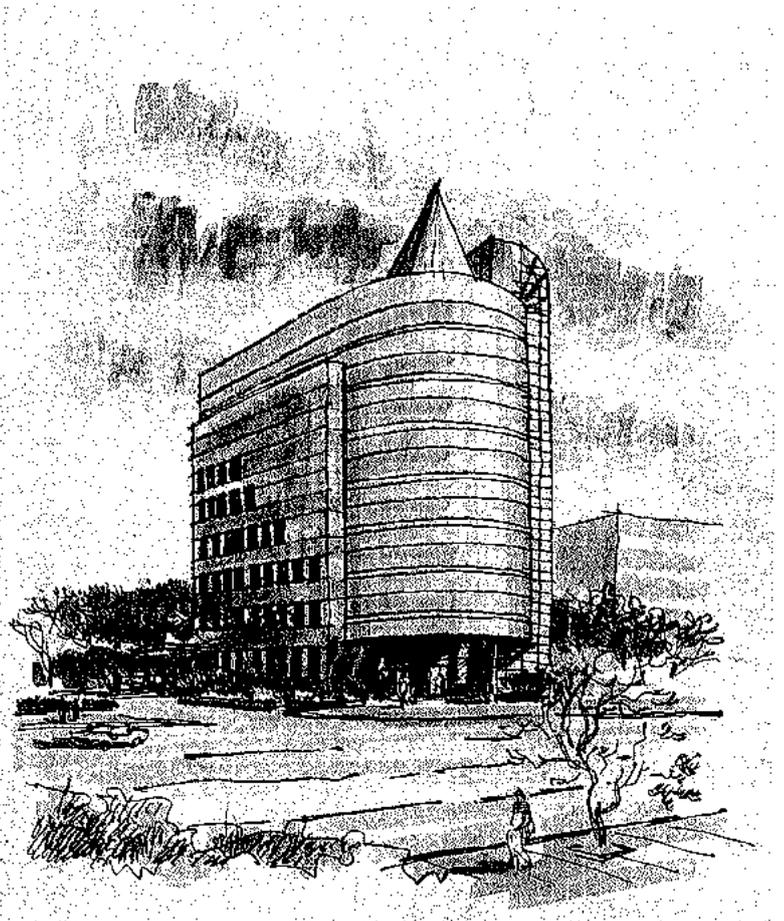
②



③



④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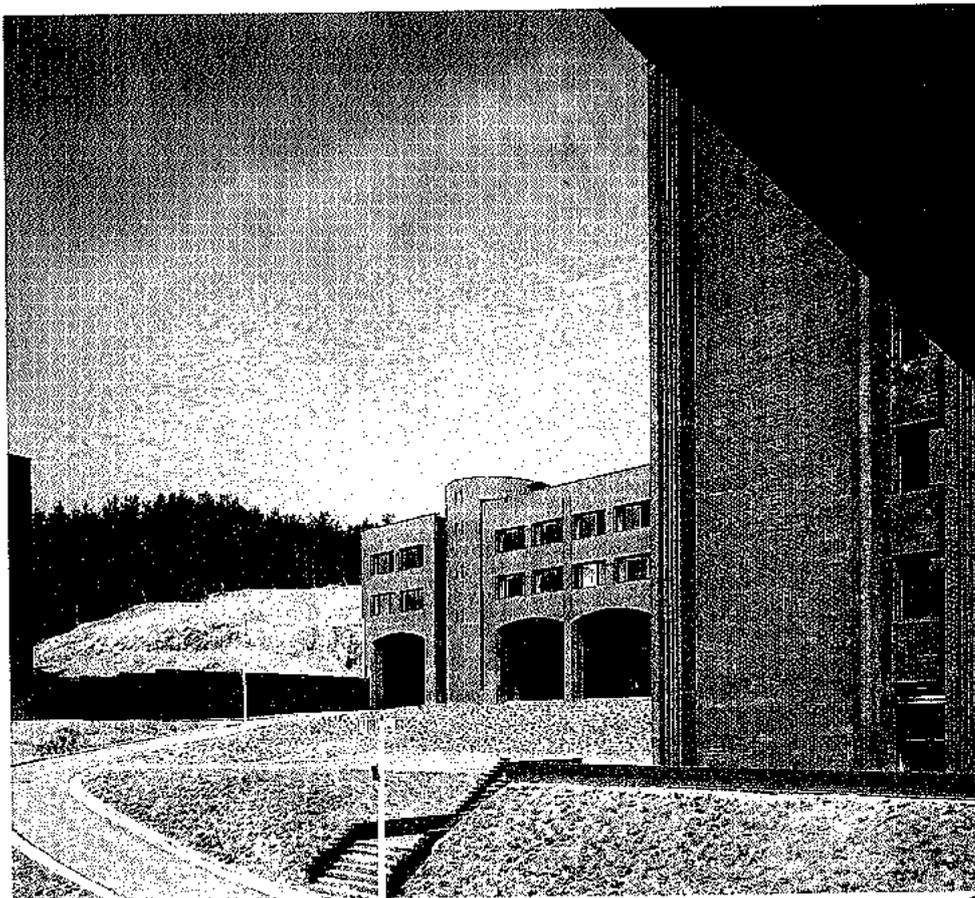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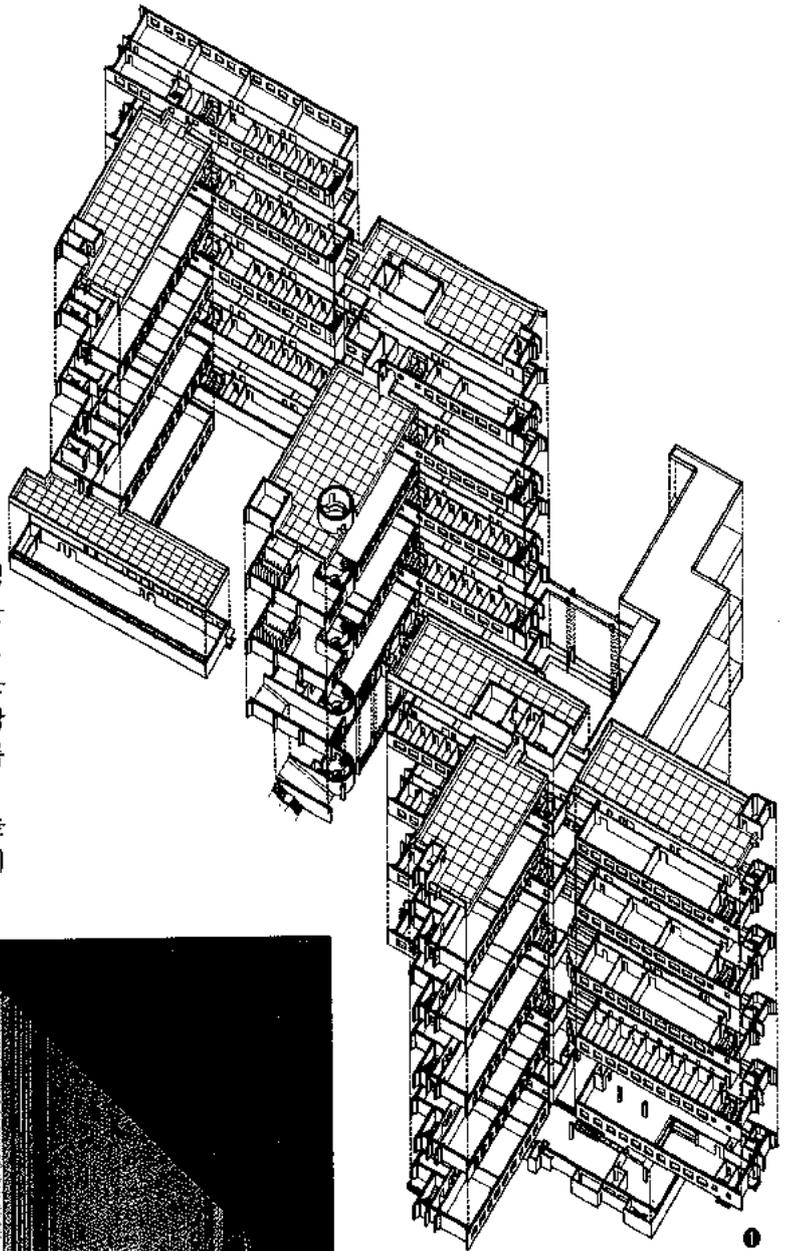
# 홍익대학교 조치원 캠퍼스

Hongik Univ. Chochiwon Campus

## ■ 설계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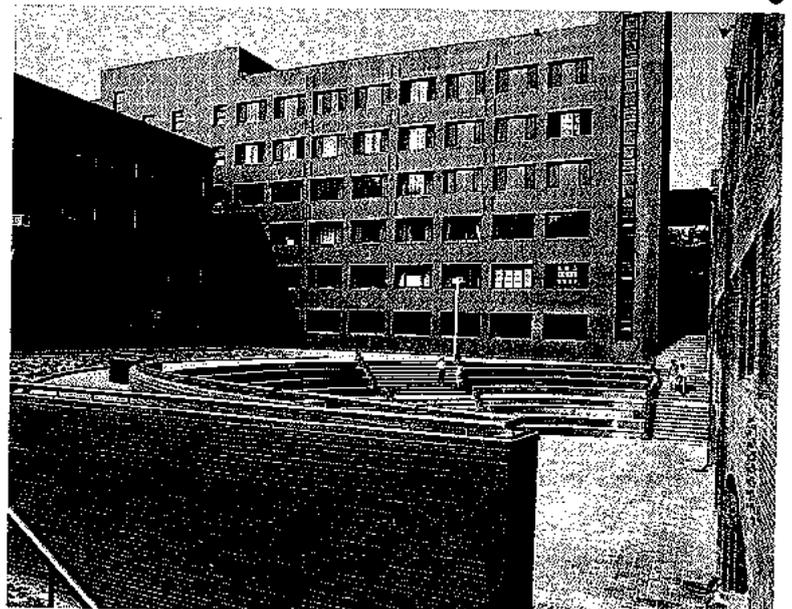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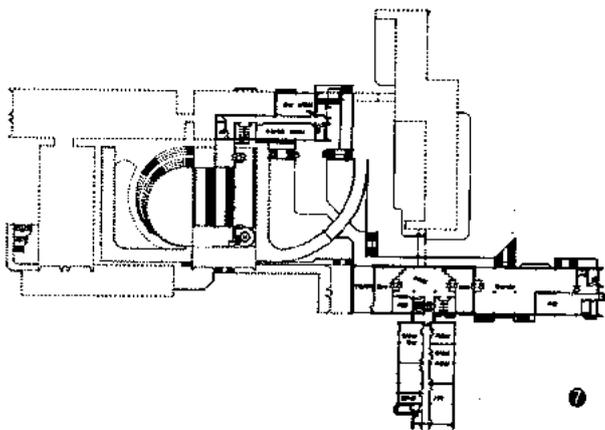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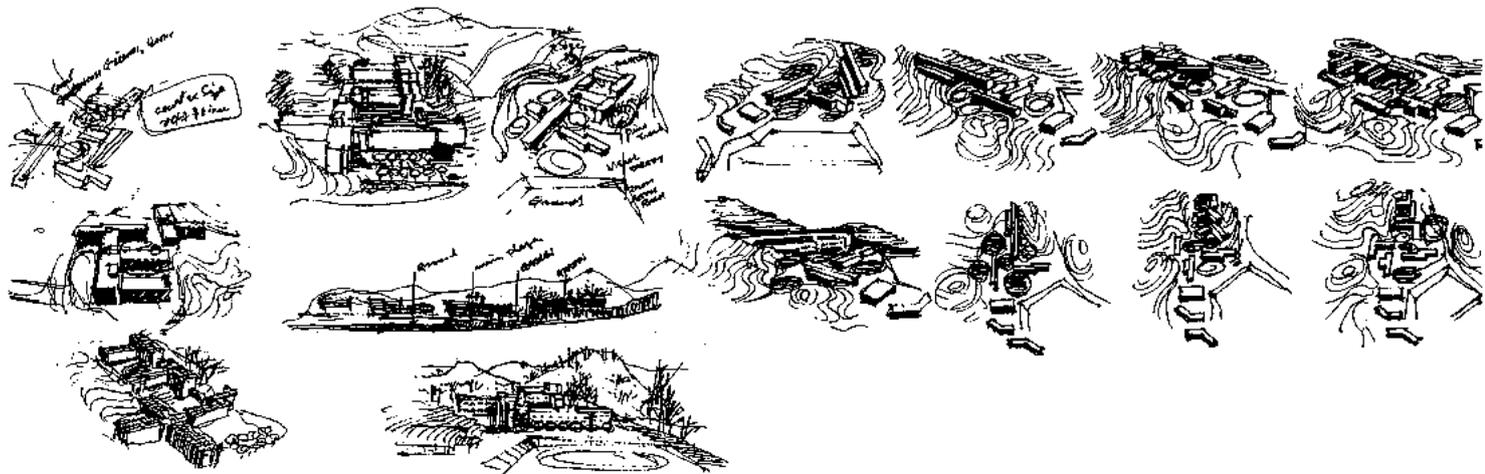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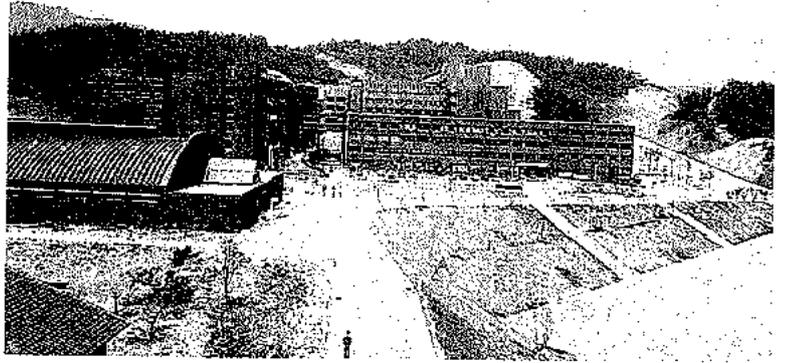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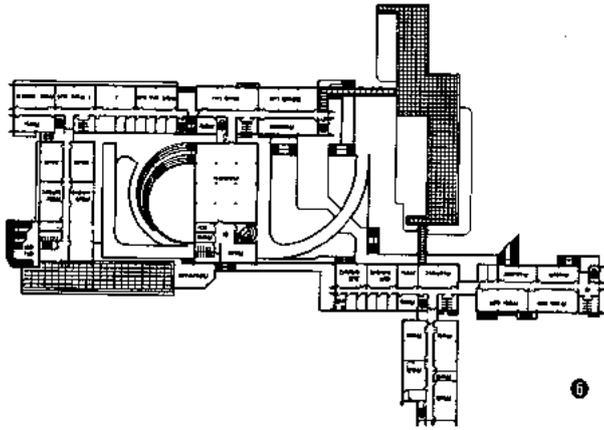
학교 진입시 기존의 소나무群이 시각상 중요(Visual Target)시 되었고 기존 건물의 배치 및 크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연환경과 조화되도록 배치하였다. 캠퍼스의 다양한 기능에 따라 건물을 分棟하였고 분리된 각棟은 브릿지, 복도 등으로 연결시켜 눈, 비, 햇빛으로부터 통행자를 보호하게 하였다. 또한 브릿지, 복도 등은 건물과 건물사이에 중정을 형성시켜 강의 외에도 교수와 학생, 학생 상호간에 밀접한 교류(Communication)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고 중정은 피로티등을 통하여 연결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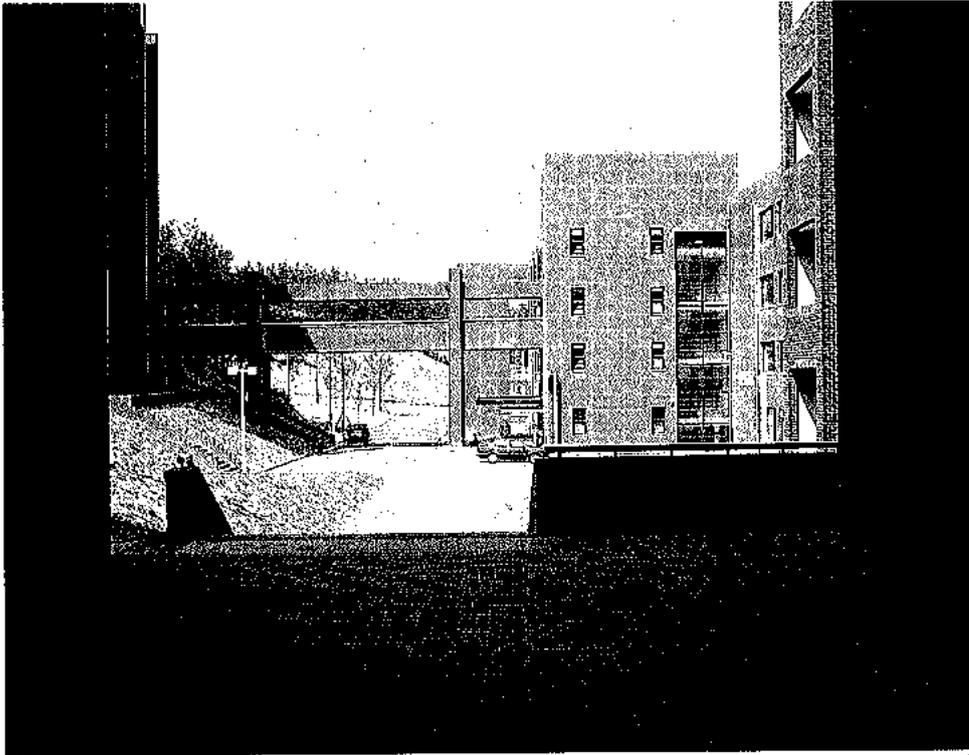
지형의 고차차를 이용한 단면 계획으로 토목공사량을 줄이고 높이가 다른 건물과 넓은 중정을 통하여 실내에 충분한 일조를 받게 하고 주변의 경관을 쉽게 조망할 수 있게 하였다.



대지위치/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신안리 산34  
 대지면적/245,472㎡  
 연면적/37,975.43㎡  
 건축면적/교사동 : 1,103.59㎡, 기숙사 : 405.24㎡,  
 체육관 : 1,102.32㎡,  
 공예실습관 : 328.49㎡, 가동 : 1,863㎡  
 나동 : 166.79㎡, 다동 : 2,148.43㎡,  
 리동 : 595.83㎡, 마동 : 17.28㎡,  
 비동 : 107.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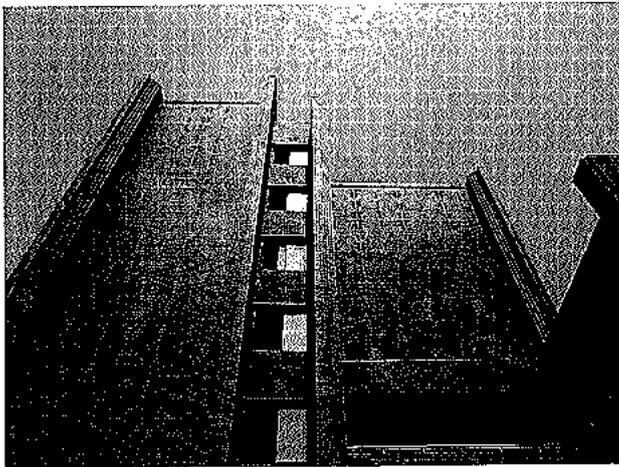
吳基守/종합건축사사무소 스페이스5  
 Designed by Oh, Ki-Soo





- ① 엑소노메트릭
- ② 도서관동과 화공계열동
- ③ 캠퍼스 전경
- ④ 개념스케치
- ⑤ 부광장과 전기계열동
- ⑥ 기계전기계열동 1층, 화공도서관 4층, 학생회관·예능 기타 계열동 5층 평면도
- ⑦ 화공도서관 지하층, 학생회관 예능·기타 계열동 1층평면도
- ⑧ 연결브릿지측 상세
- ⑨ 외벽상세
- ⑩ 주광장
- ⑪ 부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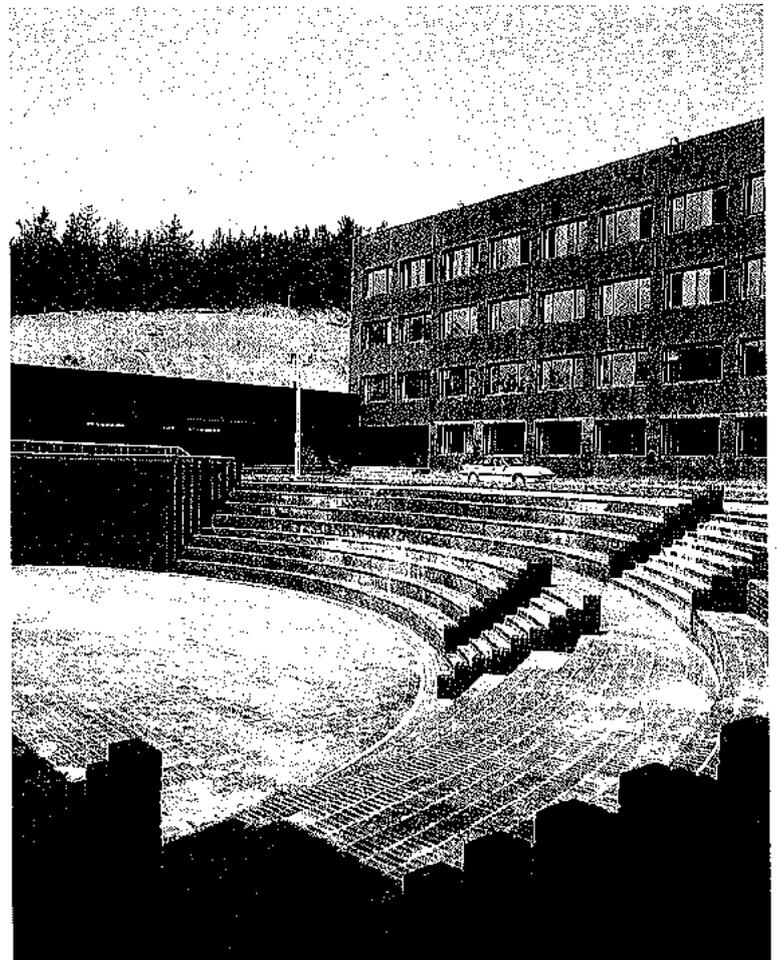
⑧



⑨



⑩



⑪

# 한신증권사옥

Hanshin Securities

대지위치/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7  
 대지면적/2,401㎡  
 건축면적/991.86㎡  
 연면적/25,633.52㎡  
 건폐율/41.31%  
 용적률/752.09%  
 규모/철골 철근콘크리트  
 외장재/화강석 물갈기+버너구이(칼멘레트)  
 24mm 복층반사유리  
 주차대수/203대(옥내 182대, 옥외 21대)



權裯雄 / (주)정림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won, Do-Woong

## ■ 설계소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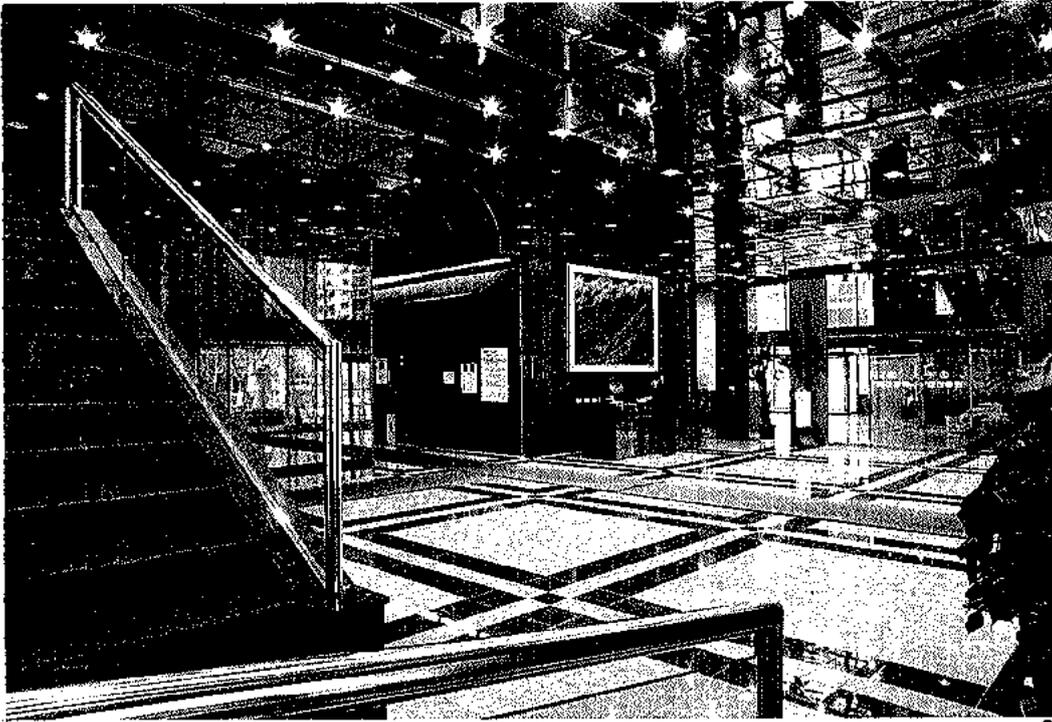
이 건물의 물리적 입지 여건은 여의도의 35m 간선도로 및 20m 도로를 전면과 측면에 둔 증권사 밀집 블록내에 위치한다.

이 프로젝트의 시발점은 바로 이런 업무용 임대 건물군에 의해 무채색으로 그려진 가로 경관에 신선한 충격을 가하여 활기있고 진취적인 조형물로서 아이덴티티를 부여하고, 도시적 맥락과 조화를 이루면서 증권 블록내에 중심적 표상으로 부각시키는 것이었다. 그 점이 건축주의 기업 이미지와도 부합하여 큰 어려움 없이 디자인이 진행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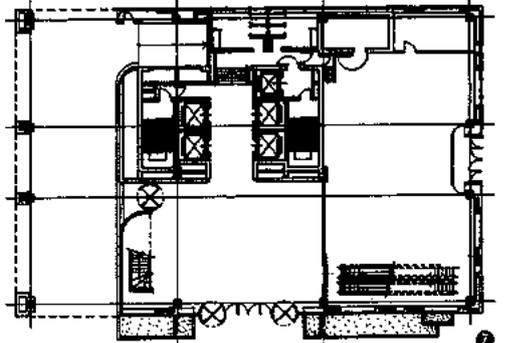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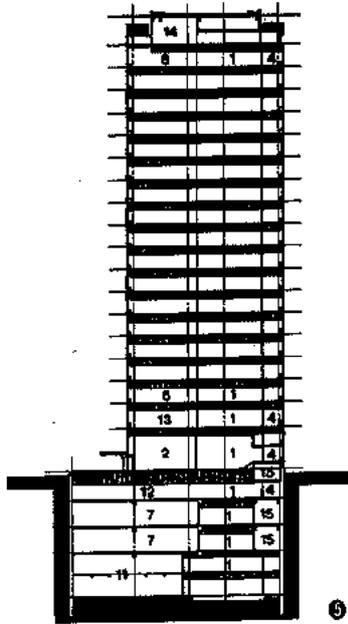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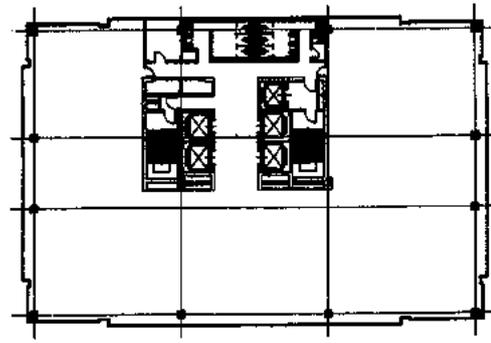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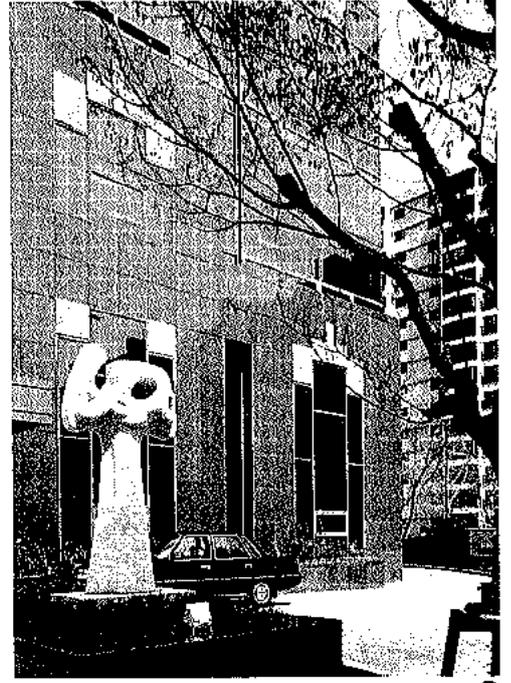
외부 조형에서는 통일된 형태어법 속의 절제라는 큰 명제를 두고, 제반사항들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기업의 대외 이미지를 건축요소에 재현시켜 친숙함을 주는 저층부, 안정성과 신뢰감을 주는 중층부, 미래지향적인 고층부로 분할하여 그 의도를 동시 수용하고, 내부에

서는 중층과 보이드의 시도로 공간의 역동성과 드라마틱한 분위기를 연출함과 동시에 외부의 패턴을 내부에 재수용하여 일반 고객이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대중적 건축을 유도하였다.

이러한 시도외에도 최근 증권업의 추세가 대형화와 국제화의 경향을 띠어 대 고객업무의 개선방안 및 최신 설비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인텔리전트 빌딩(Intelligent Building)화 할 수 있는 여건들을 계획 초기 단계부터 건축·구조·전기·기계 전분야에서 협동작업을 이루어 사무실의 OA (Office Automation) 및 LAN(Local Area Network)에 대한 용량 확보·공간확보(3 way cellular duct, 입상 shaft)가 배려되고, 에너지 절약형 기기 및 시스템을 채용하여 건물 준공후 설비 방식이 상대적으로 노후되지 않도록 계획되어, 기능과 안전의 3박자를 고루 갖춘 건축의 본질에 충실을 기하였다.



- ① 전경
- ② 로비전경
- ③ 엘리베이터홀
- ④ 저층부 디테일과 조형물
- ⑤ 주단면도
- ⑥ 1층평면도
- ⑦ 기준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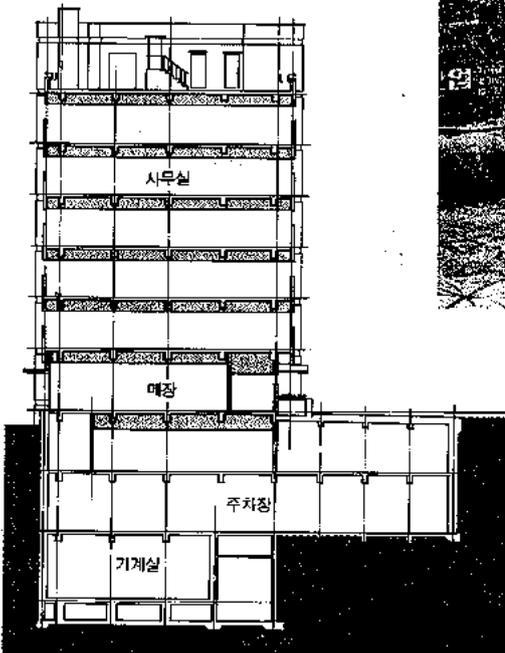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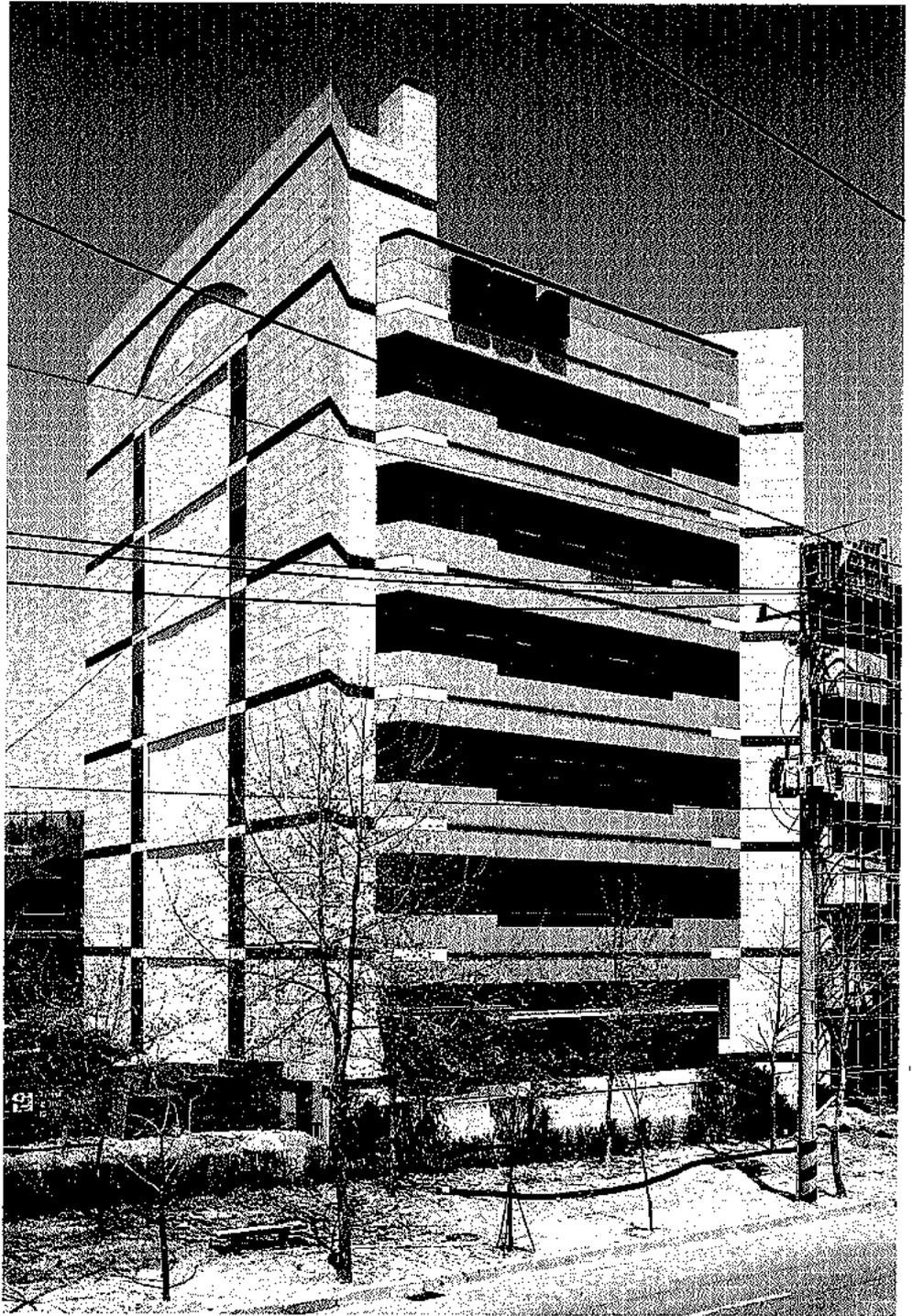
- 1. ELEV 홀
- 2. 로비
- 3. 온탕
- 4. 화장실
- 5. 금고
- 6. 사무실
- 7. 주차장
- 8. 기사대기실
- 9. 배종실
- 10. 주차통로
- 11. 전기실
- 12. 근린생활시설
- 13. 출근 영업장
- 14. 공조 기계실
- 15. Ramp

# 범우사옥

Bumwoo Building

대지위치/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70-3  
 지역·지구/일반주거, 주차장정비지구  
 대지면적/512.5㎡  
 건축면적/249.98㎡  
 연면적/2,537.09㎡  
 건폐율/48.78%  
 용적률/284.2%  
 외부미감/화강석 버너구이, 드라이비트

宋光燮/종합건축사사무소 환  
 Designed by Song, Kwang-Su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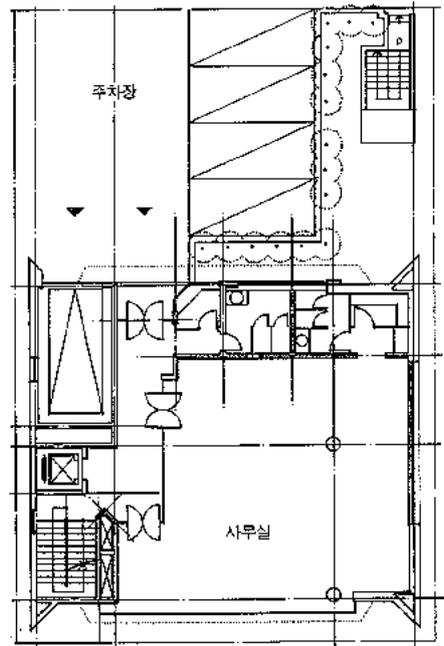
## ■ 설계소요

대부분 주택가에서 비교적 큰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장소는 중·소규모의 빌딩숲으로 변하게 된다. 이는 애초부터 이웃과의 마찰이 예상될 수 있으며, 또한 그러한 고려사항은 곧 그 집의 표피와 방향을 결정하곤 한다. 양쪽의 문제점을 포용하여 비교적 서로간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물리적 고려사항이 양쪽 날개로 균형잡힌 파사드를 갖는 대칭형의 모습을 갖게 했다. 이는 양쪽의 건물 이웃과는 무관하게 대처될 수 있으며, 수평으로 매끄러운 창문의 개방감이 필수적이며, 필요한 광량만큼 조절된 것이다. 전면 녹지공간과 1층과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후면의 진입은 그러한 관계가 조금이나마 정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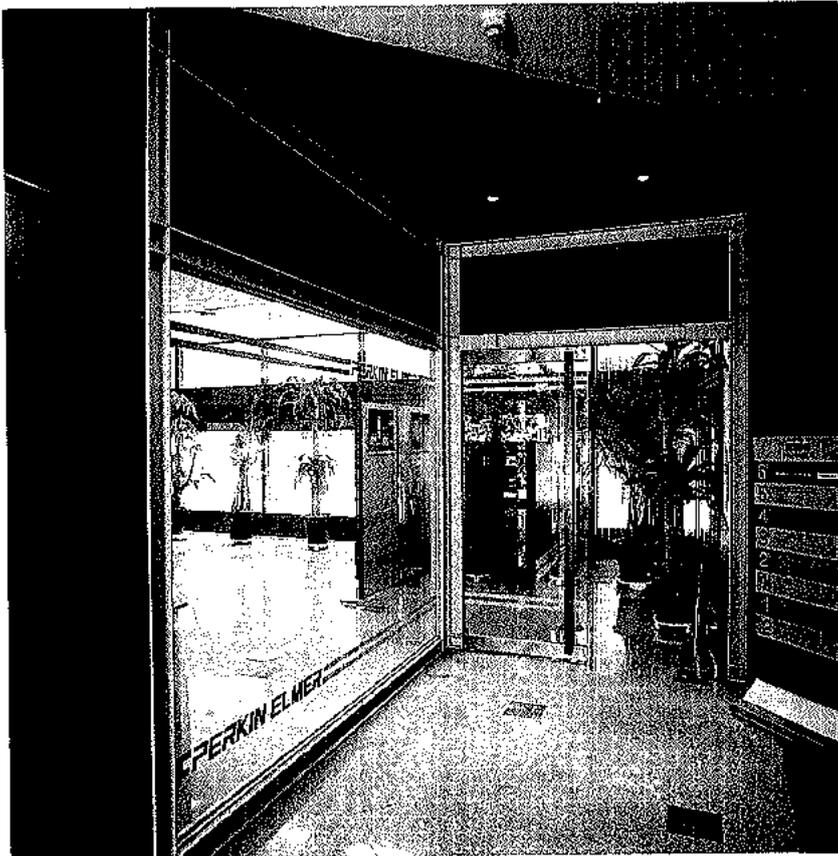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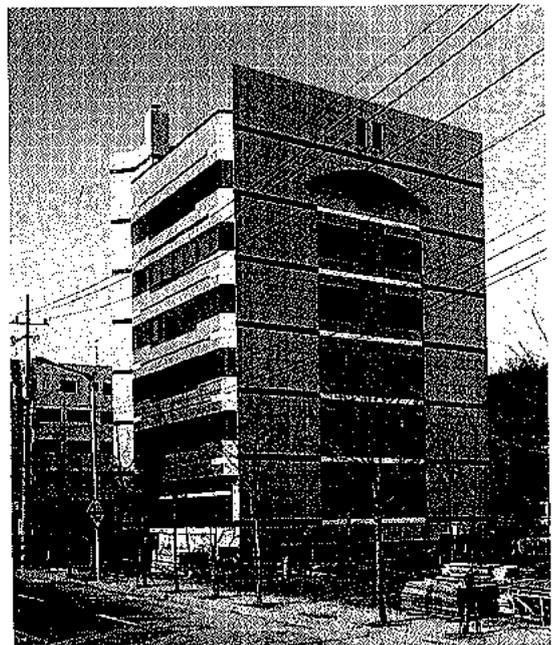
- 1 전경
- 2 단면도
- 3 주출입구
- 4 로비
- 5 동측전경
- 6 배치 및 1층평면도



6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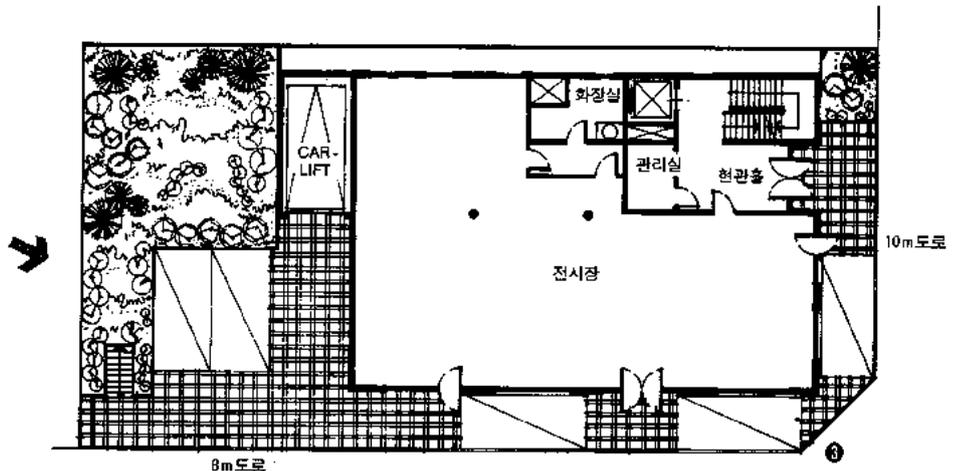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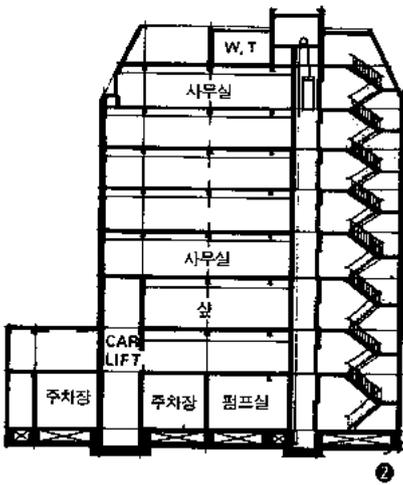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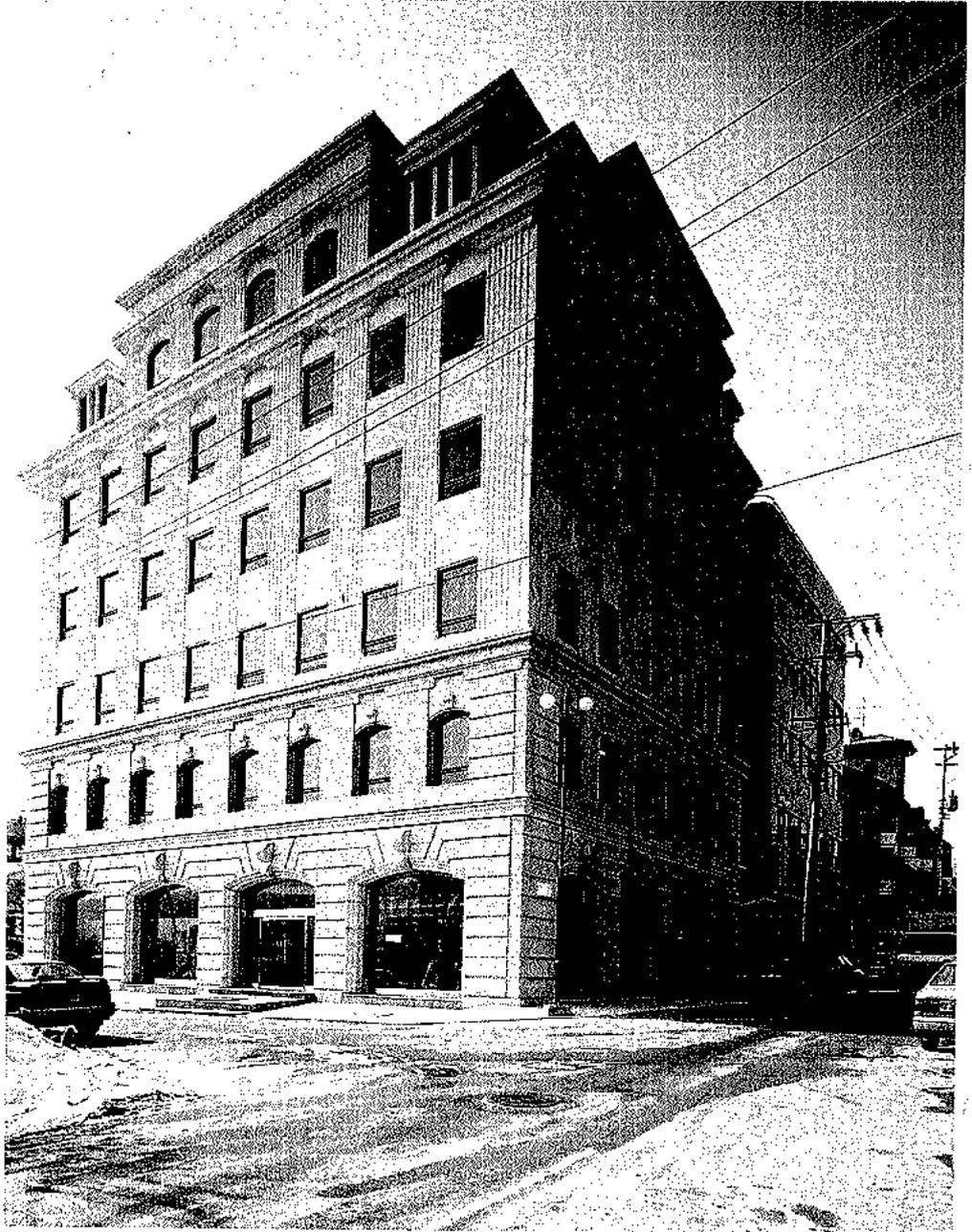


5

# 일우빌딩

Yilwoo Building

대지위치/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66-1  
 지역·지구/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대지면적/627.4㎡  
 건축면적/313.3㎡  
 연면적/2,837.6㎡  
 건폐율/49.9%  
 용적률/296.6%  
 규모/지하 2층, 지상 6층  
 구조/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THK 150~30mm 화강석 버너,  
 예탈 그라니트 스프레이



姜聳益/한라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ang, Sung-ik



4

### ■ 설계소묘

본 건물은 양재동 사거리에서 성남 방향의 강남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에는 아름다운 서구풍의 빌라촌이 위치하고 있다. 여기 강남 최고의 주거지에서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과 잘 어울리는 건물을 세워야겠다는 건축주의 요청에 의하여 여러 날 고심하였다. 따라서 본 건물은 건축주의 구상과 건축가의 디자인 모티브가 잘 조화를 이룬 작품이다. 즉, 기존 건물의 단순한 외형의 재현이 아닌 서구풍의 고전적 건축개념이 사실적으로 표현되도록 한 건물 형태이다. 그리고 디자인 모티브와 기능은 서구 중세시대 건물의 외관과 현대적 양식이 조화를 이룬 낭만주의 절충식에서 출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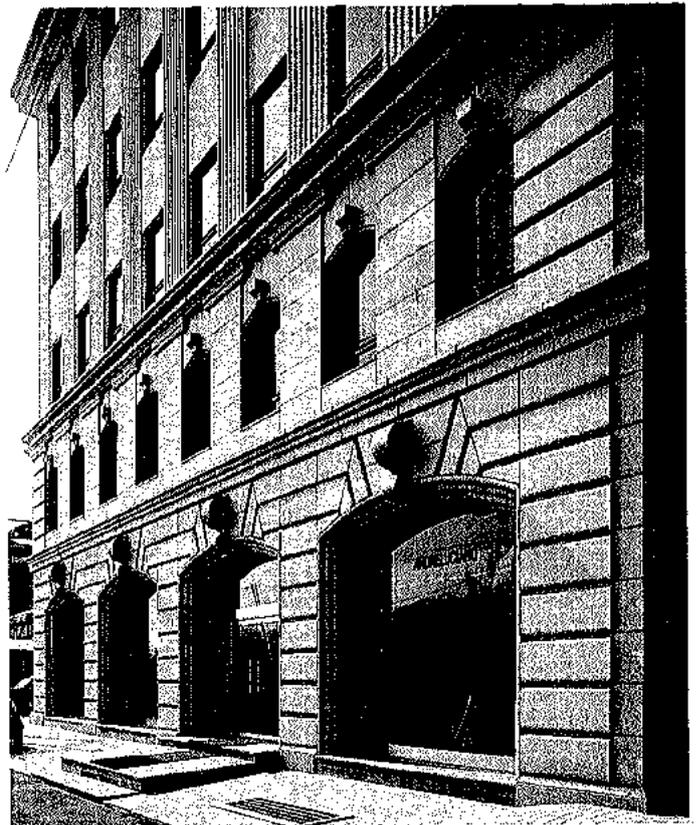
저층부는 두께 150mm에서 두께 30mm까지의 화강석을 써서 보다 상세하고 장중한 고전적 모티브를 원용할 수 있었으며 고층부는 Cornice와 Entablature를 강조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제물치장 위에 말그라니트로 마감 처리하여 저층부의 화강석과 같은 질감을 느끼도록 하였으며 공사비도 절감할 수 있었다.

주위의 적벽들로 지은 서구풍의 빌라촌과 하얀 서구풍의 일우 빌딩은 앙상블을 이루는 한쪽의 서양화와도 같다.

- |              |          |
|--------------|----------|
| 1 전경         | 6 2층 사무실 |
| 2 단면도        | 7 1층매장   |
| 3 배치 및 1층평면도 | 8 외벽상세   |
| 4 주출입구 내부    |          |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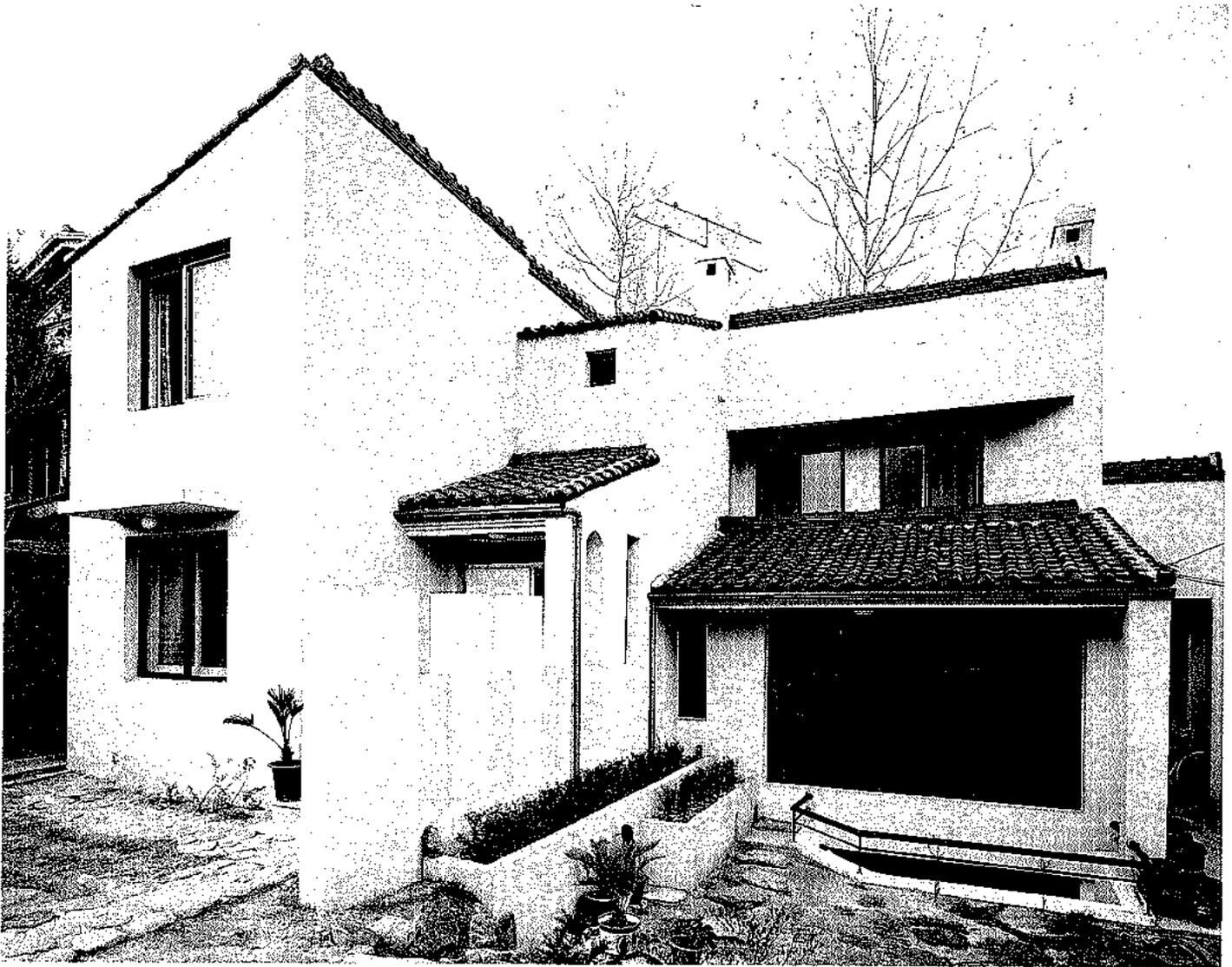
7



6

# 춘천 최교수주택

Professor Choi's Residence



대지위치/강원도 춘성군 신동면 학곡리

대지면적/420㎡

건축면적/91.10㎡

연면적/164.22㎡

건폐율/21.69%

용적률/32.67%

구조/조적조

외부마감/스텍외부마감,

스페니쉬 오지기와 잇기

## ■ 설계소요

이 계획에서는 장소와, 장소와 장소관계 개념에 나의 관심이 기울어져 있다. 즉, 주택과 부지와의 적합성, 그리고 이동의 체험, 각기 카테고리의 기능에는 자신들의 형태가 주어져 있다.

계단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방들은 서향과 북향을 차단하며 경사부지에 적합하도록 존으로 서로 나뉘어진다. 이러한 기능들은 삼분된 안을 통해 각기 고유의 성격을 확립할 자율적인 공간의 형태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각 부분이 부지상으로 점유하고 있는 위치가 각기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조망이 좋은 남면쪽 파사드는 별도로 하고라도, 각방들은 외부로 열려져 즐지어 있으며 이 복합체는 프라이버시를 지키기위해 계단을 중심으로 내부로 향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관에서 계단으로 이르는 출입공간, 정원으로 끈장 면한 거실, 조망이 좋은 방들, 그 밖으로 향한 서어비스 기능(화장실 등)

이러한 공간 경계영역에 설정된 계단으로 연결된 서어규레이션은 명확한 시퀀스(Sequence) 확립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변화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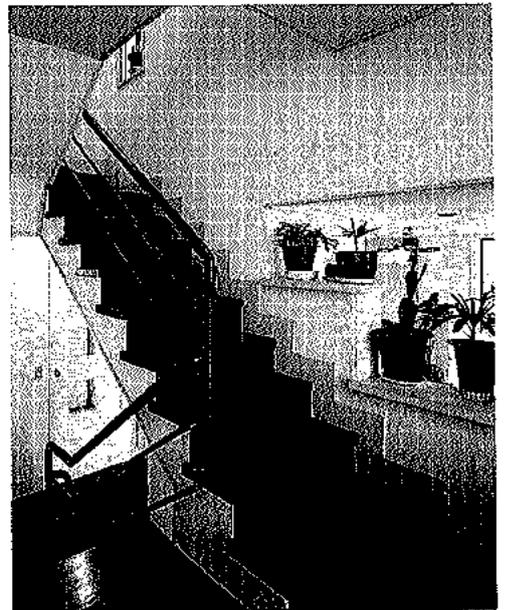
이 시퀀스야말로 개념이 중심이 되는 것으로 현관에서 거실, 거실에서 방, 방에서 방, 그리고 특별히 배려된 지하방에서 정원과의 연결을 시도한 온실의 활용으로까지 그것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결국 주거에서의 주역은 역시 빛나는 태양광선과 공기임을 위함이다.

孫基贊/건축사사무소 동아  
Designed by Son, Ki-Ch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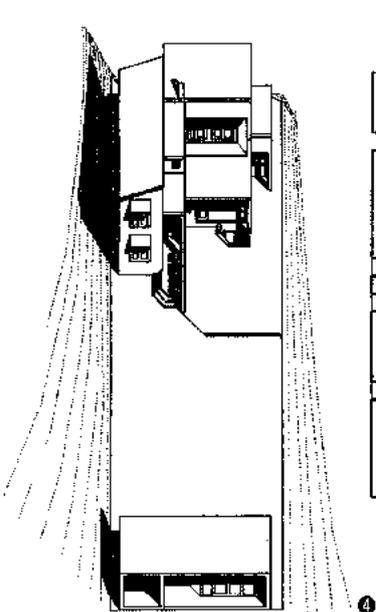


- ① 전경
- ② 실내전경
- ③ 연결계단
- ④ 배치도
- ⑤ 1층평면도
- ⑥ 엑소노메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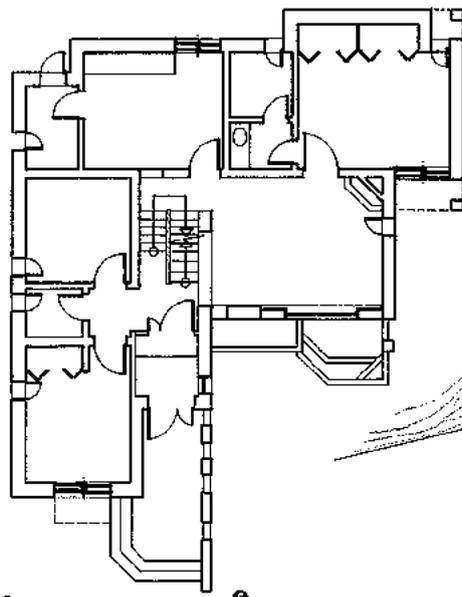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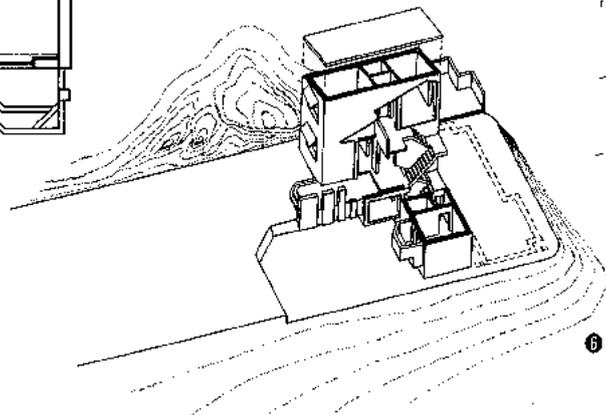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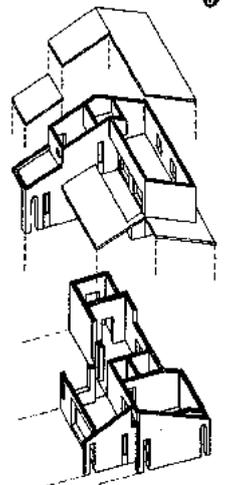
4



5



6



# 잠실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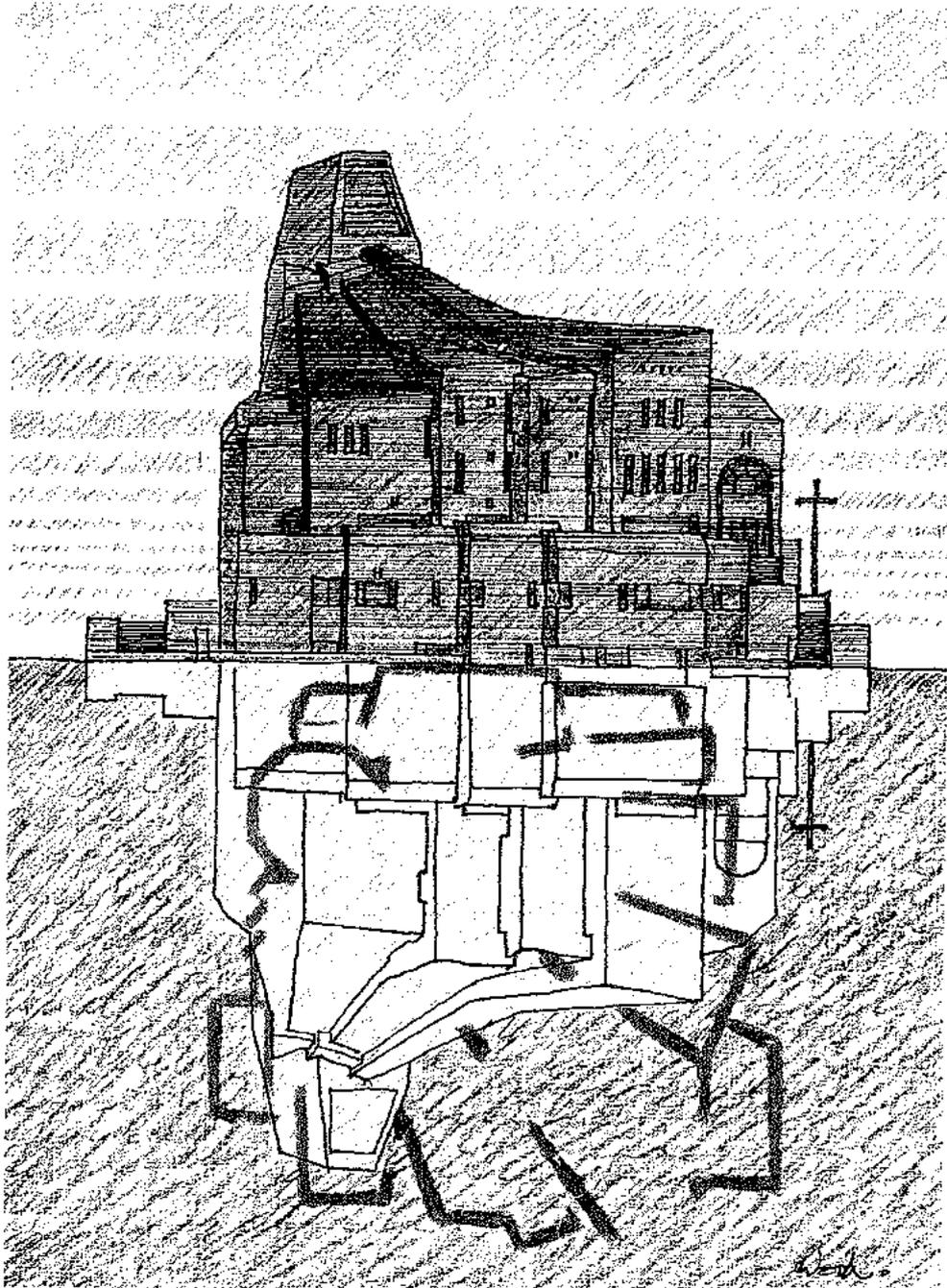
禹時庵 / 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

하느님의 집을  
연구소 시작의  
첫 작품으로  
바친다.

당회장  
원광기목사님이  
정성스럽게  
부탁한 일.  
기도하며  
생각을 가다듬고  
정리한다.

대지와  
주변환경과  
앞으로의 교회의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에서  
이미지를 얻는다.

큰 교회를  
작고 아담하게  
느낄 수 있도록  
거부감을  
주지 않게  
Mass를  
잘게 쪼갬다.



잘게 쪼개진  
Mass가  
내부에서도  
느껴지게 한다.

제단부분으로  
상승하는  
회중석의 천장과  
제단의 십자가로  
떨어지는 빛이  
본당의  
중심이 된다.

본당으로 올라가는  
긴 계단에서  
신도들은  
심신을 가다듬고  
십자가를 본다.  
신체가 불편한  
신도를 위한  
경사로를 둔다.

붉은 벽돌을  
한장씩  
정성들여  
쌓는다.



# 건축규제 ! 그리고 우리는...

孫科浩

종합건축사사무소 단우·모람

**수**서다, 한보특혜다 하여 한참 시끄럽더니 신도시 불량레미콘에, 조합주택 사기사건에 신문의 사회면이 한동안 어지러웠었다. 그러다보니 어느새 그나마 심심하기면 하면 건축규제를 이번에는 내년 봄까지 전면적으로 규제한다.

마땅히 할일이 없어졌으니 대안이 그리많은 것 같지가 않다. 원래 설계라는 것이 미리 앞서 계획한다는 개념이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디자인하고 검토해야 하는 것인데, 많은 건축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않고 미리 시간과 돈을 투자하려하고 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건축규제가 풀릴 때에 맞추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설계를 의뢰하기보다는 건축규제가 풀린 다음에 급히 “며칠내에” 설계를 끝내주기를 부탁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실정에 어떤 건물은 내년 3월말까지 어떤 것은 내년 6월말까지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니 이건 음식이 모자란다고 몇달 밥을 굶으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정부정책에 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년 봄까지 설계사무실 문을 닫고 동면에 들어가는 것이겠지만 초여름부터 동면하기는 너무 이른 감이 있고 오히려 직업을 바꾸어보는 것이 더욱 좋은 방법일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잠깐 생각을 해보면 정부정책이라는 것이 항상 적정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 건축규제도 이미 작년부터 선을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서 그 주된 이유는 아마도 이제는 모든 국민이 알겠지만 건설경기가 호황을 넘어 과열된데 있으며 이는 정부의 정책이 복합된 경제, 건설, 부동산, 주택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데 기인한다.

대통령의 공약으로부터 시작된 200만호 주택건설은 집만 많이 지으면 모든 부동산 문제와 분배의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으로 믿는 단세포적인 발상으로, 그 추진과정에서 우리의 건설능력과 자재및 인력을 도외시한 정부의 “무슨 일이 있어도 하겠다”는 경직성이 이미 무리한 건설과 부실공사를 가져왔다. 더구나 종합토지세나 비업무용이나 토지초과이익세등 일관성없는 세제는 실제로 어느 정도 토지공개념의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나대지에 각종 건설 붐을 불러와 잠깐사이에 건설경기는 과열되었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즉흥적인 건축규제-잠깐 해제-다시 과열-더욱 규제”라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다.

과연 정부가 내년도의 건설 자재와 인력의 수급에 대한 대책을 새우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자괴감에 빠지게 되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된 데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건축사들에게 책임이 있다면 힘이 없다는 것이 아닐까.

당장 먹고 사는 일도 급하지만, 이러한 총체적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다. 현실적으로 건축주에 봉사하는 서비스업이라는 한계를 가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은 별로 많지가 않으며 오히려 이번 기회를 자성의 시간으로 삼아야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에 몇 가지 두서없이 이야기를 해 보겠다.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번 기회에 내실을 기하는 것이겠다. 그동안 특히 최근 몇 년간 건축계는 상당한 호황을 누려온 것이 사실이다. 건설 물량과 경제규모의 확대로 작년도 협회의 건축도서신고 면적이 4천2백만평에 이르며 이는 건축사 일인당 평균 1년에 1만평이상 소화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주변에 어느샌가 못보던 건물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섰고, 각양각색의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고 있다. 그동안 너무도 급히 양적인 팽창이 되는 바람에 적절히 질적인 향상이 이루어졌는지는 별로 자신있게 대답할 수 없다. 물론 그 사이에 외국잡지에서만 보던 건축재료들이 몰밀듯이 들어왔고 땅값에 대한 건축비의 상대적인 효과로 과거보다는 공사비에 대한 투자가 많아져서 보기에 그럴듯한 건물들이 여기저기 들어섰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의 건축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건물은 얼마되지 않는 것 같다. 아마도 우리가 설계하는데 투자하여야 하는 시간과 능력을 감안하면 1년에 1만평을 제대로 하는 것도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건축규제조치로 일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고 어느정도 시간이 확보 되었으니 좀더 작품에 신경을 쓰고 생각할 여유를 가져야 하겠다. 실제로 1960년대말 세계적으로 건축 경기가 불황일 때 벤처리의 ‘건축의 복합과 모순’이라든가, 로씨의 ‘도시의 건축’같은 책이 쓰여진 것도 우연은 아닐 것이다. 단지 우리 하고 차이가 있다면 우리의 상황은 경제 침체로 인한 공황이 아니라 정부의 계엄령과 같은 비정상적인 조치로 만들어진 흑자축의 도산 같은 것이 아닐까.

내실에는 두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지금 이야기한 설계

종합토지세나 비업무용이니 토지초과이득세등 일관성없는 세제는 실제로 어느 정도 토지공개념의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나대지에 각종 건설 붐을 불러와 잠깐사이엔 건설경기는 과열되었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즉흥적인 건축규제-잠깐 해제-다시 과열-더욱 규제”라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다.

과연 정부가 내년도의 건설 자재와 인력의 수급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자괴감에 빠지게 되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된 데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자체에 대한 내실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제대로 된 설계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설계업무의 내실로 설계비를 제대로 받고 설계사무실의 운영과 관리를 충실히 하는 것이다. 이 두가지는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다. 설계비를 반 밖에 못받으면, 하나 할 시간에 두개를 해야 하니 결국 薄利多賣가 되어 작품에 충실할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프로페셔널로서 경영에 취약한 것이 우리의 실상이다. 들어오고 나가는 것 자체는 그리 어려운 것도 없는 것 같지만 세금문제에만 부딪혀도 머리가 아파온다. 벌어들인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야 당연하겠지만 우리의 수입원은 협회를 통하여 완전히 공개된 상태로서 다른 업종에 비하여 내는 것이 적지 않다고 생각되며, 장사가 잘될 때도 문제지만 잘 안될때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협회가 할 일은 회원들의 경영과 세금에 대한 상담, 그리고 세제에 대한 연구, 로비 등이 되어야 하겠다.

두번째로는 힘을 키워야 하겠다. 여차피 자본주의사회에서 건축사라는 직업은 돈과 땅이 있는 건축주를 위하여 건물을 설계·감리 하는 서비스산업의 하나이다. 같은 자유업이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의사나 변호사 정도의 존경도 받아보지 못하였고, 오히려 권력의 주변에서 비위를 맞추고 품을 팔아야 성공하는 직업이 되었다. 더구나 몇 년사이의 건축경기를 겪으면서 건축사의 위상은 낮배로 뛰어오른 땅값, 아파트값에 비하여 더욱 상대적으로 떨어진 느낌이다. 일반인에게 설계직업은 창작과 비평의 수단이라기 보다는 부동산투기의 일환으로 재산증식과 각종 세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는 사회경제적으로 왜곡된 현상의 일부로써 건축사가 갖는 구조적인 한계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무책임하지 않은가.

건축사의 위상은 자신들이 높여야 한다. 전국의 거의 모든 건물은 건축사만이 설계감리할 수 있는 특점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사가 개개인으로서 특정집단에 대한 위상을 높일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정부를 상대로 한 이번 규제조치에는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었다. 건설분야에서 건축사는 소수이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수의 의견은 국가경제라는 대의명분아래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다. 무책임한 정부와 그의 의사결정 과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은 다 아는 바이지만 소수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때 그 소수는 무시를 당하게 된다.

결국 소수라도 모여야 목소리가 커지게 되며 이러한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기관은 협회가 아니겠는가. 생존의 문제가 결부되면 우리는 말 잘듣는 착한 건축사가 될 필요가 없다. 힘이 없다면 마구 울어대기라도 해야하지 않겠는가. 얼마전에 협회에서 정부에 탄원서를 냈다는 발표가 어느 신문엔가 있었다.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모든 신문에 난 것도 아니고 보면 좀더 적극적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국민의 폭넓은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각종 신문과 언론 방송계에 쓸 거리를 제공하고, 정 안되면 광고를 해서라도 알릴 것은 알려져 하지 않을까 싶다. 또한 가능한 모든 통로를 통하여 로비를 하여야 하겠다. 왜 지난 건축사대회 때도 참석하여준 정객들도 많지 않았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건축사협회일 것이며 그러할 때 회원의 협조와 단합은 당연한 것이 될 것이다. 집단이라야 그나마 힘을 키울 수 있으며 지난 몇 년간 격동기는 우리에게 집단의 힘을 잘 느끼게 하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건축사의 힘은 하루 이틀에 길러지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건축문화에 바탕을 둔 꾸준한 노력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닐까.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연연하지 말고 좀 더 큰 시야를 갖고 앞날에 대비하여야 하겠으며, 그중에서 중요한 것이 교육과 연구에 대한 투자이겠다. 때때로 설계사라고 불리기도하는 일반적인 인식은 그냥 바뀌어지지 않을 것이며, 충분한 교육과 홍보가 뒷받침이 되어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그동안 전반적으로 건축법이든, 세제든, 경영이든, 전문성의 깊이 있는 연구가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며, 그만큼 투자가 있었다고 생각되지도 않는다. 협회도 이번 기획에 새로운 마음으로 연구에 과감한 투자를 하여 회원들의 파트타임 작업이 아닌 본격적인 연구로서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겠다. 그러할 때 우리는 자신의 일에 성실히 몰두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안으로 충실한 작업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건축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 1945-1975년 캠퍼스 배치계획의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ite Planning  
of Korean Campus in Seoul from 1945 to 1975

## 1. 머리말

대학교육은 일제식민지하에서는 고등교육 억압정책에 의하여 일제 관학에 의해서 일부 시행되었으나 해방과 함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다. 서울에는 많은 사립대학이 설립되었으며 지방에는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이 설립된다. 해방이후에서부터 1955년까지 설립 및 승격된 대학기관은 대표적인 대학으로 자리잡게 되며, 대학교육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들 대학은 50년대부터 본격적인 캠퍼스를 건설하여 70년대가 되면 명실상부한 캠퍼스를 가진다. 대표적인 캠퍼스로는 서울대 관악산종합캠퍼스, 공대 공능동캠퍼스, 고려대 안암동캠퍼스, 연세대 대신동캠퍼스, 성균관대 명륜동캠퍼스, 동국대 필동캠퍼스, 경희대 회기동캠퍼스, 서강대 신수동캠퍼스를 들 수 있다.

본고는 이들 캠퍼스의 입지유형을 추출하여 캠퍼스 배치계획적 측면에서 입지유형의 특성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배치의 공간요소별 공간유형을 추출하고 그의 건축계획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 2. 예비적 고찰

### 1) 대학교육정책

해방이후 미군정하에서 교육정책을 입안한 사람들은 미국식 고등교육제도를 새로운 고등교육 발전의 모형으로 하여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교육정책을 추진하였다. 일제 말기에 폐교된 사립 고등교육기관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再 開校하였으며 고등교육에 대한 개방정책으로 많은 사립대학이 설립된다. 1948년 정부수립시까지 3년동안 서울대학교의 발족을 비롯하여 모두 42개 대학이 승격, 신설된다.

1950년대 전반기에는 3년간에 걸친 전쟁과 그후의 복구, 재건의 시기로서 교육계에도 전반적으로 복구와 재건에 힘을 기울였다. 전시하에서도 대학의 설립과 승격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지방 국립대학이 창설되고 많은 사립대학이 설립 인가됨으로써 대학설립의 붐이 조성되었다. 1955년에 제정, 공포된 대학설치기준령은 대학을 설치함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교수의 기준을 명시하여 50년대 후반기에는 대학의 신설이 억제되고 기존대학의 정비와 함께 승격이 이루어진다.

1960년대에는 기존 대학들이 내실을 다지게 된다.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교육의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시설들이 건설된다. 이 시기는 국가발전을 위한 교육발달과 통제정책의 강화를 교육정책의 기조로 하였다.

### 2) 각 대학의 변천과정

1946년 8월 美軍政法令 제102호로 서울대학교가 인가·발족되었으며, 동년에 발족된 3개의 사립 종합대학교는 고려대학교, 연희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가 있었다. 이들 학교들은 구한말부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한국 고등교육의 源流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1946년 6월에 서울대학 종합대학안이 문교부에 의해서 발표되었으며, 이 학교는 京城大學, 경성경제전문, 경성치과전문, 경성법학전문, 경성광산전문, 경성사범, 경성여사범, 경성공업전문, 수원농림전문학교를 통합하여 종합대학교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이 대학교는 대학 캠퍼스가 분산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서로 역사와 배경을 달리하는 단과대학들이 통합되어 종합대학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를 가진 일종의 聯合大學과 유사한 대학운용을 지속해 왔다. 이에 1960년대 말이 되면 서울대학교 캠퍼스를 통합운영하여 종합화하는 구상이 구체화되며, 1975년 관악산 서측기슭에 위치한 새로운 캠퍼스로 이전하게 된다.

보성전문학교는 1946년에 고려대학교로 개칭되고 종합대학교로 인가된다. 고려대는 일제시기부터 성장한 본부캠퍼스와 해방이후 형성된 공대 애기능캠퍼스로 이루어졌다.

연희전문은 1946년 종합대학교로 승격되어

李榮漢

(주)아키프랜 종합건축

By Lee, Young-Han

연희대학교가 된다. 1957년에는 연희대와 세브란스의과대학이 병합되어서 연세대학교가 되고 신촌에 종합 캠퍼스를 가진다.

조선시대 성균관은 일제시대 명륜전문학교로 개편되며 해방이 되면서 1946년 재단법인 성균관대학으로 승격·개편된다.

新興初級大學은 1946에 설립된 培英大學館과 1947년에 설립된 新興專門館을 併合하여 1949년에 2년제 학교로 발족된다. 이 학교는 1952년에 4년제의 신홍대학으로 승격인가되며 1953년 동대문구 현 교지를 확보한다. 1955년에는 종합대학으로 승격되며 1960년에는 경희대학교로 개명된다.

한국가톨릭교회는 한국에서 대학설립을 발의하며 고오비 12세 교황은 이를 允許하여 대학창립이 기획된다. 1957년에 마포구 新水洞 토지를 구입하고 1960년에 서강대학이 설립·인가된다. 이 학교는 1969년에 종합대학으로 승격·개편된다.

### 3) 대학캠퍼스계획 관련 건축가

8. 15해방과 함께 건축설계분야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 일제시대 관청의 영선조직에 의해서 설계된 건물을 포함하여 모든 건물이 개인설계사무소를 중심으로 하여 설계된다. 일제말기, 미 군정기, 대한민국 수립후에 관청의 건축조직에서 근무하던 자들은 관청을 퇴직하고 시공청부회사나 개인설계사무소를 개설한다. 일본에서 설계사무소나 시공청부회사에서 근무하던 건축인력들이 해방을 전후하여 귀국하여 개인설계사무소나 청부회사를 개설한다. 그리고 해방이후 대학의 건축과를 졸업한 세대들이 50년대부터 건축계에 등장하여 의욕적으로 설계활동을 하게 된다.

50, 60년대에 활동한 대표적인 건축가들은 대학캠퍼스계획에 관여한다. 50년대 한국건축계에는 큰 설계 프로젝트들이 없는 상황에서 대학시설은 이 시기 건축가들에게 자신의 건축적 사고를 표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러한 건축가로는 朴東鎭, 李天承, 金正洙, 李喜泰, 金熙春, 金台植, 車景淳, 鄭寅國, 宋旼求, 金重業, 李光魯 등이 있으며, 이들은 하나같이 이 시기 한국건축계를 이끌어 가고 있는 건축가들이었다.

이 시기 건축가들은 일정한 건축양식을 자기의 건축으로 하지 않았으며 현대적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건축을 설계하면서 道家的 自然主義思想이나 전통건축의 內的 秩序를 계승하는 건축적 태도에 의해서 스스로 자기의 건축을 만들어 나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앞에는 따라야 할 건축모델이 없었으며 있었다라든 막연한 것이었을 것이다.

## 3. 입지유형의 분석

### 1) 각 학교의 입지분석

서울대는 일제시기에 있었던 관립 전문, 관립 대학캠퍼스를 중심으로 하여 설립됐기 때문에, 본부 및 문리대는 동숭동, 의대는 연건동, 치과대는 소공동, 공대는 공릉동, 상대는 종암동, 사범대는 을지로5가에 자리잡게 된다. 그러다가 기존 캠퍼스규모로 인한 성장의 한계와 캠퍼스의 분산으로 인한 미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캠퍼스를 종합화하기에 이른다. 몇개의 후보지역중에서 관악산 기슭지역을 1970년 신캠퍼스부지로 최종선정하였다. 이 지역을 학교부지로 선정한 이유는 첫째로 서울시 중심부로부터 15km 이내에 위치하고, 둘째로 漢水이남을 개발하려는 정부의 방침과 일치하며, 셋째로 학교시설부지가 107만평이고 주변에 농대 연습림이 인접하여 광범위한 활동영역을 보유하고, 넷째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이다.

단국대학은 1947년 낙원동 282번지에서 설립되며 1949년 성동구 신당동 49-15로 이전하고 1959년에 한남동으로 이전한다.

조선정치학관(후에 건국대)은 1946년 낙원동 오성학교 교사에서 설립되며 1956년 성동구 毛陳洞으로 이전한다.

弘文大學館(후에 홍익대)은 1946년 용산구 원효로 1가에 위치한 興國寺에서 설립된다. 이 학교는 중구 孝洞에 위치한 덕우사, 종로구 사직동에 위치한 인보관, 용산구 문배동 24-8번지로 이전을 하게 된다.

전후 1954년에는 중구 남산동 1가, 纒上洞, 仁寺洞, 3개의 캠퍼스로 분리·운영하다가 1955년에 마포구 上水一洞 산1-1번지로 이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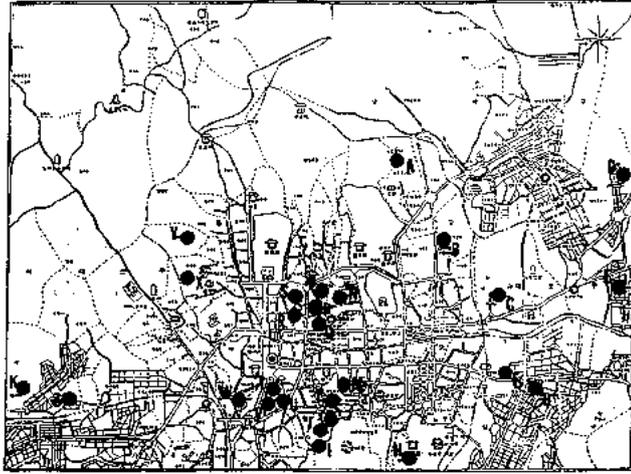
서울가정보육사범학교(후에 수도여사대)는 1948년

일본에서 설계사무소나 시공청부회사에서 근무하던 건축인력들이 해방을 전후하여 귀국하여 개인설계사무소나 청부회사를 개설한다. 그리고 해방이후 대학의 건축과를 졸업한 세대들이 50년대부터 건축계에 등장하여 의욕적으로 설계활동을 하게 된다.

<표 1> 각 캠퍼스의 설계에 관여한 건축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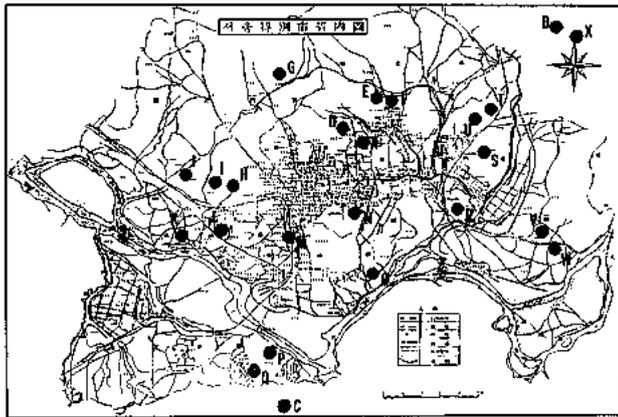
建築家	設 計 建 物
金正洙	서강대 과학관, 연세대 학생회관, 중앙도서관
金台植	성균관대 석조전, 본부, 경성대, 서울농대 수의학과 실험실
金熙春	서울농대 신교사 및 강당, 서울대 공학도서관, 건국대 본관, 국민대 제1호관
鄭寅國	홍익대 본관
金重業	서강대 본관
車景淳	중앙대 우남도서관, 파이퍼홀
宋旼求	동국대 석조전, 과학관, 본부, 도서관, 서강대 도서관
李喜泰	서강대 교수회관, 리찌과학관, 강당
李光魯	서울공대 과학관, 교양학부 교사, 전력연구소, 서울문리대 이학부교사, 숙명여대 과학박물관

- A: 성균관대 영릉동
- B: 서울대 본부 동숭동
- C: 동덕여대 향신동
- D: 고려대 인암동
- E: 서울사대
- F: 국제대
- G: 단국대 신당동
- H: 동국대 필동
- I: 국민대 남산동
- J: 홍문대학관 남산동
- K: 연세대 대신동
- L: 서울가정보육사범학교 종무로
- M: 홍문대학관 저동
- N: 덕성여대 운니동
- O: 홍문대학관 인사동
- P: 건국대
- Q: 한국외국어대 종로2가
- R: 국민대 내수동
- S: 단국대 낙원동
- T: 신홍초급대 소공동
- U: 서울치대 소공동
- V: 서울고종가정학교북청동
- W: 서울문리사대 서소문동
- X: 홍문대학관 사직동
- Y: 홍문대학관 누상동
- Z: 이화여대 대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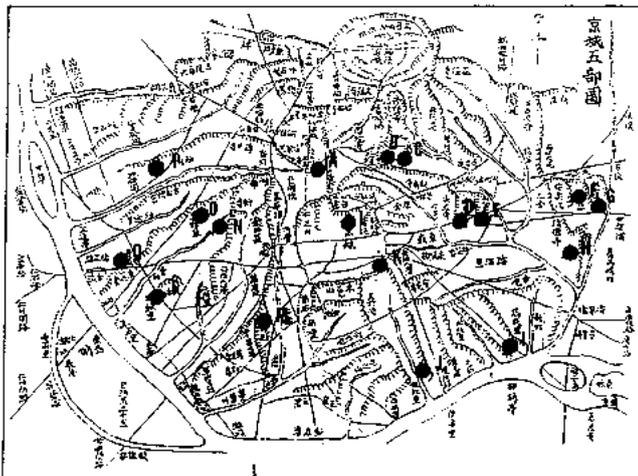
[도 1] 초반기의 각 학교의 행정지리적 입지현황

- A: 카톨릭대
- B: 서울공대 공릉동
- C: 서울대 신림동
- D: 성균관대 영릉동
- E: 국민대 정릉
- F: 우석대 정릉
- G: 성명여대 송지동
- H: 이화여대 대현동
- I: 연세대 대신동
- J: 명지대 남가좌동
- K: 용익대 상수동
- L: 서강대 산수동
- M: 숙명여대 청파동
- N: 동국대 필동
- O: 단국대 한남동
- P: 중앙대 흑석동
- Q: 숭실대 상도동
- R: 한양대 흑석동
- S: 서울농림대 진봉동
- T: 한국외국어대 이문동
- U: 경희대 회기동
- V: 수모여사대 군자동
- W: 건국대 오진동
- X: 서울여대 매곡동



[도 2] 각 학교의 행정지리적 입지현황

- A: 성명여대 송지동
- B: 국민대 정릉
- C: 수도의과대 정릉
- D: 고려대 공대 인암동
- E: 고려대 본부 인암동
- F: 경희대 회기동
- G: 한국외국어대 이문동
- H: 서울농림대 진봉동
- I: 한양공대 영당동
- J: 단국대 한남동
- K: 동국대 필동
- L: 성균관대 영릉동
- M: 숙명여대 영과동
- N: 이화여대 대현동
- O: 연세대 대신동
- P: 명지대 남가좌동
- Q: 용익대 상수동
- R: 서강대 산수동



[도 3] 서울의 산맥과 각 캠퍼스의 입지

층부로 2가에 위치한 제헌국회의원 회관건물에서 설립되며 1962년에 군자동으로 이전한다.

신홍초급대학(후에 경희대)은 1949년에 소공동 각황사에 위치하며 1953년에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로 이전한다.

국민대는 1946년 종로구 내수동 145번지에 위치한 보인상업학교에서 설립되며, 1947년 중구 남산동 東本原寺로 이전하고 1948년에 昌成洞 117번지로 이전한다.

한국외국어대학은 1954년 종로2가 영보빌딩에서 개교되며 1957년 동대문구 이문동으로 이전한다.

서강대학은 1960년 마포구 신수동에서 설립된다.

## 2) 장소유형의 분석

장소유형은 6.25전쟁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할 수 있다. 전쟁전에는 기존의 학교나 일본인의 적산가옥에 위치하였으며, 전쟁후에는 신캠퍼스를 건설하는데, 주로 산을 배경으로 하는 거슥에 위치한다.

초기의 敵産建物型은 본격적인 캠퍼스의 규모를 갖지 못하였으며 소규모 건물을 개조하여 사용하는 정도였다. 초기에 학교가 집중적으로 위치한 지역은 층부로, 을지로, 중구, 용산구 지역인데, 이 지역은 일본인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일본인 중심의 시가지였다. 일제의 폐망과 일본인의 귀국으로 그들 소유의 건물과 가옥은 소유의 계승이 혼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이 장소에 학교를 설립한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각 학교는 적산건물 중에서 일본인 불교사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홍문대학관의 흥국사, 덕우사, 신홍초급대학의 각황사, 국민대의 동본원사가 그 예이다. 이들 사찰은 실내의 집회공간과 옥외마당을 가지고 있어서 학교교사로서의 기능을 나름대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전쟁후에 건설된 캠퍼스는 산에서 캠퍼스가 위치한 만한 장소를 물색하여 학교의 부지로 정한다.

전쟁으로 기존 서울은 크게 파괴되고 도시계획의 집행도 문란하게 된다. 사유지나 사유지등 公共地가 개인 및 공공기관에 의해서 점유된다. 이런 와중에 고등교육기관은 서울시내에 있는 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공원용지를 신 캠퍼스의 부지로 점유하며 캠퍼스의 성장과 함께 그 주변의 대지를 매입하여 교지를 확장하며 간다.

이들 캠퍼스의 지형상 특성은 산의 구릉상에 위치하거나 산의 능선이 내리쬘은 구릉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곡, 또는 산 기슭에 위치한다. 특히 캠퍼스의 이상적인 장소는 風水상으로 四神이 相應하는 장소로, 각 학교는 이러한 장소로

물색하려고 노력하였다.

서울의 산맥은 北漢山을 主脈으로 하여 남으로 내려오다가 白岳에서 일단 멈추고 돌아서 木覓山을 이루며, 또 한 갈래는 毋岳에서 독립적인 산맥을 이룬다. 이러한 서울의 산맥은 대학의 입지와 깊은 관련을 가진다.

우선 眞山인 北岳의 主줄기에는 국민대 정릉캠퍼스, 수도의과대학 정릉캠퍼스가 입지하고 있으며 이 줄기에서 동으로 뻗어내린 두 줄기중에서 밖에 있는 줄기에는 한국외국어대 이문동캠퍼스, 경희대 회기동캠퍼스, 서울농업대 전농동캠퍼스가 입지하고 있으며 안에 있는 줄기에는 고려대 본부캠퍼스와 공대캠퍼스가 입지하고 있다. 서쪽으로 뻗은 줄기에는 명지대 남가좌동캠퍼스, 상명여대 홍지동캠퍼스가 위치한다. 그리고 白岳 밑에는 성균관대 명륜동캠퍼스가 위치한다.

毋岳이 남서방향으로 내리뻗은 두 줄기중에서 위쪽에 있는 줄기에는 연세대 대신동캠퍼스와 홍익대 上水洞캠퍼스가 있으며, 아래쪽에 있는 줄기에는 이화여대 大峴洞캠퍼스가 있다. 이 두 줄기 사이에 솟아 있는 老姑山에는 서강대 신수동캠퍼스가 위치한다. 모악이 남쪽으로 내리뻗은 줄기에는 숙명여대 청파동캠퍼스가 위치하고 있다.

목덕산의 줄기가 동쪽으로 뻗은 줄기에 학교들이 위치하는데 동쪽으로 뻗다가 남쪽으로 구부러지는 지점에 동국대 필동캠퍼스가 위치하며, 다시 동쪽으로 내려가다가 남쪽으로 내려가는 줄기에 단국대 한남동캠퍼스, 한양대 행당동캠퍼스가 위치하고 있다.

### 3) 입지향 분석

서울소재 대학캠퍼스는 북한산, 목덕산, 모악을 주봉으로 하는 줄기에 입지한다. 이들 산의 줄기가 동서로 뻗은 줄기의 경우에는 줄기의 남쪽에 학교를 입지시켰으며, 남북으로 뻗은 줄기에는 줄기의 양측에 입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북측 경사면에는 입지하지 않는다.

이들 캠퍼스는 불규칙한 곡선도로에 의해서 진입되므로 진입도로가 캠퍼스의 배치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입지향을 고려한 산의 경사지에 학교부지를 선정하였다. 전체 캠퍼스의 80% 이상이 남향이나 남동향 및 남서향 경사지에 입지하였으며, 특히 남향 경사지에 입지하는 캠퍼스는 전체 캠퍼스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써 대학캠퍼스는 남향을 전면으로 하는 경사지형을 선호하여 입지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4. 배치유형의 분석

### 1) 각 캠퍼스의 배치분석

서울대 관악산캠퍼스 건설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이 캠퍼스 계획은 우리나라 최초의 본격적인 대학교 마스터플랜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의 대학캠퍼스 계획의 역량이 총집결되고 새로운 캠퍼스계획의 모델이 되었다. 종합배치계획은 공간계획, 부지분석, 동선계획, 토지이용계획 등으로 이루어졌다.

캠퍼스매치는 충분한 지형조사를 토대로 하여 자연지형을 최대한 살리고 지형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악산의 정상으로부터 북서쪽으로 뻗어내리는 능선을 중심으로 하여 배치한다. 이 주 능선의 좌우 계곡에는 수영장과 댐을

<표 2> 公園用紙에 立地한 大學 캠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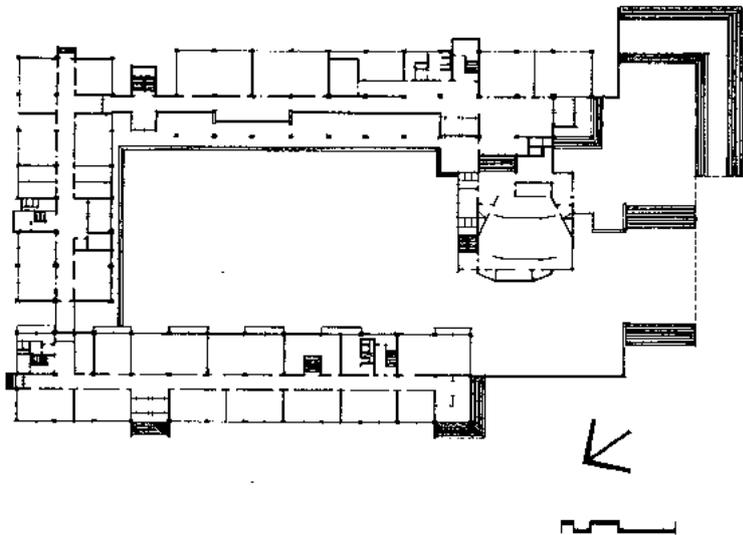
학 교 명	공 원 명
成均館大學校 明倫洞 캠퍼스	臥龍公園
東國大學校 筆洞 캠퍼스	桀忠公園
淑明女子大學校 靑坡洞 캠퍼스	孝昌公園
弘益大學校 上水洞 캠퍼스	臥牛公園
漢陽大學校 杏當洞 캠퍼스	沙斥公園
梨花女子大學校 新村 캠퍼스	雙龍道路公園

<표 3> 各 學校 캠퍼스의 立地向

立地向	學校 캠퍼스名	前面道路向	地 形 向
南	경희대 회기동 캠퍼스	현재 : 불규칙	남향 경사지
	단국대 한남동 캠퍼스	현재 : 남서-북동	남향 경사지
	명지대 남가좌동 캠퍼스	동-서	남향 경사지
	서울시립대 전농동 캠퍼스	불규칙	남향 경사지
	상명여대 홍지동 캠퍼스	불규칙	남향 경사지
	서울여대 태능 캠퍼스	남서-북동	남향 경사지
	국민대 정릉 캠퍼스	현재 : 남동-북서	남향 경사지
南 東	고려대 공대 캠퍼스	남서-북동	남동향 경사지
	수도의대 정릉 캠퍼스	현재 : 남동-북서	남동향 경사지
	성균관대 명륜동 캠퍼스	남-북	남동향 경사지
南 西	서강대 신수동 캠퍼스	남-북	남서향 경사지
	송전대 상도동 캠퍼스	동-서	남서향 경사지
	한양대 행당동 캠퍼스	불규칙	남서향 경사지
	성신여사대 돈암동 캠퍼스	남-북	남서향 경사지
東	한국외국어대 이문동 캠퍼스	현재 : 남서-북동	동향 경사지
西	홍익대 상수동 캠퍼스	현재 : 남-북	서향 경사지
北 東	동국대 필동 캠퍼스	불규칙	북동향 캠퍼스
南 北	서울대 신탄동 캠퍼스	불규칙	북서향 경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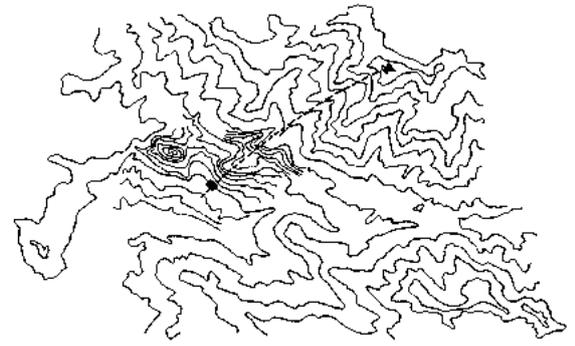
[도 5] 서울대 관악 캠퍼스 배치도



[도 6] 서울대 관악 캠퍼스 5,6,7,8,棟 배치도

설치하고 있으며 더 내려온 지점에 천문대와 교수회관이 위치한다. 이 능선이 하향하여 본관 앞에 있는 동산과 교수회관을 연결하는 축상에 중심적인 건물인 도서관, 본관을 배치하고 본관과 전면동산사이에 광장을 조성하였다. 이 주능선상에 배치된 일련의 건물은 등고선을 따라서 일렬로 배치되었다. 주능선 좌우에는 계곡이 형성되어 있으며 그 계곡상에 배치되는 건물은 큰 □자형 블록배치를 보여준다. 4개의 건물로 이루어진 중정형배치에서 남쪽에 면하는 건물인 소형강당은 주변건물에 비하여 매스가 작아서 중정부분을 밝게 하였다.

고려대 안암동 본부캠퍼스는 예기능이 동남측으로 뻗어 내린 능선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이 캠퍼스는 1930년대에 계획된 뒷산과 본관, 그리고 도서관, 강당을 중심으로 하는 배치블록을 기본으로 하여 발전하게 된다. 1954년에는 금란실(C)이 본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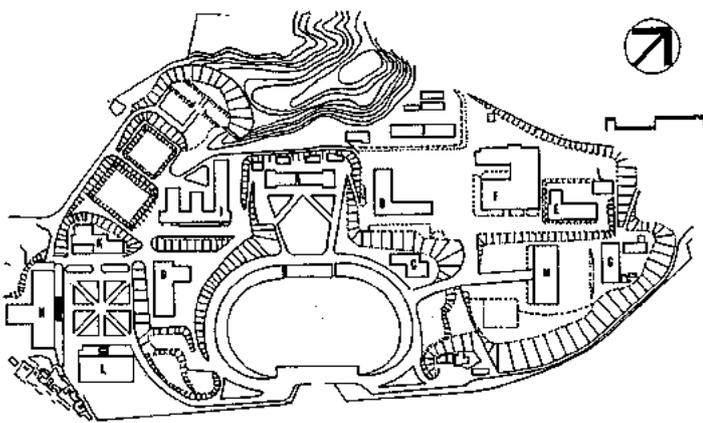


[도 4] 서울대 관악 캠퍼스의 지형적인 입지

우측전면에 배치되며, 1956년에는 강당(D)이 본관 좌측 전면에 배치되어 본관을 중심으로 하여 전면에 좌우에 배치된다. 도서관(F), 농림대 교사(E), 사범대 분관(G)이 56년~58년에 준공되면서 본관 우측에는 증축된 도서관, 농림대 교사, 사범대 분관, 금란실에 의하여 중정이 이루어진다. 60년대에 서란(I)의 좌측 저지대에 과학관(N), 홍보관(K)이 준공되고, 71년에는 학생회관(L)이 준공되면서 이들 건물과 강당에 의해서 큰 □자의 블록배치가 이루어진다.

연세대 캠퍼스는 일제시대 계획된 마스터플랜을 골격으로 하여 발전하게 된다. 50년대에 청경관, 광복관, 연희관, 도서관, 과학관, 대강당이 건축되면서 백양로를 중심축으로 하는 캠퍼스 배치개념이 강화된다. 즉, 이 중심축상에 주변 건물에 비하여 규모가 큰 과학관(C)을 배치하고 중심축 좌우에 대칭적으로 건물이 배치되서, 과학관-언더우드관(B)-스팀슨홀(A)과 아펜젤러홀(C)-한정관(E)과 노천극장-윈슨홀(D)과 도서관(I)-광복관(H)과 대강당(J)순으로 아래로 배치된다. 60년대가 되면 과학관 주위에 성암관(K), 유억겸기념관(O)이 건축되면서 이들 건물과 언더우드홀은 중정형 배치를 이루게 된다. 해방이후의 캠퍼스배치의 특성은 50년대에는 일제시대 배치블록에 충실히 배치되어 축성을 강조하였으나 60년대가 되면 중정형배치가 국부적으로 형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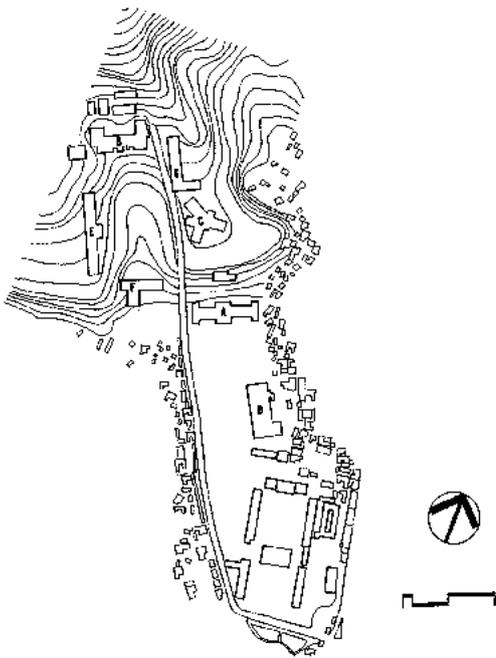
성균관대 명륜동캠퍼스는 조선시대 건축된 성균관의 후면에서 조성된다. 최초로 건축된 석조전(A)는 남동향으로 뻗어내리는 능선에 직각으로 놓이고 있다. 두번째로 준공된 경상대 건물(B)은 계곡의 중심에 계곡방향과 직각으로 배치되며 58년에는 석조전 뒤의 높은 지역에 도서관(C)이 준공된다. 60년대 전반기에 경상대 전면과 좌우측에 대학본부(F), 교수회관(G), 구 대학원건물(E)이 준공되면서 이들 건물은 가운데에 중정을 형성한다.



[도 7] 고려대 本部 캠퍼스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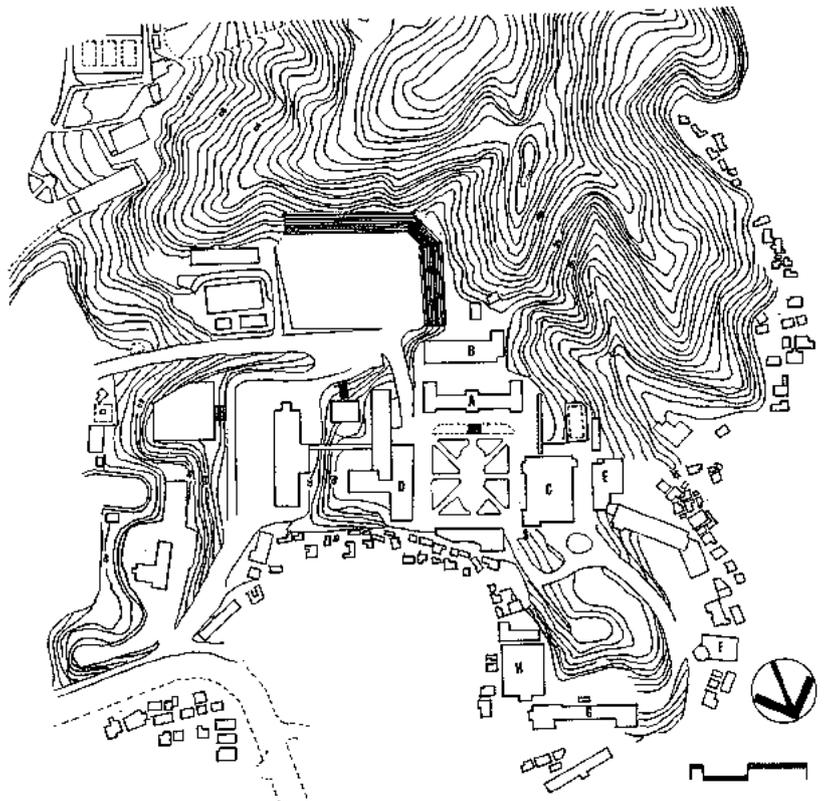
[도 8] 연세대 연희동 캠퍼스 배치도



[도 9] 성균관대 명륜동 캠퍼스 배치도

이 캠퍼스는 지형의 함을 기본으로 하여 각 건물을 배치하였다. 조선시대 건축된 성균관은 정남향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에 반하여 이 캠퍼스는 지형의 하향경사축인 남동향을 기준으로 하여 각 건물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지형적으로 중심적인 장소에 우선하여 건물을 배치하였으며, 이 건물을 중심으로 하여 그 주변에 건물을 배치하였다.

동국대 필동캠퍼스는 북동쪽으로 뻗어내린 남산의 능선상에 위치해 있다. 이 능선은 급경사를 이루면서 내려오다가 학교부지가 있는 곳에서 넓은 부지를 이룬다. 최초로 건축된 본관건물인 석조건물(A)은 캠퍼스의 바로 뒤에 봉우리로부터 내리뻗은 능선에 직각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 건물은 캠퍼스배치의 기준이 되었으며 캠퍼스배치를 기본적으로 북동향을 이루도록 하였다. 50년대말~60년대초에 석조전 좌우측에 본관(C)과 중앙도서관(D)이 신축되면서 중앙에 중정을 중심으로 석조전, 본부, 도서관이 둘러



[도 10] 동국대 필동 캠퍼스 배치도

[표 4] 각 캠퍼스의 건설과정

학교명	건 물 명
서울대	법대 도서관(60), 성 베다관(60), 사대 과학관(60), 의대 간호학과 기숙사(61), 공대 불암사(62), 시청각교육관(63), 농대 녹원사(63), 공학도서관(64), 왕릉사(67), 공대 과학관(67), 분리대 이학부(67), 왕영사(68), 치대교사(69), 보건대학원 교사(70), 의대 종합실습실(75), 관악산 캠퍼스(75), 농대교사 및 강당(56), 상대도서관 및 연구실(62), 상대 학생회관(58), 약대본관(60), 약대 제2호관(62), 공대 전력연구소(62), 공대 실험기구기체설치공사(62), 학생지도연구소(63), 합춘회관(64), 공대 공업교육과 실습공장(64), 음대교사(67), 생약연구소(67), 농대 농업도서관(68), 공대교양관(69), 농대 유육가공실습실(69), 의대 도서관 및 실험실(71)
고려대	농대 본관(56), 신관 및 교수회관(56), 공대교사(56), 중앙도서관 증축(58), 농대 실험실(58), 이학부 과학관(60), 서관(61), 교양학부 및 이공학부(64), 실내체육관(66), 기계공학관(67), 학생회관(71), 경영관(72), 중앙도서관(73), 금람실(54), 농대실험실(57), 농산가공실습실(63), 아세아문제연구소(66), 홍보관(68), 수력공학관(69), 식품공학관(69), 이공대학 동관(71)
연세대	세브란스에비슨관(48), 과학관(56), 도서관(57), 대강당(59), A.V센터(58), 의대교사(61), 체육관(60), 간호학과 학생기숙사(59), 교육관(63), 전설공학관(62), 연합신학대학원(64), 학생회관(68), 간호학과 교사(67), 공대 신축교사(73), 치과대 교사(71), 교양학부 종합교실관(72), 경영학 교실단(71), 여학생기숙사(72), 의대기숙사(72), 한국어학당(63/), 경영대학원(67/), 가정대 교사(68/), 장기원기념관(71/), 환경관 증축(48)
성균관대	석조전(54), 중앙도서관(58), 법과대 교사(59), 교수회관(63), 경상대(57), 본부(62), 구대학원(60), 호암관(68), 수선관(74)
동국대	석조전(56), 과학관(58), 대학본부(58), 중앙도서관 및 대학본부(62), 교양학부 교사(70), 학생회관(71), 사범대학 교사(73), 실내체육관(75), 사회과학관(64), 공학관(68), 교육학관(73)

배치된다. 60년대말~70년대 전반기에 걸쳐서 캠퍼스의 저지대에 공학관(E), 학생회관(F), 교육학관(G), 종합체육관(H)이 준공되며 이들은 중앙에 있던 동산을 중심으로 하여 지형에 맞게 위치한다. 이 캠퍼스의 기준점은 산의 능선과 그 앞에 위치한 석조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캠퍼스의 확장은 60년대에는 석조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70년대에는 그 앞 저지대에 있는 동산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이들 각 건물의 성장패턴은  $\square$ 자형을 추구하고 있으며 일단  $\square$ 자형으로 완성되면 다른 장소에서  $\square$ 자형을 완성하여 간다.

2) 배치기준유형의 분석

캠퍼스 배치의 기준은 지형조건에 충실히 적응하여 형성된다.

건물배치의 기준점을 뒤에 산을 배경으로 하여 산 능선상이나 계곡상에서 전 캠퍼스를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하였다. 능선상에 자리잡을 경우에는 주능선상에서 능선의 경사가 완만해지는 지점에

기능적으로 가장 중요한 본관이나 도서관을 배치하며, 계곡상에 자리잡는 경우에도 계곡의 경사가 완만해지는 지점에 중요한 건물을 위치시켰다.

배치의 기준축은 지형이 발달하는 방향을 따라서 결정되며, 능선상에 있을 경우 능선이 내리떨는 방향을 축으로 하고 계곡상에 있을 경우 계곡의 중앙 저지대가 발전하는 방향에 의해서 축이 결정된다.

3) 블럭배치의 유형분석

캠퍼스의 블럭유형은  $\square$ 자형,  $\square$ 자형, 병렬형, 분산형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캠퍼스들은 캠퍼스의 규모나 지형조건에 따라서 이들 유형을 취사선택하여 전체 캠퍼스를 이룬다. 동국대 필동캠퍼스는  $\square$ 자형 배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성균관대 명륜동캠퍼스는  $\square$ 자형과  $\square$ 자형을 혼용하고 있다.

캠퍼스규모가 비교적 큰 서울대 관악캠퍼스, 연세대 대신동캠퍼스, 고려대 안암동캠퍼스는  $\square$ 자형,  $\square$ 자형, 병렬형 등 여러 블럭유형을 조합하여 전체 캠퍼스를 구성한다. 캠퍼스의 중앙에는  $\square$ 자형으로 배치하고 있으며 지형상으로 능선에는 등고선을 따라서 병렬형으로 배치하고 계곡이나 평지인 장소에는  $\square$ 자형 배치경향을 보여준다.

비록 여러 블럭유형이 사용되었지만 블럭배치의 기본형은  $\square$ 자형으로 보여진다.  $\square$ 자형 배치는 모든 캠퍼스에서 나타나고 있다. 처음에는 하나의 건물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는 그 전면 좌우에 건물을 병립시키고 최종적으로 처음 건축된 건물의 맞은 편에 건물을 배치하여  $\square$ 자형이 완성하는 성장과정을 보여준다.

5. 캠퍼스배치의 성장유형 분석

1) 지형유형

서울은 지리적으로 산과 산사이를 흐르는 천에 의해서 기본골격이 이루어진다. 산과 천에 의해서 공간이 경계지워지고 산과 천사이에 조성된 공간에 각 시설들이 배치된다.

대학캠퍼스는 산에 입지하여 경사지형을 이루게 되는데 그 지형의 유형은 크게 丘陵型, 溪谷型, 기슭형, 구릉+계곡형으로 이루어진다. 구릉형에 입지한 캠퍼스로는 동국대 필동캠퍼스, 서강대 신수동캠퍼스를 들 수 있고, 계곡형에 입지한 캠퍼스로는 연세대 대신동캠퍼스, 경희대 회기동캠퍼스를 들 수 있다. 기슭형에 속하는 캠퍼스는 고려대 본부캠퍼스, 국민대 정릉캠퍼스,

홍익대 상수동캠퍼스를 들 수 있으며, 구릉+계곡형에 속하는 캠퍼스는 서울대 관악캠퍼스, 중앙대 옥석동캠퍼스를 들 수 있다. 각 캠퍼스는 지형유형에 따른 조건에 적용하여 자기 다른 배치형태로 성장하게 된다.

### 2) 성장유형

계곡형을 대표하는 캠퍼스는 연세대 대신동캠퍼스이다. 이 캠퍼스는 캠퍼스 중앙계곡상에 중심도로를 배치하여 전체 캠퍼스를 관통하게 한다. 초기에는 중심도로의 상부에 건물을 배치하며 캠퍼스의 성장과 함께 중심도로의 하부쪽으로 건물들이 배치된다. 그리하여 이 유형의 캠퍼스는 중앙도로를 중심으로 하는 線的인 成長型(Linear Growth Type)을 이룬다. 캠퍼스의 지형적 조건에 의하여 캠퍼스상부에 비하여 하부로 내려가면서 지표고가 낮아지고 가용지가 넓어져서, 전체배치의 성장형은 삼각형 형태를 가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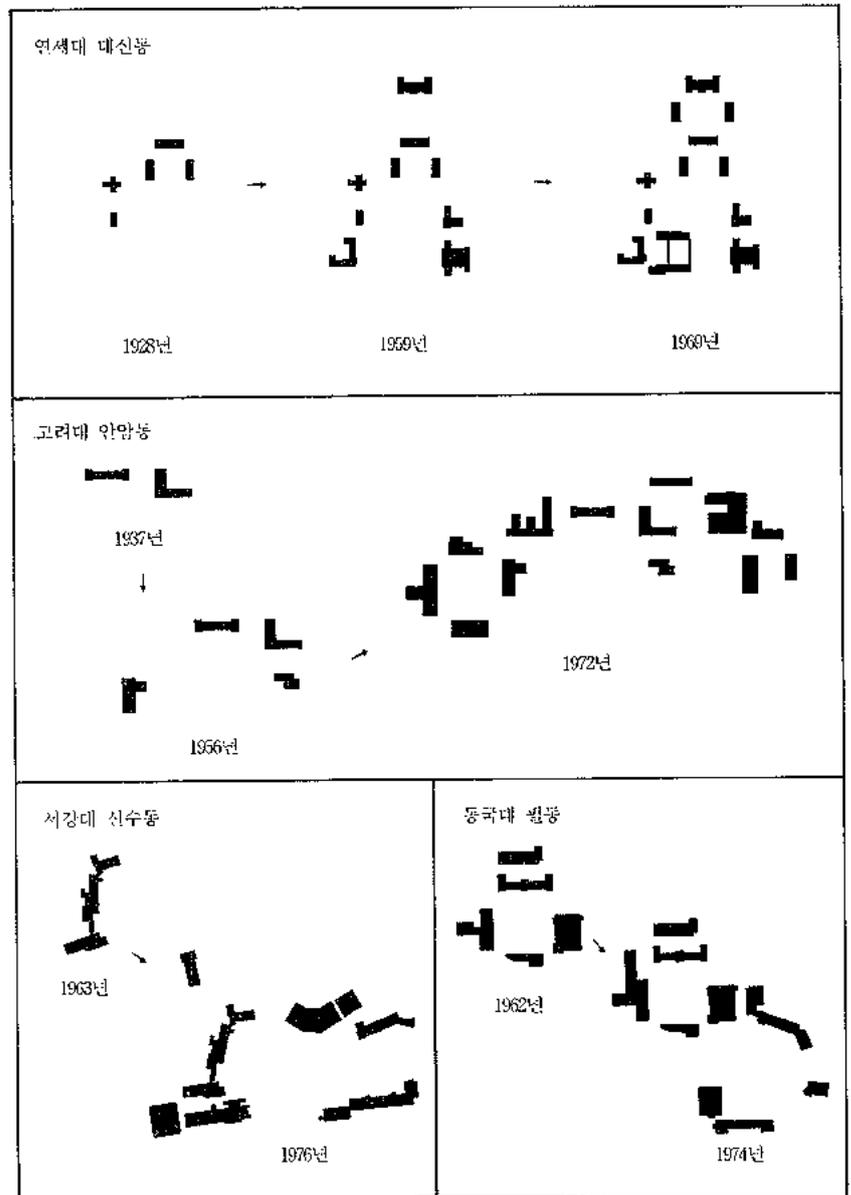
이 캠퍼스는 계곡을 따라서 형성된 중심도로를 골격으로 하는 선적인 성장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캠퍼스의 성장과 함께 피라밋성장형(Pyramid Growth Type)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성장하며, 배치의 기준점을 중심도로 상부에 위치시키고 주성장방향을 하향경사방향으로 한다.

산 기슭형에 입지한 대표적인 캠퍼스는 고려대 본부캠퍼스이다. 이 캠퍼스는 초기에 전면에는 운동장을 배치하고 그 위에 중심적인 시설을 배치하며, 캠퍼스의 성장과 함께 운동장 좌우측에 시설들을 배치한다. 즉, 산의 지세와 캠퍼스의 영역을 고려하여 초기에는 종축을 기준으로 하여 선적인 성장형을 이루다가 캠퍼스의 성장과 함께 피라밋성장형(Pyramid Growth Type)으로 완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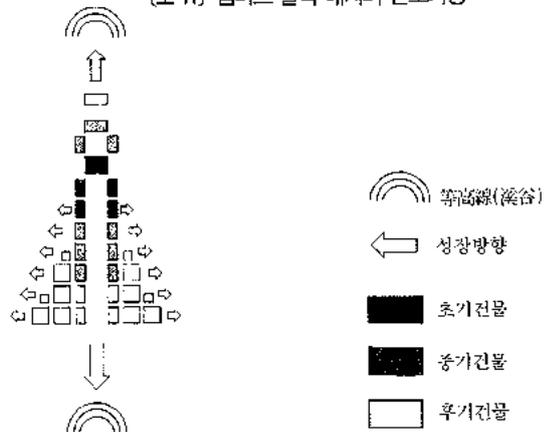
계곡+구릉형을 대표하는 캠퍼스는 서울대 관악캠퍼스이다. 캠퍼스의 중앙에 구릉이 내리뻗고 있으며 그 좌우에는 계곡이 형성되어 있다. 초기의 캠퍼스는 구릉상에 중심적인 건물을 배치하고 그 좌우 계곡에 교사동을 배치하였으며 전체 캠퍼스의 중심을 도서관으로 하였다. 이 도서관을 중심으로 반경 400m 이내에 각시설을 배치하여 캠퍼스의 성장패턴도 도서관을 중심으로 하여 원심적으로 배치되어 이 캠퍼스는 기능적으로 충실한 同心圖的 成長型(Concentric Growth Type)이 된다.

### 3) 성장유형의 건축계획상의 특성

지형유형에 따른 대표적인 성장유형은 선적인 성장형(Linear Growth Type), 피라밋



(도 11) 캠퍼스 블록 배치의 변모과정



(도 12) 線的 성장형(Linear Growth Type)

성장형(Pyramid Growth Type), 同心圓的 성장형(Concentric Growth Type)이 있다.

계곡형의 지형에 입지한 연세대캠퍼스는 선적인 성장형을 기본골격으로 하고 있으며 고려대캠퍼스는 피라미트성장형으로 완성된다. 이들 유형은 배치의 정점에 있는 중심건물에 모든 시설을 종속시키는 位階的 形態(hierarchy form)를 형성하고 있다. 캠퍼스의 성장이 중심건물로부터 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시설과 중심건물이 멀어지는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발생하며, 이들 유형은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캠퍼스의 상부에는 위계가 높은 본관을 배치하고 그 하부에 새로운 중심건물로

학생회관이나 도시관을 배치한다. 즉, 캠퍼스의 확장과 함께 副核的인 기능이 배치되면서 多核構造의 캠퍼스가 된다.

동심원적 성장형의 서울대 관악캠퍼스는 캠퍼스의 중앙에 중심기능을 배치하여 주변시설과 연결을 용이하게 하는 기능적인 형태(Functional form)를 형성한다. 이 캠퍼스는 캠퍼스의 성장에 따른 중심시설과 주변시설의 거리가 멀어지는 비효율성이 피라미트성장형이나 선적인 성장형에 비하여 덜 발생되지만, 초기의 예상과는 달리 더 확장할 경우에는 각 주변영역마다 부핵적인 시설을 배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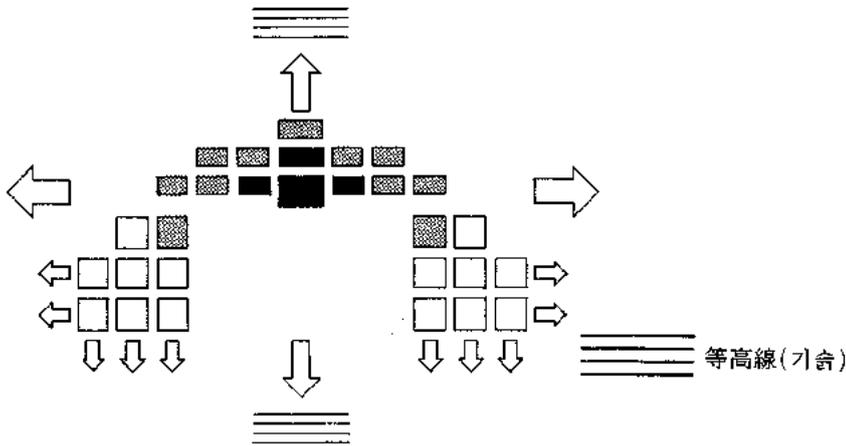
## 6. 맺음말

대학캠퍼스계획은 한국근대건축에 있어서 관련건축가의 수준, 다른 건물유형에 비하여 그가 차지하는 비중 등에 의하여 한국근대건축의 대표적인 건축계획 특성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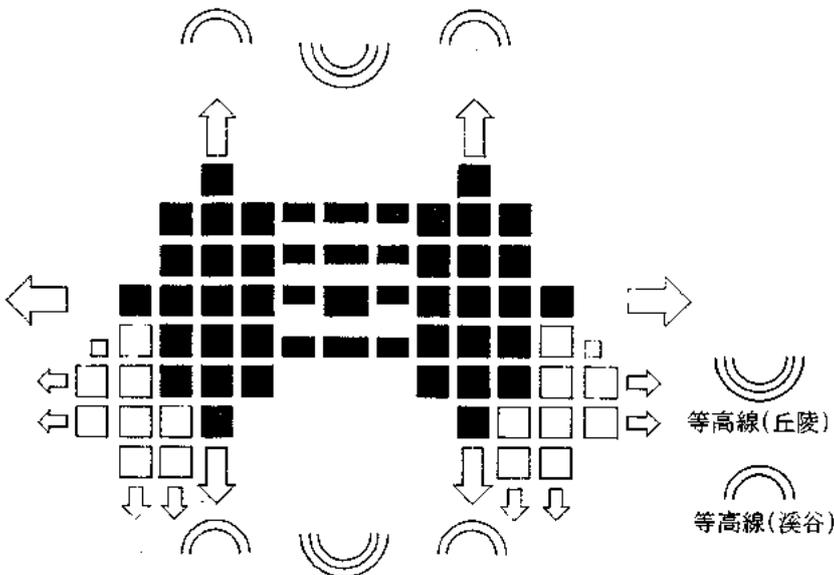
서울에서 건설된 캠퍼스는 서울의 주요 산줄기에 입지하였으며, 남향경사지를 선호하였다. 이들 캠퍼스가 입지한 장소는 계곡형, 구릉형, 기슭형, 구릉+계곡형의 지형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지형유형의 잠재력에 의하여 각 캠퍼스들은 서로 다른 배치성장유형을 보여준다. 계곡형에 입지한 캠퍼스는 선적인 성장형을, 기슭형에 입지한 캠퍼스는 피라미트 성장형을 보여주는데 이들은 위계적인 형태를 배치의 기본으로 하고 있다. 구릉+계곡형에 입지한 캠퍼스는 동심원적 성장형을 보이며 기능적 형태를 배치의 기본으로 한다.

### ■참고문헌

- 1) 金光禹, 대학 캠퍼스계획의 분류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79
- 2) 金熙春, 서울을 생각한다, 대한건축학회지, 19권 65호, 1975. 8
- 3) 無涯 李光魯教授 回甲記念 作品集, 1988
- 4) 서울대학교 건설본부, 서울대학교 종합캠퍼스 마스터플랜 보고서, 1972
- 5) Dover, Richard P., Environmental Design, Van Nostrand Reinhold, London, 1969
- 6) \_\_\_\_\_, campus planning, Reinhold Publishing Corporation, Cam., 1963
- 7) Turner, Paul V., Campus, An American Planning Tradition, MIT Press, 1984



(도 13) 피라미트 성장형(Pyramid Growth Type)



(도 14) 동심원적 성장형(Concentric Growth Ty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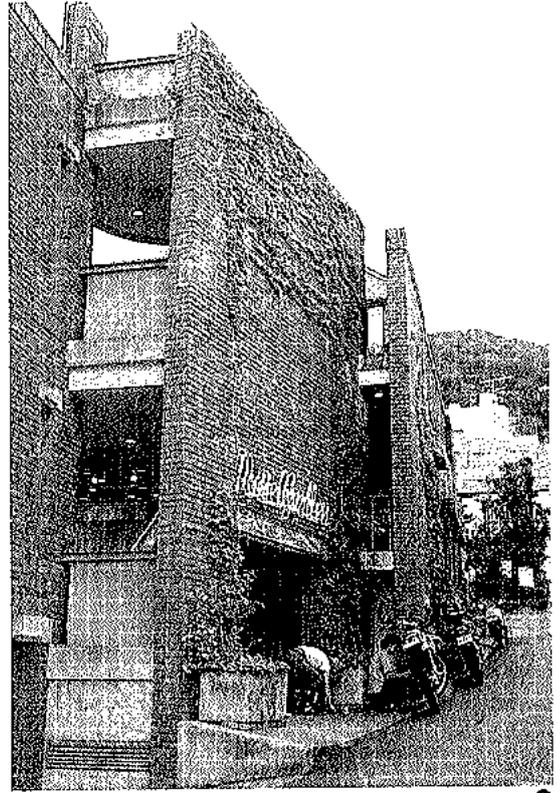
# 코베, 교토, 오사카, 도쿄 그리고 안도 다다오

Kobe, Kyoto, Osaka, Tokyo & Tadao Ando

金文德

건축대학교 실내디자인과 교수

by Kim, Moon-Duck



1

“건축은 자연을 〈빛〉,  
〈바람〉, 〈을〉,  
〈하늘〉이라는 원소로  
환원하고 역으로  
기하학과의  
상호공전운동을 통하여  
추상적 존재로  
승화한다.”  
-안도 다다오

## 1. 안도 다다오 건축의 부상

한국건축계에 한때 마리오 보타의 열풍이 불어 닥친 적이 있었다. 보타 건축의 명쾌함은 많은 학생들과 건축인들을 매료시켰으며 그 영향은 일부 건축가의 작품에도 표출이 되곤 하였다.

물론 그 당시의 포스트 모던 열풍과도 무관하지 않았던 이 현상은 보타류의 건축을 일부 이 땅에 이식하였고, 이제 그의 건축이 이 땅에 실현되었을 때 또 한차례의 열풍이 몰아 칠 것만 같다.

마리오 보타와 비교되는 건축가로 안도 다다오(安藤 忠雄)를 거론할 수 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안도 다다오의 영향력도 마리오 보타에 못지 않으며 오히려 능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가 내한하여 강연회를 한 이후, 더욱 그의 건축에 대한 열기가 고조되었다고 생각되며 그에 대한 이야기는 「독학으로 건축을 마스터한 건축가, 「유럽을 스케치 여행하며 설계사부소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했던 건축가」 등 배일에 싸인 신비한 존재로 회자되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가 강연을 하러 왔을 때, 환영을 위한 연회장으로 직행하지 않고 한국의 고건축을 돌아 보고 밤늦게 그 이미지를 스케치하였다는 후일담은 건축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세를 간접적으로 시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의 유명한 건축가들이 매스컴에 의해 화려한 각광을 받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그들의 피나는 노력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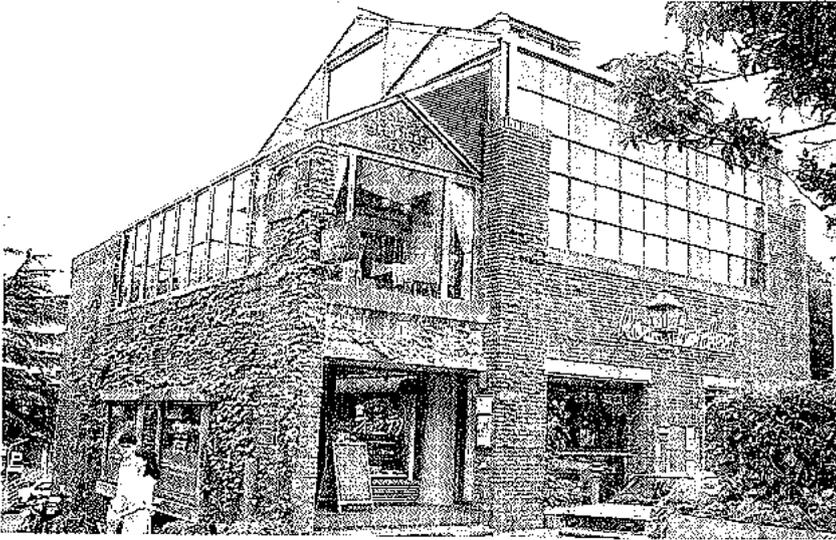
마리오 보타와 안도 다다오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는 쉽지 않지만, 필자의 주관적 견해로는 안도 다다오의 건축이 더 매력적이라는 점이다.

특히 대규모의 건축물에 있어서 그렇게 느껴졌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루가노에 위치한 마리오 보타 설계의 고탄도은행을 방문한 다음, 코베의 준 포트 아일랜드(1985)라는 안도 다다오설계의 건축물을 방문하고 내린 결론이었다.

코베에서 포트피아 박람회를 개최하였던 박람회단지였던, 인공섬에 세워진 이 패션메이커의 오피스용도의 건축물은 건축가의 건축적 연출에 의해 어떻게 환경이 변화될 수 있나를 보여준 훌륭한 사례로 기억되었던 것이다.

또한 안도 다다오는 92년 세비야박람회의 일본관 설계자로, 그리고 일본 국내외의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건축가로 대두하고 있으며 일본의 안도 다다오에서 세계의 안도 다다오로 급격하게 부상(浮上)중인 것이다.

필자는 코베의 안도 다다오의 초기 건축물과 교토의 타임스, 오사카의 패션관계 소규모 건축물들, 도쿄의 플레시오네 빌딩 등 십여개 이상의 건축물들을 방문했지만 아직도 그의 신작 건축물이 발표될 때마다 방문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는 것은 그의 건축물에서 풍겨 나오는 매력때문이라고 생각된다.



- ① 로즈가든의 벽체 벽체는 연장되어 영역의 한정과 함께 연출장치로 이용된다.
- ② 로즈가든 정경
- ③ 중정축의 외부계단 경사지라는 조건을 조정하면서 시퀀스를 연출하고 있다.
- ④ 경사지축에서 바라본 전경 거리는 언덕으로 이루어졌다.



## 2 코베의 안도 다다오

롯데(六甲)산을 등지고 항구를 따라 동서로 길게 시가지가 전개되고 있는 도시인 코베(神戸)의 명불중의 하나는 기따노마찌(北野町)의 이진칸(異人館) 거리이다. 3세기에 이미 무꼬노미나토(務古水門)라는 이름으로 항구 역할을 해왔던 도시답게, 코베는 1868년 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정식으로 개항하면서 일약 일본의 관문의 하나로 대두하게 되었던 것이며 바로 기따노마찌의 이진칸은 외국인인 살던 주택지였던 것이다.

과거 서양의 각국 양식으로 세워졌던 이진칸은 1천채에 달했으나, 현재는 30채 정도만 남아 있고 이진칸들이 모여 있는 기따노마찌 거리는 코베의 명물로서 관광지화하여 레스토랑과 패션부티크들이 많이 들어 서게 되었다.

이 기따노마찌 거리에 위치한 안도 다다오 설계의 건축물이 로즈 가든(1977).

기따노 엘리(北野 Alley : 1977), 린스 갤러리(1981). 기따노 아이비코트(1981), 리란스 게이트(Riran's Gate : 1986), 기따노마찌티오(北野町 TO : 1986), 옥시 기따노(OXY 北野 : 1986) 등이다.

코베에는 전술한 안도의 건축물외에도 롯데산에 위치한 롯데의 집합주택 I(1983), 롯데의 교회(일명 바람의 교회 : 1986), 게스트 하우스 올드 : 뉴 롯데(Guest House OLD/NEW : 1986) 등과 1981년 개최되었던 포트피아 81을 위한 인공섬 포트 아일랜드에 위치한 준 포트 아일랜드 빌딩(JUN Port Island Bldg : 1985) 등이 있어 마치 이 도시 전체가 안도의 건축을 위해 존재하는 것같은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필자는 기따노마찌 거리의 건축물들과 올드 : 뉴 그리고 준 포트 아일랜드 빌딩 등을 방문했으나, 이 글에서는 몇 개의 건축물만 한정하여 설명하려고 한다.

안도 다다오의 건축! 하면 우선 머리속에 연상되는 것이 노출콘크리트로 마감된 건축물이다.

그러나 이 기따노마찌 거리에 위치한 로즈 가든(Rose Garden)은 적별놀로 외관이 마감되어 있다. 물론 골조 자체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이겠지만, 의외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로즈 가든이라는 이미지때문일까 아니면 이 기따노마찌 거리라는 특성을 반영하였기 때문일까 하는 의문도 들었지만, 인접한 린스 갤러리로 외관이 벽돌타일로 마감된 것을 생각하면 후자에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여기서 이 로즈 가든의 의미는 이 기따노마찌 거리에 들어선 안도의 첫번째 건축물이라는데 의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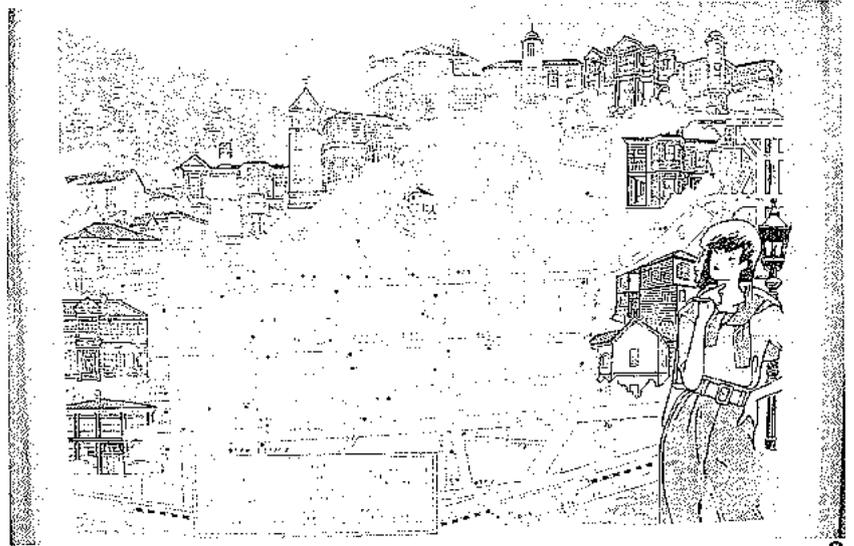
부여할 수 있으며 그 후의 작품들을 예견케 한다는 것이다. 안도의 초기작이 73년부터 세워지기 시작한 것을 보면, 그에게 있어서는 쌍생관(아마구찌 저:1974~75), 스미요시의 공동주택(아즈마 저:1975~76)과 맥을 같이하는 초기작의 범주에 잡아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기따노마찌 거리의 특성을 살펴 보면, 과거 외국인들의 주택지였던 것 외에도 1/10정도의 구배를 이루는 경사지라는 점이 있다. 즉 경사지라는 입지적 특성은 건축물의 구성에 있어 레벨차를 조정하기 위한 장치로 실내외의 공간을 계단으로 조정할 필요가 생기고, 따라서 안도는 경사지라는 맥락을 조정하는 기능적 장치와 시각적 공간적 변화를 유발하는 장치로 계단을 이용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이 외부의 계단공간은 안도가 "일본의 전통적인 도시에는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사이에 「골목」이라는 공간이 있었다. ... 나는 이 골목공간을 재생시키려 시도했다. 그리고 골목을 건물블럭과 블럭 사이의 일종의 조정공간으로서 사용하려 시도했다"고 한 설계개념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며 미로(迷路)라는 수법을 유발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한 것이다.

로즈 가든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구조로 패션부티크 등의 점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층하는 2동의 미스가 광장을 중심으로 엮물려져 있었다. 이 엮물려서 레벨차를 조정하는 장치가 바로 외부 계단인 것이었다. 또한 미스 반 데 로에의 전원조 벽돌주택 계획안의 연장된 벽을 연상시키는(그러나 입지조건상 과도하게 확장되지는 않은) 벽은 이 로즈 가든의 영역을 한정하는 동시에 이 벽면의 틈을 통하여 바다의 조망을 가능케 하고 있었다. 그리고 벽에 대비되면서 벽과는 격리된 원형 기둥이 공간에 긴장감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마치 이 원형 기둥은 르 꼬르뷔제 건축에서 나타나는 벽에서 약간 떨어져서 존재하는 원형 기둥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었다. "외부를 둘러싸는 벽과 프레임 틈새로부터 들어오는 빛은 계절, 시각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달라진다."는 건축가의 말처럼 벽과 기둥, 레벨차를 조정하는 계단 등은 공간속의 물리적 상황을 해결하는 장치인 동시에 시각적 변화와 공간적인 개방과 폐쇄를 조절하는 공간적이고 심리적인 연출장치인 것이었다. 이 로즈 가든 역시 단순한 듯한 건축물이었지만 후에 확장, 전개되는 안도의 건축적 개념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른 프로젝트들과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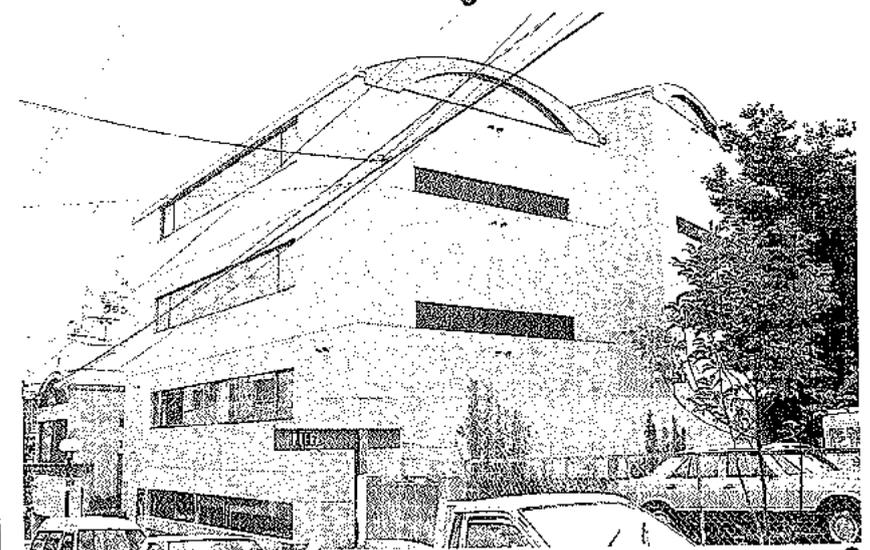
로즈 가든을 떠나 코베항구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포트 아일랜드로 가보면, 안도의 대규모 프로젝트의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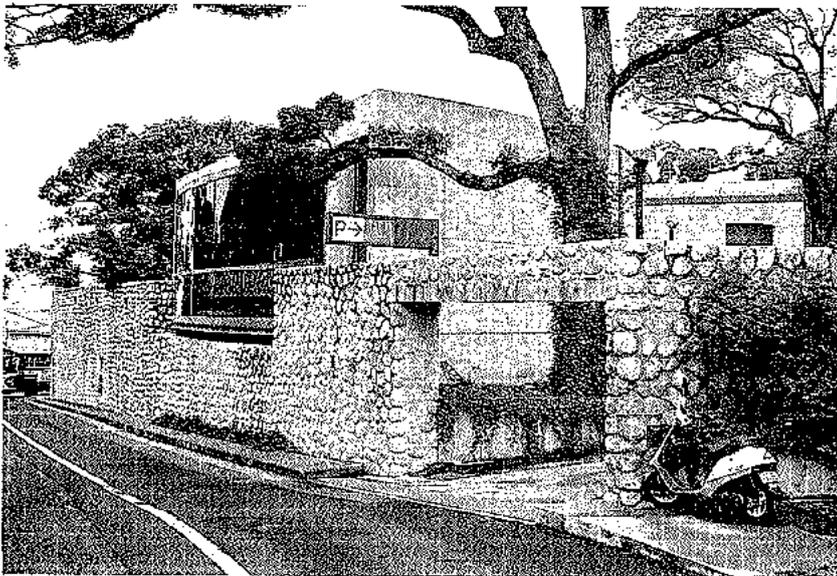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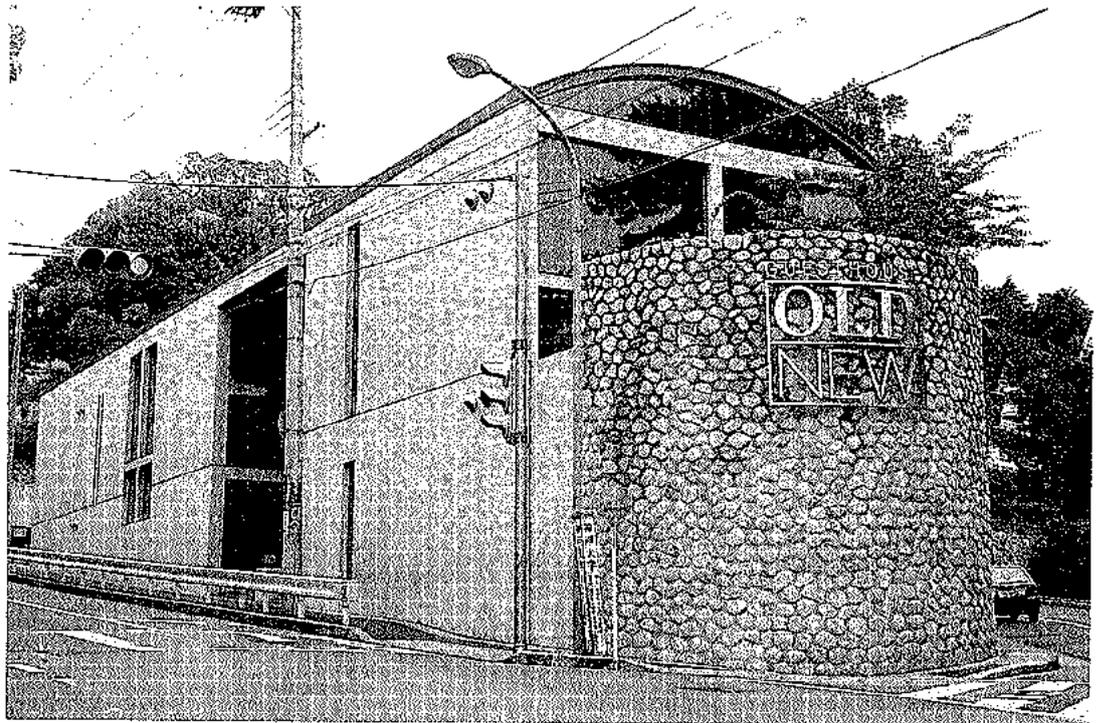
6



7

- ⑤ 기따노마찌 안내도  
이 지역에 안도의 건물만 7개 정도가 있다.
- ⑥ 기따노 엘리 입구부분
- ⑦ 리란스 게이츠 전경

이 준 포트 아일랜드는 안도에게 있어 최초의 대규모 프로젝트인 동시에 포트 아일랜드라는 인공적인, 새로운 도시조직에 세워졌다는 점에서 다른 건축물과 비교되는 것이다. 즉, 비교적 자유롭게 이 건축물의 외적 환경을 건축가의 의도대로 연출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그의 의도를 읽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 ① 올드 뉴의 전경
- ② 올드 뉴의 측면

하나인 준 포트 아일랜드를 만나게 된다. 이 준 포트 아일랜드는 안도에게 있어 최초의 대규모 프로젝트인 동시에 포트 아일랜드라는 인공적인, 새로운 도시조직에 세워졌다는 점에서 다른 건축물과 비교되는 것이다. 즉, 비교적 자유롭게 이 건축물의 외적 환경을 건축가의 의도대로 연출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그의 의도를 읽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포트 아일랜드로 들어가는 전철을 갈아 타고 이 인공섬의 중심부로 들어 가면 타원형을 한 31층의

포트피아 호텔(1981)이 나타나고 이 포트피아 호텔에서 멀지않은 곳에 장방형의 대지를 한 준 포트 아일랜드 빌딩과 조우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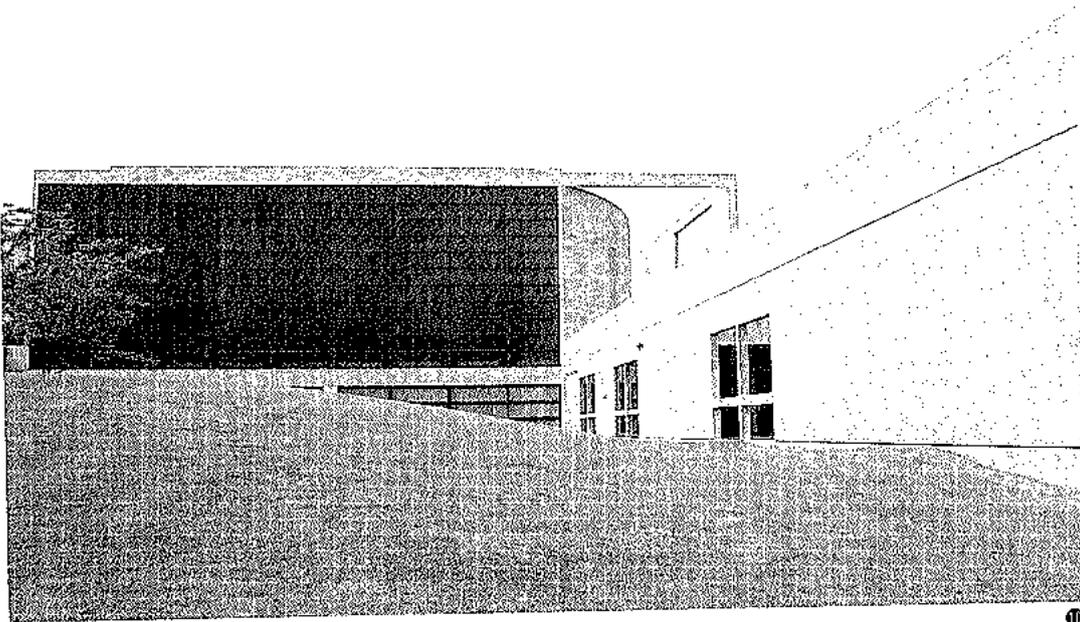
패션메이커의 오피스인 동시에 고객접대 스페이스와 다목적홀, 창고 등의 기능으로 구성된 이 건축물은 매스가 정방형의 대지에 L자형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L자형 건축물은 장방형의 중층블럭과 남북으로 연장된 저층 블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부지의 남측은 정원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잔디가 덮힌 정원의 중앙부분이 동산처럼 둘러져 있었다.

주위의 대지경계를 따라 식재된 수목이나 잔디가 덮힌 인공적인 동산은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이 건축물로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건축물의 본체를 쉽게 드러내지 않게 하면서 개방과 폐쇄를 외부공간에서 체험케 하는 연출장치로 사용했다고 생각되었고, L자형의 배치에서 연장된 저층 블럭 역시 새롭게 조성된 도시공간의 외부공간을 시각적 공간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하고 있었다.

전술한 비스의 계획안을 연상시키는 이 연장된 저층 블럭은 완벽하게 공간을 통제하면서 로즈 가든에서의 벽의 역할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방문했을 당시는 마침 이 건축물의 근무자들이 휴가중이어서 내부공간까지는 들어 갈 수 없었지만, 안도의 연출의도는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었다.



- ⑩ 준 포트 아일랜드 전경  
저층의 연장된 블록은 공간의  
영역을 한정하고 풍경을 조정하는  
장치이다.
- ⑪ 접객 공간속에 면해 풍경을  
절단하는 벽체
- ⑫ 엑스노 메트릭

이 건축물의 본체 매스는 한 변이 6.4m인 정방형 격자구조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었고 그 안에 삽입된 원형의 곡면벽과 반투명 유리 스크린에 의해 구성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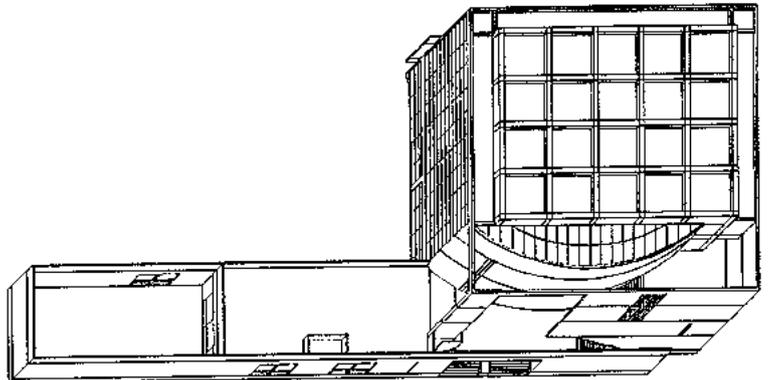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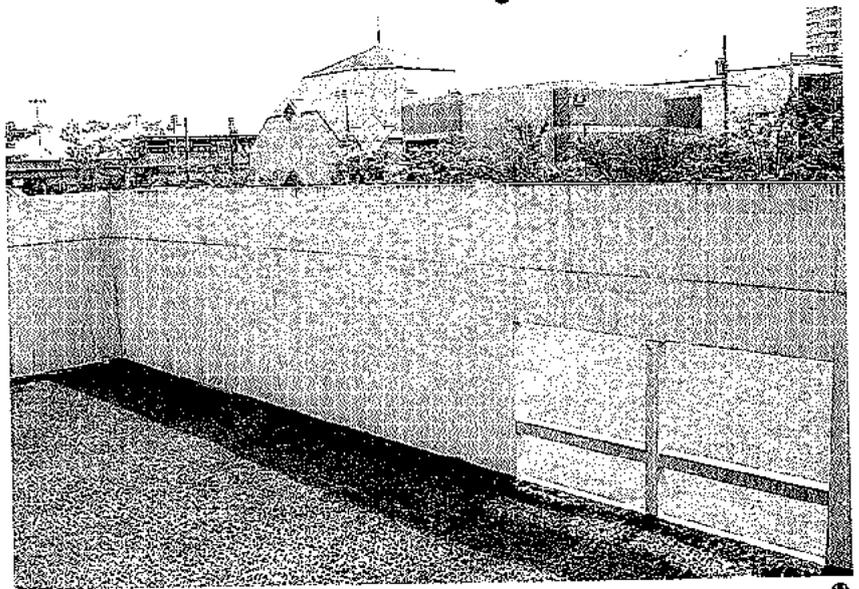
여기에서 나타난 안도의 건축적 미학의 특징중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첫째, 실내 사무공간에 면한 창을 반투명 유리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 둘째 3층의 다목적 홀로의 진입시 내부로 진입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외부로 진입하는 계단을 설치했다는 점, 셋째 1층 접객공간에 면한 외부공간을 다시 벽체로 영역을 구획했다는 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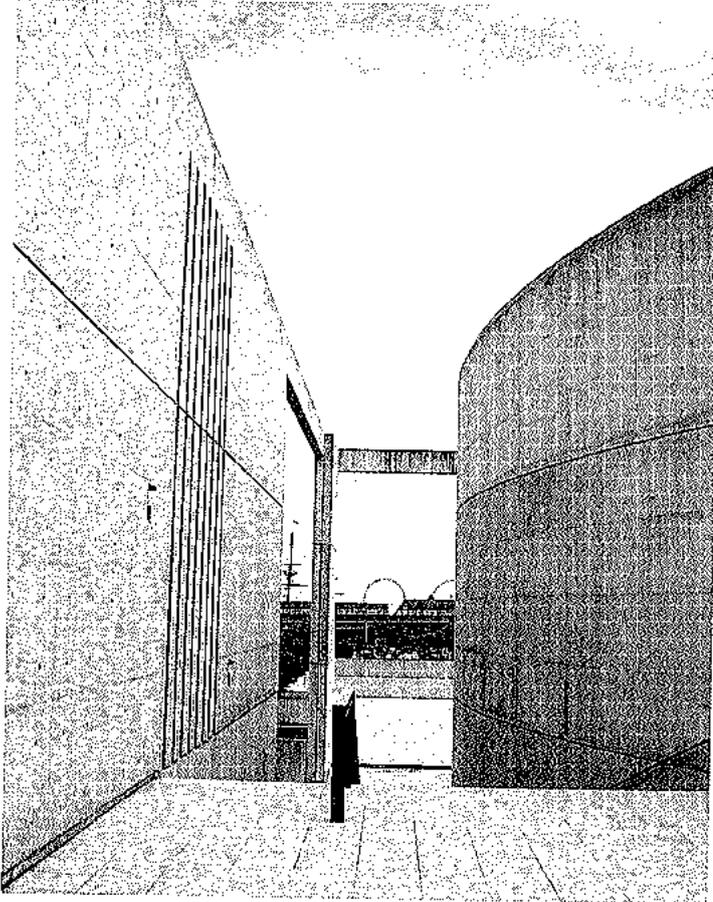
첫째는 일반적인 경우 실내의 사무공간에서 투명한 창을 통하여 옥외정원을 감상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임에도 불구하고 안도는 오히려 반투명 유리로 직접적인 자연으로 향한 시계를 차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수법은 안도가 주장하는 식물을 배제하여 자연의 의미를 식물로 상징하기 보다는 자연의 환유물로서의 중정의 도입과 바람, 비, 눈과 "유평속의 하늘"을 도입하는 방식과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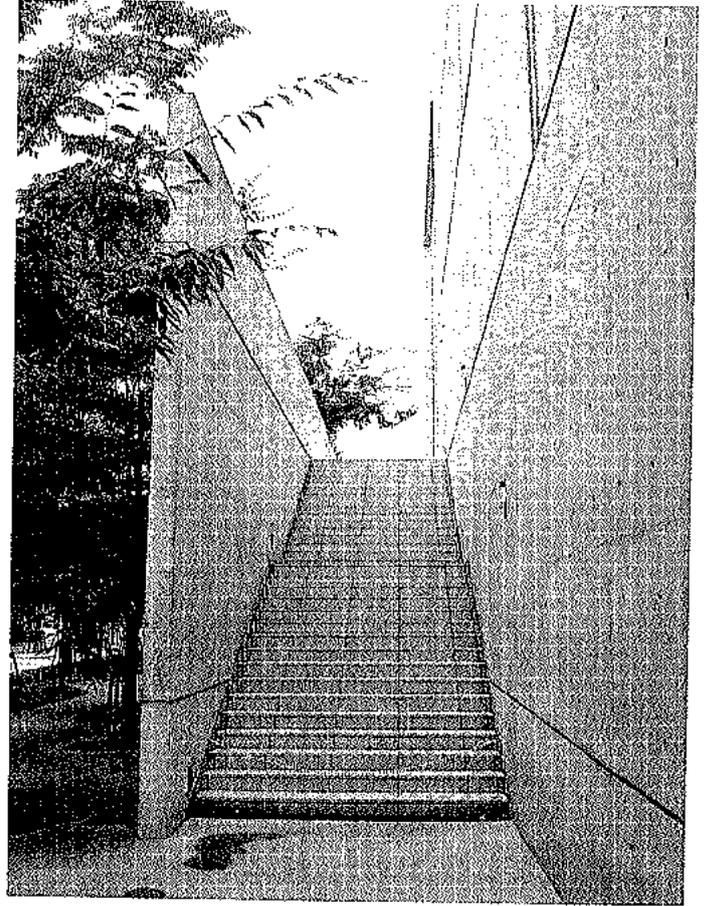
실내에서 느끼는 것은 록 베송의 영화 "커다란 푸른 빛(Le Grand Bleu : 1988)"에서의 이미지처럼 온통 짙은 녹색 빛이 보이는 반투명 유리를 통한 추상화된 자연을 의미하는 것같기도 하다.

두번째, 다목적 홀로의 진입에 있어 외부공간으로의 진입이 강조되는 것은 스미요시의





18



19

공동주택에 있어서 중정에 위치한 외부계단을 통해 거실에서 식당이나 방으로 가는 방식과 연관시켜 볼 수 있을 것이다.

외부로 진입하면서 자연(비나 눈 그리고 바람)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나의 어프로치는 피상적인 편안함 이상의 것을 추구하고자 한다. 나는 인간의 주거가 지니고 있는 진정한 인내와 근본적 요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되살려 내려고 노력한다. 그러한 요소들의 많은 것이 급격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포기되었던 것이다.”라고 말한 안도의 자세와 관련되어 있다. 여기에서 일반건축가들과 안도의 차이는 건축을 편안과 안락을 추구하기 위한 용기(容器)로만 판단하는 것인가 아니면 “입에 쓴 약”처럼 각자 자신에게 내재한, 그러나 편안한 생활에 의해 잊혀졌던 자아에 대한 성찰과 인내를 환기시켜주는 도구로 인식하느냐 하는 것이다.

세번째, 일반적인 경우 접객공간에서 먼한 정원(실체는 동산과 연결된 잔디정원)을 또 다시 벽체로 영역을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로즈 가든에서 사용되었던 벽의 기능처럼 풍경을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개방하려는 의지가 여기에서도 분명히 보인다는 점이다. 안도는 단순히 물리적 의미로서의 벽이나 개구부, 기둥, 천장으로 의식하는 것이 아닌 그의 의도된 미학에 의해 조정되는

- 18 3층의 다목적 홀로 오르는 계단 외형의 벽 역시 시퀀스를 만드는 장치이다.
- 19 옥상정원과 다목적 홀로 오르는 지상에서의 진입계단
- 16 타임스 I 전경
- 18 다카세 개천과 법한 타임스 I의 광장
- 17 거리레벨과 연결되는 타임스 I의 통로
- 18 각층 평면도

연출장치로서 상기한 요소들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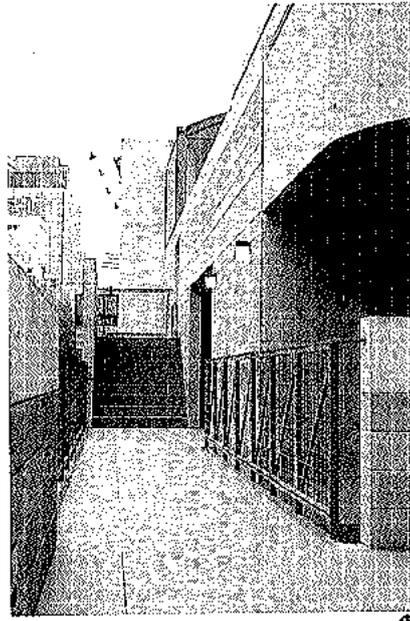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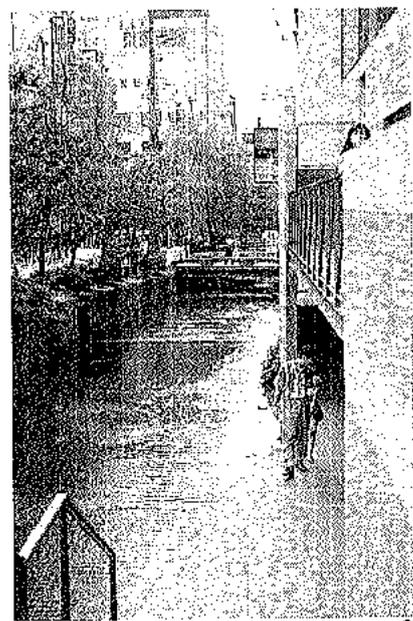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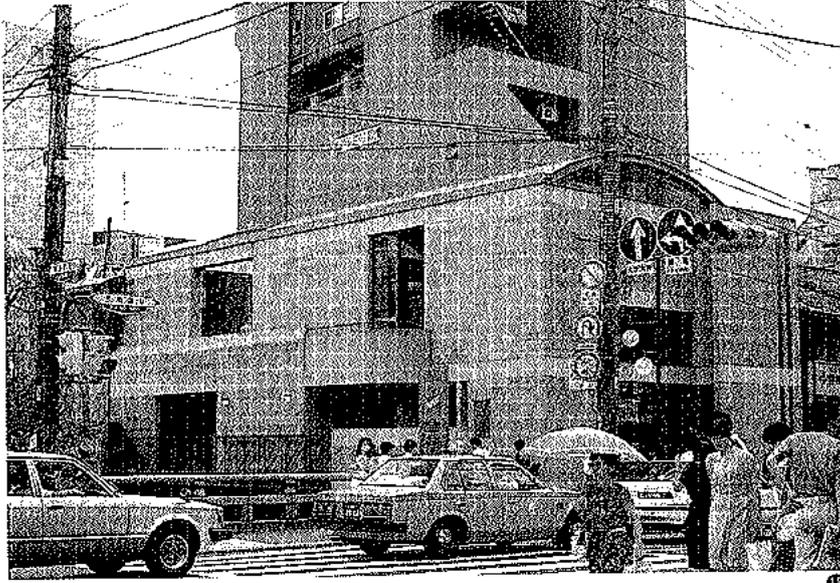
물론 여기에는 일반인들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과도하게 느껴지는 연출도 발견할 수 있지만 바로 그것이 그의 건축물과 다른 건축가들의 작품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 3. 교토와 오사카의 안도 다다오

교토의 다카세(高瀬川)강옆(강이라기 보다는 작은 개천)의 다리옆에 위치한 타임스 I빌딩(1985)을 방문했던 것은 1988년 여름이었다. 다카마쓰 신(高松 伸)이 설계한 위크 등운 방금 거쳐서 온 후라, 산조고바시(三條小橋)라는 다리옆에 위치한 타임스 I이 조금은 초라해 보였다.

형대적 폭력을 구사하는 다카마쓰 신의 건축물이 날카로운 비수라면, 안도의 타임스 I은 상대적으로 소박해 보였기 때문이다. 물론 이때 처음 안도의 건축을 접한 것이기도 했다.

개천을 따라 서있는 볼트형 지붕을 한, 외벽이 시멘트블록으로 마감된 지하 1층, 지상 3층의 패션부티크 기능을 한 이 건축물은 안도가 “잊혀졌던 장소가 가진 의미를 환기시키고 다시 그 힘을 강하게 하는 것이 이 건축의 주제”라는 말처럼 개천옆의 건축물답게 개천과 건축물과의 상호 작용을 엿볼 수 있게 하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었다. 안도가 개천에



변한 작은 광장에 난간을 설치하지 않으려고 행정당국과 몇 개월간 승강이를 벌였다는 일화는 그의 이 건축물과 개천과의 강한 연관성을 확인해주는 것이었다. 타임스 I에서도 다른 안도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미로적 구성이나 하늘을 향해 개방된 계단, 골목과 광장 등의 수법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특히 건축물 본체 주위를 둘러싸고 형성된 옥외계단이라는 수법이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안도 건축의 외부 입면에 나타나는 세로의 슬릿트형의 개구부 역시 이 건축물에서도 빛이라는 자연의 움직임을 포착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되고 있었다. 안도 건축의 커다란 장점 중의 하나는 방문할 때 마다 새롭게 느껴지는 공간적 변화라고 할 수 있고 이 변화는 그의 모든 연출장치의 총화에 의해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인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 시멘트 블럭으로 마감된 타임스 I은 네덜란드의 구조주의 건축가 알도 반 아이크의 건축에서의 영향을 강하게 느끼게 하였다. 헤이그에 소재한 로만 카톨릭 교회와 안도의 건축은 공간등의 처리에서 유사성을 느끼게 하는 점이 많았다. 안도의 타임스 I은 타임스 II가 증축되어 연결될 예정이며 다음에 교토를 방문할 때 쯤이면 완성된 타임스 II를 거닐며 다카세강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교토에서 오사카로 옮겨가면, 오사카에도 코베의 기따노마찌 거리만큼 안도의 건축물이 많이 보여 있는 지역이 있다. 오사카 신사이바시(心齋橋) 지역은 오사카 제일의 쇼핑가로서 파르코·소니 타워 등 유행의 첨단을 걷는 상업건축물과 부티크들이 밀집해 있다. 이 신사이바시 지역의 비교적 좁은 골목길에는 유명한 패션부티크들과 고급 레스토랑이 밀집해 있으며 사람들이 항상 북적거리는 거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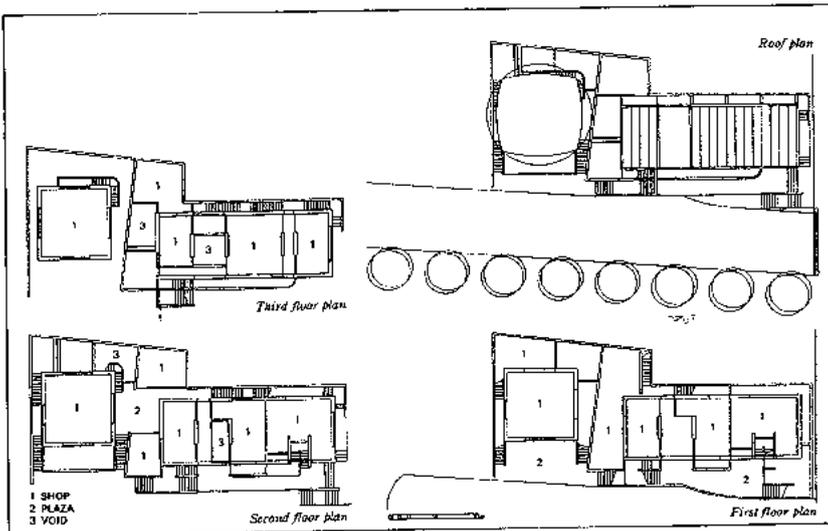
이 거리에도 안도의 건축물들이 상당수 자리잡고 있었으며 안도의 건축물외에도 유명한 건축가들의 작품들이 서있는 거리이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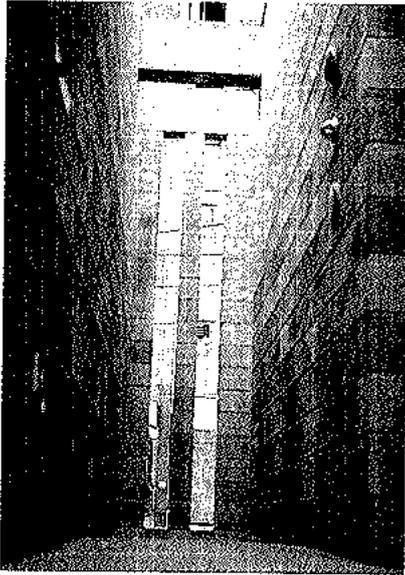
안도가 설계한 건축물을 나열해 보면, 신사이바시 TO(1984), 갤러리아 아카(GALLERIA AKKA : 1988), 옥시 우나기다나(OXY 鰻谷 : 1987), 비기 서드(BIGI 3rd : 1986)외에도 비기 씨리즈의 건축물들이 밀집해 있었다.

이 지역은 패션 부티크들이 밀집해 있지만, 입지적 환경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부지의 폭이 좁고 길게 되어 있어 설계상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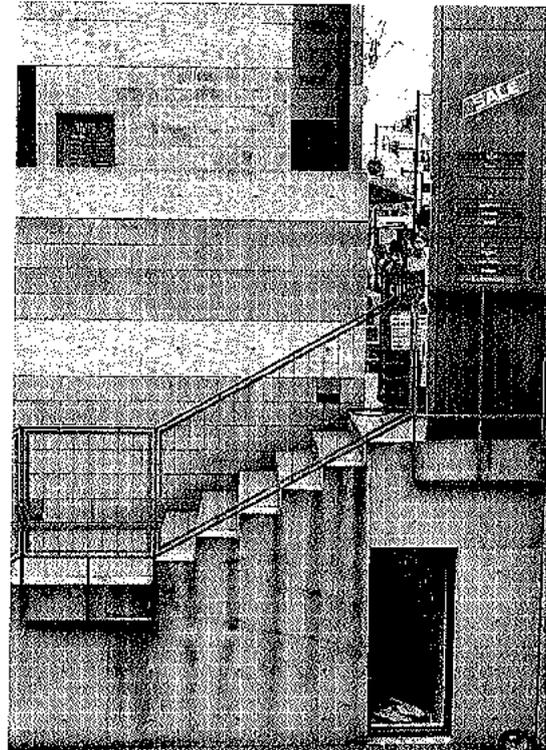
이 지역에도 안도의 건축물이 많지만, 비교적 최근에 완공된 갤러리아 아카를 통하여 그의 건축적 개념의 변화를 알아 보기로 하자.

갤러리아 아카 역시 폭 8m, 길이 40m 라는 장방형 부지에 삽입된 건축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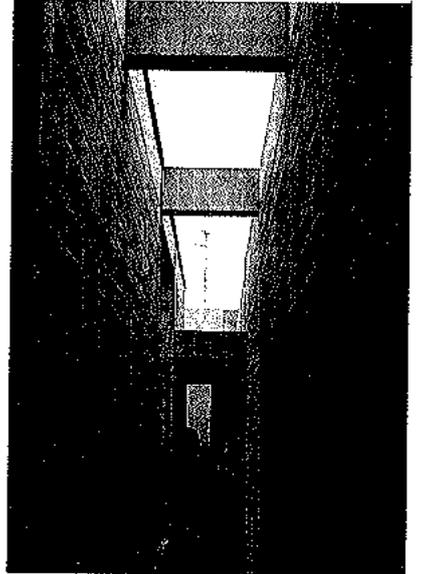




19



20



21

외형은 노출콘크리트의 상자형 건축물에 상부가 반원형의 반투명 유리로 구성되었고 내부공간은 반경 28m의 원호로 구성된, 상부가 오픈된 계단실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이 계단실과 외벽 사이의 공간은 오픈되어 있었다.

즉 이 건축물의 구성은 외부로는 콘크리트 옹벽으로 몇 개의 개구부만 제외하고 폐쇄되어 있었으면서 내부(실체는 내외부가 연결된 매개공간)에 자기완결적 구조를 지닌 계단과 광상을 지닌 거리를 만들어서 현대도시공간에 대한 비판적 자세를 표현하고 있었다.

한때 평론가들이 대규모 상업건축의 내부에 들어서는 아트리움 공간을 자급자족하는 완결체로서의 건축을 지향하면서 공해요소들을 외부로 발산하는 건축이라고 평한 적이 있듯이, 오사카 신사이바시 거리의 혼란스러움에 대해 등을 돌린채 내부세계로 침잠하는 건축적 틀이 엿보인다고 할 수 있었다.

오직 외부와 교신하는 창구는 하늘과 몇 개의 개구부일 따름이었다.

“거리에 대해 폐쇄하고 있는 듯하게 보이면서도 내부에 수직방향의 보이드를 도입하는 것에 의해, 건축에 고유한 내부풍경을 창출하고 도시중에 알코브로서의 성격을 부여하여 그 결과 자기 완결적으로 보이는 건축은 역설적으로 거리와 관련을 맺게 되는 것이다.”는 안도의 갤러리아 아카에 대한 해설은 그의 입장을 잘 대변하고 있다.

로즈 가든이나 준 포트 아일랜드 빌딩, 그리고

- 19 빛을 여과하고 시각을 차단하는 슬릿트형 창
- 20 개천쪽으로 내려가는 계단
- 21 하늘로 열린진 골목길과 같은 통로

타임스]에서 우리는 안도 건축의 형태적 공간적 어휘와 수법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그것은 그의 미학을 의도적으로 표현하려는 틀이긴 하지만 절제된 측면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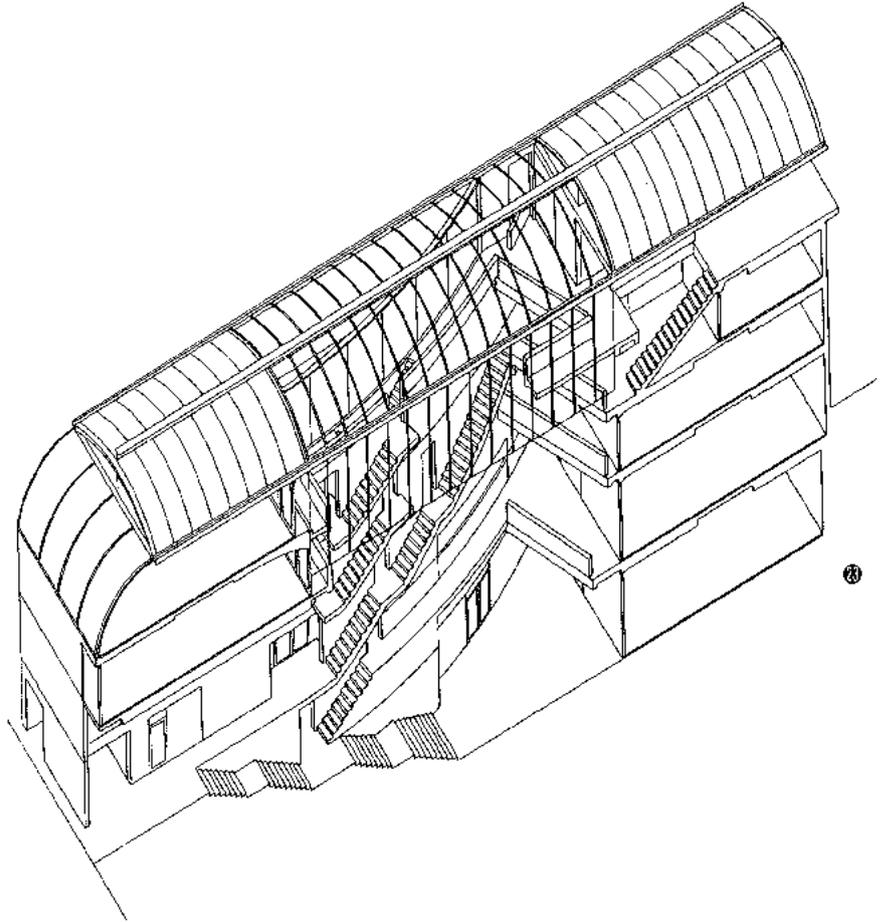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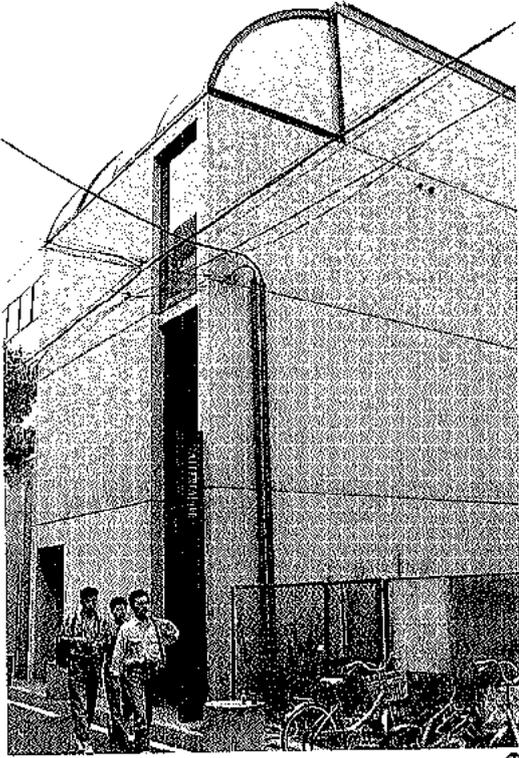
그러나 이 갤러리아 아카의 원호를 그리면서 구성된 계단은 페라네시의 미로공간을 연상시킬 만큼 과도하게 처리된 것이 사실이었으며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4층 데크를 받치고 있는 옹벽에서 돌출한 기둥은 그의 과욕(?)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안도는 이 건축물을 설명하면서 대부분의 건축가들이 공공건축이나 문화적 기능의 건축에서만 예술향을 표현하고 공간을 시적으로 승화시키려고 노력하지만, 경제성과 법규제 및 사회적 통념 등과의 격투를 해야 하는 상업적 건축에서도 건축가가 추구하는 바를 관철시켜야 한다는 말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건축물이 상업적 기능이기 때문에...”라는 말에는 건축주가 최대한의 용적율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건축가인 자기자신도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이 내포되었던 것을 우리자신도 알고 있고 양해하고 있던 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상업적 공간에서도 시적인 공간으로 승화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 대해 아마 대부분의 국내 건축가들은 안도가 주장하면 국내에서 수용이 되겠지만 국내건축가가 주장하면 수용이 안될 것이라고 대답하겠지만, 2차대전후 다큐멘타리 형식의 저예산으로 영화를 제작했던 이탈리아 영화계에서도



“자전거 도둑”같은 명화를 만들어 낸 것을 보면 꼭 사회적 통념이나 건축주의 선입관만이 장벽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사실은 우리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는 장벽부터 타파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자문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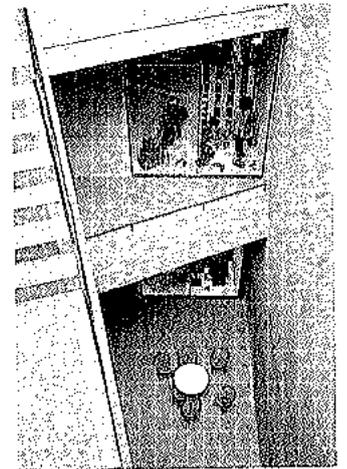
하여간 안도가 갤러리아 아카에서는 필자가 보기에는 과도한 시도를 행했지만, 그가 상업공간을 시적으로 승화시키려는 과욕적인(?) 시도때문에 후배건축가들도 비교적 쉽게 설계시의 장벽의 관문을 통과케 하는 디딤돌을 안도는 이 프로젝트에 달성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단순한 골격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사람의 동선의 비로화 혹은 다른 천장고의 점포구성에 의해 보다 복잡한 공간체험을 방문객에게 부여한다. 거대한 오픈부의 상부에 곡면 반투명 유리 아케이드가 부착되어 있다. 이 아케이드는 일본에 있어 부가적인 것과는 다른, 서양의 갤러리아처럼, 그 자체가 건축으로 성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빛은 이 거대한 오픈공간을 통하여 각층의 바닥에 흘러 내린다.” 안도의 이 설명을 읽으면서 밀라노 대성당 앞에 위치한 주세페 멘고니설계의 빅토리오 엠마누엘 Ⅱ세 갤러리아(1865~67)가 떠오르는 것은 웬일일까?

축소지향형을 지향하는 일본인의 건축에 대한 선입관일까?

#### 4. 도쿄의 플래지오네

플래지오네! 우리가 외국의 패션잡지의



제목으로 자주 대했던 말이다.

콜렉션 즉 수집이라는 의미를 지닌 건축물이 도쿄 미나미 아오야마(南青山)에 들어 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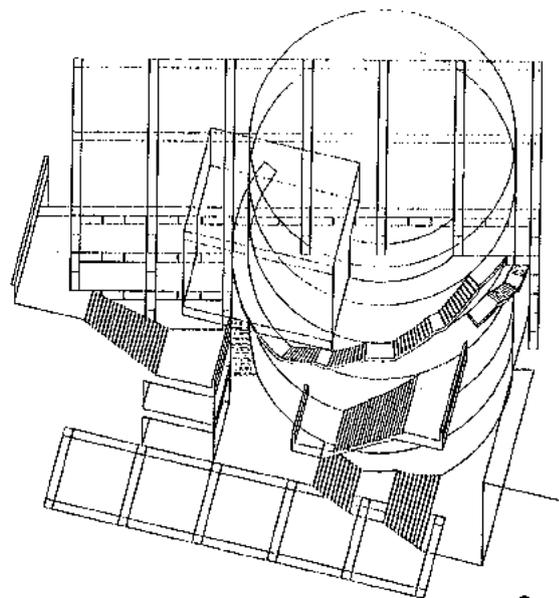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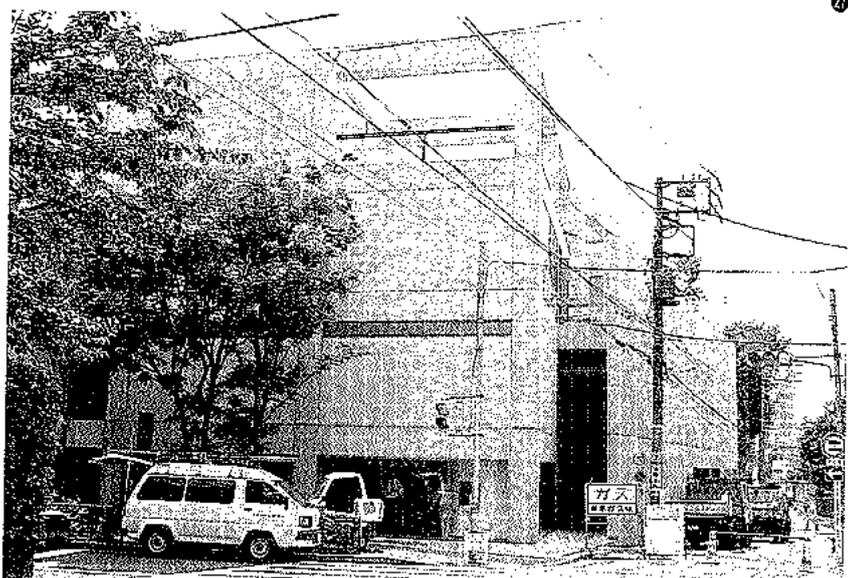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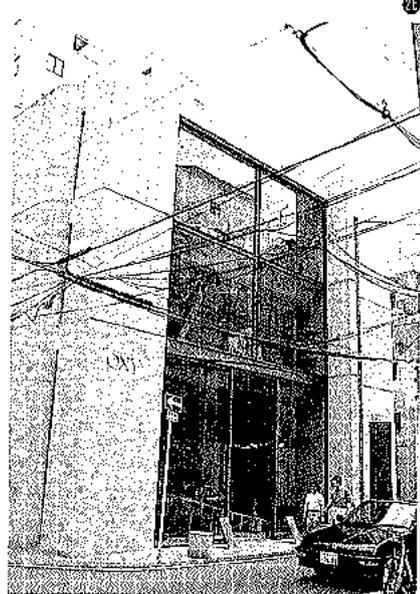
이 아오야마(青山)거리도 패션부티크와 화랑 등이 밀집한 문화 예술의 거리이고 오사카의 신사이바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환경이 밝고 가로에는 수목이 우거진 거리이다.

오히려 코베의 기따노마찌 거리와 유사하다고 할까?

- ㉑ 갤러리아 아카 전경
  - ㉒ 전개 엑소노 메트릭
  - ㉓ 아래에서 올려다본 상부오픈 부분
  - ㉔ 과도하게 처리된 계단공간과 오픈부
- 갤러리아 아카의 특징중의 하나이다.



- ㉑ 플레찌오네 전경
- ㉒ OXY 우나기다니 전경
- ㉓ 측면에서 바라본 플레찌오네
- ㉔ 플레찌오네의 엑소노 메트릭



이 플레찌오네가 위치한 바로 옆에는 공간프로듀서인 하마노(洪野)그룹이 기획한 프롬 휘스트(From Ist)가 자리잡고 있다. 하마노 그룹은 정식명칭이 하마노 상품연구소로 상기한 프롬 휘스트 외에도 액시스(Axis)빌딩이나 안도설계의 스텝(STEP : 1980)을 기획하기도 하였다.

일본에서는 상업건축물의 경우, 건축가는 건축물만 설계하고 공간프로듀서가 판매전략 등을 수립하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작업을 전문가들이 분담하여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소규모인 경우는 건축가가 수립하기도 하지만, 국내의 경우도 백화점을 설계할 때 유통관계 분석은 전문가에게 전담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으나 일본의 경우는 더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다.

하마노 그룹은 후쿠오카(福岡)의 하카다(博多)부두개발도 착수하여 지금 완성단계에 있다. 여기에서 느끼는 것은 건축가가 만능은 아니라는 인식을 건축주나 건축가들은 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축가가 설계한 건축물이 훌륭해서 사람들을 모이게 할 수는 있지만, 판매공간의 성패는 그것 이외에도 판매서비스 등 판매전략의 수립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플레찌오네 역시 하마노 그룹에서 종합프로듀스한 건축물인 것이다.

지상 4층 지하 3층으로 구성된 이 건축물은 1,2층에 패션 및 디자인관계 점포가 3,4층에 쇼룸과 화랑, 지하 1,2층은 호로닉 스타디움이라는 마이클 그레이브스가 인테리어를 한 헬스 센터가 자리잡고 있으며 지하 3층은 주차장이다.

플레찌오네의 형태적 구성을 살펴 보면, 2개의 직방체가 부지형상을 따라 13.5°정도 벌어져 있고, 그 직방체에 관입된 직경 21m의 실린더 형, 또한 건물의



후면을 돌고 싸는 원호의 벽, 2개의 직방체 사이에 상부에 걸쳐진 입방체가 그 골격이다.

직방체의 프레임은 6.15m의 균등 그리드로 구성되었고 실란더는 알루미늄과 유리의 커튼 월로 마감되어 있다.

이 플레지오네의 형태적 구성은 미나토(港)구의 아트 갤러리 컴플렉스 프로젝트(1977)와 유사한 구성을 취하고 있으며 그 구성 자체가 짐작 복잡하게 변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갤러리아 아카나 플레지오네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안도의 건축이 변모하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르 꼬르뷔제 건축의 경우, 중심성이 나타났던 초기에서 후기적으로 갈수록 중심성이 해체되었던 것처럼 안도의 건축도 부분적으로 해체적 경향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피터 아이젠만의 건축이 데스틸같은 수직 수평의 질서에 의한 균형을 추구했던 건축적 기반에서 현재에는 해체주의 건축으로 전향했듯이 엄격한 기하학 질서를 추구했던 건축가라도 해체적 흐름으로 전향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안도도 부분적으로 그런 징후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징후는 입지적 맥락의 적용에 대한 해결책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안도 역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모색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안도는 또한 플레지오네에서 지층건축에서의 흥미를 표현하고 있다.

인도의 사막에 있는 마을의 계단식 지하수거에서의 체험을 상기하면서 그때의 건축적 감흥을 이 건축물에서 표현하려고 노력하였다고 생각한다.

국내에서도 지가상승으로 인해 지하건축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겠지만, 이 지하건축은 용적율을 높이는 것만이 아닌 쾌적한 지하공간의 개발도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며 안도는 따라서

선근가든으로 지하까지 채광되는 지하공간을 목표로 한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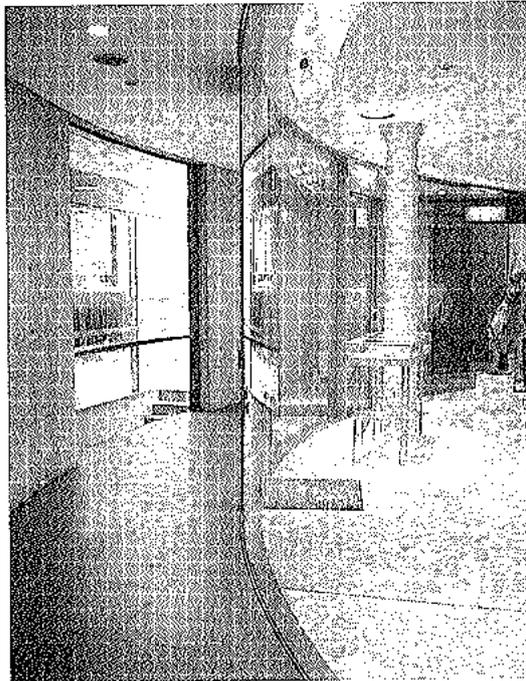
안도 다다오의 건축!

그의 건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력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되며 항상 그의 최신작을 방문할 때마다 그의 다음 건축물은 어떤 것일까 기대되는 것이다. 올해도 오사카의 라이카 빌딩이나 효고현립 어린이 박물관 등을 방문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일정관계상 다 방문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사실은 기대되는 것은 92년 세미야 박람회와 일본관이다.

안도 건축의 새로운 모색과 탐구가 개화하기를 바라며 동시에 그의 최근작의 방문이 기대되는 것이다.

- ① 오픈부의 오픈부를 통과하는 계단
- ② 실내의 복도부와 복도에 면한 상가
- ③ 부리크 전경



# 광장설계방법론

## Plaza Design Methodology

“나는 과거에 항상 이 광장이었으며 지금은 광장이 바로 나라고 생각한다.”

— E. Canetti —

“공간적 체험으로써 광장의 의미는 단지 형태(Form)와 형태화된 공간에 의해 형성되는 차원(Dimension)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이해되어 진다. 이같은 변화는 단지 수세기에 걸쳐서 뿐만아니라 어느 특정한 시대내에서 또는 나라내에서도 일어난다. 변화란 단순한 기호의 변화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변화자체가 가르침과 철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할지라도 의미의 변화는 결코 당시대의 추상적 가르침 내지 철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광장은 결코 조각과 같이 완전한 것이 될 수 없으며, 광장의 구성 요소인 건물, 기념물, 분수 등과 같이 시대적 변화를 항상 체험하고 있다.”

— P. Zucker —

“체험을 하려면 광장으로 가라. 거기에 가서 기다리고, 보고, 눈을 지긋이 감고 광장의 숨소리를 체험하라. 역사를 읽고, 이해해 보라. 광장과 하나가 되며, 광장을 직접 느껴 보라.”

— M. Zlonicky —

### 1. 개요

광장은 역사적으로 볼때 도시 속에서 인간의 공공의 삶을 위한 장소 내지 공간 그리고 영역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때 흔히 광장은 도시공간구조 속에서 건물에 의해 인위적으로 지어진 장소가 아닌 개방된 공간으로써만의 역할을 지니고 있다. 전통적으로 광장은 위치, 기능, 형태구성 등에 의해 한 도시내에서 근본적인 과제를 해결해야 했다. 예를 들어, 시민광장, 집회장, 기념물을 위한 장소, 바다로부터의 기항지, 교통의 요충지 등 여러 도시적 요구에 따른 과제를 광장은 그의 역할과 기능으로써 받아들였다. 각각의 역사적 시기는 그들 나름대로 광장의 독특한 형태구성을 지니고 있다.<sup>1)</sup>

—그리스의 아고라(Agora)

—로마의 포럼(Forum)

—중세의 시장 광장

등은 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해 왔다. 우리가 매일 체험하는 오늘날의 광장은 옛 광장의 형태구성과는 다르게 광장에 관한 형태구성요소들의 고려없이

무계획적으로 발전되었다.

즉, 광장입면벽의 구성, 광장을 구성하는 건물의 형태, 광장의 폭과 건물높이와의 비례, 광장의 폐쇄성(경제성), 광장바닥의 형태구성, 광장기구의 배치계획, 도심녹지의 요소등 7가지 광장에 관한 형태구성요소의 체계적인 구상은 광장의 질(Quality) 향상을 위한 전제조건이며, 도시공간의 한 요소로써 광장은 도시내에서 공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다. 이때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되는데, 이는 곧 도시거주자들이 광장내에서 공공의 삶을 향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우리가 이상적인 공간으로써 광장을 계획할 수 있을까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광장은 구체적으로 인간사이의 대화접촉을 강화시켜주며, 집의 내부공간에서처럼 휴식을 제공해주며 광장을 통하여 도시의 이미지를 체험하게 해주며, 공공의 모임과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광장설계의 방법론을 연구·분석하여 실제 설계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이론적 지침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광장이란?

—광장은 형태화된 장소이다. 즉 어느 곳에 종속되어 있고, 스스로 보여지며, 추억과 자기정의의 장소이며, 의지, 희망, 기대와 연관되어 공공의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표현하고, 아주 긴밀한 작은 공간 속에서 사회적인 행사와 상징적인 이미지에 대하여 다른이들과 의견을 교환하며, 그러한 분위기속에 스스로 담겨져 함께 공존하는 곳이다.

—광장은 물질적 공간이다. 즉 경우에 따라 비어있는 옥외공간으로써 또는 광장벽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겹겹같은 공간으로써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주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곳이다. 이 공간은 3차원적이며 구성적인 핵심을 지니고 있고 각기 그 위치에 따라 항상 다르게 경험되어질 수 있는 곳이다.

—광장은 형태화된 장소 내지 공간으로써 기능을 하도록 유도하는 가로망 속에 놓여져 그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지리적 장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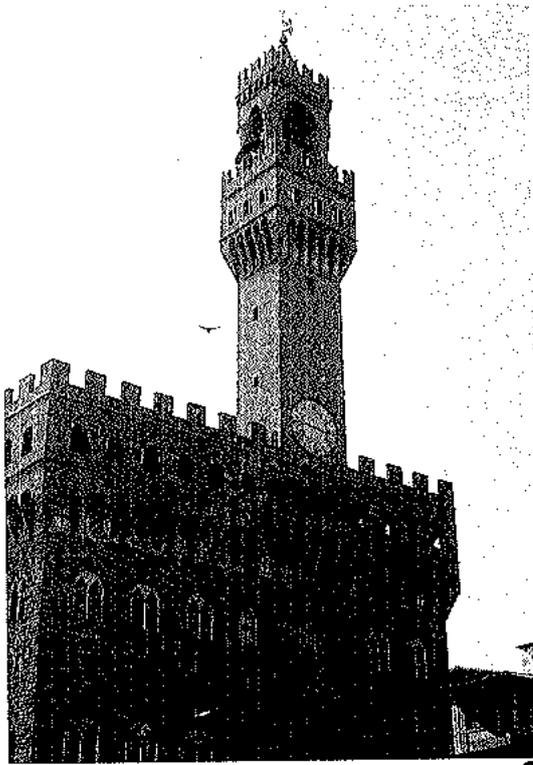
### 3. 광장설계를 위한 디자인요소

#### 1) 형태학적 요소(Morphological Elements)

(1) 광장의 크기(Dimen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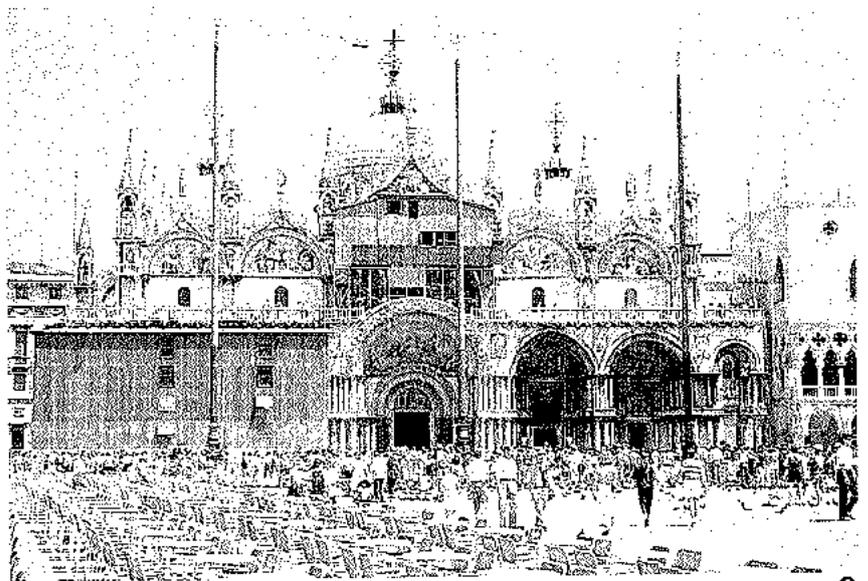
(2) 광장의 형태(Form); 측면/전면, 대칭/비대칭, 규칙/불규칙

(3) 광장의 입면(Elevation, Wall); 통일성/다양성, 재료, 형태, 질감,



① 이탈리아 Florence의 Signoria 광장(13세기)의 종탑  
② 이탈리아 Venice의 San Marco광장(15~16세기)

③ 피렌체, Arno강에서 바라본 Uffizi 광장과 Signoria 광장의 모습(13~16세기)



- 매스의 분질, 색깔.
- a. 건축적 수단 ; 재료, 모듈, 음/양지, 색깔등의 변화
  - b. 입면구성요소의 통일성
  - c. 리듬적인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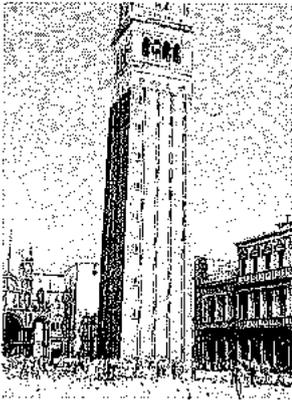
2) 공간적 요소(Spatial Elements)

- (1) 광장의 폐쇄성(Enclosure)
- (2) 광장의 비례(Proportion)
- (3) 광장의 바닥차(Groundlevel-difference)
- (4) 광장의 공간적 연속(Spatial Sequence) ; Plaza-Group

3) 미적·시각적 요소(Aesthetic, Visual Elements)

- (1) 광장의 시각적 요소(Visual Sequence) ; 광장입면의 윤곽, 대비, 시각적 우월성
- (2) 광장의 경계(Boundary) ; 광장입구, 아케이드, 기념열주
- (3) 광장축(Axis) ; 주요중심축/직교축
- (4) 광장의 투시도적 효과(Perspective Effect) ; 원근과 공간적 확장의 미학
- (5) 광장입구의 시각적 유도(Progression)
  - a. 변화하는 시각으로부터의 극적인 광장입구로의 선이공간형성
  - b. 단계적으로 변화하는 광장체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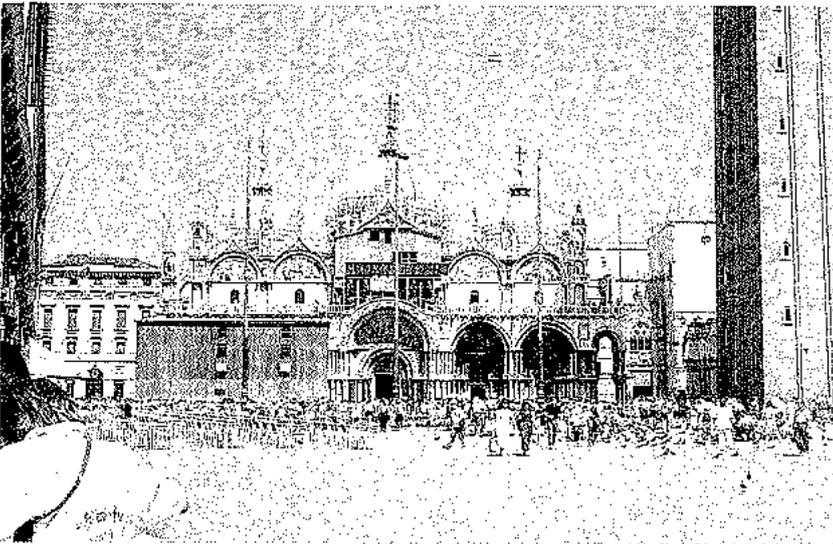




4



5



6

#### 4. 광장의 크기(Dimension)

광장크기의 결정에 있어서는 우선 광장의 기능이 주요한 변수가 된다. 즉 시각적 인상으로부터 어떤 특정한 공간적 경계가 존재하는데 보통 12ha 정도 된다. 이는 300~400m의 특정거리상에서 맞은편 건물의 앞부분 경계만을 겨우 인식할 수 있는 크기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역사적 광장의 크기는 0.5ha 내지 5.0ha 사이에 존재한다. 광장의 공간적 인상은 좁고, 폐쇄되고, 넓고, 개방된 경계 사이에서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때 이미 광장입구에 접한 가로상에서의 관찰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관찰자가 광장변두리에 위치하고 광장의 맞은편 경계에 시선을 맞추었을 때 수직방향으로 보여지는 시야(양각)가 최대 27도일 때 아주 이상적인 공간감을 줄 수 있다고 한다. 즉 광장벽의 높이(H)와 광장의 폭(D)은 다음과 같은 관계를 지닌다.

- 1 : 1비례 ; 관찰자가 광장벽의 반만을 볼 수 있다. 공간은 최대한 건물앞의 전면광장으로써의 효과만을 지닌다.

- 1 : 2비례 ; 관찰자는 광장벽의 높이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 공간은 폐쇄된 효과를 지니게 되나, 광장으로써는 아주 좁은 면적이다.

- 1 : 3비례 ; 관찰자는 광장벽의 높이와 비교하여 볼 때 하늘의 다소 부가적인 부분까지도 시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광장공간은 더이상 완전하게 폐쇄감을 지니고 있지 못하며 이로 인하여 광장을 위한 적절한 조건을 제시해 준다.

#### 4) 행태적 요소(Behavioral Ele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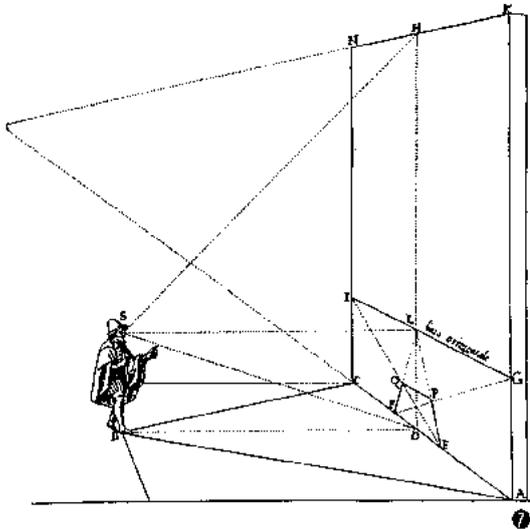
- (1) 광장의 기능과 용도(Function and Use)
- (2) 건물의 용도와 행태(Use and Behavior)
- (3) 인간행태의 사회과학적 관찰(Social-Scientific Observation of Human Behavior)

#### 5) 기타 요소

- (1) 광장가구(Plaza-furniture)
- (2) 바닥장식(Ground decoration) ; 기하학적/회화적, 대리석/화강석, 색채유무
- (3) 식재(Vegetation)

• 1:6비례; 광장벽과 하늘의 일부분 사이의 비례는 1:3비례의 경우와 정반대로 되며, 광장은 이미 매우 넓게 인지되며, 이 비례가 더욱 감소될수록 광장으로써의 인상은 상실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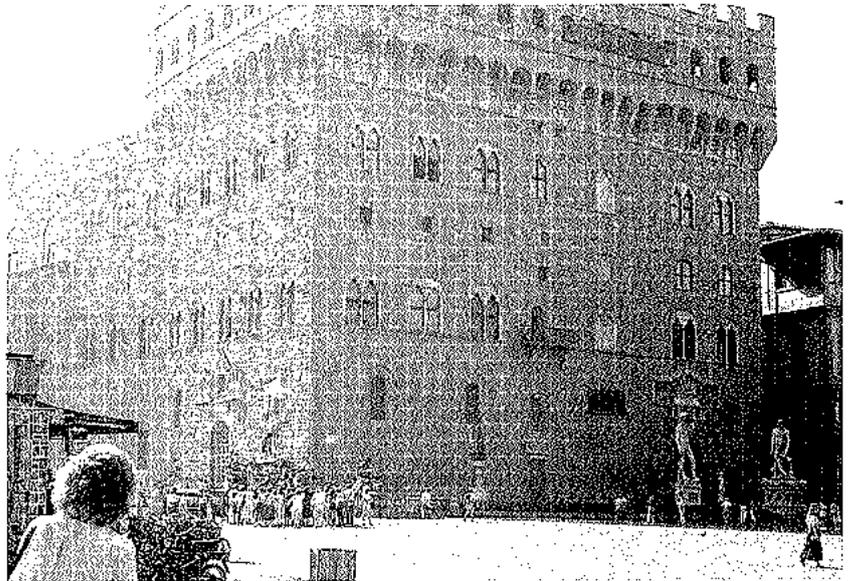
요약하면 이상적인 적정비례관계는 1:3과 1:6사이에 존재하게 된다. 비트루비우스에 따르면 로마광장의 크기는 항상 인간적 스케일과의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으며, 광장측면에서의 이상적 비례관계로써 그는 3:2의 비례관계를 제안했다. 따라서 광장중심부분은 자유스럽게 개방되어야 한다.



## 5. 공간비례 (Proportion)

광장의 공간적 효과는 건물과 주변공간사이의 관계에 의해 좌우된다. 또는 건물과 광장바닥면적사이의 관계에도 기인된다. 공간효과는 광장폭이 광장을 형성하는 건물높이의 3배가 될 때 얻어지며, 유명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지닌 광장은 바로 거의 3배높이의 비례를 지니고 있다. 도시광장으로써 이상적인 공간적 효과를 지니려면 자체의 기본평면형태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그들 자체의 광장입면에 조화되어야 하고, 건물벽 사이의 통일된 공간으로써의 전체적인 일체감을 보여주어야 한다. Maertens는 "Der Optische Masstab im Staedtebau"(도시 계획에 있어 시각적 척도)라는 그의 저서에서 광장의 입면을 구성하는 건물높이(H)와 광장 폭(D)과의 비례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H:D가 1:1일때 양각은 약45도이며, 이는 건물 각각에 대하여 관찰할 수 있는 거리비례이다. H:D가 1:2일때 양각은 27도이며,

전체건물이 하나의 그림으로써 관찰될 수 있기 위한 정상적인 거리이다. 또한 H:D가 1:3일 경우 양각은 약18도이며, 건물의 그림이 주변환경과 일치되며, 건물의 개별적 특성은 사라진다. 끝으로 H:D가 1:4내지 1:5일 경우 단지 그림 같은 전체모양으로써 인식되며, 건물은 주로 경계를 구분하는 윤곽선에 불과하다. Maertens는 계속해서 동일한 주제 속에서 하나의 건축물이 너무방향으로부터 공공의 광장을 지배할 때 광장폭(D)은  $D=2 \times (h-1.60m)$ , 양각은 27도이상인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광장의 짧은 측면이 기념비적 가치가 있는 건물에 의해 한정되어 있다면, 유용한 광장폭 D는  $5 \times (h-1.60m)$ 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h는 건물높이, 1.60m는 보통 인간신체에서 눈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다시말해서 주요 건물(보통 성당이나 시청사 건물)이 광장의 좁은축에 놓여 있을 경우 더 높거나 탑과 같은 건물형태를 지녀야 한다. 동일 건축물에 있어 하나 또는 적은 수의 비례로써 인식될 수 있게끔 반복되어 응용되어 진다면 관찰자는 이를 구성하는 단일요소의 결합으로써 하나의 통일체(단위)로써 인식한다. Maertens를 Unwin과 같이 광장은 건물의 크기와의 어떤 특정한 관계 속에서 느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거대한 크기의 광장은 건물을 난장이와 같은 모습으로 바꾸어 놓는다. Sitte는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건물높이의 관계 속에서 좁게 보이는 높은 건물은, 성당의 서측면에서처럼, 깊게 놓인 광장을 그들의 정면과 직각되게끔 요구한다. 반면에 많은

- ④ Venice의 San Marco 광장 종탑에 의한 광장의 Dimension을 강조하였다.
- ⑤ 로마의 San Pietro광장 상부의 Relta광장(330m×220m)과 하부의 Oblique광장(200m×140m)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⑥ Venice의 San Marco광장 바실리카 교회를 중심으로 175m×(58m~85m)의 사다리꼴 평면을 형성하고 있다.
- ⑦ 시각적 법칙과 비례에 관한 기하학적 도식
- ⑧ Florence의 Signoria광장 (125m×72m(~90m~53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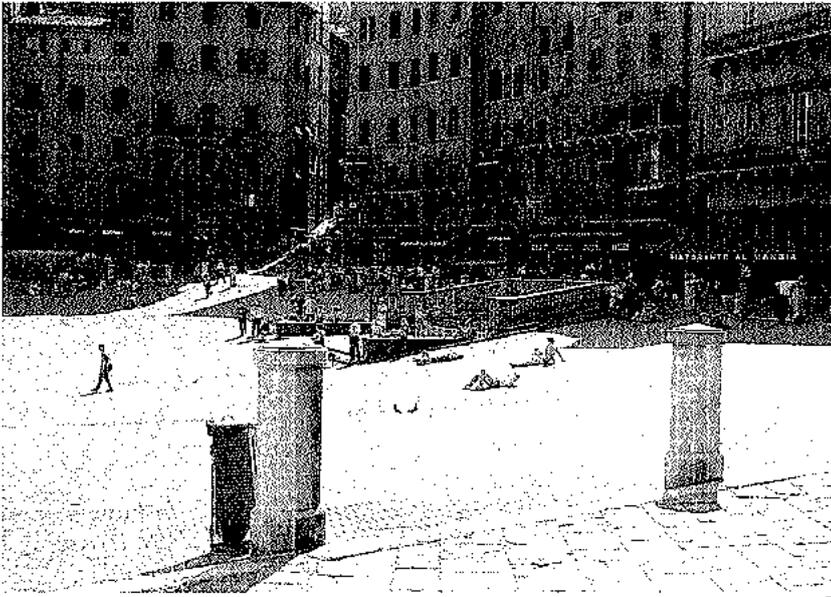
비례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효과에 대한 여러 제안들

\*\*\* : 이상적인 비례영역 ( ) : 양 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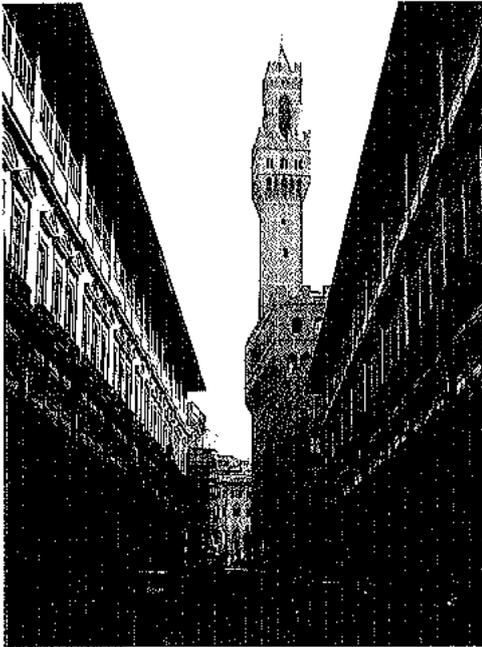
건물높이(H)와 광장폭(D)과의 제안자	1:1 (45°)	1:2 (27°)	1:3 (18°)	1:4 (14°)	1:5 (12°)	1:6 (10°)
Maertens, H. <sup>1)</sup> Stübgen <sup>2)</sup>	• 건물의 거별성 인식	***** • 경상적인 비례 • 그림으로써 전체 건물 을 인식	***** • 주변과 건물을 동시 에 인식 • 건물의 개별성은 상실	• 단지 회화적인 전체그림으로써 인식 • 건물은 단지 공간의 외곽경계선으로써만 인식		
Schmidt, H. : Lässig, K. Linke, R. : u. a. <sup>3)</sup>	• 광장입면의 반반 인식 • 완전한 광장이 아닌 전 면광장으로써만 인식	• 광장감면의 전체적인 인식 • 폐쇄성 • 광장으로져 다소 좁음	***** • 건물과 하늘의 부분 적 인식 • 폐쇄성은 다소 상실 • 광장을 위한 적정조건			• 광장을 매우 넓게 인식 • 광장폭과 하늘과의 역 비례관계로써 인식
Genzmer, F. <sup>4)</sup>			***** • 건물과 주변을 동시 에 인식 • 미적현상으로 인식			
Spreiregen, P. D. <sup>5)</sup>		***** • 폐쇄성 양호 • 적절한 최소의 시각적 거리 • 상상적 시야	***** • 주변에 대한 현저한 대상을 인식	• 공간의 질 상실 • 건물은 단지 공간의 외 곽경계선으로써만 인 식		
Zucker, P. <sup>6)</sup>		***** • 건물의 개별성 인식	***** • 광장입면을 구성하 는 건물의 전체적 통일 성만을 인식			
Sitte, C. <sup>7)</sup>	***** • 공간적 만족감을 위 한 최소경계영역	*****	***** • 최대 경계영역			
SIN <sup>8)</sup>		***** • 분명한 공간적 인상 형성				
Lynch, K. <sup>9)</sup>		***** • 가장 아름다운 광장	*****	• 공간적 경제성을 상실		
Ashihara, Y. <sup>10)</sup>	• 좁음과 넓음의 선이결	***** • 건물을 광장입면을 위한 전체적 통일성으 로 인식	***** • 건물군으로 인식			
Brinckmann, A. Z. <sup>11)</sup>	• 디테일 인식	***** • 효과적인 양각 (Wolfgang Rauda도 같 은 제안)	***** • 주변의 예술품과 전 체적인 그림으로써 인 식			
Alberti, L. B.			***** • 효과적 비례			
비 고 • Lässig, K : Schmidt, H. : • Lynch, K.	• 1:3~1:6 : 적정하여 가장 이상적인 비례 • 광장폭이 약 12M일때까지는 최근거리에 속하여, 루 24M까지는 인간적 스페이를 지닌 광장폭이 된다.					

■ 참고 문헌

<p>1) Maertens, H. : Der optische Maßstab oder Theorie und Praxis des ästhetischen Sehens in den bildenden Künsten, Berlin, 1884</p> <p>2) Stübgen, J. : Der Städtebau, Leipzig, 1924</p> <p>3) Schmidt, H., Lässig, K., Linke, R. : Straßen und Plätze, Beispiele zur Gestaltung städtebaulicher Räume, München, 1968</p> <p>4) Genzmer, F. : Die Gestaltung der Straßen und Platzräume, Städtebauliche Vorträge, Berlin, 1909</p>	<p>5) Spreiregen, P. D. : Urban Design, The Architecture of Towns and Cities, McGraw-Hill Book, 1966</p> <p>6) Zucker, P. : Town and Square, From the Agora to the Village Green, Cambridge, Massachusetts, London, 1970</p> <p>7) Sitte, C. : Der Städtebau nach seinen künstlerischen Grundsätzen, Wien, 1889</p> <p>8) Städtebauinstitut, Forschungsgesellschaft mbH(SIN) : Räumliche Gestaltung in neuen Städten. Konzeption und Wirkung von Straße und</p>	<p>Platz, 1970/71</p> <p>9) Lynch, K. : Site Planning, Cambridge, Massachusetts, 1962</p> <p>10) Ashihara, Y. : Ästhetik des Außenraumes, Tokyo, 1963</p> <p>11) Brinckmann, A. E. : Der optische Maßstab für Monumentalbauten im Städtebau, Berlin, 1914</p>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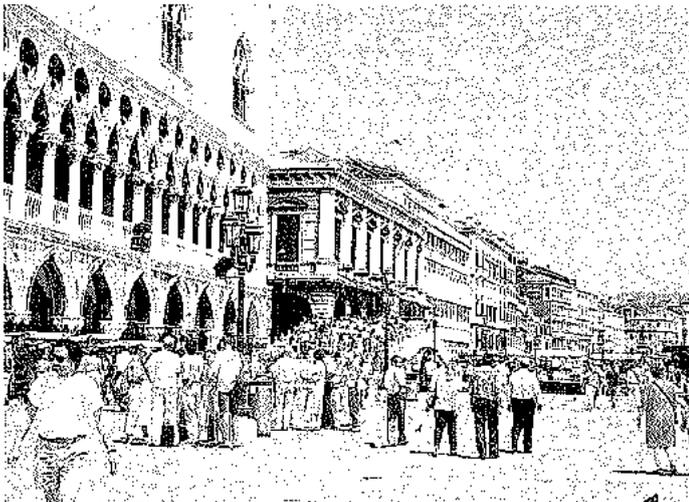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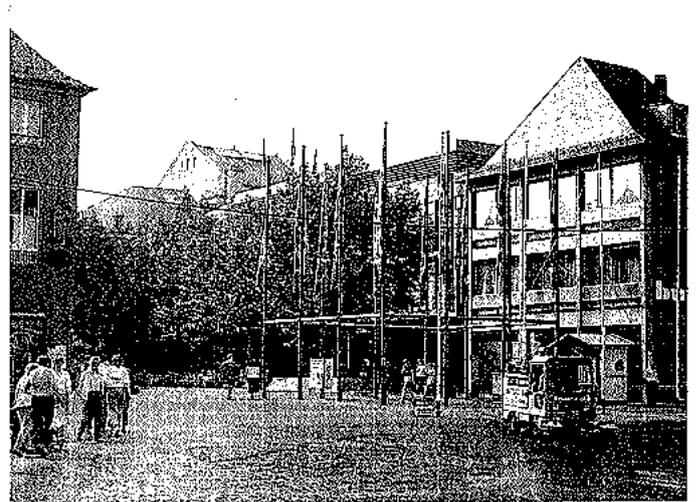


- 9 이탈리아 Siena의 Campo광장 (130mX90m)
- 10 Florence를 지나서 Arno강에서 본 전면의 Uffize광장과 우면의 Signoria 광장의 연결모습
- 11 Piazzetta소광장과 연결 속에 Canal에 인접하여 형성된 Promenade의 모습
- 12 독일 Mainz시의 중심에 위치한 Dome광장의 모습

10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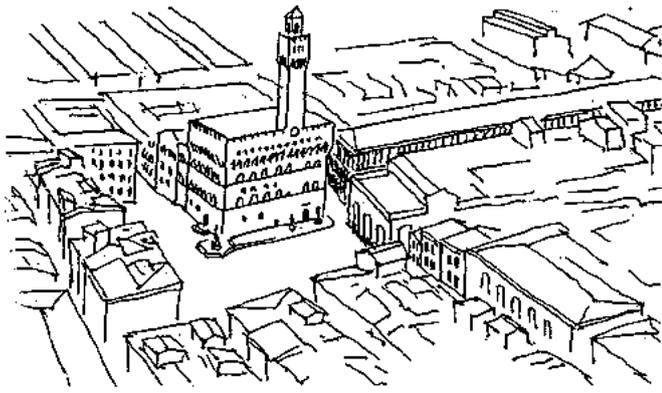


12

도시의 공회당(홀)이나 회랑, 북측과 남측에 정면을 둔 성당같이 좀더 낮은 높이를 지닌 넓은 건물들은 넓은 방향으로 그들의 장축을 평행하게 하며, 아울러 각각의 전개 속에서 좁게 되어 있는 광장들에서 가장 현저하게 나타난다. 광장들을 크기와 관계없이 상이한 공간효과방식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광장의 폭이 12m까지는 친근감있는 공간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24m까지에서 인간적 척도기준을 얻을 수 있다. 130m이상인 옛 광장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광장의 크기와 주변입면의 높이사이의 관계가 수립된다. 광장벽의 높이가 광장폭의 1/2내지 1/3이 될 때 가장 아름다운 광장이 되며, 1/4일 때 광장공간의 경계영역은 더이상 그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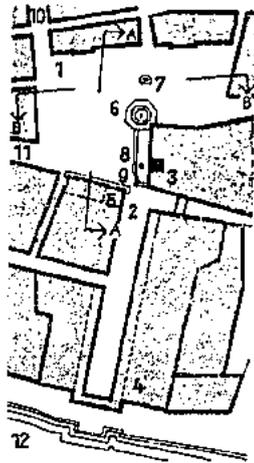
## 6. 광장의 공간적 연결 (Spatial Sequence)

광장공간의 연결은 흥분된 체험을 제공해 준다. 상대성(질서와 무질서, 다양성과 단조성, 넓음과 좁음)에 의한 대립과 서로 상이한 체험효과를 통하여 공간적 긴장감을 연출할 수 있다. 광장들 사이의 연결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냐는 중요치 않다. 건축적 수단으로써 광장으로의 전이공간에 동적인 감정교류를 인접된 다른 광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디자인 요소들이 사용된다. 즉 아케이드, 기념물의 배치, 둘러싸인 건물들에 있어서 스케일의 변경, 공간형태와 크기의 변화, 공간의 방향성에 있어 횡축과 종축으로의 변화, 빛과 그림자, 인공조명, 색채변화등을 들 수 있다. 투시도적 효과 내지 서로 유사한 비례감은 광장그룹의 시스템 형성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각적 요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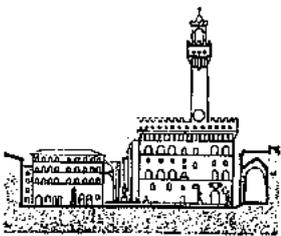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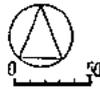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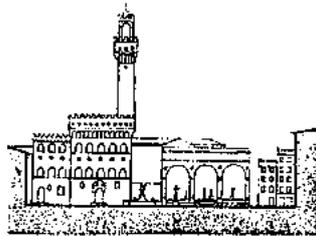
- 1. Signoria 광장
- 2. Uffizi 광장
- 3. Arno 강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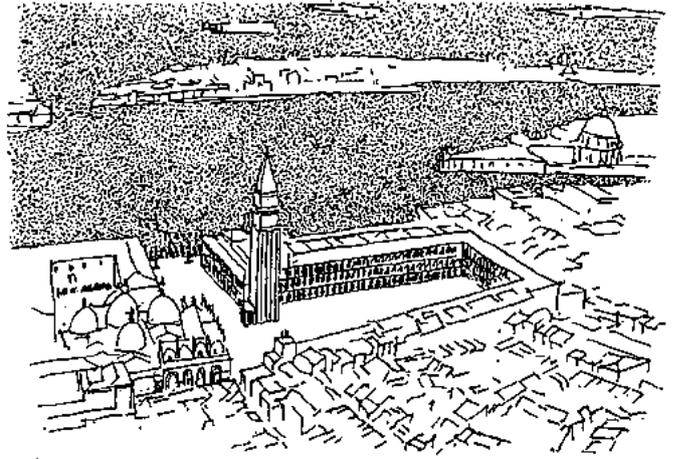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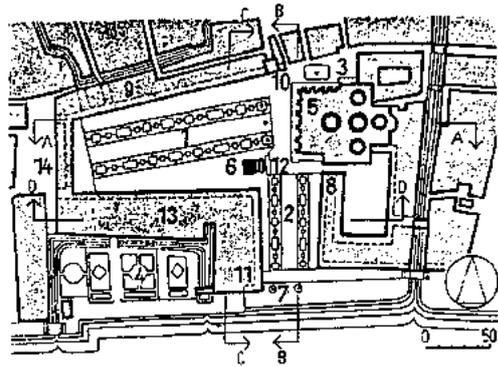


d)

- a) Florence의 Signoria 광장스케치
- b) 광장 배치도(1 : 5000)
- c) 동측입면도(1 : 2500)
- d) 남측입면도(1 : 2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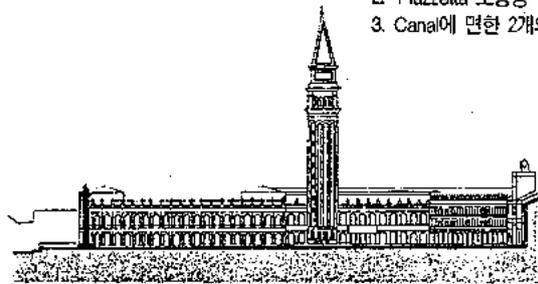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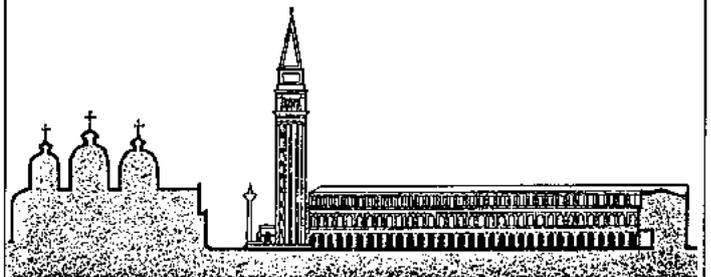


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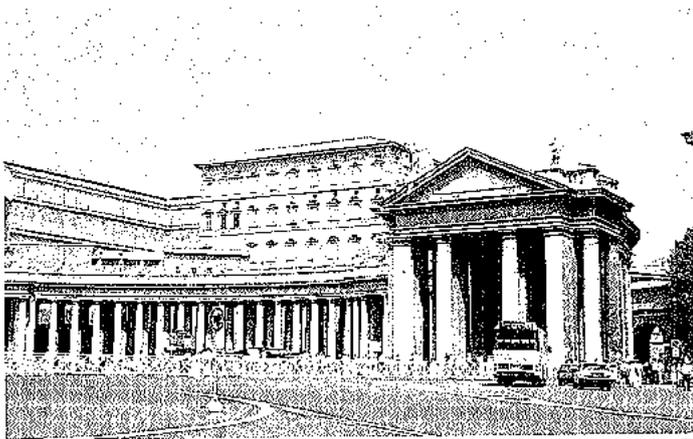
- 1. San Marco 광장
- 2. Piazzetta 소광장
- 3. Canal에 면한 2개의 기념주(1172)



g)



h)



### 7. 광장의 시각적 폐쇄성 (Enclos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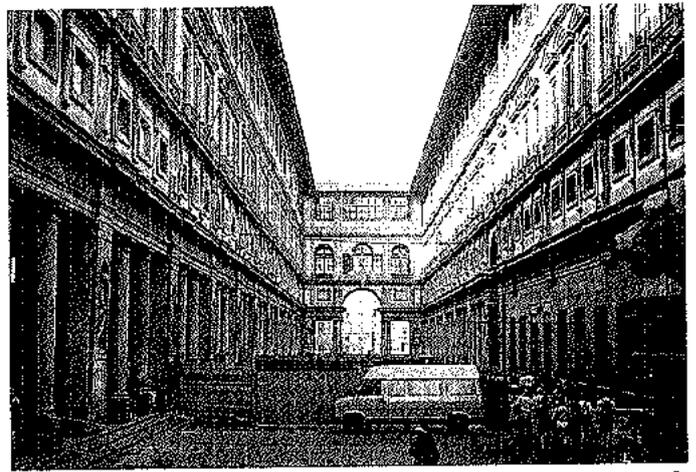
광장공간의 경계는 공간에 미적본질을 부여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광장공간은 두가지 방식에 따라 아치형의 경계를 형성할 수 있다. 첫째로 공간은 열주와 건축물의 결합에 의하여 둘러싸여 진다. 또한 축의 설정을 통하여 다시금 공간은 개방되어지며, 이 축은 열주의 리듬적인 연속을 통하여 기념물까지 계속되어 연결되는 투시도적 효과를 형성한다. 그러므로 아치형의 통과영역은 때때로 광장깊숙한 곳에서 지속적인 시각적 움직임에 분명한 마무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준다. 또한 문과 아치형 개성문 또는 기념상에 의해 형성되는 광장의 시각적 폐쇄성은 훌륭한 공간효과를 목표로 할 수 있다. 베니스에 있는 성 마르코광장에 연결된 소광장이 2개의 기념열주에 의해 광장의 시각적 폐쇄를 유도한 대표적 예라 하겠다.

### 8. 광장의 입면 (Elevation)

광장벽의 형성을 통하여 공간이 창조되어지나, 이

- 14 Florence의 Signoria의 광장과 Venice의 San Marco광장의 공간배치 비교
- 15 로마의 San Pietro광장 높이 19m의 4대 기둥으로 지지된 열주구조체가 하부광장인 Piazza Obliqua의 공간적 폐쇄성을 높여주고 있다.
- 16 밀라노 성당앞 Duomo광장의 전경
- 17 밀라노 성당과 Duomo광장
- 18 Florence의 Uffizi광장

공간은 결코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지는 않다. 리듬이나 결합같은 건축적 수단을 통해서만이 비로서 공간으로써 체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간의 분절을 형성하기 위한 건축적 수단으로써 예를 들면 재료의 변화, 빛과 그림과, 색채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미 고대의 중세때 아주 독특한 건축법은 통일성을 요구했다. 재료의 통일성,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 지붕의 형태 등에 관한 통일성이었다. 데커레이션은 다소 적은 장식적 모티브의 변화를 위하여 제한되었다. 이를 통해서 광장의 네면을 서로 관련시켜주는 아케이드의 연결은 완전한 광장의 통일성을 더욱 강화시켜준다. 리듬에 따른 반복 속에서 건축적 요소들의 통일은 광장의 공간적, 시각적 인상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된다. 이와 반대로 Camillo Sitte는 그의 주장속에 "광장은 예술성과 회화성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불규칙적인 형태로 계획되어져야 한다" 라고 그의 이론을 전개시켰다. 관찰자의 시야로부터 광장의 인상은 지속적이어야 하며 각각의 순간에 각 시점에서 조화있게 보여져야 한다. 시각적 구성은 우리의 감각체험의 시작이다. 즉 빛과 그림자,



광장의 천장 즉 하늘은 마치 벽으로 둘러싸인 집 또는 바닥과 마찬가지로 광장을 공간적으로 한계를 지운다. 하늘의 높이는 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건물과 지붕모서리, 추녀 또는 용마루의 지붕모양, 굴뚝, 탑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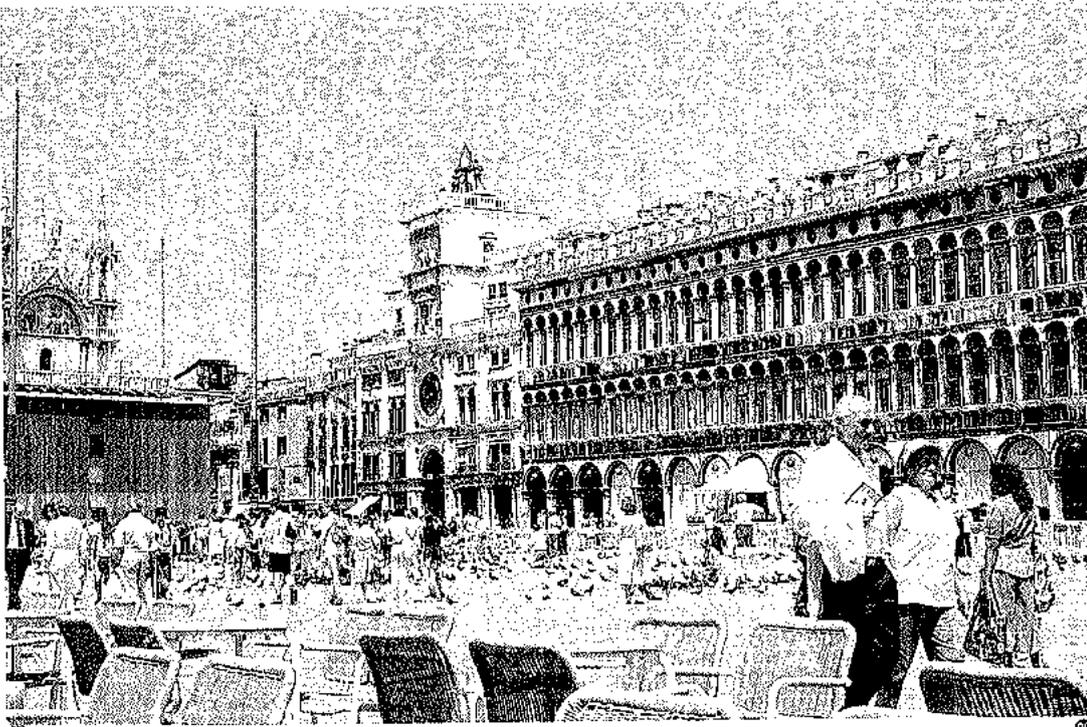
⑩ 로마의 Navona광장  
⑪ 이탈리아의 Vicenza의 Signori광장

따뜻함과 차가움, 소음과 정적, 그리고 광장공간에서 풍기는 향기 등이 모든 것은 광장의 전체적인 효과를 고양시켜 준다. 작고, 크고, 높고, 낮은 건축물, 그들 사이에 서로 연관된 비례, 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건물정면들 사이의 변화, 연결이 끊긴 개구부, 아치형광장입구, 열주 등의 리듬감이 넘친 변화는 공간적 긴장이 가미된 광장의 총체적 인상을 강화시켜 준다. 배치원칙은 예측되며 더욱 잘 파악되어야 한다. 즉 배치원칙은 설득력있는 표현을 얻어야 한다. 개방된 건축방식에서 건물의 전면쪽과 인접건물사이의 거리는 가능한한 상이하게

계획하되 예외적으로 동일하게 계획되어질 수도 있다. 이 두가지 대안중의 하나는 일반적으로 다른 하나의 대안보다 더욱 불분명하게 보다 확실히 계획되어야 한다.

## 9. 광장의 천장

광장의 천장 즉 하늘은 마치 벽으로 둘러싸인 집 또는 바닥과 마찬가지로 광장을 공간적으로 한계를 지운다. 하늘의 높이는 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건물과 지붕모서리, 추녀 또는 용마루의 지붕모양, 굴뚝, 탑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하늘은 질서있게 배치된 건물로 둘러싸여 있는 광장을 넘어서서 더욱 높게 시각적으로 작용하는데 반하여, 넓고 개방된 광장의 경우에는 하늘이 시각적으로 더욱 불분명하게 느껴질 수 있게 된다. 위를 향한 공간의 경계는 벽과 벽을 연결하는 단순한 줄을 통하여 형성될 수도 있으며 범포나 파골라(뚜렷한 공간적 영역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디자인요소)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또한 지붕형태도 여러 상이한 광장형태를 만들 수 있다. 광장에 있어 비슷한 지붕면적과 추녀쪽이 광장을 향하여 배치된 건물, 광장전체에 있어 통일성있게 계획된 건물박공 등은 하늘과의 관계에서 매끈한 광장의 시각적 폐쇄성을 얻게 하여 준다. 이때 광장공간은 폐쇄된 효과를 얻으며 우리의 눈은 쉽게 광장의 천장을 인지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용마루가 광장을 향해 있는 건물의 배치 경우 다소 산만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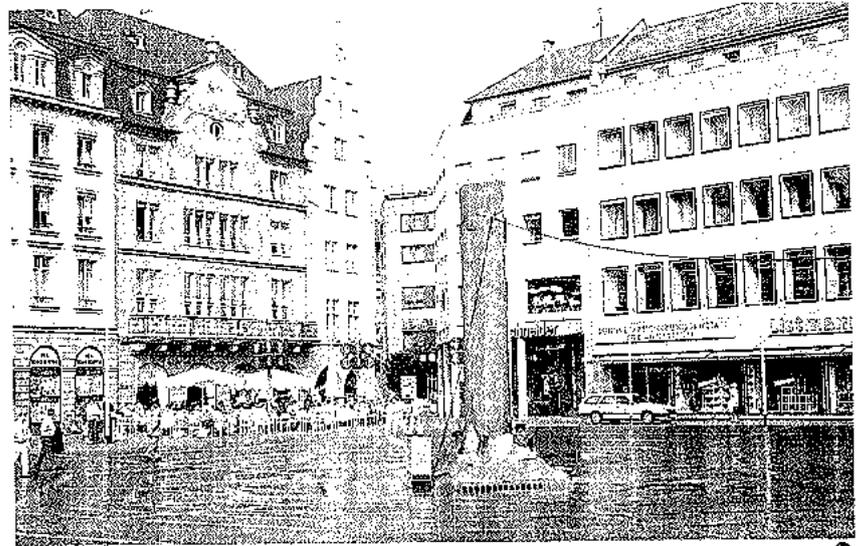
폐쇄성이란 건물이 가능한 한 끊임없이 공간적 틀을 지니고 있을 때 얻어지는 것이다. 옛광장에서 보듯이 건물의 질서에 따라 규칙적으로 광장의 입구연결이 정해졌는데, 이는 광장입구가 광장입면을 구성하는 건물의 틀에 따라 매우 적게 영향을 미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툰니모양의 지붕실루엣에 의하여 강한 광장의 폐쇄적 공간감을 얻기에는 매우 어렵다. 이때 우리의 눈은 광장의 천장을 인식하기에는 매우 어렵게 된다.

### 10. 개구부와 광장입면과의 관계

광장벽을 구성하는 각각의 건물에 있어 개구부가 광장벽과의 비례관계에서 너무 넓은 경우 공간적 인상은 손상되거나 또는 아주 잃어버리게 된다. 이같은 입장에서 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광장입면으로써의 광장벽을 구성하는 면적의 크기는 개구부의 크기보다 현저하게 커야함은 하나의 원칙으로써 중요하다.

그로써 광장벽면적의 유기적 관계가 보존되어질 수 있다. 예각의 건물모퉁이를 지니고 있는 건물로써 구성되는 광장모양의 가로교차는 각각의 경우 공간효과를 상실하게 된다. 왜냐하면 거대한 예각의 건물볼륨은 광장입면벽을 위하여 너무 불충분한 면적을 지니고 있으며, 다소 폐쇄성이 적고 단점부성이의 건물 배치로 전락될 수도 있다. 즉 넓은 가로로써 완전한 공간의 폐쇄성은 얻기가 무척 힘들다. 폐쇄성이란 건물이 가능한 한 끊임없이 공간적 틀을 지니고 있을 때 얻어지는 것이다. 옛광장에서 보듯이 건물의 질서에 따라 규칙적으로 광장의 입구연결이 정해졌는데, 이는 광장입구가 광장입면을 구성하는 건물의 틀에 따라 매우 적게 영향을 미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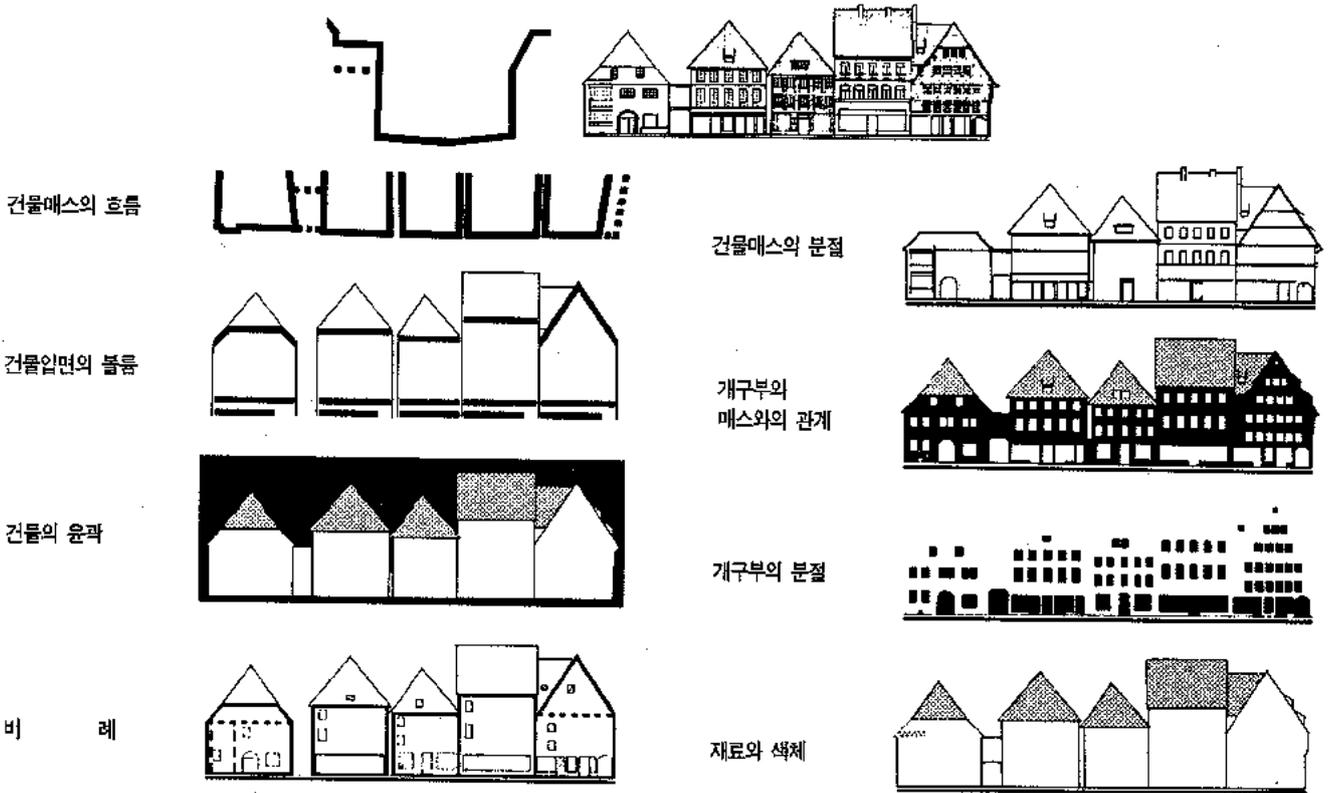


가로로부터의 광장입구는 여러 시각적 요점으로부터 숨겨져 보여지도록 되어야 한다.

### 11. 광장바닥의 고저차

높이변화는 기능적이며 순수시각적이며 심리적 측면에서 시작될 수 있다. 심리적 측면은 K. Lynch에 의해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써 받아들여 졌다. 바닥높이를 높이는 것은 시각적 측면에서의 문제가 아니며 이는 단지 우월성 내지 기득권(선취권)의 감정에 근거하는 것이다. (어린이들은 낮은 담에

- ① Venice의 San Marco 광장의 입면(1480~1517년 완공)
- ② 독일 Mainz의 Dome광장 광장 입면과 광장을 향한 개구부의 관계가 분명하다.



오르기를 좋아한다) 반면에 바닥을 낮출시는 신뢰감이 있고 안락하며 보호될 수 있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같은 느낌은 관찰자와 관찰자의 주변환경사이의 직접적인 관계에서 얻어진다. Cullen은 평평치 못한 바닥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은 잘못된 행동임을 경고하는데, 이는 바닥의 변화를 통하여 긴장이 깃든 공간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높은 바닥면은 우아와 자유로운 감정을 낳으며, 반대로 보행자는 깊이 파힌 바닥면에서 무엇인가 쾌적함을 체험하게 된다. 넓고 높은 영역에서는 각각 낮은 바닥과 식재를 통한 차계를 통하여 공간을 어느정도 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곳에 설치된 분수는 교통소음을 통해 더욱 과장되어 강조될 수 있다. 교통흐름과 시선은 질적인 건물과 예술품으로부터 방해되어서는 안된다. 즉 의미 있는 건물은 광장의 주요축 및 긴 시선의 종결점에 세워질 수 있다. 광장의 중심을 향한 바닥낮춤은 광장의 그림을 더욱 폐쇄적이며 조망적으로 보이게 한다. 더욱 높은 광장의 틀내에서 전체광장바닥의 낮춤은 더 이상적인 경관을 가져다 준다. 한방향으로의 광장의 바닥 높임은 여하튼 균등하여야 하며 오목하게 형성되어야 한다.

기후와 사회문화적 특성이 다른 우리로서는 쉽게 체험될 수 없는 도시공간이지만 그들 광장이 담고있는 내용과 형식은 어떠한 형태로든 연구분석되어 외부공간의 질에 대한 연구필요성이 점점 더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연구대상으로써 도시외부공간의 핵심적 부분인 광장은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차이를 둔 바닥면에 대한 반응은 곧 인간은 세상에서 감정적인 교차관계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독특한 동물이라는 사실에 의해 매우 다양하다.

중요한 건물은 각각의 공간효과내에서 바닥면과의 관계를 통하여 높은 위치에 배치된다. 중요치 않은 건물은 우월한 위치확보를 통하여 의미를 얻게되며, 더욱 극적인 효과를 얻게 된다. 감상을 불러일으켜야 하는 건물은 비스듬한 위치에서 가장높은 곳에 위치시키며-마치 동상받침대위에 놓인 기념조각같이-바닥과의 이용은 기능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다. 앉을 수 있는 광장은 바닥차를 통하여 교통흐름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며 앉은 부분이 더욱 높게 또는 깊게 되는 것은 기대되는 심리적 효과에 좌우되는 것이며 이는 곧 시각적 결과도 연관성을 지닌다. 바닥차가 없이 평평한 대부분의 광장은 세심한 관찰자에게 있어서는 약간의 바닥상승과 하락을 인식하게 된다. 무엇인가 연관성이 있을때 더욱 잘 관찰되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쉽게 인지될 수 있다. 낮은 바닥차를 지닌 광장바닥면은 수평적인 바닥차를 지닌 광장보다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공간감의 형성을 위해 유용하게 이용되어질 수 있다. 바닥차 사이의 연결요소로써 계단이나 일련의 앉을 수 있는 단은

약간 상승된 바닥 내지 하락된 바닥을 더욱 강하게 내지 쉽게 인지되게 할 수 있다. 이들 계단이나 단은 광장의 결정적인 외형에 있어 주목할 만한 공간적 요소가 될 수 있으며 평평한 광장바닥을 극적인 상황으로 이끌 수 있으며, 광장의 3차원적 공간의 질을 강화시키며, 부가적인 바닥차이로의 움직임을 부여할 수도 있다.

## 12. 광장입면분석

건물그룹에 대한 해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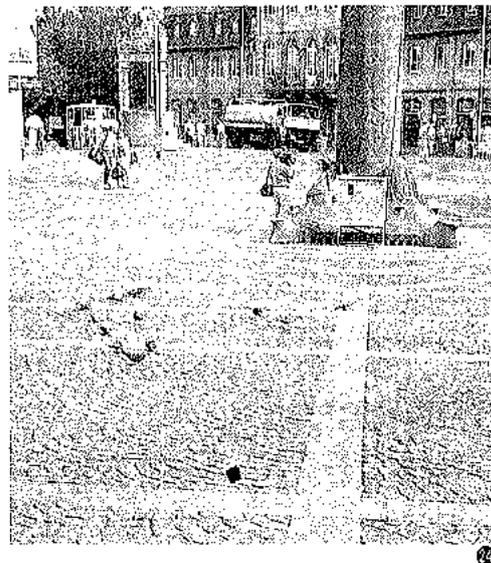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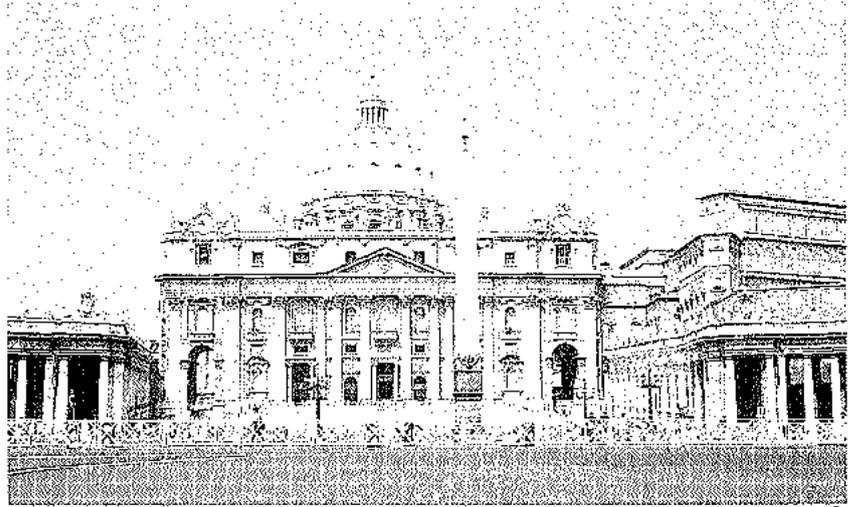
분석방법(Decomposition)은 매스관계를 분명히 해주며 동시에 일층에서의 이상비례에 의한 소원도 전면의 조형적인 부정적 효과를 비교분석할 수 있다. 본 해체적 분석방법은 독일의 Friedrich Spenglin 교수에 의하여 독일 Hameln시의 도시이미지 및 조형에 관한 모형계획에 적용되었다.

다시말해서 해체적 분석방법은 상호 연결된 건물그룹을 전형적인 건축특성(형태, 구조, 비례, 볼륨, 재료와 색깔)에 따라 분석되어질 수 있으며, 실제 우리의 주변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이같은 형태언어의 고려하여 가능한 보충적 건축재생을 생각할 수도 있다.

## 13. 결론

역사적으로 도시의 역사는 광장의 역사와 일치하며, 광장중심의 도시역사는 항상 도시내에서의 공공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왔다. 물론 광장이 발달할 수 있었던 유럽국가, 특히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에서의 광장의 기능과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하겠으며, 이를 가능케 했던 주요요인은 무엇보다도 기후와 사회문화적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후와 사회문화적 특성이 다른 우리로서는 쉽게 체험될 수 없는 도시공간이지만 그들 광장이 담고있는 내용과 형식은 어떠한 형태로든 연구분석되어 외부공간의 질에 대한 연구필요성이 점점 더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연구대상으로써 도시외부공간의 핵심적 부분인 광장은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함축적인 광장설계지침을 설정하고, 몇몇 지침에 따라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이론적 설명을 시도하였으며, 끝으로 광장입면에 대한 해체적 분석방법을 개략적으로 소개했다.

註) 1) 민상춘 : 도시공간으로써 광장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공간배치원칙, 원간공간 1990.7. (275회 참조).



- ⑫ 해체적 분석 방법(Decomposition)의 제요소
- ⑬ 로마의 San Pietro광장 상부의 Retta광장과 하부의 Obliqua 광장 사이에 계단을 통한 바닥차를 형성하고 있다.
- ⑭ 독일 Mainz의 Dome광장 광장 중심의 Obelisk를 함하여 다소 완만한 경사를 보여주고 있다.
- ⑮ 이탈리아 Siena의 Campo광장(14세기) 부채꼴 모양의 평면위에 중심을 함하여 오목하게 경사가 이루어져 있다.

# 인텔리전트빌딩의 電氣設備

## Electrical Arrangement of Intelligent Building

本協會設備分科委員會

(연구진행 : 孫章烈)

### Ⅲ. 건축계획의 Check Point 및 고려사항

#### 1. 건축계획의 주요 Check Point

- 1) 공용화
- 2) Flexibility
- 3) 쾌적한 환경조성
- 4) 안전과 그 대책

#### 2. 항목별 Check Point

- 1) 공용화 :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가지는 시대.

오피스에서 OA화는 이미 기업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도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Computer System이나 통신기기 등의 Hard나 Soft에 이르기까지 완전장비 하고자 하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더욱이 정보통신 및 OA 기기를 수용하는 공간이나 인건비는 막대하다. 따라서, 이것을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이용하기 위해서 공용화가 필연적이다.

공용화함으로써 공간의 절감, 시간의 절감, 물건의 절감, 인력의 절감을 가져오며,

오피스의 생산성 및 경제성이 향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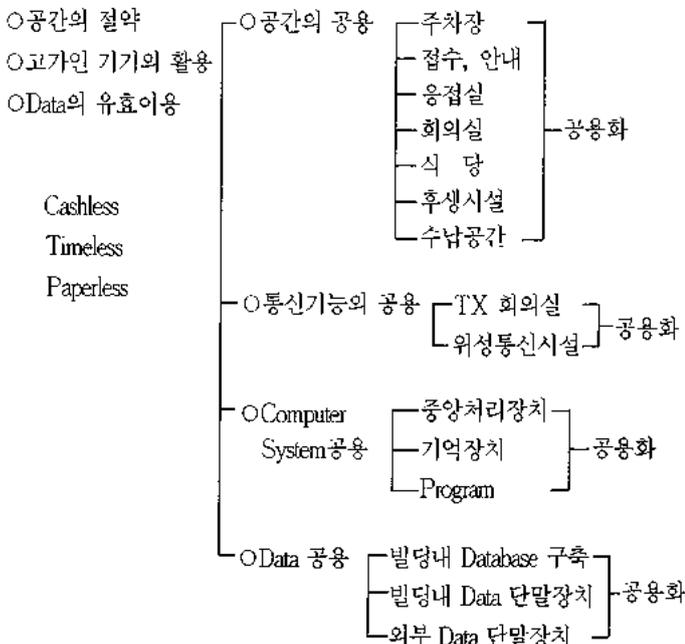
#### 2) Flexibility

현대 사회는 안진성장의 시대인 반면, 변화는 조용히 Dynamic하고 확실하게 진행하고 있다. 근년 정보화의 급진진, 각종 기기 개발의 속도등을 생각하면 현시점에서 알 수 없는 것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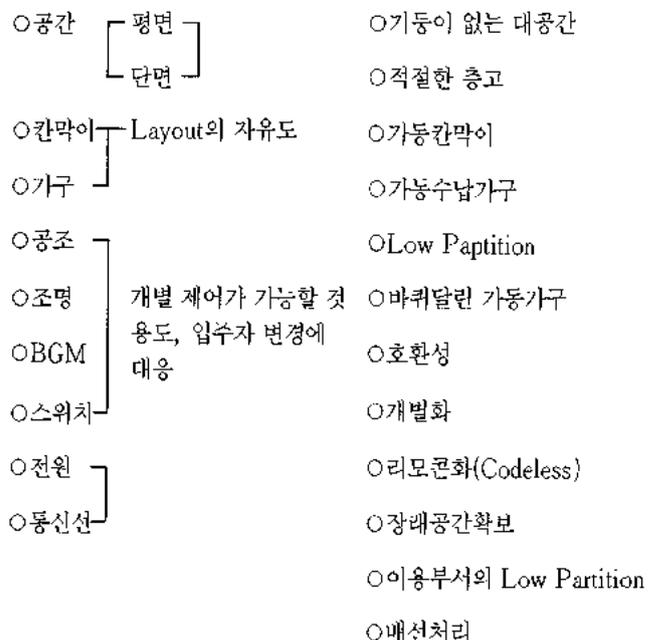
오피스내의 변화는 업무내용의 변화, OA기기의 변화, 조직의 변경, 인원의 변동, 더 나아가서는 부서나 기업의 소멸과 성장 등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피스 건축의

#### 공용화의 Check Point



#### Flexibility Check Point



Flexibility는 단순히 물리적인 Flexibility만이 아니고 시간적 혹은 기능적인 Flexibility가 오피스 건축에서 보다 중요한 계획요소가 되어 왔다.

3) 양호한 환경조성—High-Tech High Touch

오피스 빌딩에서 업무가 OA화, Intelligent화 됨에 따라 그 내용은 더욱 고도화되고 생산성은 높아지지만 근무자들이 심리적, 생리적으로 피로하기 쉽게 되고

환경이 악화되기 쉬운 문제가 생기고 있다.

따라서, 오피스에 있어서 업무가 보다 효율적이며 더 나아가서는 근무자들의 창조성을 키워가기 위해서는 “양호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을 오피스 건축계획에 있어서 불가결한 계획요소가 되고 있다.

4) 안전과 대책

오피스 업무의 OA화, Intelligent화 함에 따라 오피스 건축에서 과생되는 안전에 대한

문제와 그 대책은 종래와 달리 그 질이 변화해 왔으며, 특히 그 “예방”이라는 관점을 중요시할 필요가 있다.

고도 정보화사회에서는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막대한 손실을 입는다. 그러므로 오피스건축 계획에 있어서 당초부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대책을 세워 둘 필요가 있다.

환경요소의 Check Point

- 시환경
  - ┌ 눈이 피로하지 않는 환경
  - └ Refresh한 환경
- 음환경—조용한 오피스
- 온열환경
  - ┌ 쾌적한 공기
  - └ 기기발생열의 처리
- 기기배선—깨끗한 배선수납
- 유지관리—즐겁고 쾌적한 환경
- 조명계획
- 일조조정
- 녹화계획
- 색채계획
- 질감계획
- Vista
- 휴식, 휴양시설
- 소음대책
- 방음 및 차음, 흡음
- BGM
- 공조계획
- 에너지절약계획
- 배선처리
- 쓰레기처리
- 환경측정

안전에 대한 Check Point

- 기기안전대책
  - ┌ 지진에 대한 안전
  - ├ 화재에 대한 안전
  - ├ 누수에 대한 안전
  - ├ 정전에 대한 안전
  - ├ 통신장애에 대한 안전
  - ├ 전자장애에 대한 안전
  - └ 오조작에 대한 안전
- 기밀유지대책
  - ┌ 침입자에 대한 안전
  - ├ 노청에 대한 안전
  - └ Computer 침입자에 대한 안전
- 건물안전대책
  - ┌ 방재
  - ├ 방범
  - ├ 피난
  - ├ 에너지절약
  - └ Schedule관리
- 기기, 집기의 내진대책
- 가기, 집기의 먼진
- 2차부재의 내진
- 내화, 방화
- 소화, 경보
- 누수 대책
- Back-Up System
- 통신설비의 이중화
- 전자실드
- 대전방지
- 안전장치
- 입퇴실관리
- 암호화처리
- 빌딩종합관리

바닥 配線 收納方式의 비교

比較項目	配管方式	Floor Duct方式	Celle Duct方式	Under carpet方式	Free Access Floor方式
1. 配線容量	△ 25C, 415mm, 31C, 600mm	○ FC. 961mm, F7 2, 125mm	○ 5, 000~7, 000mm	○ Tile carpet의일 1回路마다	◎ 一般事務室用 H50~150mmFree
2. 引出位置數	△ 보통 세로3,000~3,200mm 가로 3,000~3,200mm	○ Duct pitch 3,000~3,200 Insert pitch 600mm	○ Duct pitch 3,000~3,200mm Insert pitch 600~1600mm	◎ 自由	◎ 自由
3. 配線變更容易性	○	○	○	廣範圍에는 △代器移動必要 좁은範圍에는 ○	○
4. 아웃렛器具의 多樣性	◎ 床위 콘센트, 使用時만 床위에 노출콘센트, 床內收納型等	△ 床土 콘센트가 標準	△ 床土 콘센트가 標準	△ 床土 콘센트가 標準	◎ 床土 콘센트, 使用時만 床위에 노출되는 콘센트 床內 收納型等 各種

比較項目	配管方式	Floor Duct方式	Celle Duct方式	Under carpet方式	Free Access Floor方式
5. 케이블 種別	○ 제한받지 않음	○ 제한받지 않음	○ 제한받지 않음	△ 專用 Flat cable만 使用	○ 電力 케이블工事 要
負荷의 變更, 増設에 對應性 (아웃렛의 移増設)	△ Floor box의 位置 限定	△ 各 Insert로 아웃렛 取付 可能	○ 各 Insert로 아웃렛 取付 可能	○ 自由	○ 自由
機能性 步行感(床材料에 의하여 다름)	○	○	○	△ 발끝에 配線을 感知할 수 있다.	△ 材料 System으로 差가 있음
露出配線의 必要性	△ 露出配線에서의 補完이 必要한 경우가 있다	△ 露出配線에서의 補完이 必要한 경우가 있다	△ 露出配線에서의 補完이 必要한 경우가 있다	○ 補完 必要無	○ 補完 必要無
施行性 本體의 施設施工性	○ 容易, 電氣工事業體가 施工에 익숙	△ 施工 精密度를 要함	△ 建築의 施工 精密度를 要함	△ Slab와의  관계가 없으나 電氣 工事業體가 施工에 익숙치 못함	△ 露出路線으로 補完 必要無
配線時의 作業性	○ Terminal에 예비配管이 많으며 配線容易	△ Junction box를 늘려 配線 Root를 많이할 必要가 있다	○ Header duct에서의 공급 通線 이 어려움	△ 施工費績이 없으며 電氣 工事業體에 研修가 必要	○ 配線 容易
信賴性 기계적 損傷에 對한 安全性	◎	◎	◎	△ 突起物의 落下, 重量物의 積載 注意要	○
耐振性	◎	◎	◎	◎	△
耐노이즈性	○	○	○	△	△
方式	◎-3, ○-6, △-4	◎-2, ○-8, △-3	◎-3, ○-7, △-3	◎-2, ○-4, △-8	◎-4, ○-5, △-4
施工費	9,097원/㎡	50,202원/㎡	55,567원/㎡	전력: 3000₩ 전화: 1000₩	A) 82,000원/㎡ B) 84,000원/㎡ C) 210,000원/㎡
用途	소형건물	중형건물	대형건물	기존 건물에 유리 소형, 중형 건물	대형건물
적용 실태		• 63빌딩 • 국제빌딩 • 중앙일보사옥	• 무역센터 • 제일은행본점 • 럭키트윈빌딩 • 포항본사		• CITY BANK • 제일증권사옥(설계중) • 쌍용증권사옥(설계중)

註 ◎: 가장 좋다  
○: 보통  
△: 약간 문제점

### 바닥 마감材料和 配線收納方式과의 適合 比較 許價

배 선 방 식	配管 方式	Floor duct方式	Celle duct方式	Under carpet方式	OA用 二重바닥方式	備 考
바닥 마감재						
彈性 床 材	비닐 Sheet 	◎	◎	◎	△	◎ FAF...Free Access Floor
	비닐타일 	◎	◎	◎	△	◎ FAE와 一體形에서 使用 可能
	거치식비닐타일 	△	△	△	○	◎ 타일카펫트와 比較하여 좋지않으나 使用可能 Tile carpet 이외의 마감 재료서 FAF에 最適한 彈性材

배선 방식	配管方式	Floor duct方式	Celle duct方式	Under carpet方式	OA用 二重바닥方式	備 考
織維床材 	Roll Carpet	◎	◎	◎	△	△
	彈性床材의 比較하면 快適한 空間을 創造하는데 可能하나 Tile carpet가 갖는 交換, 互換의 機能이 없음 또한 事務所 Layout變更, 配線의 Layout變更等에 對應 可能					
織維床材 	Tile Carpet	◎	◎	◎	◎	◎
	모든 配線方式에 對應이되며, 快適한 空間을 創出할 수 있다. 마감재로서 종래의 각종 床材와 比較하여 손색이 없고 New Office의 最適의 마감재로라 할 수 있다.					

### 3. 기존 건축과의 주요차이점

區 分	既存 建築物	IBS 빌딩	備 考
1. 層 高	3.6m	3.9m~4.4m	空調덕트 增加 및 2중바닥 必要
2. 기둥 間隔	6m~7.2m	8.4m~10.2m	個室面積擴大
3. 바닥 內荷重	300~400kg/m <sup>2</sup>	400~600kg/m <sup>2</sup>	OA 및 컴퓨터 機器荷重增加
4. OA用 垂直 샤프트	-	必要함	
5. 1人當 占有 面積	3~6m <sup>2</sup>	6~12m <sup>2</sup>	
6. 電力 容量 追加	-	OA用 15~40VA/m <sup>2</sup> 200VA/m (電算室) 冷房負荷 6~28VA/m	

#### 1) 정보화 단계별 전기용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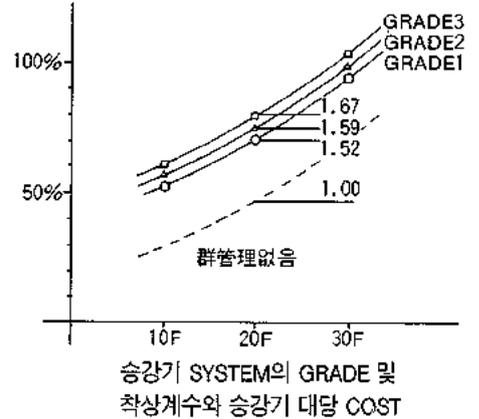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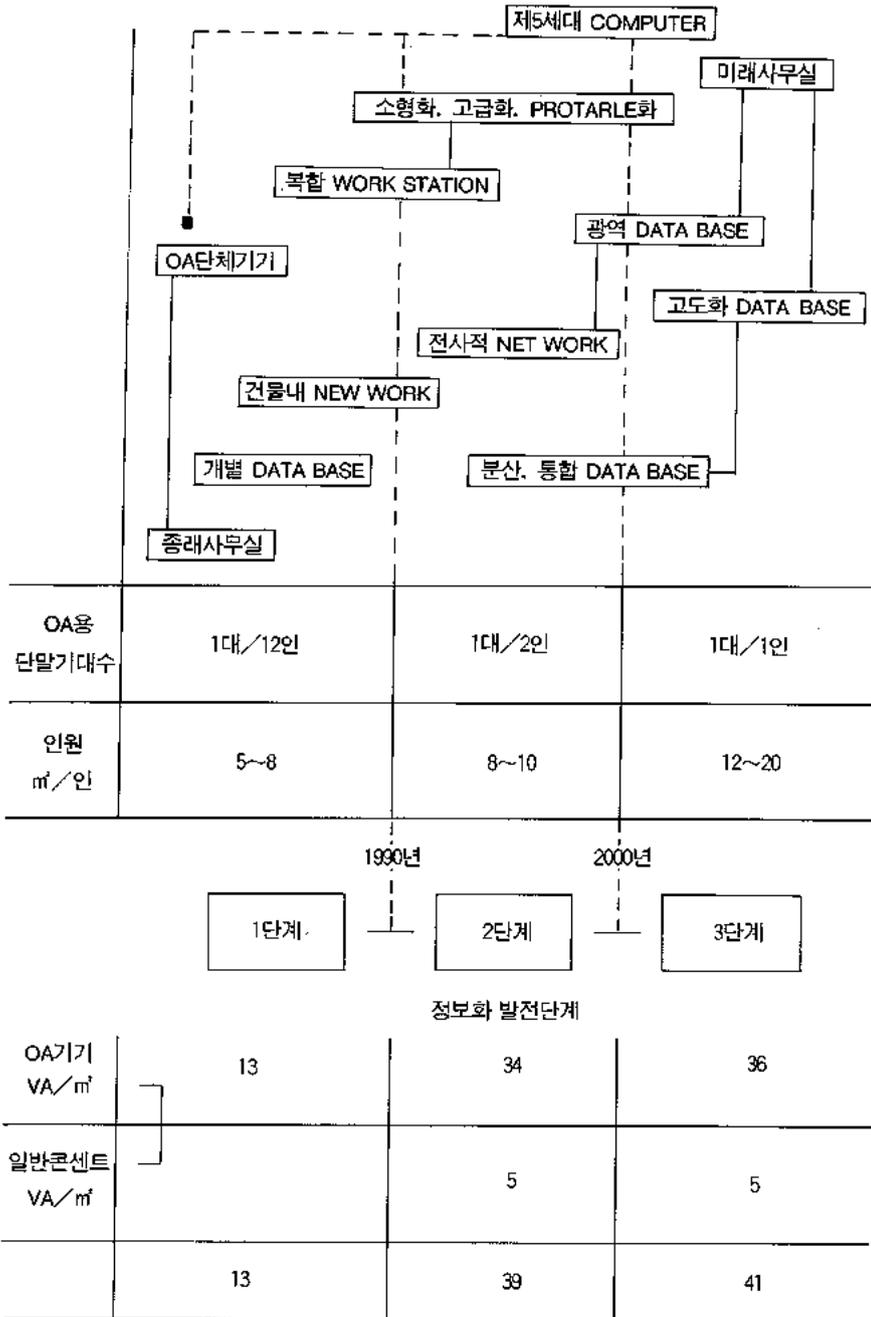
區 分	1 段 階	2 段 階	3 段 階
	負荷密度(VA/m <sup>2</sup> )	負荷密度(VA/m <sup>2</sup> )	負荷密度(VA/m <sup>2</sup> )
照 明	22	22	29
CONSENT	13	5	5
OA 機器		34	36
一般 動力	45	45	45
冷房 動力	43	43	43
OA 機器 冷房	2	8	8
計	125	157	166
情報化 機能	○복합 Work Station ○團體機器(AO) ○個別 Data Base ○빌딩內的 Net Work ○종래의 Office	○복합 Work Station ○小型化, 高級化, Portable化 ○분산, 統合 Data Base ○전사적 Net Work ○Intelligent Bldg.	○第5세대 Computer ○高度化 Data Base ○光域 Net Work
OA 用 端末 機 (臺/人)	1臺/12人	1臺/2人	1臺/1人
段 階 年 度	'80年代	'90年代	2,000年代

\*전기기기의 소비전력은 전기, 전자기술의 발전에 따라 점차 감소되는 추세이며, 이러한 소비전력의 감소는 각 기기의 증가와 상쇄되어 소비 전력의 합계는 어느 수준까지는 증가하나 그후 조금씩 감소될 것으로 생각됨.

#### 2) OA용 전원 용량

區 分	電氣 設備 學會 誌		I.B 計劃과 實務	N.S 提 案	電氣設備設計 施工 H B('88)
	'90.1	'89.10			
照 明	29				
CONSENT	5				
OA 機器	36VA/m <sup>2</sup>	30~50VA/m <sup>2</sup>	28VA/m <sup>2</sup>	100VA/m <sup>2</sup>	40~50VA/m <sup>2</sup>
一般 動力	45				
冷房 動力	8				
OA 機器 冷房	43				
計 (VA/m <sup>2</sup> )	166		165		

일본의 전기설비화회지에 기재된 내용중 정보화의 발전단계별 내용을 보면



#### IV. IBS빌딩의 Grade별 건설비 비교

##### 1. IBS의 Grade 및 Cost

여기서는 인텔리전트화의 레벨을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하여 Grade를 정한다.

- Grade-0 : 현재의 대·중기업의 일반적인 OA화 수준
- Grade-1 : 일반 인텔리전트빌딩이라 할 수 있는 최소레벨 수준
- Grade-2 : 인텔리전트빌딩으로서 표준레벨
- Grade-3 : 실현 가능한 대부분의 설비를 장비한 높은 수준의 Grade

##### 2. 인텔리전트화의 주요 COST 요소

- 1) 축전지, 빌딩자동제어설비
  - 1) BA System의 도입과 관리 Point수의 증대
  - 2) 공조부하의 증대와 공조제어의 고도화
  - 3) Grade방지 조명의 채용
  - 4) 승강기 제어의 고도화
- 2) 통신, OA System
 

통신, OA기기의 증가와 기능 고도화

##### 3. 전기설비 Cost

##### 1) 각 Grade별 배선수용 System과 Cost

	Grade			
	0	1	2	3
配線 需用 Sys.	주로 2Way 후로아닥트	○簡易二重바닥 (TV會議室, OA端末 Zone) ○3WAY 후로아닥트 (一般室)	Grade 1과 같음 (OA端末의 增加, Under Carpet配線 採用)	주로 簡易二重바닥
바닥 마감	비닐 타일	Tile 카펫트	Tile 카펫트	주로 簡易二重바닥
Cost 比率	100%	180%	195%	235%

2) BA System의 Cost

	Grade			
	0	1	2	3
概要	中央制御	中央監視 中央監視 機能分散	LAN과 結合 機能分散	Access 可能
管理 Point 수	40㎡/1점	20㎡/1점	15㎡/1점	10㎡/1점
Cost 比率	100%	175%	250%	320%

3) 승강기 群管理 System과 Cost

	Grade			
	0	1	2	3
群管理 Grade	-	○범용群管理 System	○빌딩用途가 다른 交通 흐름에 對應 可能 ○速度制御 ○省 Energy化	○最高級群管理 System ○學習機能 ○證時豫報機能
操作仕様	一般	高級	高級	最高級

4) 조명 System과 Cost

	Grade			
	0	1	2	3
機器의 種類	下面開放	下面開放(50%) Gradeless(50%)	一部間接(30%) Gradeless(70%)	全體間接
Cost比較	100%	150%	250%	300%

4. OA의 통신의 Cost

分類	內 容	Grade				
		0	1	2	3	
通 信	構 內 交 換 機	○ 1세트	○ 1세트 ○ 1세트	○ 1세트 ○ 1세트	○ 1세트 ○ 1세트	
	電 送 路 音 聲 端 末 機	衛星通信 電話機(SPKR. 폰包含)	1.15인/대	1.1인/대	1.25인/대	1.25인/대
設 備	文 書 系 末 端	多機能 電話機	10인/대	5인/대	5인/대	
	畫 象 系 末 端	우리말 Telex (Comword) Display部 電話機 (Comexcel)	24인/대	120인/대 48인/대		
備	畫 象 系 末 端	Faximilie Screen 端末 (Sketch Phone) Screen 端末 (Sketch Board)	1대/층	4대/층 2대/층	4대/층 4대/층	4대/층 8대/층
	備	TV會議 端末(單位設置型) TV會議 端末(壁受納型) 비디오(Videotex/CCTV/VRS)	1대/건물	1대/건물 4대/층	2대/건물 1대/건물 8대/층	2대/건물 12대/층
Cost 比率		100%	210%	230%	340%	

分類	內 容		Grade			
			0	1	2	3
O A 設 備	LAN Sys.	Metalic 케이블 LAN	1세트/건물			
		동축케이블 LAN 光 Fibre LAN			1세트/건물	1세트/건물
	WORK Station 機器	事務室用 Work Station (OWS) 엔지니어용 Work Station (EWS)			4인/대	2인/대
	컴퓨터	PC Office 컴퓨터	15인/대 1대/건물	8인/대 1대/건물	1대/건물	
	Data 통신用 機器	인텔리전트端末 POS端末(食堂用) 電子 TIME Recorder	1대/층	2대/층	5대/건물 4대/층	5대/건물 4대/층
Standalon 機器 사 바	PPC 複寫機 슈레타	1대/층 0.5대/층	1대/층 1대/층	2대/층 1대/층	2대/층 1대/층	
	프린트사바(小型) 프린트사바(大型) 화이류사바(磁氣화이류) 光 DISK화이류 裝置		1대/건물	20대/층 2대/층 1대/건물	20대/층 2대/층 1대/건물	
Cost 比率			100%	180%	550%	900%
通信+OA設備 全體 Cost比率			100%	195%	410%	600%

### V. 인텔리전트화에 의한 경제적 효과

IBS에서 종래의 빌딩에 비해 폭넓은 고도의 서비스에 의한 경제적 효과가 유지되는데 그 주된 것은 다음과 같다.

- 1) 통신, OA System에 의한 업무의 효율화, 고부가가치화
- 2) BA System에 의한 건물유지관리에 있어서의 성에너지화, 성력화
- 3) 쾌적한 환경으로 인한 사무능력 향상
- 4) 가변성, 보수성이 좋은 건축 System에 의한 개선, 개보수 및 비용의 절감

5) 임대빌딩에 있어서 통신, OA System의 공용화에 의한 비용 저감 등을 생각할 수 있다.

- 가. 사무소의 생산성 향상  
20%이상
- 나. 성에너지 효과  
20%의 절감 가능
- 다. 성력화 효과  
표1. 참조
- 라. 공용화에 의한 정감 효과  
표2. 참조

### 참고문헌

- 1) 일본 전기설비학회지
- 2) 인텔리전트빌딩 설계 계획
- 3) 일본 건축설비 Be Guide Book지

〈표-1〉 빌딩管理에서 補修稼働의 比率

空 調 設 備	電 氣 設 備	衛 生 設 備	防 災 設 備	建 物 外 廓 其 他
36%	30%	15%	6%	13%

〈표-2〉 補修要員數와 建物規模의 關係

規 模	設 備 補 修 要 員 數
5,000 m <sup>2</sup>	4 - 5人
10,000 m <sup>2</sup>	6 - 7人
30,000 m <sup>2</sup>	13 - 14人
50,000 m <sup>2</sup>	18 - 20人

# 신 입 회 원



李永根(52年)  
부산대 건축공  
아기안·효원건축(종합)  
부산 동구 초량 1169-11  
462-3237



崔赫煥(58年)  
영남대 건축, 同대학원  
이대아건축  
대구 중구 대봉 16-1  
421-7060



李浩一(55年)  
영남대 건축공, 중앙대학원  
대도건축(종합)  
서울 서초 방배 1001-8  
586-3011



閔榮基(55年)  
경남공전 건축  
마루건축(종합)  
경남 창원 용호 73-38  
85-0404



金龍生(56年)  
부산공고 건축  
석·우정·아보건축(종합)  
경남 양산 남부 472-16  
386-1791



白昌根(55年)  
부산공전 건축  
한성건축(종합)  
경남 마산 합포 중앙 4-38  
41-4027



盧鎭求(61年)  
한양대 건축공  
시가건축  
서울 서초 양재 81-11  
579-1411~2



朴鍾沄(59年)  
한양대 건축  
시가건축  
서울 서초 양재 81-11  
579-1411~2



李漢源(52年)  
경기공고 건축  
신우·도이건축(종합)  
서울 강남 신사 510  
517-6842



安聖傑(53年)  
고려대 건축공  
(주)여의건축(종합)  
서울 영등포 여의도 14-11  
786-5606



朴振泰(59年)  
대구공고 건축  
진명건축(종합)  
서울 구로 구로 104  
852-4400, 4500



梁相模(59年)  
경북공전 건축  
진명건축(종합)  
서울 구로 구로 104  
852-4400



安昌模(62年)  
서울대 건축  
(주)여의건축(종합)  
서울 영등포 여의도 14-11  
786-5606



南吉鉉(58年)  
홍익대 건축공  
하람건축  
서울 중구 신당 171  
252-9461~62



朴琰錫(61年)  
서울대 건축공, 同대학원  
(주)아키프렌(종합)  
서울 강남 역삼 820-8  
553-5307



李宗勳(60年)  
성균관대 건축  
(주)신조건축(종합)  
서울 강남 도곡 943-7  
566-2101



鄭德勳(61年)  
성균관대 건축, 同대학원  
(주)신조건축(종합)  
서울 강남 도곡 943-7  
566-2101



金永洙(55年)  
연세대학원 건축  
빈영건축  
경기 안양 관양 1504-7  
23-2321~2



金仁奎(60年)  
한양대 건축  
正豊건축  
경기 가평 읍내 473-1  
84-6706



金完經(51年)  
경기공고 건축  
에원건축  
경기 시흥 신천 305-21  
692-0001



李祥林(55年)  
한양대 건축, 同대학원  
(주)공간건축(종합)  
서울 종로 원서 219  
763-0771



李汝基(51年)  
서울대 건축  
동도건축(종합)  
서울 강남 논현 115-18  
516-7756~7



朴炳雲(54年)  
연세대학원 건축  
경원건축  
서울 은평 녹번 155-21  
389-3220

# 1991년도 6월분 전국도서신고현황

## 全國圖書申告 概況(地域別 增減 狀態)

(연면적 기준-전년동월비) (단위/㎡)

구분	1990년도	1991년도	증·감	비율(%)	
증가지역	서울지부	1,928,381	2,115,106	186,725	9.68%
	부산지부	1,173,045	598,611	(574,434)	-48.97%
	광주지부	259,708	110,978	(148,730)	-57.27%
	대전지부	291,244	635,840	433,596	118.32%
	충북지부	454,697	573,374	118,677	26.10%
	충남지부	414,980	293,994	(120,989)	-29.15%
	전북지부	44,044	349,005	(94,039)	-21.23%
	경북지부	1,044,157	469,166	(574,991)	-55.07%
	경남지부	1,325,875	1,961,140	635,265	47.91%
감소지역	대구지부	791,395	391,154	(400,241)	-50.57%
	인천지부	1,480,954	306,693	(1,174,161)	-79.29%
	경기지부	2,819,088	3,794,374	118,677	26.10%
	강원지부	356,387	169,873	(186,514)	-52.33%
	전남지부	663,364	339,485	(323,879)	-48.82%
	제주지부	143,315	87,886	(55,429)	-38.68%
합계	13,589,534	12,196,733	(1,392,801)	-10.25%	

##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 6월분 1천3백58만9천5백34㎡보다 10.25%(1백39만2천8백1㎡) 감소한 1천2백19만6천7백33㎡의 실적을 보였다.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1~6월분 합계 6천7백76만7백32㎡보다 8.72%(5백60만6천9백50㎡) 증가한 7천3백36만7천6백82㎡의 실적을 보였다.

다. 전월비  
5월분 1천3백16만4천7백14㎡보다 7.35%(96만7천9백81㎡)감소한 1천2백19만6천7백33㎡의 실적을 보였다.

## 全國圖書申告 概況(用途別 增減 狀態)

(연면적 기준) (단위/㎡)

종별	4월분	5월분	증·감	비율(%)
단독주택	1,690,622	1,159,447	(531,174)	-31.42%
다세대주택	924,638	795,109	(129,529)	-14.01%
연립주택	231,900	235,299	3,399	-1.47%
아파트	4,402,173	6,281,943	1,879,770	42.70%
근린생활시설	2,411,347	1,589,255	(822,092)	-34.94%
종교시설	120,039	63,729	(56,310)	-46.91%
의료시설	183,693	7,796	(175,897)	-95.76%
교육연구시설	333,050	251,042	(82,008)	-24.62%
업무시설	628,445	373,503	(254,942)	-40.57%
숙박시설	61,194	17,362	(43,832)	-71.63%
공장	1,153,335	795,217	(718,118)	-47.45%
기타	664,278	627,031	(37,247)	-5.61%
계	13,164,714	12,196,733	(967,981)	-7.35%

## 支部別 全國圖書申告 概況(6月分)

구분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계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서울지부	27,744	28,651	15,205,831	502	537	336,102	0	0	0	28,246	29,188	15,541,933
부산지부	9,339	11,948	5,318,744	1,216	1,592	313,660	225	252	139,145	10,780	13,792	5,771,549
대구지부	5,050	5,590	3,191,761	2,358	2,486	264,521	200	204	95,262	7,608	8,280	3,551,544
인천지부	2,659	3,380	2,822,674	151	185	97,878	99	101	42,557	2,909	3,666	2,963,109
광주지부	2,632	2,830	1,429,655	480	510	180,262	51	51	12,006	3,163	3,391	1,621,923
대전지부	2,394	2,979	3,149,472	235	263	146,610	508	552	85,216	3,137	3,794	3,381,298
경기지부	14,917	17,603	14,683,717	1,036	1,170	534,232	415	415	400,554	16,368	19,188	15,618,503
강원지부	2,952	3,382	1,309,131	681	797	192,664	76	76	25,594	3,709	4,255	1,527,389
충북지부	3,769	4,536	2,664,894	617	757	326,770	270	270	46,377	4,656	5,563	3,038,195
충남지부	3,295	3,472	2,017,858	682	683	215,413	171	171	65,223	4,148	4,318	2,352,290
전북지부	2,209	2,649	1,934,117	484	552	392,236	115	117	25,937	2,808	3,318	2,352,290
전남지부	3,501	4,125	1,874,987	744	1,014	1,014	310,990	160	174	32,376	4,405	5,313
경북지부	5,136	6,091	3,349,785	1,091	1,325	692,337	123	127	73,447	6,350	7,543	4,115,569
경남지부	8,507	10,238	7,910,594	1,387	1,587	550,513	212	216	73,447	6,350	7,543	4,115,569
제주지부	1,153	1,801	767,731	645	654	68,223	0	0	0	2,181	2,455	835,954
합계	95,640	109,275	67,631,005	12,309	14,112	4,622,411	2,625	2,726	1,114,266	110,574	126,113	73,367,682

支部別 全國 圖書申告 概況(6月 合計分)

구분 용도별	신 축·개 축·재 축			증 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 면적	건 수	동 수	연 면적	건 수	동 수	연 면적	건 수	동 수	연 면적
서울지부	4,517	4,611	2,082,874	83	85	32,232	0	0	0	4,600	4,696	2,115,106
부산지부	1,397	1,673	500,128	199	266	90,589	33	34	7,896	1,629	1,973	598,611
대구지부	507	573	350,959	478	503	25,917	38	39	14,278	1,023	1,115	391,154
인천지부	335	403	292,183	19	21	7,438	20	20	7,072	374	444	306,693
광주지부	301	321	90,925	77	78	18,926	7	7	1,127	385	406	110,978
대전지부	339	459	600,865	38	39	16,009	96	110	18,966	475	608	635,840
경기지부	1,740	2,549	3,653,390	182	201	122,291	48	48	18,747	1,970	2,798	3,794,428
강원지부	480	552	139,989	131	160	28,055	12	12	1,829	623	724	169,873
충북지부	547	674	450,544	109	134	112,685	60	60	10,45	716	868	573,374
충남지부	459	481	240,104	117	117	29,098	37	37	24,792	613	635	293,994
전북지부	295	365	298,087	74	106	49,284	9	9	1,634	378	480	349,485
전남지부	474	619	294,072	120	165	41,648	20	22	3,765	614	806	339,485
경북지부	757	922	378,392	190	221	79,184	17	17	11,590	964	1,160	469,166
경남지부	1,150	1,526	1,884,824	186	201	59,329	52	52	16,987	1,388	1,779	1,961,140
제주지부	203	230	77,261	102	103	10,625	0	0	0	305	333	87,886
합 계	13,501	11,334,595	11,334,595	2,105	2,400	723,310	451	467	138,828	16,057	18,825	12,196,733

用途別 全國 圖書申告 概況(5月分)

구분 용도별	신 축·개 축·재 축			증 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 면적	건 수	동 수	연 면적	건 수	동 수	연 면적	건 수	동 수	연 면적
단독주택	47,896	49,194	6,105,678	5,483	5,781	373,199	330	332	24,480	53,709	55,307	8,593,357
다세대주택	9,997	11,181	5,073,676	200	213	22,136	89	110	8,701	10,286	11,504	5,104,513
연립주택	750	1,055	1,388,906	21	24	10,128	5	5	1,047	776	1,084	1,400,081
아파트	1,432	6,874	28,080,438	77	107	154,963	28	45	26,308	1,537	7,026	28,261,709
근린생활시설	26,071	27,497	11,722,021	2,683	2,793	640,874	1,419	1,440	398,529	30,173	31,730	12,761,424
종교시설	553	657	382,390	259	304	112,216	31	34	11,804	843	995	506,410
의료시설	49	68	325,736	42	47	42,739	15	15	8,106	106	130	376,581
교육연구시설	268	406	825,390	259	304	112,216	31	34	11,804	843	995	506,410
업무시설	859	947	3,315,269	291	308	210,230	58	58	96,694	1,208	1,313	3,622,193
숙박시설	147	182	421,052	59	88	54,939	42	43	43,097	248	313	510,088
공장	3,047	5,282	4,851,047	1,405	2,231	1,855,525	249	262	164,391	4,701	7,775	6,870,963
기타	4,571	5,932	3,049,275	1,459	1,783	707,259	244	258	291,388	6,274	7,973	4,047,922
합 계	95,640	109,275	67,631,005	12,309	14,112	4,622,411	2,625	2,726	1,114,266	110,574	126,574	73,367,682

用途別 全國 圖書申告 概況(1~5月 合計分)

구분 용도별	신 축·개 축·재 축			증 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 면적	건 수	동 수	연 면적	건 수	동 수	연 면적	건 수	동 수	연 면적
단독주택	6,493	6,683	1,106,728	872	922	48,526	67	67	4,193	7,432	7,672	1,159,447
다세대주택	1,410	1,647	791,470	29	30	2,198	25	31	1,441	1,464	1,708	795,109
연립주택	138	187	234,633	3	3	455	2	2	211	143	192	235,299
아파트	224	1,430	6,225,033	18	24	25,201	3	3	1,709	254	1,457	6,281,943
근린생활시설	3,771	3,919	1,461,705	466	485	74,053	234	235	53,497	4,471	4,639	1,589,255
종교시설	75	88	50,374	36	38	12,156	8	8	1,199	119	134	63,729
의료시설	2	3	695	8	8	5,306	4	4	1,795	14	15	7,796
교육연구시설	50	62	166,785	88	108	70,593	18	24	13,664	156	194	251,042
업무시설	130	134	342,039	8	9	2,065	7	7	2,948	31	38	17,362
숙박시설	16	22	12,349	8	9	2,065	7	7	2,948	31	38	17,362
공장	386	742	524,552	228	332	256,512	33	35	14,153	647	1,109	795,217
기타	806	1,041	388,232	265	374	196,586	44	45	42,213	1,135	1,460	627,031
합 계	13,501	15,958	11,334,595	2,105	2,400	723,310	451	467	138,828	16,057	18,825	12,196,733

## 제9회 理事會 개최

本協會 '91년도 제9회 理事會 가 지난 26일 吳雲東회장의 주재로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어 '92예산편성지침(안) 마련등 협회주요현안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이날 처리된 주요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91전국건축사대회 결산(안) 승인
- 원안대로 승인함
- '92예산편성지침(안)승인
- 예산편성위원회에 속해 있는 임원들로 하여금 편성지침(안)을 검토, 수정하여 차기 회의시 재협의키로 함.
- 남북건축사교류 추진 승인
- 남북 건축사 교류를 적극추진키로 승인함.
- 건축사법 개정건의(안)승인
- 기존(안)을 재검토, 전 회원의 권익보호와 건축문화창달을 최대한 꾀할 수 있는 (안)을 연구하여 제출키로 하고 일단 보류함.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

## 제1회 예산편성위원회 개최

本協會 '92년도 예산편성지침 마련 및 예산(안) 마련을 위한 예산편성위원회가 구성되어 지난 25일 협회 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가졌다.

金正洙이사를 위원장으로 본부 임원 및 각지도 건축사회 회장과 대의원 등 42명으로 구성된 본 예산편성위원회는 이번 전체 회의에서 예산편성지침(안) 마련의 기본방향에 대해 협의하였다.

행규칙 개정건의(안)승인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후 원안대로 승인함.

○시행규칙 제24조(공사감독관의 업무) 개정(안) 삭제

○시행령 제52조(공사감리자의 업무등) 개정(안) 삭제

• 건축전산위원회규칙(안) 승인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후 원안대로 승인함.

○제3조(기능)제2항 내용중 '회원의 교육'을 '회원의 전산교육'으로

○제4조(회의)제1항1호인 '이 사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삭제하고 제2항 내용중 '찬반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는 삭제

• 숙박시설 및 병원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계기준연구계획(안) 승인

-원안대로 승인함.

• 인사규정개정(안) 승인

-남·녀의 구분을 없애고 신규 임용제한 연령을 상향조정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승인함.

## 시·도 건축사회 감사 회의

本協會는 오는 9월중 '91년도 정기총회를 대비한 정기감사를 각 시·도 건축사회별로 실시키로 하고 지난 19일 협회 회의실에서 시·도 건축사회 감사 회의를 실시하고 감사 실시 방향 및 지침을 시달하였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감사실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각 건축사회 회계실무 담당직원에게 지난 20일 실무교육을 실시하였다.



## 건축허가제한조치에 적극 대응

최근 건설경기과열과 관련, 건설부에서 그동안 수차에 걸쳐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내린 바 있으나 지난 7월15일부로 제한 조치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사실상 주택이외의 대부분의 건축허가를 묶어버리고 그 실시시기도 연장함에 따라 본 협회는, 회원들의 업무추진에 막대한 타격을 주어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 관계요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다.

本協會는 지난 7월12일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비롯한 국무총리, 경제기획원장관, 건설

부장관 및 입법부에 건축허가 규제조치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하여 우리의 기본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행정·입법부와 각 정당에 탄원서를 제출, 올바른 건축문화 정립과 회원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균형있는 정책조정을 요청하였다.

또한 지난 24일 吳雲東회장이 金鎔采국회건설위원장을 예방, 입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여, 부총리와의 협의를 통한 개선방향 검토등 긍정적 반응을 얻었으며 각 언론사를 통한 輿論化를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 定款 개정인가

地自制시대에 대응, 각 지역 건축문화창달과 지역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각 시도지부의 명칭을 시·도 建築士會로 전환하는 등의 定款개정(안)이 지난 '91년도 제1회 임시총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건축사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7월11일자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得하였다.

정관 개정에 따라 앞으로 각 시·도지부는 시·도 建築士會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분소는 分會로 명칭을 변경한다.

## 건축사 면허취소

건축사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위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건축사들에 대한 면허 취소조치가 취해졌다.

지난 25일자로 면허가 취소된 건축사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김문열(면허번호 4486)
- 권순업(4485)
- 정재기(4488)
- 정백식(4489)
- 김홍분(4465)(이상5명)

### 南北 건축사 교류 적극 추진

本協會는 韓民族 공동체 정신에 입각하여 민간차원의 南北 건축사 상호교류를 협회주관으로 적극 추진키로 방침을 정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南北 건축사 상호간의 건축기술교류 및 공동사업 추진, 전통건축문화 유산 보존실태 점검 및 공동연구개발 등 한국 전통건축기술 체계의 정립과 이를 바탕으로 한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실행될 이번 南北건축사 교류계획에 따라 지난 15일 국토통일원에 북한주민 접촉신청서 및 교류계획서를 제출하는 한편 건설부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오는 9월 中國 북경에

서 개최되는 제6회 ARCASIA토론회를 南北건축사 접촉의 최대 호기로 보고 상호교류를 위한 중재를 ARCASIA회장단 및 중국건축학회 회장에게 협조 요청하였다.

이번 ARCASIA토론회에 理事國으로서 참여하게 되는 本協會는 미가입국인 북한의 조선건축가동맹 김용상위원장을 비롯한 대표단을 업저버 자격으로 참여시켜 국제무대를 통한 南北 건축사 교류의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금강산 공동개발등을 통한 남북 직접 접촉시도를 병행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 大田 謁見 日건축사회원 來訪

대전직할시건축사회(회장 宋昇鎬)는 지난 7월7일~9일, 3일간 일본 시즈오카현 하마마시지부 오사와 미노루 지부장 등 일행을 초청, 양국 건축기술정보 교환 등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98EXPO 신축시찰 및 대형댐등의 시찰을 위해 來韓한 日本 건축사일행은 大田직할시 건축사회를 방문 건축설계감리에 관한 양국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방안등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한편 대전직할시 건축사회는 지난 19일에는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충남예식장에서 개정소득세법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 바 있다.



### 京畿 敬老小宴 개최

경기도건축사회(회장 李一潤)는 지난 6월13일~14일 양일간 내장산과 지리산에서 경로소연회를 개최하였다.

웃어른을 공경하는 기풍을 조성하여 우리의 전통적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소연회에는 도내 65세 이상의 연로회원 37명이 참석하여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 全南 건축사보 보수교육 실시

전라남도 건축사회(회장 金光鎬)는 지난 23일 광주시 추선회관 회의실에서 도내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축사보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였다.

'91건축행정 건설화 대책 추진지침 및 '91년도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감광호회장의 건축사보 정신교육을 비롯하여 건축행정건설화 대책에 관한 교육 및 건축관계법규 해설, 질의 응답 順으로 진행되었으며, 모범 건축사보에 대한 표창이 겸하여졌다.



### 건축사자격 시험 시행 공고

건축사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91년도 건축사자격(면허)시험 일정이 지난 7월 건설부공고 제 98호로 공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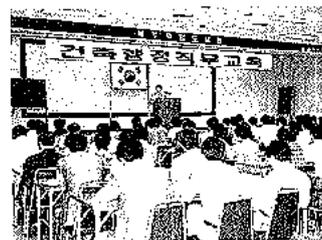
이번 자격시험의 1차시험은 오는 9월 8일(일) 10:00 실시되며 원서교부 및 접수는 8월13일부터 17일까지(5일간)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각도청 민원실에서 실시된다.

1차시험과목은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법규, 건축사로서 합격자 발표는 9월중 각 시도 계시판에 공고되며 현재 2급 건축사 면허 소지자는 2차시험 응시원서 접수시 응모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 濟州 건축행정 직무교육 실시

제주도건축사회(회장 金昌祐)는 지난 7월 11일 제주시 소재 우당도서관에서 '91건축행정 건설화 대책 세부계획실천의 일환으로 건축행정 실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제주도(도시과)와 공동 주관하에 소속 회원 전원과 건축행정 공무원등 130여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에서는 건설부의 건축법 해설 및 건축사법 해설과 건축행정 건설화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 故 金仁鎬회원 작품집 발간

大邱지역 건축문화 발전에 일익을 담당했던 故 金仁鎬회원의 3주기를 맞이하여 金仁鎬 기념사업회에서는 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건축작품집을 발간하여 獻呈하였다.

대아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하여 잠실야구장, 대구문화 예술회관, 대구시민회관 등의 작품활동과 함께 고건축에 대한 수련의 연구논문을 남긴 故김인호회원의 작품집에는 그의 주요 작품 20작과 작품년보, 주요 저술등이 게재되었다.

## 제2회 태양열 건축 설계 공모

한국태양에너지학회에서는 "자연채광을 이용한 미술관"이라는 주제로 제2회 태양열 건축 설계 공모전을 개최한다.

태양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태양열 건축의 발전을 도모키 위해 열리는 이번 공모전의 공모요강은 다음과 같다.

- 응모신청기간 : 1991. 9. 9~1991. 9. 20
- 응모접수처 : 한국태양에너지학회(T.586-9205)
- 제출마감 : 1991. 11. 30
- 심사발표 : 1991. 12. 5
- 전시기간 : 1991. 12. 9~12. 14(6일간)

## 수원시 청소년 종합복지센터案 공모

수원시는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 334-1번지에 연건평 2천평,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청소년 종합복지센터를 신축키로 하고 설계작품을 공모한다.

본 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작품을 공모하는 이번 설계경기의 당선작에는 실시설계권이 부여되며 우수작 1작에는 3백만원을 시상한다.

8월6일~12일 등록접수, 9월 30일에 작품접수를 마감하는 이번 설계경기의 공모요령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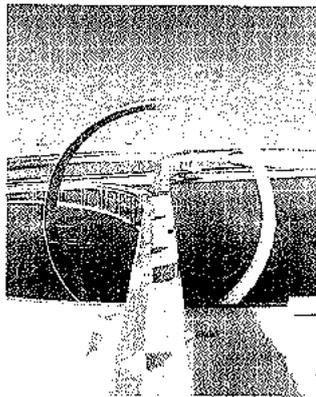
- 응모마감 및 당선작 발표  
가. 응모등록기간 : 91. 8. 6~8. 12  
나. 작품마감일 : 91년 9월 30일 18:00  
다. 당선작 발표 : 당선작품에 한하여 추후사전 통지
- 제출처 : 당시 도시계획국 도시과(Tel 331-31-3318)

## 폴 앙드류 아시아 순회 작품전

프랑스의 대표적 현대건축가 중 한 사람인 폴 앙드류의 건축 작품전이 오는 20일부터 9월1일 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된다.

프랑스 외무부와 주한 프랑스 대사관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는 아시아순회전의 일환으로, 동경에 이은 두번째 전시회로 "Metamorphoses of the Circle(원의 변형)"이라는 주제로, 홍콩, 대만, 북경 등을 순회할 예정이다.

오는 20일의 개막식에 앞서 폴 앙드류의 "La Metropole non Lineaire(다양한 선의 도시)"라는 題下의 강연회를 겸해 그의 작품세계와 건축관을 보여줄 이번 전시회에는 르와시 샤를르 드골 국제공항, 라 데팡스 아치, 도버해협 터널 터미널등 최근 프랑스의 대표적 건물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보여진다.



도버해협터널 터미널

## 경기도립박물관 현상설계경기 당선작 발표

지난 5월 작품을 접수한 경기도립박물관 현상설계경기의 당선작에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장세양)案이 선정되었다.

이번 현상설계경기는 공간, 김종업건축, 삼정, 일건, 천일건축등 5개안이 최종 응모한 가운데, 경기도 박물관분과위원 3인과 한국건축가협회 추천인사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案과 (주)천일종합건

축사사무소(대표:한규봉)案에 대해 2차심사를 벌여 당선작을 결정하였으며 천일건축案은 가작으로 결정하였다.

당선작에 대해 실시설계권이 부여된 경기도립박물관은 금년 중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내년 봄 착공할 예정으로 총 공사비 1백35억7천여만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현상설계경기 공모시 제시된 주요지침과 입상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설계공모 지침

#### • 설계시 주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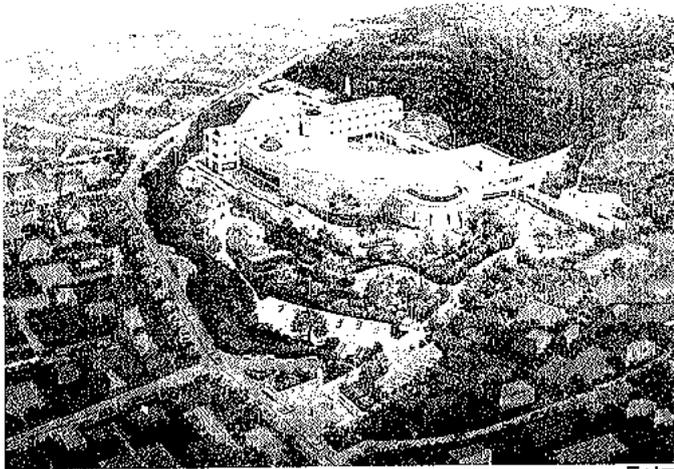
- 1) 경제성  
자연경관등 효율적인 지형이 용과 건물구조의 적의성으로 관리비 절감 및 에너지절약을 할 수 있도록 효율적 판단 설계
- 2) 시설의 규모 및 기능의 적정성  
시설규모와 부대시설등의 기능은 건물규모계획과 전시계획에 의하되 응모자의 적정한 판단을 요함
- 3) 건물배치  
건물의 동수는 1동으로 하되 이용관람자의 편리성 재고
- 4) 건축재료  
경제적 자재로 내구성이 크고 안전한 것을 사용하되 사용이 용이한 국산 KS품을 우선으로 함.

#### • 계획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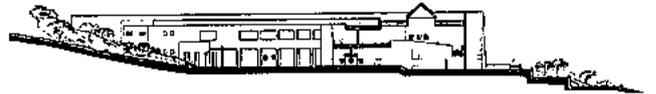
1. 계획대지조건  
-대지위치 :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상갈리 산48번지의 일원  
-대지면적 : 46,167평(33,145㎡)  
-주변환경 :  
○주변 도시지역과의 관계  
○주변의 학교 및 주택지역 관계  
○민속촌 및 경부고속도로등의 가시지역  
○자연수림지대  
○교통편의  
○주변환경의 쾌적
2. 규모 및 구조  
-건물연면적 : 2,715평  
-층 수 : 지하 1층, 지상 1~2층  
-구 조 : 합리적인 구조
3. 옥외시설  
-주차장  
-조경, 녹지, 광장, 휴게공간  
-옥외전시장  
-건물중축에 필요한 공간등

당선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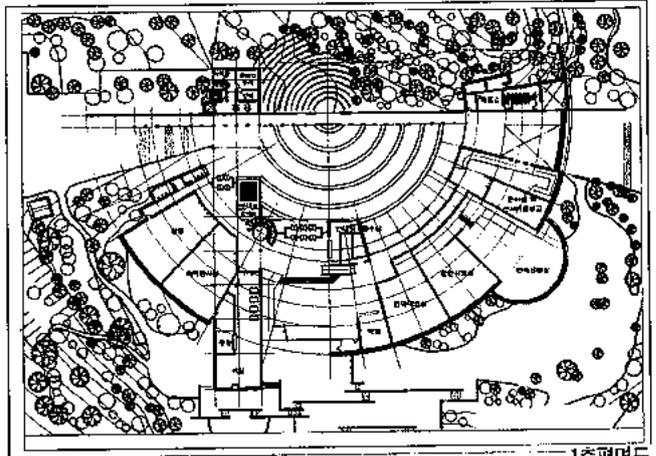
# 공간건축(대표 : 장세양)案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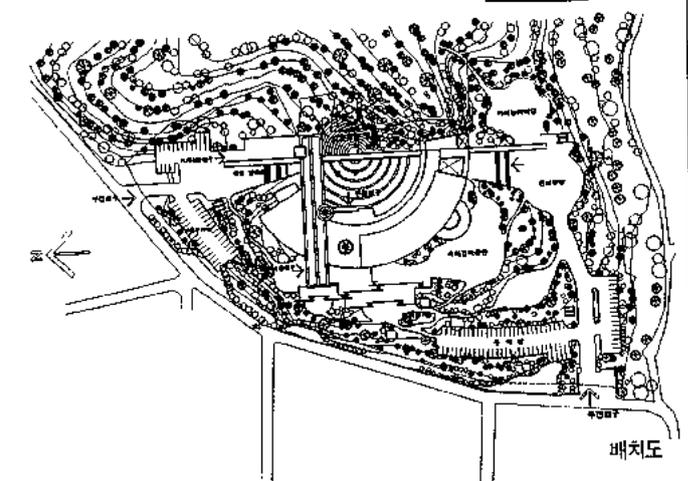
단면도



1층평면도



단면도



배치도

대지위치/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상갈리 산 48번지 외 일원  
 대지면적/33,145㎡(10,026.4평)  
 공원총면적/155,300㎡(46,978.3평)  
 건축연면적/9,100.8㎡(2,753평)  
 건축면적/4,138.8㎡(1,368.2평)  
 건물규모/지하 1층, 지상 3층

주차대수/117대  
 (소형 109대, 대형 8대)  
 주요미감재  
 외부 : 회강석 막쌓기  
 내부 : 인코트  
 구조방식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 ■ 평면 계획 개념

- 연속된 전시실의 한쪽복도에 의해서 각실을 배치한 형식
- 각실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유리한 점
- 필요시 자유로이 독립적으로 폐쇄가능
- 전시공간에서 방향감을 잃지 않도록 연속적인 흐름에서 방향, 거리, 시간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 조형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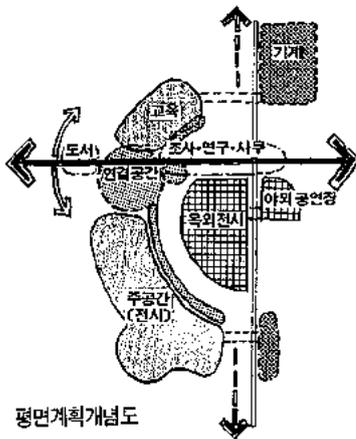
- 수원 성곽(웅성)의 이미지(외부)
- 절서와 절체(내부)

### ■ 단면 계획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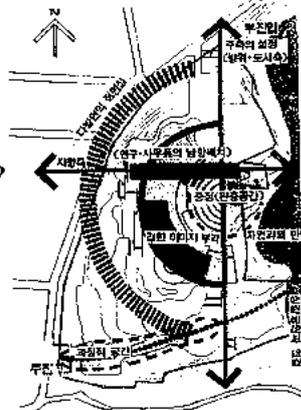
- 지형의 연장과 순응하는 단면
- 공간의 리듬감 강조
- 자연광의 적극도입

### ■ 입면 계획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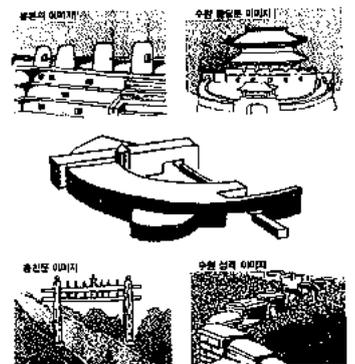
-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로서 강한 상징성 부여
- 기전문화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발휘, 왕도문화의 이미지를 추상화
- 도민의 애향심 고취와 새로운 이미지 창출



평면계획개념도



배치개념도



조형개념도

# KIRA NEWS

가작

## 천일건축(대표:한규봉)案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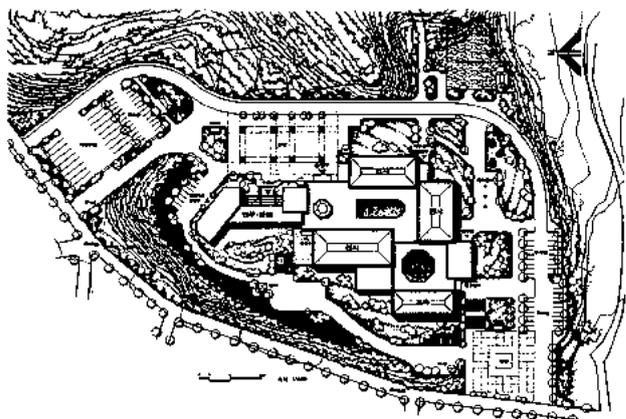
대지위치/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상갈리 산40번지의 일원  
 대지면적/33,145㎡(10,026.36평)  
 건축면적/5,026.92㎡  
 건폐율/15.17%  
 연면적/9,075.3㎡(2,745.2평)

지상층연면적/7,676.30㎡  
 용적률/23.16%  
 층수/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철근콘크리트조  
 외장재료/화강석마감  
 주차대수/88대  
 (소형 70대, 대형 18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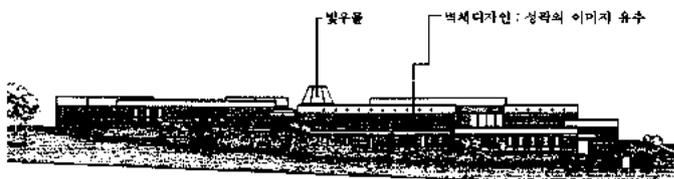
### ■ 평면계획

- 중정형도입
- 반외부공간인 중정내부에 옥외전시 설치로 옥외전시의 내부공간화
- 휴게+전시의 장
- 한국건축의 공간적 관입시도
- 대지 Level 고저차로 인한 각 전시실 Mass의 분절을 중정형 도입으로 결속시킴
- 휴게공간에 진열장을 두어 휴게공간의 전시화
- 로비에서 전시실까지의 관람객의 자연스런 동선유도
- 기획전시실은 전시홀과 접속시켜 이용자들의 편의도모
- 상설전시실은 변화있고 다양한 전시계획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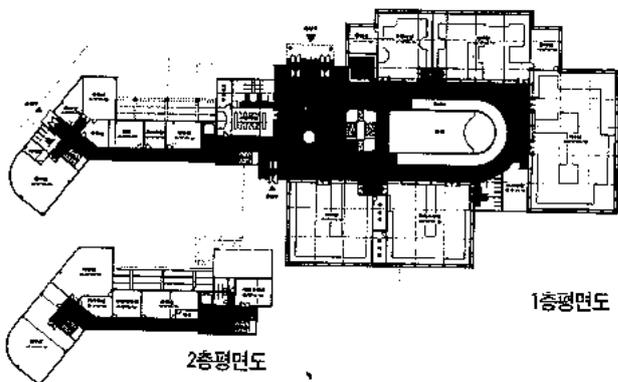
- 강당
- 필요에 따라 강연 외에 간이공연도 할 수 있도록 고정식 의자를 지양하고 이동식 의자를 설치하여 가변성 있는 공간설정
- 간이공연을 고려한 바닥 Pattern 및 천정의 Design
- 장래전시부문 확대를 고려한 중축계획
- 전시관람이 끝나는 곳에 기념품판매대를 두어 이용객 편의도모
- 중정설치로 전시관람의 쾌적함 추구
- 관리직원용 출입구를 전시 관람자 동선과 분리
- 중정에 발코니를 만들어 관람자의 다양한 시각효과와 전시공간 연출



배지도



서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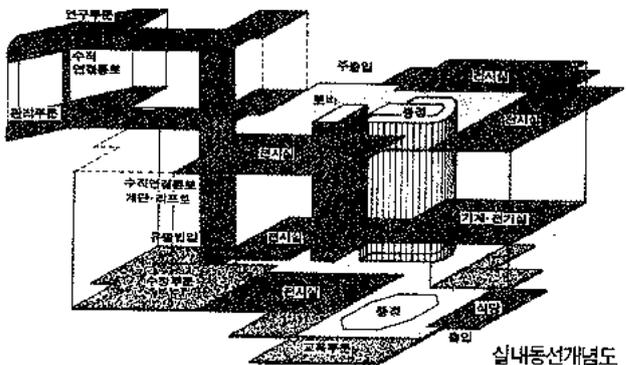


1층평면도

2층평면도



횡단면도



실내동선개념도